月城地域語의
音韻論

崔 明 玉 著

嶺南大學校出版部

月城 地域語의 音韻論

崔 明 玉 著

嶺南大學校 出版部

머 리 말

이 책은 慶北 月城地域語에 대한 通時音韻論과 共時音韻論을 다룬 것이다. 言語學의 研究對象이 自然語이라면 自然語로서의 國語는 方言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國語研究는 諸方言에 대한 연구의 總和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이 책은 쓰여졌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의 연구대상이 된 '月城地域語'는 方言學의 연구대상으로서의 '月城地域語'가 아니라 國語音韻論의 연구대상으로서의 '月城地域語'이다.

言語學理論의 多樣性이 極端化되어 가는 오늘날 그러한 理論들을 좇다가는 '邯鄲의 걸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서투르나마 자기의 걸음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의 言語現象을 넓고 깊게, 그리고 精密하게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國語의 生理를 올바로 把握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하여 얻어진 知識을 바탕으로 할 때, 國語의 諸現象에 대한 우리 자신의 說明方法을 創案할 수 있고 國語學을 國語學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직은 研究經歷이 日淺하여 斷定的인 發言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간의 연구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膠着語인 國語의 音韻現象에는 生成音韻論的인 설명이 不可能한 一面이 存在한다는 것과 어느 한 方言이나 地域語資料를 가지고 國語의 音韻現象을 一般化할 만큼 그렇게 國語가 單純한 것이 아니라는 것 등이다. 著者는 이 책에서 月城地域語를 통하여 그러한 생각을 具體化시켜 보려고 하였다.

이 책이 어떤 評價를 받을 것이며 國語學의 發展에 얼마나 寄與할 수 있을 것인지는 현재 누구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이 있기까지에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았다. 먼저 學問과 學問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

우쳐 주신 恩師 李基文 先生님, 金完鎭 先生님, 安秉禧 先生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大學과 大學院 全課程에 걸쳐 指導敎授로서 애써 주신 金完鎭 先生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 책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전혀 著者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지만 原稿를 읽고 잘못을 指摘하고 助言해 주신 鄭然粲 先生님과 李秉建 先生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著者가 이 길을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助言과 忠告와 指導를 아끼지 않은 李秉根 先生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刊行을 쾌히 승낙해 주신 嶺南大學校의 趙敬熙 總長님과 尹一弘 出版部長께 감사드리며, 嶺南大學校 出版部와 慶北印刷所의 關係者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1982년 4월 12일

著 者

차 례

머 리 말 ……………………………………………………………………………iii
凡 例 ……………………………………………………………………………vii

第1章 緖 論 …………………………………………………………………… 1

第2章 通時音韻論 ……………………………………………………………12

2·1 母音體系의 再構……………………………………………………12
2·2 ʌ의 變化……………………………………………………………31
2·3 e>i …………………………………………………………………36
2·4 o>u…………………………………………………………………38
2·5 母音調和 ……………………………………………………………39
2·6 圓脣母音化 …………………………………………………………51
2·7 前舌高母音化 ………………………………………………………59
2·8 口蓋音化 ……………………………………………………………64
2·9 i母音逆行同化 ………………………………………………………67
2·10 h>k…………………………………………………………………76
2·11 二重母音의 變化……………………………………………………80
2·12 其他 變化……………………………………………………………85
2·13 β(ㅸ), z(ㅿ) ………………………………………………………89

第3章 共時音韻論 ……………………………………………………………97

3·1 基底音韻體系 …………………………………………………………98
3·1·1 音素體系 ………………………………………………………98
3·1·2 韻素體系………………………………………………………101
3·1·3 音素의 資質圖 ………………………………………………102

3·2 音韻變動과 音韻規則 ……102
3·2·1 副詞形語尾 a의 交替……102
3·2·2 滑音化와 長母音化 ……105
3·2·3 母音縮約……110
3·2·4 ε→i ……111
3·2·5 滑音削除……112
3·2·6 wɜ→o ……113
3·2·7 ɜ削除 ……116
3·2·8 前舌高母音化……118
3·2·9 圓脣母音化……120
3·2·10 同音削除……123
3·2·11 短母音化……124
3·2·12 喉音削除……128
3·2·13 完全順行同化……130
3·2·14 鼻母音化와 n, ŋ 削除 ……135
3·2·15 i 母音逆行同化 ……140
3·2·16 t 口蓋音化 ……141
3·2·17 子音中和……142
3·2·18 子音同化……146
3·2·19 子音群 單純化 ……152
3·2·20 流音削除……157
3·2·21 變則活用……158
第4章 結 論 ……178
參考論著……181
索 引……195
◇ 附錄：音韻調査項目 ……203

凡　　例

1. 参考論文과 著書는 本文에서 筆者名 뒤에 刊行年度만 괄호 속에 넣어 표시하며 引用되는 페이지 수는 刊行年度 뒤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巻末에 그 目録을 作成하여 둔다.

2. 이 책에서 자주 言及되는 '音素'라는 術語는 segment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며 音素表示(phonemic representation)와 音聲表示(phonetic representation)에는 同一 字母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p/, /t/, /k/는 有聲音 사이에 있을 때 각각 [b], [d], [g]로 표시하고 /l/은 모음 사이에 있을 때 [r]로 표시한다. 이 책에 사용된 音素 및 音聲 字母는 다음과 같다.

   /p/(ㅂ)[p], [b]　　/p'/(ㅃ)[p']　　/pʰ/(ㅍ)[pʰ]

   /t/(ㄷ)[t], [d]　　/t'/(ㄸ)[t']　　/tʰ/(ㅌ)[tʰ]

   /s/(ㅅ)[s]　　/s'/(ㅆ)[s']

   /c/(ㅈ)[c]　　/c'/(ㅉ)[c']　　/cʰ/(ㅊ)[cʰ]

   /k/(ㄱ)[k], [g]　　/k'/(ㄲ)[k']　　/kʰ/(ㅋ)[kʰ]

   /m/(ㅁ)[m]　　/n/(ㄴ)[n]　　/ŋ/(ㅇ)[ŋ]

   /l/(ㄹ)[l], [r]　　/h/(ㅎ)[h]　　/ʔ/(ㆆ)[ʔ]

   /j/(*j*ə-u〈여우狐〉에서의 *j*)[j]　/w/(*w*ən〈원圓〉에서의 *w*)[w]

   /i/(ㅣ)[i]　　/ɛ/(ㅔ/ㅐ)[ɛ]　　/ɜ/(ㅡ/ㅓ)[ɜ]

   /u/(ㅜ)[u]　　/o/(ㅗ)[o]　　/a/(ㅏ)[a]

3. 聲調表示 : 해당 음절 모음 위에 ´로써 高調(H)를 나타내며 ´가 없는 음

절은 低調(L)를 나타낸다. e.g. [sóri] [HL](聲)

4. 長母音은 같은 모음을 反復하여 나타낸다. e.g. /saalam/(사람)

5. 이 책에 사용된 記號나 略號는 다음과 같다.

① * 再構形

② ‡ 誤形

③ σ 音節

④ † 形態素境界

⑤ ♯ 單語境界

⑥ / / 音素表示(phonemic representation) e.g. /cap+ɜnik'anɛ/ (잡+으니까)

⑦ [ ] 音聲表示(phonetic representation) e.g. [cabṹĩk'anɛ]

※ 특별한 경우 以外에는 / /나 [ ]는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화살표(→) 뒷쪽은 / /를, 앞쪽은 [ ]를 나타낸다.

⑧ ＞또는＜ 通時的 變化 e.g. a>b 또는 b<a (a는 b로 변한다)

⑨ → 共時的 變動 e.g. a→b (a는 b로 交替된다)

⑩ ～ 鼻音 e.g. [ũ] (鼻母音 u)

⑪ X, Y 變數(variables)

⑫ N 名詞

⑬ V_{st} 動詞語幹

⑭ C 子音

⑮ V 母音

⑯ *i* 同一함(identity)

⑰ DRVD (～에 의하여) 導出된(derived). e.g. t→lRule DRVD (t가 l로 되는 규칙에 의하여 導出된)

6. 이 책에 사용된 文獻 略號는 다음과 같으며 出處는 文獻略號 뒤에 卷次와 張次(單卷인 경우에는 張次만)를 記入하여 밝힌다.

雞	: 雞林類事	朴重	: 朴通事諺解重刊	柳物	: 柳氏物名考
金삼	: 金剛經三家解	번小	: 飜譯小學	字會	: 訓蒙字會
老	: 老乞大諺解	석	: 釋譜詳節	朝	: 朝鮮館譯語
능	: 楞嚴經諺解	小언	: 小學諺解	解例	: 訓民正音解例
杜초	: 杜詩諺解初刊	용	: 龍飛御天歌		
朴초	: 朴通事諺解初刊	月	: 月印釋譜		

e.g. 月九 57: 月印釋譜 九卷 57張

第1章 緒　　論

1·1 '標準語'는 한 나라에서 使用되는 言語의 標準을 삼기 위하여 人爲的으로 制定한 言語이다. 물론 實在하는 言語(諸方言)를 바탕으로 하여 制定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전히 人工語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標準語는 實在하는 어느 方言과도 同一한 말은 아니므로 일종의 抽象的 言語라고 할 수 있다(李熙昇 1947 : 125). 우리가 現在 使用하고 있는 標準語도 비록 서울말을 중심으로 制定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상당수의 지방말이 포함되었으므로 순수한 서울말은 아니다. 더우기 標準語가 發表된 1936年 以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울말은 격심한 변화를 겪어 왔으므로 오늘의 서울말은 標準語가 發表된 당시의 서울말과는 매우 다르며, '서울말'이라는 基準조차 애매한 實情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는 標準語는 現實語와는 더욱 乖離된 抽象的 言語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標準語는 現代國語가 될 수 없으며 學問的인 面에서 現代國語의 研究對象이 될 수도 없다.[1] 言語學의 研究對象을 自然語라고 할 때, 自然語로서의 國語

1) 從來에 이런 사실을 看過하고 個別 地域語의 音韻現象을 標準語와 對應시키는 研究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洪淳鐸, 李敦柱(1974), 崔鶴根(1976, 1980) 等. 예컨대 標準語로서는 '光', '花'의 뜻을 가진 語詞가 각각 pic^h과 $k'oc^h$의 基底形을 가지지만 서울을 포함하는 中部方言의 경우에 그것들의 基底形은 pis과 k'os이다. 이 경우에 標準語는 中部方言과 다르다. 따라서 個別 地域語와 標準語를 對應시키는 研究는 中部方言과의 比較研究도 될 수 없는 것이다.

는 方言으로 構成되므로 現代國語의 硏究는 現代의 諸方言에 대한 硏究의 總和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2)]

現代國語의 音韻論的 硏究가, 단순히 音韻目錄의 確認을 벗어나서, 音韻現象과 音韻過程(phonological processes)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70年代에 들어와서의 일이 아닌가 한다.[3)] 그로부터 10餘年이 지나면서 이 方面의 연구는 量的인 面에서 결코 적었다고 할 수 없으며 質的인 面에서 또한 눈부신 바가 있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러한 硏究는 一部 地域語에 대한 個別現象 내지 몇가지 現象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어느 한 地域語의 音韻現象을 전반적으로 硏究할 機會를 가지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硏究가 시작된 것은 극히 최근에 와서의 일이다.[4)]

그러므로 지금 같은 實情으로는 方言 相互間의 音韻論的 比較나 方言 相互間의 個別 音韻現象의 比較가 不可能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方言 相互間의 母音對應조차 把握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사실은 國語의 音韻現象을 共時的으로 硏究함에 있어서 個別方言이나 個別地域語에 대한 硏究는 可能하여도 國語 全體를 一般化할 수 있는 硏究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諸方言을 包括하는 國語 音韻論이 論議되기 위해서는 個別方言에 대한 音韻硏究가 均衡있게 이루어진 뒤에라야 可能할 것이며 그러한 硏究의 結果 위에서라야 비로소 音韻面에 있어서 國語의 一般性과 各方言의 特殊性이 무엇인지를 論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이 책에서는 '方言'과 '地域語'를 區別하여 使用한다. 前者는 東南方言, 西南方言, 中部方言 等 方言區劃이 뚜렷한 大單位方言圈內의 言語를 總稱하는 뜻으로 使用하며 後者는 方言區劃과는 상관 없이 어느 한 地域의 言語를 指稱하는 뜻으로 使用한다.

3) 金鎭宇(1970), 金完鎭(1972), 李翊燮(1972a), 李秉根(1973) 等이 그 方面의 先驅的業績이라 할 것이다.

4) 이병건(1976), 崔明玉(1979, 1980a), 李丞宰(1980)이 그와 같은 目的에서 硏究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以上과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月城地域語(앞으로 '月城語'라 稱한다.)에 대한 通時的·共時的 音韻研究를 目的으로 叙述된다. 著者가 이 책에서 共時的 音韻研究와 더불어 通時的 音韻研究를 함께 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地域語(또는 方言)의 研究에서 한번은 試圖되었어야 할 그러한 研究가 全無하다는 데 대한 著者 스스로의 覺醒에 基因하거니와,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이유는 地域語의 通時的·共時的 音韻研究를 위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보려는 데 있다. 地域語에 대한 通時的 音韻研究는 國語 音韻史에 대한 폭넓은 理解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共時的 音韻現象에 대한 올바른 理解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도 아직 우리는 그 방면의 포괄적인 研究를 위하여 参考할 수 있는 뚜렷한 業績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1·2 月城郡은 慶尚北道의 一郡으로 원래 慶州郡이었는데 慶州邑이 市로 昇格됨에 따라 종래의 郡名을 改稱하여 붙인 이름이다. 역사적으로 遡及하면, 新羅의 中心部로서 新羅가 高麗에 併合되기까지 約 10世紀間의 新羅 統治의 中心地였으며 新羅가 三國을 統一한 以後 3世紀 동안 韓半島 統治의 中心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외에 우리가 看過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이 곳이 바로 現代國語의 發祥地라는 것이다. 新羅가 高麗에 併合되고 政治·經濟·文化의 中心地가 金城(慶州)에서 開京(開城)으로 옮겨지면서 이 지역은 역사의 後面으로 물러나고 말았지만 이 지역에서 발생된 言語는 高麗와 李朝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繼承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國語研究에 있어서 이 지역의 言語는 마땅히 注目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共時的인 研究는 그만두더라도, 小倉進平(1940 : 4) 以後 지금에 이르기까지 國語史研究를 위한 補助로서의 方言研究가 그토록 强調되어 왔으면서도 이 지역어에 대한 綜合的인 調査·研究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그 동안 이 지역어

가 國語研究의 관심에서 얼마나 疎外되고 있었는지 잘 말해준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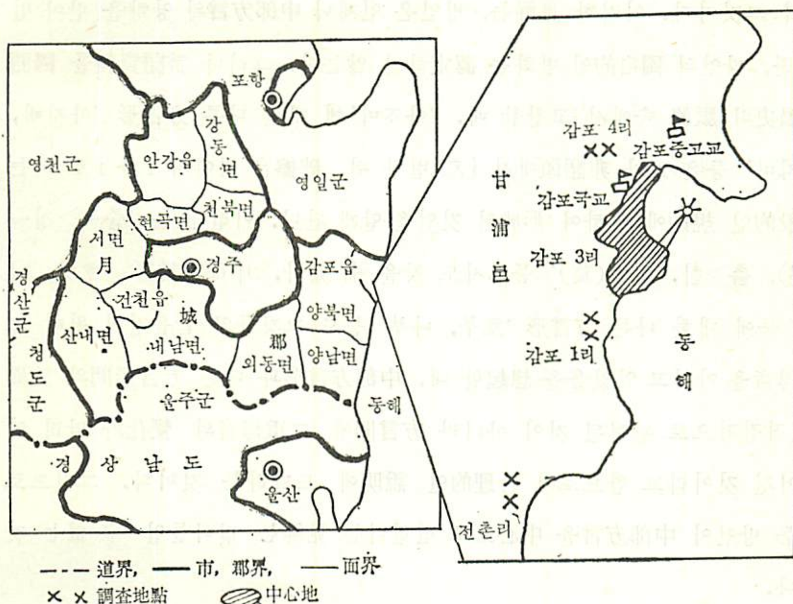
新羅가 建國된 이후 二千餘年이 지나고 新羅가 망한 이후 千餘年이 지난 지금 당시의 新羅語(古代國語)가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고는 期待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지역어가 그 동안 어떠한 變化를 겪어 왔으며 共時的으로는 다른 지역어와 어떠한 共通點과 相違點을 가지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 책에서 이 지역을 研究對象地로 택하고 이 지역어의 音韻樣相을 通時的·共時的으로 考察해 보려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月城郡은 경상북도의 東南에 위치하며 동쪽은 東海에 접하고 동북쪽은 迎日郡, 서쪽은 慶山郡과 淸道郡, 남쪽은 경상남도의 蔚州郡에 접한다(지도 참조). 郡의 東部에는 장기산맥이 海岸에 바짝 붙어 있고 西部에는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다. 中部에는 兄山江 地溝帶가 발달되어 이 지구대를 따라 흐르는 형산강이 그 유역의 安康邑, 乾川邑, 內南面 등에 넓은 平野를 形成하고 있다. 이리하여 月城郡은 地形上으로 東部山地, 中央平原, 西部山地로 區分된다. 이 책을 위한 資料調査地域은 東部山地에 있는 甘浦邑이다. 崔明玉(1980b)에서의 研究 結果 이 지역어가 郡內의 다른 지역어에 비하여 이 책의 研究目的에 適合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甘浦邑에서 주된 資料調査地點은 400餘年의 역사를 가진 甘浦 4里(農村)로 하고 甘浦 1里, 典村里, 台本 3里(以上漁村)를 副調査地點으로 하였다.[6)]

---

5) 물론 小倉進平(1940, 1944), 河野六郞(1945) 等 國語音韻史研究를 위한 글에 이 地域語가 部分的으로 言及되기는 하였다. 그리고 李尙烈(1956, "慶州方言의 口蓋音化否認"「국어국문학연구논문집」(경북大) 1)과 任桓(1966, "方言研究—慶州地方을 中心해서—"「文湖」(建國大) 4)가 있으나 體系的인 研究와는 거리가 멀다. 共時的記述에 의한 것으로서 副詞形語尾 a의 音韻現象을 볼 수 있는 것으로는 徐在克(1969)가 있으며 崔明玉(1980b)는 通時的記述에 의하여 이 地域語의 音韻變化를 包括的으로 다루고자 한 것이다.

6) 일반적으로 農村語와 漁村語 사이에는 상당한 差異가 있지만 이들 調査地點의 言語 사이에는 이렇다할 差異가 發見되지 않았다.



<月 城 郡>

1·3 한 言語(또는 方言 또는 地域語)에 대한 音韻研究는 通時的 研究와 共時的 研究로 구분된다. 前者는 그 言語가 時間의 흐름과 並行하여 경험한 音韻變化에 대한 연구이며 後者는 現存하는 音韻變動에 대한 연구이다.

月城語의 音韻變化를 研究함에 있어서 이 方面에 대한 旣往의 研究에서 發見되는 한두가지 問題點을 指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모든 方言(또는 地域語)의 音韻變化를 標準語 내지는 中部方言을 基準으로 하여 說明하는 것이다. 예컨대, 中部方言의 '아주머니'(叔母)는 다른 方言에 '아지매, 아지미'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語詞의 古形이 '아ᄌᆞ미'이므로 둘째 음절의 ʌ가 u로 변하고 다시 다른 방언에서 i로 변했다고 보거나 中部方言의 '호미, 메밀, 나비' 등은 다른 방언에서 '호무, 메물, 나부' 등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방언의 둘째 음절 u를 i에서 변했다고 보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방언은 언제나 中部方言의 영향을 받아 변할 뿐, 방언의 獨自的인 변화는 認定하지 않는다. 그러나 言語資料를 國語音韻史의 脈絡 속에서 고찰할 때, '아즈미'에 대한 다른 方言形 '아지매, 아지미' 등은 ʌ가 非語頭에서 i로 변한 뒤, 破擦音 뒤에서 i가 i로 되는 一般的인 規則에 의하여 形成된 것임을 알게 된다. 이런 例는 '즐ㅡ>질ㅡ(泥), 츩>칡, 칠기(葛)'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中部方言形 '호미, 나비' 등에 대한 다른 方言形 '호무, 나부' 등도 그것들의 끝음절이 원래 二重母音을 가지고 있었음을 想起할 때, 中部方言形과 다른 方言形間의 差異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 方言間에 二重母音의 變化가 달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함으로써 合理的인 說明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방언이 中部方言을 中心으로 변한다는 見解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言語는 항상 변한다.[7] 變化의 本質은 變化 前後의 實在를 비교함으로써만이 이해된다. 그러므로 한 言語의 通時的 硏究를 위해서는 그 言語의 과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資料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변화의 정확한 時期를 究明하는 類의 연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音韻變化는 規則的이며 우리가 관찰할 수 있건 없건간에 모든 音韻變化는 同時에 發生하는 것이 아니라 一定한 順序에 따라 發生한다는 歷史言語學의 知識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 言語의 形態素內部에 化石化되어 있는 음운변화의 結果들을 비교하거나 그러한 結果를 여러 방언을 통하여 서로 비교한다면, 비록 변화의 정확한 時期를 말할 수는 없어도 그들 변화가 發生된 先後關係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예컨대, 東南方言에서 k 구개음화와

7) 이 책에서 著者는 言語變化를 規則의 變化라고 보는 歷史 生成音韻論的인 見解를 따른다. 그리하여 言語를 變化시키는 일련의 變化는 規則의 添加, 規則의 喪失, 規則適用順序의 再配列, 規則의 單純化에 의한 것이며 再構造化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R. King 1969).

i 모음역행동화가 발생한 정확한 時期는 말할 수 없으나 당연히 구개음화 규칙이 적용될 위치에 있는 'kíĺí-'(畵)의 k가 구개음화를 外面하고 있다는 것과 이 動詞가 다른 방언에서는 'kili-'라는 것을 고려할 때 k구개음화현상이 i 모음역행동화현상보다 먼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言語는 時間과 並行하여 變化한다는 사실에 立脚할 때, 설령 15世記 國語가 아무리 큰 方言差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中部方言은 '대체로' 18世紀나 19世紀의 모든 國語方言보다 古代國語에 더 가까웠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8] 15世紀 以後의 國語는 ʌ>a, ʌ>i, 구개음화, 硬音化, i 모음역행동화, 非語頭音節에서의 o>u 等 실로 많은 音韻變化를 겪었는데 15世紀 中部方言은 그러한 變化를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國語의 참모습을 가장 分明하게 보여주는 後期 中世나 近代 中部方言의 文獻 資料를 比較를 위한 한 基準으로 定하고 여기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國語音韻史研究의 業績을 참고하며 內的 再構(internal reconstruction)와 方言 相互間의 比較에 의하여 音韻變化를 연구할 수 있다.

한 言語의 共時的 音韻變動은 音韻體系를 共有하는 地域語間에도 많은 差異를 보인다. 東南方言의 下位方言 가운데서 경남의 三千浦語와 경북의 大津語는 同一한 母音體系(i, ɛ, ɜ, u, o, a)를 가지며 子音體系에 있어서는 s'가 大津語에서 音素的 機能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 외에는 同一하다. 그러나 두 지역어는 다음과 같은 音韻變動의 차이를 보인다.

標準語	三千浦語	大津語
(ㄱ) ki+ko (匍匐)	kigo	kigo

8) 여기서 '대체로'라는 말을 使用한 것은 訓民正音創製 當時의 中部方言보다 더 古形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예컨대 15世紀 中部方言에서 β(ㅸ)를 보이지 않는 語詞들이 그 以前 時期에 β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證據들이 東南方言 等에서 發見되기 때문이다(2·18 참조).

(ㄴ) ki+əto	kíído	kɛ́ɛ́do
(ㄷ) nal+ko (飛)	nálgo	nágo
(ㄹ) nal+ɨmjən	nálmon	námo
(ㅁ) nal+əto	nárado	nárado
(ㅂ) pus+ko (注)	púkk'o	púkk^{h}o
(ㅅ) pus+ɨmjən	puúmon	púumo
(ㅇ) pak'u+ko (換)	pak'úkk'o	pak'úkk^{h}o
(ㅈ) pak'u+əto	pak'ɑ́ɑ́do	pak'áado

(ㄱ)과 (ㄴ)을 비교하면 두 지역어가 동일한 基底形 ki-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ㄴ)의 차이는 三千浦語가 語尾 a의 完全順行同化規則을 적용받은데 비하여 大津語는 滑音化(kjəəto)와 母音縮約(kɛɛto)의 두 규칙을 차례로 적용받은 결과라고 설명된다. (ㄷ), (ㄹ), (ㅁ)에 대해서도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다. (ㅁ)은 두 지역어가 동일한 基底形 nál-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三千浦語와는 달리, 大津語에는 子音으로 시작되는 모든 語尾 앞에서 語幹末子音 l이 削除되는 規則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ㄹ)과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며 (ㄹ)에서의 차이도 語幹末子音 l 뒤에서 語尾의 頭音 ɨ가 削除되고 그 다음에 大津語에서는 子音語尾 앞에서 l이 삭제되는 規則을 적용받음으로써 결과된 것이라고 설명된다.

(ㄴ)과 (ㄹ)과는 달리 (ㅂ)과 (ㅇ)에 있어서의 차이는 규칙의 차이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차이는 두 지역어가 서로 다른 基底形을 가지는 데서 基因하는 것이다. 우리는 (ㅅ)과 (ㅈ)을 참조함으로써 三千浦語는 púʔ-와 pak'úʔ-라는 基底形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大津語는 púh-와 pak'úh-라는 基底形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한 言語(또는 方言 또는 地域語)의 共時的 音韻現象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音韻目錄의 確認만으로는 不可能하며 그 言語의 形態素나 形態素의 結合體가 基底形에서 音聲形까지 導出되는 音韻過程에 대한 研究에 置重해야 할 것을 말해준다. 月城語의 音韻變動에 대한 研究는 그러한 思考의 바탕 위에서 進行될 것이다.

이 책에서 著者는 以上과 같은 研究方法에 의하여 月城語에 대한 音韻論的 研究를 행할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個別規則이 가지는 意味와 規則 相互間의 關係는 물론 通時的 音韻規則과 共時的 音韻規則間의 關係에 대해서도 注目할 것이다.

1·4 地域語의 研究를 위해서는 現地調査를 통하여 資料를 蒐集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研究를 위한 資料 調査項目의 모델이 없는 우리 學界의 實情으로서는 어떤 資料를 調査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이 책에 利用된 資料는 다음의 基準에 의하여 作成된 調査項目을 통하여 蒐集된 것이다.

音韻變化의 研究를 위한 조사항목은 종래의 方言研究가 지니고 있던 限定된 主題—後期 中世語 β, z, γ에 대한 方言形의 확인, 口蓋音化, i모음 역행동화 等—를 脫皮하여 國語音韻史研究나 共時的 音韻現象의 理解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選定되었다. 그 基準은 그 동안 研究業績이 蓄積된 音韻史研究의 結果에다 두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方言 相互間의 音韻變化에 대한 비교가 可能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이 조사항목의 폭을 넓힘으로써 個別方言의 독자적인 音韻變化도 發見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共時的 音韻研究는 形態素 또는 形態素의 結合이 基底形에서 音聲形으로 導出되는 音韻過程에 대한 說明에 그 目的이 있으므로 이 目的을 위한 조사항목은 曲用과 活用을 통하여 月城語에 存在하는 多樣한 音韻現象을 蒐集할 수 있도록 選定되었다. 이렇게 選定된 항목은 모두 약 2,000개로 그 중 358개의 動詞에 대하여는 活用形이 調査되었다. 그런데 개별

항목의 調査에는 그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通用되는 語形이 蒐集되지 않을 可能性이 많으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說話를 담은 自然語를 따로 採錄하여 참고자료로 利用하였다.

이 책을 위하여 資料를 提供해 준 提報者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조사 지점명	성 명	연령	성별	직업	학력	거주경력	결혼관계	기 타	조사 년도
감포 4리	허만필	59	남	농업	무	兵役 5年 以外는 出生後 계속 조사지에서 거주	妻는 양북면(舊 甘浦 소속)토박이	현거주지에서 4代째 거주	1981
〃	김봉구	61	여	〃	무	出生後 계속 거주	남편은 5代째 조사지에서 거주	친정도 조사지점과 동일 4代째 거주	〃
〃	김미숙	24	〃	무	고졸	출생후 계속 거주	미 혼	父母 모두 甘浦生	〃
감포 1리	전학출	61	남	무	무	出生이후 계속 거주	妻 甘浦生	4代째 거주	1980
〃	김재룡	34	〃	〃	고졸	兵役 3년以外 계속 거주	〃	5代째 거주	〃
〃	이동호	21	〃	학생	고재	출생이후 계속 거주	미 혼	父母 甘浦生	〃
〃	손영태	20	〃	〃	고재	〃	〃	〃	〃
전 촌 리	김만갑	69	〃	무	무	〃	妻 甘浦生	5代째 거주	〃
대본 3리	주영준	62	〃	농업	漢學	〃	妻 甘浦生	8代째 거주	1981

1·5 이 책의 構成과 內容은 다음과 같다. 第2章에서는 通時音韻論 대하여 叙述한다. 音素의 變化를 통하여 月城語의 母音體系를 再構하고 母音調和, 口蓋音化, i母音逆行同化, 前舌高母音化, h의 軟口 蓋音化, 二重母音의 單母音化 等을 考察한다. 단순히 諸變化를 支配하는 個別規則을 發見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規則相互間의 關係와 中部方言의 音韻史와의 關係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第3章에서는 共時音韻論에 대하여 叙述한다. 曲用과 活用, 그리고 形態素內部에서 發見되는 音韻變動을 통하여 基底形을 찾고 基底形에 적용되어 諸變動을 支配하는 音韻規則에 의하여 音韻過程을 說明하는 것이 이

章의 內容이 된다. 여기서도 個別規則은 물론이고 規則 相互間의 關係에 대하여 關心을 가질 것이며 第2章에서 發見된 通時的 音韻規則이 共時的 音韻規則에 어떻게 反映되는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注目할 것이다.

끝으로 第4章은 結論으로서 앞에서 叙述된 內容을 要約하는 데 提供될 것이다.

第2章　通時音韻論

2·1　母音體系의 再構

現代國語에서 諸方言間의 音韻體系를 비교할 때 母音體系의 差에 비하여 子音體系의 差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月城語를 포함한 東南方言의 北部地域語에 s'가 音素的 機能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커다란 차이가 될 것이다. 月城語가 前段階에 어떠한 子音體系를 가졌던가 하는 것은 바로 古代國語의 子音體系의 問題라 하겠는데 그 問題에 대한 解答은 β, z, γ 等 有聲摩擦音이 古代國語에 存在했던가의 與否를 證明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도 論議의 對象으로 남아 있으므로 子音體系의 再構는 課題로 남긴다.[1] 이 책에서 母音體系만을 再構하는 것은 그러한 理由 때문이다.

月城語의 音韻變化를 고찰하기에 앞서 母音體系를 먼저 再構하는 이유는 音韻變化를 體系의 變化 속에서 把握하려는 생각에서이다.[2] 또 하나의

1) β(ㅸ)와 z(△)에 대한 研究는 李崇寧(1954a, 1956), 南廣祐(1962), 朴炳采(1968), 李基文(1972a), Ramsey (1978), 崔明玉(1979) 等을 참조할 것.

2) 音韻變化의 대부분은 母音의 變化이며 子音의 變化는 극히 一部라고 할 수 있다. 이 一部의 子音變化는 子音體系를 再構하지 않고도 說明될 수 있다.

重要한 이유는 月城語의 母音體系의 變化가 東南方言 以外의 다른 방언—主로 中部方言과 다르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東南方言과 中部方言에서 發見되는 매우 큰 音韻變化와 音韻變動의 差異를 惹起시킨 要因을 究明하려는 데 있다.

母音體系의 再構는 內的 再構와 方言 相互間의 比較에 의하여 可能해진다.

2·1·1 單母音

2·1·1·1 *ɨ와 *ə

現代 中部方言에서 音素的 對立을 보이는 ɨ와 ə는 月城語의 з와 對應된다. 그러나 現代에 앞서는 어느 段階에서는 그것들이 月城語에서도 音素的 對立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中部方言의 pjəsil(官), s'ɨlkɛ(膽), s'ɨli-(痛), s'ɨləci-(靡)에 대한 月城語의 pέsil, sɨ́lkέ, sɨ́li-, sɨ́láci-와 中部方言의 səli(霜), sə-(立)에 대한 月城語의 sз́li, sз́-에서 그런 사실을 立證할 수 있다. 前者의 語詞들에서 月城語는 中部方言의 ɨ에 대하여 i로 對應되고 後者의 語詞들에서 月城語는 中部方言의 ə에 대하여 з로 對應된다. 만약 月城語가 先行時期에 ɨ와 ə의 對立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差異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밖에 中部方言의 kɨli-(畵), tɨli-(獻)와 月城語의 kɨ́lɨ́-, tɨ́lɨ́-, 中部方言 cəli-(加鹽), pəli-(廢)와 月城語의 cέli-, pέli-에서 中部方言 ɨ와 ə에 月城語 i와 ε가 각각 대응되는데 그것은 i母音逆行同化規則의 적용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칙이 적용되기 전에는 中部方言 ɨ와 ə에 대한 月城語의 i와 ε가 각각 ɨ와 ə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ɨj>i, əj>e (>ε)는 國語音韻史에서 보면 자연스런 變化規則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사실에 의하여 *ɨ와 *ə가 再構된다.

2·1·1·2 *e와 *ɛ

現代 中部方言의 e와 ɛ는 二重母音 əj와 aj가 각각 單母音化하여 형성된 것인데 (李崇寧 1949, 1954b, 許雄 1952) 이들 音素는 月城語에서 對立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中部方言 pe(布), t'e(群), tʰe(輪)나 kɛ(犬), pɛ(腹), t'ɛ(時) 等에 대한 月城語는 각각 pɛ, t'ɛ, tʰɛ́와 kɛɛ, pɛ, t'ɛ가 된다. 그런데, 中部方言에 e를 가진 많은 語詞들, 예컨대, se(三), seː-(强), peː-(斬), meː-(擔) 等에 대하여 月城語는 각각 sii, síi-, pi-, míi-로 대응된다. 이에 비하여 中部方言의 ɛ에 대하여 月城語는 거의 例外없이 ɛ로 대응된다. 中部方言 : sɛː (鳥), tɛ(竹), p'ɛː-(拔), mɛː-(結) 月城語 : sɛ, tɛ, p'ɛ-, mɛ́-.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e와 *ɛ가 再構될 수 있다.

2·1·1·3 現代 月城語가 가지고 있는 i, ɛ, ɜ, u, o, a의 6母音體系에서 ɛ와 ɜ가 再構에 의하여 각각 e, ɛ와 ɨ, ə로 분리되므로 우리는 現代에 직접 先行하는 段階에서 月城語가 i, e, ɛ, ɨ, ə, u, o, a의 8母音體系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1·1·4 *ʌ

月城語에도 ʌ가 있었는지는 現代 月城語로써는 쉽게 대답할 수 없다. 그러나 母音調和規則을 利用함으로써 月城語에 ʌ가 있었음을 立證할 수 있다. 月城語의 母音調和에 대해서는 後述할 것이지만 다음의 例들은 月城語에도 母音調和가 있었음을 否認할 수 없게 한다. 後期 中世語 : patah(海), patak(底), askap-(惜), natʰana-(顯) 中部方言 : pata, patak, ak'ap-, natʰana- 月城語 : páta, pátak, ak'áp-, nátʰana- 後期 中世語: kilis(器), kinil(陰), kimil(網), mikəp-(重), kjəncu-(比) 中部方言 :

kiɨis, kinil, kimul, mukəp-, kjəncu- 月城語 : kɜ̀lɜk, kɜnɜ̀l, kɜ̀múl, mukɜ́p-, cɜncúh-. 이들 語詞에서 中部方言과 月城語는 後期 中世語 a∼a에 대하여 동일하게 a∼a로 대응되고 後期中世語 i∼i, i∼ə, ə∼u에 대하여 中部方言은 i∼i, i∼u, u∼ə, ə∼u로, 月城語는 3∼3, 3∼u, u∼3, 3∼u로 대응되어 母音調和를 보인다.

두 段階에 걸친 ʌ의 消失 以後 形態素內部에서 엄격하게 지켜지던 後期 中世語에서의 모음조화는 심하게 파괴되었다.[3] 그리하여 atʌl(子), manʌl(蒜), kʌnʌl-(細), tatʌm-(整) 等은 中部方言과 月城語에 각각 atil, manil, kanil-, tatim-과 átɜl, mánɜl, kánɜ̀l-, t'átɜm-으로 나타난다. 이들 語詞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後期 中世語 a∼ʌ, ʌ∼ʌ에 대하여 中部方言은 a∼i로, 月城語는 a∼3로 대응된다는 사실이다. ʌ의 消失 結果 非語頭音節의 ʌ는 i로, 語頭音節의 ʌ는 a로 변하였다는 사실을 勘案하면 中部方言과 月城語는 그러한 변화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지금까지의 叙述을 月城語에 逆으로 적용시키면 後期 中世語 ʌ에 대응하는 3는 모음조화규칙에 의하여 *a가 아니면 *ʌ로 再構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後期 中世語에서 非語頭音節의 a는 月城語에 그대로 대응되므로 이때의 3는 *ʌ로 再構된다.

2·1·1·5 現代 中部方言의 e와 ɛ는 ʌ가 存在하던 時期에는 二重母音이었으며 그 音價는 각각 əj와 aj였다(李崇寧 1949, 1954b, 許雄 1952). 그것은 月城語에서도 同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二重母音의 單母音化와 ʌ의 消失 以前에는 單母音 e와 ɛ는 存在하지 않았으므로 그 時期의 月城語는 i, u, ɨ, ə, o, ʌ, a의 7母音體系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3) ʌ의 消失에 대하여는 李崇寧(1954c), 金完鎭(1963), 李基文(1972a) 等을 참조할 것.

2·1·2 二重母音

2·1·2·1 7母音體系 時期의 二重母音

單母音體系의 再構 結果 二重母音의 單母音化와 ʌ의 消失 以前의 月城語는 後期 中世의 中部方言과 同一한 7母音體系(i, u, ɨ, ə, o, ʌ, a)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時期의 中部方言의 二重母音은 다음과 같다(李基文 1979).

(ji)	ju	jo	ij	uj	oj	wi	(wu)	(wo)[4]
(jɨ)	(jʌ)		ɨj	ʌj		wɨ	wʌ	
jə	ja		əj	aj		wə	wa	

以上에서 ( )속의 것은 '빈간'(case vide)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들 二重母音을 基準으로 하여 ʌ를 포함하는 7母音體系를 가진 당시의 月城語의 二重母音을 再構하고자 한다. 그런데 위의 二重母音 중에서 ju, jo, jə (>jɜ), ja와 wa는 現代 月城語에 存在하므로 再構對象에서 除外된다.[5]

이 밖의 二重母音 중에도 再構가 不可能한 것들이 있다. ji, jɨ, ɨj, wɨ,

4) 二重母音의 轉寫에 대하여는 金完鎭(1964)를 참조할 것.

5) ɨ와 ə는 月城語에서 ɜ로 中和되었기 때문에 二重母音 jɨ의 存在를 確認할 수 있는 證據는 月城語에서 發見되지 않는다. 現在 江陵地域語에 jɨ가 存在한다고 報告된 바 있으나(李翊燮 1972a) 語頭에서 長音을 同伴하고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疑問의 餘地를 남긴다. 李秉根(1976 : 5)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jɨ:는 19世紀 中部方言에서 발생된 語頭에서 ə:의 上昇規則에 의하여 jə:로부터 變化되었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長音을 同伴하지 않는 例가 發見될 때까지 jɨ의 存在를 認定하기를 筆者는 保留한다. 그래서 月城語는 二重母音 jɨ를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며 그 경우에 現代 月城語의 二重母音 jɜ는 jə로 遡及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現代 月城語의 二重母音 wi는 uj>ü>wi의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15世紀 中部方言이 가졌던 二重母音 wi와는 다르다.

wu, wi, wo, wʌ 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ji 와 ij 는 前後 音素가 前舌高母音性을 共有하므로 實現될 수 없으며 wu 와 wo 도 前後 音素가 圓唇性을 共有하므로 實現될 수 없다(許雄 1968). 李基文(1969, 1979)는 生成音韻論的 思考를 통하여 '디-'(落)의 使動形 ':디-'가 나타내는 音韻現象으로부터 後期 中世의 中部方言에 ij 가 존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現代 月城語에는 그러한 現象을 보이는 例들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ij 의 再構는 不可能하다.

二重母音 wi, wɨ, wʌ 는 βi>wi (뷔>위), βi>wɨ(브>우), βʌ>wʌ (ᄫᆞ>오)의 變化를 통해서 後期 中世의 中部方言에 그 存在가 認定되어야 할 것이 주장되었다(李基文 1969, 1979, 金完鎭 1972).[6] 이들 二重母音의 존재를 알리는 '치뷔>치위(寒), ᄃᆞᄫᆡ니>ᄃᆞ외니(化), 더ᄫᅳ니>더우니' 등은 現代 月城語로는 chípí, tέ+ni→tɛ̃ĩ, tɜp+ʒni→tɜ̃bũĩ 이므로 그러한 二重母音은 月城語에 存在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中世語 'ᄃᆞᄫᆡ-'가 月城語 tɛ-와 대응되는데 이 例로 인하여 月城語에 wʌ 를 認定해야 할 지는 問題로 남는다. 이와 같이 再構가 不可能한 것들을 除外하면 나머지 二重母音은 다음과 같이 再構된다.

2·1·2·1·1 *jʌ

이 二重母音은 訓民正音 解例 合字解에 극히 간단히 言及되어 있다. 이 二重母音이 실제 言語資料를 통하여 처음으로 確認된 것은 濟州方言에 의한 李崇寧(1957 : 47)에서였다. 그 후 李基文(1977)은 역시 濟州方言에 의한 內的 再構 結果 唇音을 제외한 여러 子音 뒤에서도 jʌ 가 존재하였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二重母音 jʌ 는 濟州方言에서만 그 存在가 확인되었는데 陸地語에도 jʌ 가 存在하였음이 報告된 것은 극히 最近의 일이다(崔明玉1980b).

6) 金完鎭(1972a)는 '뷔>위'를 βi>wi 로 보는데 대하여 見解를 달리한다.

月城語가 二重母音 jʌ를 가졌다는 것은 japʰ(側), jakk'úli(腸), catʰ(傍), catʰɜlɛ́ŋi(脈), c'alí-/c'állɜ̟-(短) 等의 語詞에서 立證된다. 이들 語詞에 대한 後期 中世나 近代語形은 각각 njəp, njəpkuləj, kjətʰ, kjətɨlaŋ 또는 kjətʌlaŋ, tjəlɨ- 또는 tjəlʌ-이다. 月城語의 語詞들이 後期 中世나 近代語와 같은 語形을 가졌다면 i나 j에 先行하는 語頭n의 削除와 t 및 k 口蓋音化規則에 의하여 jɜ-, cɜ-, c'ɜ- 等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後期 中世나 近代語에 同一한 jə를 가지고 있던 njəlɨm(夏), kjəzɨl(冬), kjəp(重), tjələhʌ-(如彼) 等은 위와 같은 規則의 適用을 받아 現代月城語에 각각 jɜ́lɜm, cɜ́ɜl 또는 cɜ́sil, cɜp, cɜ́lɜ́h- 또는 cɜ́lɜ́ha-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後期 中世나 近代語의 jə에 대하여 a로 대응되는 위의 月城語 語詞들은 그 前時期에 이중모음 *j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그들 語詞는 jʌ 앞에서 n 削除規則과 k나 t 口蓋音化規則을 적용받고 이어서 ʌ의 제 2단계 소실에 의하여 語頭音節의 jʌ가 ja로 되고 다시 齒擦音 뒤에서 j가 삭제되는 규칙을 적용받는 一連의 變化를 거친 것이라고 說明되는 것이다.[7]

2·1·2·1·2 *uj

二重母音 uj의 再構는 中部方言과의 비교에 의하여 可能하며 後期 中世나 近代語에 의하여 確認된다. 月城語 kɜ́mu(蜘蛛), nápu(蝶), mɜ́kú(蚊) 等에 대당하는 中部方言形은 kəmi, napi, moki이다. 月城語의 語幹末母

7) 그 變化過程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kjʌtʰ >① cjʌtʰ >② cjatʰ >③ catʰ

㉡ kjəp >① cjəp >③ cəp >④ cɜp

㉢ njʌpʰ- >①′ ñjʌpʰ- >②′ jʌpʰ- >② japʰ-

㉣ njəlɨm >①′ ñjəlɨm >②′ jəlɨm >④ jɜlɜm

[① k 구개음화 ② 語頭音節에서 ʌ>a ③ 齒擦音 뒤에서 j 삭제 ④ ə/ɨ>ɜ
①′ n 구개음화 ②′ ñ 삭제]

音 u에 대하여 中部方言形의 語幹末母音이 i로 대응되는 것이 注目되거니와 u와 i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說明될 수 있는 音韻論的 動機가 發見되지 않으므로 月城語의 u가 中部方言의 i에서 變했다거나 그 逆의 說明같은 것이 成立될 수 없다.[8] 그러므로 대응되는 두 모음 u와 i를 통하여 *uj를 再構할 수 있다. 말하자면 月城語의 u나 中部方言의 i는 uj로부터 서로 다른 通時的 音韻規則에 의하여 結果되었다고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語詞에 대한 後期 中世나 近代語形이 語幹末音節에 二重母音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서 우리가 再構한 二重母音은 妥當한 것으로 認定된다. 그들 語詞의 後期 中世나 近代語形은 다음과 같다. 蜘蛛 : kəmij (字會上 21), kəmuj(柳物二昆). 蝶 : napʌj(석十一35), napoj(杜초十五 32), napuj(柳物二昆). 蚊 : mokʌj(月九 26), mokoj(朴重中 58).

2·1·2·1·3 *oj

이 二重母音 역시 方言의 比較에 의하여 再構된다. 月城語 samáku(痣), k'amáku(烏), tolc'áku(椵), taŋnáku(驢) 等은 中部方言形 samaky~samaki, k'amaky~k'amaki, tolc'əky~tolc'əki, taŋnaky~taŋnaki와 대응된다. 語幹 末音節 母音이 月城語와 中部方言間에 u와 y 또는 i로 대응되는데 대응을 이루는 모음들은 어느 하나로부터 변했다고 할 수 있는 音韻論的 動機를 부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u와 y 또는 i는 通時的 變化에 의한 分化로 說明되어야 한다. 中部方言의 y는 uj로부터 변화된 것이므로, 月城語의 u는, uj의 再構過程에서 言及했던 바와 같이, uj로부터 변한 것으로 설명된다. 또 月城語 u와 中部方言 i의 對應으로부터 *uj를 再構할 수도 있다. uj의 再構에 의하여 月城語의 語詞들은 samakuj, k'amakuj,

8) 이런 思考에 대한 批判을 田光鉉(1976 : 26—27)에서 찾을 수 있다. 田(1976)은 그러한 思考에서 벗어나 그 같은 方言差를 二重母音의 變化가 方言에 따라 달리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 맨처음 論文이다.

taŋnakuj가 되는데 이 語形에서, 再構된 uj는 先行音節의 母音과 비교할 때 모음조화규칙을 어기고 있다. 여기에 모음조화규칙을 再構에 利用하면 각각 samakoj, k'amakoj, taŋnakoj의 語形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하여 *oj가 再構되는데, 이들 語詞에 대한 後期 中世語形이 각각 samakoj, kamakoj, (taŋ) nakoj이므로 再構된 oj는 妥當한 것으로 認定된다. 이 밖에 月城語 ó̜o-(暗誦), c'ó̜o-(曬光), wɛ́ló̜p-(孤)에 대한 方言形 ö-∼we-, c'ö-∼c'we-, ölop-∼welop-, oj-, c'oj- 等과의 관계로부터 *oj-, *c'oj-, *ojlop-을 再構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二重母音 *oj를 얻게 된다.[9] 이들 語詞 역시 後期 中世語에 ojo-, pcoj-, ojlʌp-∼ojlop으로 나타난다.

2·1·2·1·4 *ij

二重母音 ij는 現代國語에 正書法上으로 남아 있을 뿐 口語에서는 發見되지 않는다. 이 二重母音은 口蓋音化規則에 의하여 그리고 後期 中世語와의 比較에 의하여 再構된다. 月城語를 포함한 東南方言에서 k系나 h 口蓋音化는 語頭音節에서 일어났으며 i나 j 앞에서만 일어났다. 이와는 달리 t口蓋音化는 같은 환경에서 音節位置와는 관계 없이 일어났다. 이 변화는 해당되는 固有語에 거의 例外가 없었다. 그리하여 後期 中世語 ti-(負), pti-(蒸), təjtʰi-(煠) ; kiβ-(補), kil-(長) ; him(力), hjə(舌) 等은 月城語에 cí-, c'i-, tɛcʰí-; cip-, ciíl-; sim, sɛ 等으로 나타난다. 그런데도 月城語에는 t'i(帶), tʰi(塵) ; kʰi(身長), ki-(匍匐) ; hi-(白) 等 口蓋音化規則에서 벗어난 語詞들이 있다. 그러한 例들이 口蓋音化規則에 대한 例外가 아니라면 先行段階에 i가 아닌 모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하다. 그들 語詞에 대한 後期 中世語形이 각각 stij, tʰij; kʰij, kij-; hij-이며 後期 中世나 現代 中部方言의 kili-(齝), tili-(獻) 等에 대한 月城語形 kílí-, tílí-에서 語頭音節의 i는 ij>i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저들

9) oj-, c'oj-, ojlop-에 대한 方言形은 金亨奎(1974 : 403), 崔鶴根(1975 : 1449—50)를 참조할 것.

例外가 가지고 있는 i의 先行段階形은 *ij로 再構된다.

2·1·2·1·5 *ʌj

이 二重母音은 後期 中世語와의 比較에서, 그리고 ʌ의 변화규칙과 모음조화규칙, 구개음화규칙을 이용함으로써 再構될 수 있다. 後期 中世語의 ʌ는 非語頭音節에서 i로, 語頭音節에서 a로 변하였음은 앞에서 言及된 바 있다. 이 변화의 규칙은 二重母音의 一部를 이루는 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後期 中世語 ptʌj(垢), cʌj(灰), tʰʌjo-(使燒), sʌj-(漏) 等은 現代 中部方言에 t'ɛ, cɛ, tʰɛu-, sɛ:-로 남아 있고 後期 中世語 kasʌj(荊), solʌj(聲), mʌtʌj(節) 等은 現代 中部方言에 kasi, soli, mati로 남아 있다. 이들 語詞에 대당하는 月城語形은 각각 t'ɛ, cɛ́, tʰɛ́u-, sɛ-와 k'ási, sóli, matí인 바 月城語의 語詞들도 中部方言과 同一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겠다. 이들 語詞가 借用關係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例示된 月城語의 語頭音節母音 ɛ와 非語頭音節母音 i는 *ʌj로 再構된다.

2·1·2·1·6 *əj

後期 中世語에 이 二重母音을 가졌던 səjh(三), nəjh(四) 等이 月城語에 sɜ́i, sii와 nɜ́i, nii로 남아 있는데 前者에서 二重母音 *əj의 存在가 확인된다.[10] 이 밖에 現代 月城語의 先行段階에 e와 ɛ가 音素的 對立을 가지고 있었으며 e의 前段階形은 əj가 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역시 *əj가 再構된다.

2·1·2·1·7 *aj

後期 中世語 sʌzi(間)는 月城語에 sái, sɛ́ɛ의 雙形으로 남아 있는데 前者에서 *aj의 存在가 認定된다. 그리고 現代 月城語의 先行段階에 ɛ가 存

---

10) sii(三)와 níi(四)는 səj>se:>sii와 nəj>ne:>níi의 變化를 겪은 것이나.

在하였으므로 ε의 前段階形은 *aj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地域語와의 比較에 의해서도 aj가 再構될 수 있다. 즉 '犬'과 '鳥'의 뜻을 가진 月城語의 語詞는 kε와 sε인데 이들 語詞는 現代 忠淸道地域語에 kaj와 saj로 使用된다. 이 두 地域語의 比較에 의하여 月城語의 ε는 *aj로 再構된다.

2·1·2·1·8 *wə

二重母音 wi는 月城語에 없었으므로 現代 月城語 wɜɜ́nsiŋi(猿), wɜ́n(員), wɜɜ́nhá-(願) 等의 語頭音節母音 wɜ는 *wə로 遡及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7母音體系를 가지고 있던 時期의 月城語의 二重母音을 再構해 왔다. 그 결과 그 당시 後期 中世의 中部方言에 存在했던 것으로 알려진 w系 二重母音 中 wi, wɨ, wʌ는 月城語에 없었으며 後期 中世의 中部方言에는 存在하지 않은 jʌ를 月城語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7母音體系를 基點으로 하면 月城語는 그 以後 두 차례의 母音體系의 變化를 경험한 것이 된다. 즉 ʌ가 消失되고 二重母音이 單母音으로 되면서 첫번째 모음체계의 변화를 경험했으며 그 이후 ɨ, ə와 e, ε가 中和됨으로써 두번째 모음체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現在의 모음체계가 계속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單母音體系의 變化를 基準으로 하여 7母音體系의 時期를 第1期 月城語, 8母音體系의 月城語를 第2期 月城語, 그리고 6母音體系의 月城語를 第3期 月城語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時期 區分은 李基文(1972b)에서 言及되고 있는 國語史의 時期區分인 中世國語, 近代國語, 現代國語와 거의 一致한다.

지금까지 再構된 母音體系를 時期別로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第 1 期 : ʌ 의 消失과 二重母音의 單母音化 以前

i	u	o	ju	jo	uj	oj		
	ɨ	ʌ		jʌ	ɨj	ʌj		
	ə	a	jə	ja	əj	aj	wə	wa
(單母音)			(二重母音)					

第 2 期 : ʌ 의 消失과 二重母音의 單母音化 以後에서 i, ə 와 e, ɛ 의 中和 以前까지.

i	ɨ	u			ju	wi		
e	ə	o	je	jə	jo	we	wə	
ɛ		a	(jɛ)		ja	wɛ		wa
(單母音)					(二重母音)			

第 3 期 : i, ə 와 e, ɛ 의 中和 以後

i	ɜ	u		jɜ	ju	wi		
ɛ		o	jɛ		jo	wɛ	wɜ	
	a				ja			wa
(單母音)					(二重母音)			

우리는 第 2 期의 二重母音 중에서 je 와 jɛ, we 와 wɛ 에 대해서는 言及하지 않았다. 이들 二重母音은 그 前段階에 三重母音 jəj 와 jaj, wəj 와 waj 이었기 때문이다. je 의 存在를 알려주는 語詞로는 jɛɛn (nal) (古), siálli-(計), cɛíl (第一) 等이 있다. 이들 語詞는 모두 後期 中世語 njəjs, hjəjali-, tjəjil 에 대당되는 것인데 위의 月城語形은 後期 中世語形과 同一한 語形에 口蓋音化, 單母音化, 그리고 e>i 等의 規則이 적용되어 形成된 것이다. jɛ 를 確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사항목을 찾지 못했다. 本土人의 말 속에서도 jɛ의 存在를 立證할 語詞가 發見되지 않으므로 괄호로 묶어 두었다. wɛ와 we의 存在는 hwɛ(桅)와 kwɛɛ́ (c'ak) (櫃)에서 확인된다. 이들 語詞에 대당되는 後期 中世語形은 각각 hwaj 와 kwəj 이다. 例가 각각 하나 뿐인 것이 흠이지만 이들이 借用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2·1·2·2 二重母音의 共時的 分布

二重母音은 單母音과 j, w의 結合에 의하여 生成된다. 그러므로 現代月城語의 二重母音은 ji, jɛ, jɜ, ju, jo, ja와 wi, wɛ, wɜ, wu, wo, wa가 可能하다. 그러나 ji와 wu, wo는 前後 音素가 같은 資質(j와 i는 [+high, −back], w와 u, o는 [+back, +round])을 가지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밖의 二重母音은 語頭位置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난다. jɛ́su(狐), jɛ́pi-(瘦); jɜ́lɜm(夏), jɜ́tɜl(八); jútʰ(栖), julí(琉璃); jó(褥), jok(辱); jaŋsɜ́k(糧), japhɜ̟́-(淺); wiís-(笑); wɛɛ́n(何), wɛ́lóp-(孤); wɜɜ́nsiŋi(猿), wɜ́n(員); wáŋ(王). 그러나 子音 뒤에서 이들 二重母音은 극히 制限된 환경 以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蒐集된 資料 중에서 子音 뒤에 二重母音이 나타나는 語詞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1·2·2·1 Cjɛ

해당 例가 없음.

2·1·2·2·2 Cjɜ

語頭音節에는 해당 例가 없고 非語頭音節에서만 例가 발견된다. cʰɜnnjɜ́n(千年), huúlljɜ́n(訓鍊), tállјɜk(月曆), jɜɜ́mnjɜ́(念慮), ɜ́mnjɜk(陰曆) suŋnjɜ́n(凶年) 等. 모두 漢字語이며 nn—, ll—, mn—, ŋn— 等 l과 n의 口蓋音化가 일어나는 환경이라는 것이 注目된다.

2·1·2·2·3 Cju

Cjɜ의 경우와 같다. coóŋnjú(種類), íllju(人類) 等. 역시 漢字語에 국한되며 그 환경도 ŋn—, ll— 等이다.

2·1·2·2·4 Cjo

語頭音節에서는 k와 h 뒤에서 任意的으로 나타나며 非語頭音節에서는

ll-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例가 발견된다. kjoócáŋ~koócáŋ(校長), kjósíl~koósíl(教室) ; púlljó(不孝). 例가 모두 漢字語뿐이다.[11]

2·1·2·2·5 Cja

해당 例가 없다.

2·1·2·2·6 Cwi

해당 例가 없다.

2·1·2·2·7 Cwɛ

k 와 h 뒤에서 나타난다. kwɛɛ́c'ak(櫃), k'wɛ́ŋí(钁), hwɛcʰáli(鞭), hwɛ(楲), hwɛɛ́(膾), hwɛ́pok(恢復). 그러나 이상과 같은 극히 일부의 語詞에 限定된다.

2·1·2·2·8 Cwɜ

극히 일부의 語詞에서 wɜ 는 h 와 ŋ 뒤에 한하여 나타난다. hwɜɜ́nhá-(明), cɜ́ŋwɜl(正月) (cf. sámɜl(三月)) 等이 그 例가 되는데 cɜ́ŋwɜl 의 경우, 慶南地域語에서 발견되는 cɜ́ŋɜl 의 形態는 存在하지 않는다.

2·1·2·2·9 Cwa

wa 는 語頭音節에 限하여 k 와 h 뒤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극히 一部의 語詞에 限定된다 ; kwaásíl(果實), kwákɛ(科擧), kwaáŋtɛ(傀), hwál(弓), hwaálí(爐), hwaáŋsɛ́(鸛).

以上의 叙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할 수 있다.

첫째, 現代 月城語는 二重母音이 子音과 共起하지 못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극히 제한된 音素 뒤에서 그리고 극히 소수의 語詞에서 二重母音이 나타난다. 그 경우에 先行되는 音素는 k, ŋ, h 에 限하며 이들 音

11) jo 가 ll—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mn—이나 ŋn—에서도 나타날 可能性은 充分하다.

素와 共起하는 二重母音은 w系에 局限된다. 그것은 그들 音素들이 가진 非前舌性 때문이라고 생각된다.[12] 二重母音 wɜ 앞에 k가 있는 例가 發見되지 않는 것이 의문으로 提起될 수 있는데 그것은 月城語의 音韻史에서 二重母音 wə의 특별한 變化에 말미암는다(**2·11** 참조).

둘째, 非語頭音節에서는 nn—, mn—, ll—, ŋn—의 환경에서 二重母音이 나타나는데 그 경우의 二重母音은 j系에 局限된다. 앞의 환경에서 j系 二重母音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口蓋音化라는 音韻過程 때문이라고 하겠다. 非語頭音節에서는 w系 二重母音도 k나 h와 共起할 수 없는 것이 原則이다.

세째, 子音과 二重母音이 共起하는 例는 대부분이 漢字語이다.

2·1·2·3 子音 뒤에서의 二重母音의 再構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月城語는 극히 制限된 경우를 제외하면, 子音 뒤에 二重母音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先行段階에서는 二重母音과 子音이 共起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2·1·2**에서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二重母音의 再構에서 除外되었던 wi와 j系 上向 二重母音도 子音과 共起할 수 있었던가를 확인하는 作業의 一環으로 子音 뒤에 存在했을 二重母音을 再構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wi 以外의 w系 二重母音은 現代 月城語에서도 子音 뒤에서 나타나므로 여기서는 除外된다.

2·1·2·3·1 Cwi

中部方言의 kwi(耳), twi(後), t'wi-(走) 等에 대한 月城語形은 각각 ki, tií, t'í-이다. 이들 語詞가 원래부터 語幹母音으로 i를 가졌다고 한다

12) '後舌性'이라고 하면 h는 [−back]이므로 그런 說明에 포함될 수 없다. 만약 h가 '母音性'도 '子音性'도 가지지 않으며 다른 母音들과 마찬가지로 '連續性'을 가지기 때문에 w와 共起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說明도 옳지 않다. 그 경우에 h는 j系 二重母音 앞에서도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면 月城語에 强하게 작용했던 口蓋音化規則에 의하여 ci, cií, c'í-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口蓋音化規則을 벗어난 위의 月城語 語詞는 前段階에 i가 아닌 모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모음은 現代 中部方言과의 비교에서 *wi로 再構된다. 이 再構가 妥當하다는 것은 月城語 자체 내에서 立證될 수 있는 i모음역행동화규칙과 활음화규칙, 그리고 활음삭제규칙에 의한 音韻過程을 통하여 뒷받침된다. 中部方言의 s'aŋtuŋi(雙兒), kuŋtuŋi(臀), cuki-(使死)에 대한 月城語形은 saŋtíŋi, kuúŋtíŋi, cíki-이다. 이들 語詞에서 우리는 中部方言과 月城語의 先語末音節 母音이 u와 i의 대응을 보이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이 때의 月城語 母音i는 i모음역행동화규칙과 활음화규칙, 그리고 활음삭제규칙에 의한 것으로, u>uj>ü>wi>i의 변화과정을 거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二重母音 wi가 子音 뒤에서 i로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k와 t 뒤에 wi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13)]

2·1·2·3·2 Cje

j系 上向 二重母音을 이루는 j는 先行子音 t系, k系 및 h를 口蓋音化시키거나 i모음역행동화에서 同化主의 機能을 가진다. j가 가진 이러한 機能을 利用하여 二重母音 je를 再構할 수 있다. 後期 中世語 hjəjm(計), hjəj-(計)에 대한 月城語形은 sɛɛ́m과 sɛ́ɛ-이다. 後期 中世語形이 h구개음화규칙을 적용받을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月城語에 h구개음화규칙이 있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現代 月城語는 後期 中世語와 동일한 語形에 h구개음화규칙이 적용되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月城語 sɛ-는 *hje-으로 再構된다.[14)] 여기서 h 뒤에 je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

13) 二重母音 wi는 先行段階의 uj에서 變化된 것인데 그 변화과정은 uj>ü>wi로 나타낼 수 있다.

14) 現代 月城語의 單母音 ɛ는 əj나 aj의 單母音化에 의한 것이므로 *hje-는 다시 先行段階의 *hjəj-로 再構된다.

2·1·2·3·3 Cju

자음 뒤의 二重母音 ju는 t와 h 구개음화규칙에 의하여 再構될 수 있다. 後期 中世語 tjusjək(錫), tjuŋij(棍)에 대한 月城語形은 각각 cusɜ́k, cuŋú이다. 이 語形은 t구개음화규칙을 적용받은 것이므로 그 규칙이 發生되기 以前에는 語頭音節이 *tju-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後期 中世語 hjuŋ(缺點), hjuŋak(凶惡)에 대한 月城語形은 súŋ, súŋak (ha-) 또는 súak[h]a-인데 이 때의 月城語形의 語頭音節은 h구개음화규칙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그 규칙이 발생되지 않았던 時期에 그들 語詞의 頭音節 su-는 *hju- 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先行段階에 月城語가 t와 h 뒤에도 二重母音 ju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2·1·2·3·4 Cjə

여기서도 t, h, 그리고 k구개음화에 의하여 子音 뒤의 jə를 再構할 수 있다. 後期 中世語 tjəmsim(點心), tjə(彼), tjək-(記)에 대한 月城語形은 cɜ̀msɜ́m, cɜ, cɜ́k-이다. 이 月城語形은, 後期 中世語形과 비교할 때, t구개음화규칙을 적용받은 것이다. 이 사실에 의하여 위의 現代 月城語의 頭音節 cɜ-는 t구개음화규칙이 발생되기 전에 *tjə-였음을 알 수 있다. 後期 中世語 hjənma(直饒)와 hjə-~hhjə-(引)에 대한 月城語形은 sɜ̀lmá, sɜ́-이다. 이 月城語形은, 後期 中世語와 비교할 때, h구개음화규칙을 적용받은 것이다. 따라서 現代 月城語의 頭音節 sɜ는 h구개음화규칙이 발생되기 전에 *hjə-였다고 하겠다. 이 밖에 月城語는 後期 中世語 kjəzil(冬), kjəp(重), kjəntɨj-(忍)에 대하여 cɜ̀ɜl 또는 cɜ́sil, cɜp, cɜ́nti-를 보인다. 後期 中世語와 비교할 때, 月城語의 頭音節 cɜ-는 k구개음화규칙의 적용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cɜ-의 先行段階形은 *kjə-가 된다.[15]

15) 現代 月城語의 二重母音 jɜ가 先行時期의 jə로 遡及되는 理由는 註 5)를 참조할 것.

i 모음역행동화규칙에 의해서도 子音 뒤의 jə가 再構될 수 있다. 後期 中世語 njəpʰjənnəj(女人), əljəp-(難)에 대응하는 月城語形은 jέpʰínnε～jέpʰέnnε와 έl3p-이다. 現代 月城語形의 pʰ와 l 뒤에는 單母音 i 또는 ε와 3가 있지만 이들 모음이 원래부터 i 또는 ε와 3였다면 後期 中世語의 語頭音節母音 jə와 ə에 대응하는 月城語의 jε와 ε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月城語가, 後期 中世語에서와 同一하게, pʰ와 l 뒤에 jə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때 비로소 jε와 ε가 i 모음역행동화규칙에 의한 것이라는 合理的인 說明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月城語 pʰi- 또는 pʰε-와 -l3-는 각각 *pʰjə-와 *-ljə-로 再構된다. 이 밖에 中部方言 kaŋpjən(江邊)은 月城語에 kεŋpín으로 나타나는데, 이 動詞의 語幹末音節 pin도 위와 같은 理由에서 *pjən으로 再構된다.

以上의 再構를 통하여 우리는 月城語가 p, pʰ, t, k, h 뒤에서도 二重母音 jə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2·3·5 Cjo

後期 中世語 tjoh-(好), tjolihʌ-(將息)에 대한 月城語形 coóh-, cóliha-와 後期 中世語 hjohəm(効驗)에 대한 月城語形 sóam에서 月城語의 頭音 co-와 so-는 각각 t 구개음화규칙과 h 구개음화규칙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 규칙을 逆利用함으로써 以前段階形 *tjo-와 *hjo-를 再構할 수 있다. 또 中部方言 səŋmjo(省墓)와 月城語 sέŋmó를 비교할 때, 月城語의 頭音節母音 ε는 i 모음역행동화규칙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語末音節 mo는 先行段階形 *mjo로 再構된다. 여기서 우리는 先行段階의 月城語가 m, t, h 뒤에 二重母音 jo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2·1·2·3·6 Cja

後期 中世語 tjalʌ-(短), tjaŋka(娶)와 hjaŋ(香)에 대한 月城語形은 c'alí-, caáŋkέ, saŋ이다. 이 때의 語頭音節 c'a-, ca-, sa-는 後期 中世語形과 同一한 構造에서 t 구개음화규칙과 h 구개음화규칙을 적용받은 것이

다. 이러한 변화 외에도 月城語 c'alí-는 語頭硬音化를 경험했다고 하겠는데 그것은 後期 中世語와의 比較에서 쉽게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月城語의 語頭音節 c'a-, ca-, sa-의 先行段階形은 각각 *tja-, *tja-, *hja-로 再構된다. 그 결과 우리는 t와 h 뒤에서도 二重母音 ja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月城語에서 활발하게 작용하였던 t系, k系 및 h구개음화규칙과 i모음역행동화규칙을 통하여 그들 규칙이 적용된 語詞나 그들 규칙에 대하여 例外的인 存在로 남아 있는 語詞를 發見하고 그것들에 대한 後期 中世, 近代 및 現代 中部方言에서의 對應形을 비교함으로써 子母(h, l 포함) 뒤에 存在했던 月城語의 二重母音들을 再構하였다. 그 결과 先行時期에는 月城語도 子音 뒤에 二重母音을 가지고 있었음을 確認하였으며 確認된 月城語의 二重母音들은 그에 대당되는 後期 中世나 近代 및 現代 中部方言의 語詞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거의 一致한다는 것을 알았다.

2·1에서 우리는 共時的 資料를 통하여 月城語의 母音體系를 再構하고 그 變化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그 동안에 論議된 結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月城語와 中部方言에서 對應되는 形態素가 意味가 같고 構造가 類似하면, 그 形態素의 先行段階形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構造가 同一하였으리라는 것이다.[16] 앞에서 제시된 再構 結果는 그런 사실을 認定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認定함으로써 우리는 月城語의 音韻變化를 硏究할 수 있는 것이다.

16) 여기서 '特別한 경우'라는 條件을 달아 두는 것은 앞에서 論議된 바와 같이 後期 中世나 近代 中部方言에는 存在하지 않았던 二重母音 jʌ가 月城語에는 존재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敍述에서도 그러한 사실은 염두에 두겠거니와 月城語를 後期 中世나 近代 中部方言과 完全히 一致한다는 前提에서 作業하는 過를 犯하지 않도록 애쓸 것이다.

2.2 ʌ의 變化

中部方言의 音韻史에서 우리는 ʌ가 두 단계에 걸쳐서 消失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17] 16世紀 後期에 完成된 非語頭音節에서의 ʌ>ɨ(1단계 소실)와 18世紀 初期 내지 中期에 完成된 語頭音節에서의 ʌ>a(2단계 소실)가 그것이다. 中部方言이 겪은 이러한 변화는 月城語의 경우에 어떠했던가. 이 문제에 대한 答을 찾으려는 것이 여기서 다루어질 內容이다. 이 문제를 위하여 選定된 語詞는 모두 207개인데 대부분 李崇寧(1959 : 88—92)에서 뽑은 것이다. 叙述의 便宜를 위하여 單母音일 때와 二重母音일 때를 區分하고 다시 語頭音節과 非語頭音節을 區別하여 變化를 考察하고자 한다.

2·2·1 後期 中世語에서 語頭音節에 있던 ʌ는 대부분이 月城語의 a와 대응된다. 이것은 單母音 ʌ가 語頭에서 a로 변한 것이 일반적임을 말해 준다. 中世語 : mʌtʌj(節) : 月城語 : matí, p^hʌl(肱) : p^hal, nʌlh(刃) : nal, tʌlk(鷄) : tál, sʌnahʌj(男) : sanáa. cʌlak(裾) : calák, kʌlʌ(粉): kalí, skʌl-(敷) : k'ál- 等. 이러한 例에 의하여 우리는 月城語에서도 語頭의 ʌ가 中部方言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月城語에는, 같은 환경에서, a로 변하지 않은 語詞들이 상당히 있다. 이 例外的인 存在들이 音韻史研究에서 오히려 重要視될 수 있으므로 그 모두를 提示하면 (1)과 같다.

(1) ㄱ. nɜm (nʌm 他人), kɜt^h-(kʌt^h- 同), -tɜlo(-tʌlok(限度表示語

17) ʌ의 變化에 대한 研究는 註 3)을 참조할 것.

尾)), -k'ɜ́cɜŋ(-kʌcaŋ (到着點表示語尾))

ㄴ. kɜnɜ́l(kʌnʌlh 陰), hɜl(hʌlk 土), -tɜl(-tʌl (複數語尾)

ㄷ. pul(pʌl 件), p'u-(pʌli- 棄)

ㄹ. silk (sʌlk 狸)

ㅁ. p'ocík- (pʌs- 碎)

ㅂ. nóŋku- (nʌnho- 分) (괄호 속은 後期 中世語形)

i와 ə가 中和된 것이 現代 月城語의 實情이므로 後期 中世語 ʌ에 대한 月城語 ɜ가 i, ə 중에서 어느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斷定하기 어렵다. 그러나 (1ㄴ)의 語詞들이 가진 ɜ가 現代 中部方言의 i에 대응하며 (1ㄷ)의 語詞들이 가진 u는 ʌ>i를 거쳐 圓脣母音化에 의한 것이고 (1ㄹ)의 語詞가 가진 i 역시 ʌ>i를 거쳐 齒擦音 아래서 前舌高母音化한 것임을 고려하면 (1 ㄱ—ㄹ)의 語詞들의 語頭音節母音은 ʌ>i의 變化를 입었다고 하겠다.[18] 이 변화는 後期 中世語에서 일어난 ʌ의 제 1단계 변화와 같다.

한편 (1ㅁ)과 (1ㅂ)은 ʌ>o의 변화를 보이는데 (1ㅂ)의 ʌ>o는 다음 음절의 o에 영향받은 것이라 하겠거니와 (1ㅁ)의 語詞가 보이는 ʌ>o의 변화는 그 性格이 다르다. 그것은 東南方言과 西南方言의 南海岸地域語가 겪은 변화 즉 脣音 아래의 ʌ가 o로 되는 변화와 같은 것이다. 왜 月城語가 이 한 語詞에 대해서만 그런 변화를 보이는지는 달리 말할 수 없다.

2·2·2 非語頭音節에서의 ʌ는 i로 변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月城語가 非語頭音節에서도 中部方言과 같은 ʌ의 변화를 겪었음을 말해준다.[19] mánɜl(manʌl 蒜), hánɜl(hanʌl 天), átɜl(atʌl 子), nólɜk(nolʌs

18) (1ㄷ, ㄹ)에서의 ʌ가 ə로 변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現代語에 ɜ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cf. pɜɜ́l(벌~버리 蜂), pɜlkɜ́ci(벌에 虫), pɜ́c-(벗— 脫) 等.

19) 調査項目에 포함된 非語頭音節에 ʌ를 가진 中世語의 語詞 85개 중에서 69개가

戱), potɜláp- (potʌlap- 軟), ɛtɜlp-(ajtʌl- 忿歎) 等.

非語頭音節에서의 ʌ도 i로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한 ʌ는 o로 변했거나 a로 변했다. ʌ>o의 變化를 겪은 語詞들로는 ósuli(osʌli 猯), k'ák'ullo(kaskʌlo 倒), toló(tolʌhhjə 反), kanculuum(há-)(kʌcʌloni 齊), mác^h^um(mʌc^h^ʌm 終), malsúm(malsʌm~mals'ʌm 辭) 等이다.[20] 이들 語詞가 ʌ>o의 變化를 겪었다고 하는 것은 모음조화규칙과 非語頭音節에서의 o>u의 규칙을 함께 고려한 것인데 이러한 변화를 겪은 ʌ는 그 前後에 o가 있거나 脣音이 있을 때에 거의 限定된다.

이 사실은 매우 注目된다. 그것은 語末에서 中部方言과 南部方言間에 i와 u의 대응을 보이는 moki : moku(蚊)類의 語詞들이 가졌던 語末의 二重母音 ʌj에 대한 南部方言에서의 變化와 南海岸地域語가 겪은 脣音 아래서 o로 된 ʌ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解釋을 可能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中部方言의 i에 대응하는 南部方言의 u는 先行段階의 二重母音 ʌj나 ij가 先行音節의 o나 先行하는 脣音에 同化되어 각각 oj와 uj가 되는 변화를 겪은 뒤에 일어난 변화 결과이며 南海岸地域語가 경험한 脣音 아래서 ʌ>o의 변화는, 近代國語에서 발생된 圓脣母音化規則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보다 훨씬 以前에 발생된 圓脣母音이나 脣音에 의한 同化에

---

i로 변했음을 알려 주었다. 69개의 語詞 속에는 脣音 아래서 ʌ>u로 된 것과 齒擦音 아래서 ʌ>i로 된 것도 포함되었다. 圓脣母音化規則과 前舌高母音化規則은 ʌ의 消失 뒤에 發生된 것이므로 이들 規則이 發生되던 時期에는 脣音이나 齒擦音 아래의 ʌ는 i로 변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ʌ가 ə로 변했다면 u나 i로의 變化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20) kaskʌlo는 kaskolo(月九 57, 杜초八 30)로도 表記되어 있다. 그런데 이 語詞의 動詞形이 kaskʌl- (능二 12, 金삼五 48, 月十 86)인 것으로 미루어 kaskʌlo가 더 基本形이라 하겠다. 그리고 malsʌm 또는 mals'ʌm도 같은 後期 中世語에 malsom(朴초上38, 小언六 10)이 있다. 現代 中部方言에서 이 語詞가 '말씀'인 것을 보면 원래 '辭'의 뜻을 가진 語詞의 원형은 malsʌm 또는 mals'ʌm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malsom은 脣音에 의한 ʌ의 逆行同化의 例가 된다. 月城語의 malsúm은 mác^h^um과 같이 非語頭音節에서 o>u의 變化를 겪은 것이다.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문제는 2·6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論議될 것이다.

ʌ>a의 변화를 겪은 語詞에는 palám(pʌlʌm 風), saálám(salʌm 人), k'ɛ́tálki-(skʌjtʌt- 悟), pantási(pantʌsi 必), k'ámc'ák(kʌmcʌk 瞬) 等이 있다. 이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단정해 말할 수 없다.

2·2·3 二重母音일 경우에 語頭音節의 ʌ의 변화는 單母音의 경우와 同一하다. 月城語에는 語頭音節에 ʌ를 가진 두 개의 二重母音 jʌ와 ʌj가 있었는데 前者는 ja로, 後者는 aj로 변했다. 前者의 例로는 (njʌp^h>)jap^h (njəp 脥), (njʌpkuləj>)jak'úlɛ (njəpkuləj 脇), (kjʌt^h>)cat^h (kjət^{h}傍), (kjʌtʌlaŋ>)cat^{h}ɜlɛ́ŋi (kjətʌlaŋ~kjətilaŋ 腋)를 들 수 있으며 後者의 例로는 t'ɛ(ptʌj 垢), pɛ(pʌj 腹), cɛ(cʌj 灰), hɛ(hʌj 年), k'ɛ-(skʌj-覺), mɛ́- (mʌj- 結), c^{h}ɛ́u-(c^{h}ʌjo- 充), t^{h}ɛ́u- (t^{h}ʌjo- 使燒) 等을 들 수 있다. 이 변화에서 除外된 유일한 語詞는 hi- (hʌj- 白)이다. 先行段階에 이 語詞가 가진 ʌ는 ʌ의 제1단계 변화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2·2·4 非語頭音節에서 二重母音 ʌj가 겪은 변화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k'ási(kasʌj 荊), sóli(solʌj 聲), matí(mʌtʌj 節), k'aáci(kacʌj 蟄), toóc^{h}i(toc^{h}ʌj 斧), kási- (kasʌj- 掃) 等 調査對象 語詞 21개 가운데 10개만이 ʌj>ɨj의 변화를 想定할 수 있을 뿐이며 다른 11개의 語詞는 後期 中世語 ʌj에 대하여 각각 oj와 aj의 변화를 보인다. 前者에 속하는 것은 nápu(napʌj~napoj 蝶), kópu(kopʌj 曲), mɜ́kú(mokʌj 蚊), tóŋo (toŋhʌj 瓦盆), cóŋo(cjohʌj 紙) 等이고 後者에 속하는 것은 coólɛ́(cjolʌj 笊), sɜ́mpɛ(sjənpʌj 士), ɜtɛ́(ətʌj 何處), sámɛ́(sʌmʌj 袖), cánc^{h}ɛ́(canc^{h}ʌj 宴) 等이다.

前者의 語詞들에 대하여 ʌj>oj의 變化를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

에 oj가 uj를 거쳐 u로 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ʌj가 ʌ의 變化 公式대로 ij로 변하였다면 오늘날의 語形이 結果될 수 없는 것이며 月城語의 全體音韻變化를 참조할 때 ij에서 다시 uj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ʌj>oj의 변화는 先行音節母音이 o이거나 先行音이 脣音일 때에 限하여 일어난 것인데 前述한 바와 같이 非語頭音節의 ʌ가 같은 條件에서 o로 변한 것과 同軌에 선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想定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21] 後者의 變化는 非語頭音節에서 ʌ가 a로 변한 것과 같다. 여기서도 변화의 條件이 무엇인지 發見되지 않는다.

以上에서 우리는 後期 中世語에 ʌ를 가진 語詞를 對象으로 月城語에서의 變化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月城語도 中部方言과 같은 변화 즉, 語頭音節의 ʌ는 a로 되고 非語頭音節의 ʌ는 i로 되는 변화를 원칙으로 하였음을 알았다. 그 변화는 二重母音을 구성하는 ʌ에 대해서도 同一하였다. 그러나 月城語는 中部方言과 同一한 ʌ의 變化를 겪으면서도 그 자체의 독자적인 변화도 겪었음을 보았다. 語頭音節에서의 ʌ>i와 非語頭音節에서의 ʌ>o, ʌj>oj, ʌ>a, ʌj>aj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ʌ>o와 ʌj>oj는 音韻論的 條件에 의한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 變化要因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疑問을 提起할 수 있다. 語頭音節에서의 ʌ>i의 變化는 ʌ의 제1단계 변화가 일어나던 당시의 母音體系에서 그 둘의 거리가 가까웠음을 말해 주는 것인가? 非語頭音節에서의 ʌ>a와 ʌj>aj의 變化는 ʌ의 제1단계 변화에서 除外되었다가 제2단계 變化에 影響 받았음을 알려 주는 것인가? 아니면 제1단계 변화 당시의 母音體系에서 ʌ와 i의 거리가 가까웠듯이 ʌ와 a의 거리도 가까웠음을 알려 주는 것인가? 이러한 疑問

---

21) ʌj>oj의 그 후의 變化에 대해서는 **2·11**을 참조하기 바라며 ij의 i는 脣音 아래서 결코 圓脣母音化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2·6**을 참조하기 바람.

에 대한 解答은 앞으로의 研究 課題로 남겨 두기로 한다.

지금까지의 考察을 綜合하면 月城語에 일어난 ʌ의 變化規則은 다음과 같다.

(2) 語頭音節의 ʌ는 a로 변한다.

(3) 非語頭音節의 ʌ는 i로 변한다.

(4) (a) ʌ는 앞 音節이 圓脣母音을 가지면서 子音으로 끝나거나 앞의 音素가 脣音일 때 o로 변한다.

(b) ʌ는 뒤의 音節이 子音으로 시작되면서 圓脣母音을 가지거나 뒤의 音素가 脣音일 때 o로 변한다.

2·3 e>i

東南方言에서 비교적 세력이 강했던 規則의 하나로 e>i를 들 수 있다. niı́ (nəjh>ne: 四), sii (səjh>se: 三), miı́-(məj>me:- 擔), pi-(pəhi>pəj->pe:- 斬) 等. 이 規則은 같은 東南方言 중에서도 경북의 북부지역으로 올라가면서 더욱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j에서 單母音化된 ɛ나 i모음역행동화에 의하여 a로부터 변한 ɛ에는 이 規則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規則은 e와 ɛ가 中和되기 전에 발생된 것으로 推定된다.

이런 推定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즉 əj가 e로 되고 다시 i로 변한 것이 아니라 əj와 aj가 e와 ɛ로 되기 전에 i와 ə가 中和됨으로써 ij가 i로 되는 것과 같은 절차로 변했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binom{ij}{əj}$>ɜj>i). 그러나 əj>e의 변화를 거친 것 중에서 現代 月城語에

ɛ로 남아 있는 語詞들이 있으므로 그런 질문은 받아들일 수 없다. 地域語에 따라서 e>i의 규칙이 强한 勢力을 가진 결과 모든 e에 이 규칙이 적용되어 e>i로 된 곳이 있게 된다. 그런 지역어에 대해서도 위의 질문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증거가 있다. 그것은 齒擦音 뒤에서 ɨ는 i로 변했으나 ə는 전혀 i로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sɨli->síli-(痛). cf. *sə->sɜ́-(立)(*si-). 二重母音의 單母音化에 의하여 əj와 aj가 각각 e와 ɛ로 변한 것이 中部方言에서 18世紀 中期에서 末期에 있어서의 일이요(金完鎭 1963: 28, 李基文 1972a : 123) 破擦音(ㅈ, ㅊ, ㅉ) 다음의 ɨ가 i로 변한 것이 19世紀에 들어서의 일이며(李基文 1972a: 203) 摩擦音(ㅅ, ㅆ) 다음의 ɨ가 i로 변한 것은 19世紀 初期보다 빠를 수 없으므로 ɨ와 ə의 中和가 二重母音의 單母音化 前에 이루어졌으리라는 생각은 成立될 수 없는 것이다.

月城語에서 e>i의 규칙은 əj에서 單母音化된 e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다. piíkɛ́(枕), píŋi(瓶), miíŋkɜŋ(面鏡), kɛŋpín(江邊), pʰí-(伸), piínhá-(變하-) 等의 i(píŋi에서는 첫음절의 i)는 非齒擦音 뒤에서 jə가 e로 된 뒤에 e>i의 규칙이 적용되어 生成된 것이며 t'uk'ípi(蟾), k'ɜntíki(滓), mutíki(堆), cumíni(囊) 等의 둘째 음절의 i는 i모음역행동화에 의하여 ə에서 변한 e에 e>i의 규칙이 적용되어 生成된 것이다. 그리고 miíi(墓), tiíncáŋ(된장) 等의 i는 oj가 子音 뒤에서 ö를 거쳐 we로 되고 다음에 子音 뒤에서 w가 삭제되고 남은 e에 e>i의 규칙이 적용된 결과 生成된 것이며 siíkɜn(所見), pʰíki(撥) 等의 i는 o가 i모음역행동화에 의하여 ö를 거쳐 we로 되고 子音 뒤에서 w가 삭제된 e에 e>i의 규칙이 적용되어 生成된 것이다. 이렇듯 e>i는 單母音化와 w삭제 및 i모음역행동화라는 諸規則과 관련된다. 이 變化는 e에 前後하는 音素의 種類나 語詞內의 位置에 관계 없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條件을 같이 하면서도 i로의 變化를 보이지 않은 語詞도 적지 않다 : mécu(<mecu

醬麯), pe(<pe 布), ɜ́cɛ(<əce 昨日), mɛ́u-(<meu- 塡), p'ɜ́k'i-(<pek'i- 寫), p'ɛ(<p'e 骨), mɛt^h(<met^h 幾), mɛ́nɜl(<menil 子婦), p'ucilɛ́ki (<p'ucileki 碎塊) 等.

2·4 o>u

우리는 中部方言이 近代國語에 이르러 o>u의 變化를 경험한 것을 알고 있다(李基文 1972b : 203): s'au-(<s'aho- 爭), pɛu- (<pʌjho- 學), nanu-(<nʌnho- 分), kolmu(<kolmo 頂針子), kɛkuli(<kajkoli 蛙), sonsu (<sonzo~sonso~sonco 自) 等. 이 變化는 非語頭音節에서 일어났으며 19世紀 初에 시작되어 現在는 거의 一般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

月城語도 中部方言과 同一한 變化를 겪었다. 그것은 sokúm(소곰), ocúm (오좀), taanc^{h}u(단쵸), k'ɛkúli(개고리), pak'úh-~puk'úu- (밧고—), katúh-~katúu-(가도-), pɛ́u-(비호-), sáu- (싸호-~사호-) 等에서 確認된다(괄호 속은 中世語). 이 變化를 惹起시키는 規則은, 다른 지역어에 비하여 月城語에 더 强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음의 例와 같이 다른 지역어에서 o>u의 變化를 보이지 않는 語詞까지도 그러한 變化를 月城語는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malsúm(말솜 辭), mác^{h}um(모촘終), ílpún(일본 日本), iínún (~iínón)(의논 議論), pamsúŋi(밤송이 (栗塔子), wɛt^{h}úli(외토리 孤者), c^{h}ɛɛ́su(채소 菜蔬), cáŋsu(장소 場所), maáŋkú(만고 萬古), pɜ́lc^{h}ú(벌초 伐草), nɛúkan(내외간 內外間), cál-mun(잘못 過失) 等. 이 밖에 月城語는 語頭音節에서도 o>u의 변화를 겪었다. 子音(h포함)으로 시작되고 모음으로 끝나는 一音節語幹을 가진 動詞의 대부분이 이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22] su-(쏘-射), k'ú-(꼬-撚)

22) 母音으로 시작되는 o-(오- 來)는 u로 되지 않았다. 後期 中世나 近代語 '바독

sú-(쏘- 針), húu-(호- 縫) 等.

이 變化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말할 수 없으나 이 변화를 支配하는 規則은 (5)와 같다.

(5) o>u 規則

(a) 非語頭音節의 o나 (b)子音으로 시작되는 一音節 動詞의 語幹末母音 o는 u로 변한다.

2·5 母音調和

中部方言의 音韻史研究 중에서 母音調和에 대한 研究 結果들을 參考하면서[23] 月城語에 存在했던 母音調和 本質이 무엇인지를 究明하려는 것이 여기서 다루어질 內容이다.

앞에서 우리는 月城語가 겪은 ʌ의 變化와 o>u의 變化에 대하여 考察하였다. 이 두 變化는 形態素內部의 母音調和를 깨뜨린 要因이었으므로 그들 變化를 利用함으로써 月城語의 母音調和에 대한 研究를 容易하게 할 수 있다. 叙述의 便宜를 위하여 形態素內部와 形態素境界에서의 母音調和를 分離하기로 한다.

2·5·1 形態素內部에서의 母音調和

形態素內部에서의 母音調和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여러 곳에서 言及한 바 있다. 그러나 모두가 音素再構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母音調和에 대한

(韮), 회초리(槩), 홍도ㅅ개' 等은 月城語에 pátak, hwɛcʰáli, hoŋtík'ɛ로 나타나며 '친구(友), 갑부(甲富), 조부(祖父), 지붕(屋蓋)'等 非語頭에 u를 가진 이들 語詞는 오히려 u>o의 變化를 보여 cʰíŋko, kappo, cópó, cipóŋ으로 나타난다.

23) 李崇寧(1947), 李基文(1968, 1979), 金完鎭(1971a, 1980) 等을 들 수 있다.

理解를 分明히 하기에는 充分하지 못했다. 여기서는 陰性母音의 調和, 陽性母音의 調和, 再構에 의한 陽性母音의 調和, 中性母音의 調和로 나누어 考察함으로써 形態素內部에서의 母音調和에 대한 理解를 分明히 하고자 한다

2·5·1·1 陰性母音의 調和

ʌ의 消失과 非語頭音節에서 o>u의 變化로 形態素內部에서의 母音調和가 파괴되었음은 이미 여러번 言及되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들 변화는 形態素內部의 陽性母音調和를 파괴한 것이지 陰性母音調和를 파괴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形態素 內部에서 月城語의 母音調和는 먼저 陰性母音의 調和를 통하여 그 本質의 一部가 밝혀질 수 있다.

陰性母音의 調和는 (6)의 語詞들을 통하여 그 存在가 確實해진다.

(6) ㄱ. kɜ́lɜk(器), pɜpɜ́li(瘡), sɜúl(京), jɜ́lɜm(夏), jɜ́tɜl(八), méɛnɜl(子婦)

ㄴ. mɛ́u-(塡), kupúl-(轉), ɜpúl-(混), mukɜ́p-(重), ɜtɜ́p-(暗), kɜtúh-(收)

ㄷ. mut'úkt'úk(há-) (無口無愛), sɜpsɜ́p(há-)(惜)

(6)의 語詞들이 보여주는 陰性母音의 調和 樣相은 ɜ~ɜ, u~u, u~ɜ, ɛ~ɜ, ɛ~u로 要約된다. 다시 말하면, (6)의 語詞들이 보이는 陰性母音의 調和는 母音 u, ɜ, ɛ 相互間의 調和라 할 수 있다. 音韻史的 觀點에서 보면 非語頭 音節에서의 o>u의 변화와 역시 非語頭音節에서의 ʌ의 消失 以前時期에 形態素內部에서의 母音調和가 가장 잘 지켜졌다. 月城語에서 그 時期는 第1期 月城語에 해당된다. 陰性母音의 調和를 이루는 現代 月城語의 母音 u는 條1期 月城語에도 陰性母音으로 存在하였고 現代 月城語의

母音 3는 第1期 月城語의 i나 ə에 遡及되는데 이들 母音은 모두 陰性母音이므로 어느 母音으로 遡及되어도 陰性母音의 調和를 論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6ㄱ) mέnɜl과 (6ㄴ) mέu- 두 語詞가 가지고 있는 ε는 先行段階의 e와 ε가 中和된 것이고 e와 ε는 각각 əj와 aj의 二重母音에 遡及되므로 核母音이 ə와 a중 어느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中部方言과의 비교에서 쉽게 해결된다. 즉, 두 語詞에 대한 現代 中部方言形이 각각 mjənili와 meu-이고 이에 앞서는 後期 中世語形이 각각 mjənili와 məju-라는 점에서 (6ㄱ)의 ε는 jə>e의 변화 (m 뒤에서 jə의 縮約)에 의한 것이고 (6ㄴ)의 ε는 əj>e의 변화 (əj의 縮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現代 月城語 (6ㄱ)과 (6ㄴ)의 ε는 ə를 核母音으로 가졌던 것이므로 第1期 月城語가 가진 陰性母音의 調和는 u, i, ə 相互間의 調和가 된다.

2·5·1·2 陽性母音의 調和

ʌ의 消失과 非語頭音節에서의 o>u의 變化가 形態素內部의 陽性母音調和를 파괴했다고 했지만 그들 變化가 모든 陽性母音의 調和를 파괴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두 變化는 非語頭音節의 ʌ와 o만 陰性母音으로 變化시켰을 뿐 a는 變化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o>u의 變化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 變化에 들지않은 o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 이 말은 '陽性母音+a, o'의 母音調和는 그대로 계속되었을 것을 뜻한다. (7)에서 그러한 사실을 確認할 수 있는데 이들 例로부터 形態素內部에서 陽性母音의 調和가 지켜지고 있었음을 立證할 수 있다.

(7) ㄱ. áop(九), sanáa(男), páta(海), pátak(底), calák(裾)

ㄴ. páŋkáp-(歓), ak'áp-(惜), nátʰana-(顕), pʰaáláh-(碧), kólóp-(苦)

ㄷ. kamáni(靜), c^hálâli(寧), t'okt'ók(há-)(聰明), t'apt'áp(鬱)

(7)에서 發見되는 陽性母音의 調和 樣相은 a~o, a~a, o~o인 바 이것은 陽性母音 o, a 相互間의 調和이다.

2·5·1·3 再構에 의한 陽性母音의 調和

先行 音節의 母音이 陽性일 때 그 다음 音節의 母音 ɜ(<ɨ)나 u는 규칙 (3)과 규칙 (5a)를 逆利用함으로써 前段階의 形을 再構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써 陽性母音의 調和에 대한 理解의 폭을 넓힐 수 있다. (8)의 例를 가지고 叙述하기로 하자.

(8) ㄱ. nákɜnɛ(旅人), ónɜl(今日), pánɜl(針子), potɜláp-(軟)
ㄴ. k'apúli(鯸魚), ókum(䏶), mótu(皆), mac^húh-(使合)

(8ㄱ)의 語詞들은 ɜ에 先行하는 音節의 모음이 모두 陽性이므로 규칙 (3)을 逆利用하여 ɜ를 *ʌ로 再構할 수 있다. 그 결과 *nakʌnɛ, *onʌl, *panʌl, *potʌlap-과 같은 再構形을 얻게 되는데 이 再構形은 그에 대당하는 後期 中世語 '나ᄀᆞ내, 오ᄂᆞᆯ, 바ᄂᆞᆯ, 보ᄃᆞ랍-'과 一致를 보인다. (8ㄴ)의 語詞들에 있어서도 u에 先行하는 音節의 母音이 陽性이므로 규칙(5a)를 逆利用하여 u를 *o로 再構함으로써 再構形 *k'apoli, *okom, *moto, *mac^hoh-를 얻게 된다. 이들 再構形도 대당하는 後期 中世 및 近代語 '가오리, 오곰, 모도, 마초'와 거의 一致를 보인다. 따라서 再構된 (8ㄱ, ㄴ)의 語詞들이 보이는 陽性母音의 調和 樣相은 a~ʌ~aj, o~ʌ, a~ʌ, o~ʌ~a, a~o, o~o, o~o, a~o인데 이것은 陽性母音 o, ʌ, a 相互間의 調和이다.

2·5·1·2와 **2·5·1·3**의 결과를 종합하면 第1期 月城語가 가진 陽性母音의 調和는 o, ʌ, a 相互間의 調和로서 그것은 形態素內部에서 잘 지켜지고 있

었다.[24)]

2·5·1·4 中性母音의 調和

中性母音 i는, 그 名稱이 뜻하는 바와 같이, 陽性母音과도 調和할 수 있고 陰性母音과도 調和할 수 있다. i가 가진 이러한 性質은 (9)에 提示된 語詞에 잘 反映되어 있다.

(9) ㄱ. ɨ́lɜ̟m(名), mɜ́li(頭), cɨ́pul(麩), ɨ́mɛ(額), sái(間)
ㄴ. múncʰi-(點), pincʰɨ́i-(照), kɜncʰi-(止), mási-(飮), kalkɨ́-(打), kóncʰi-(改)

(9)의 語詞들이 보이는 中性母音 i와의 調和 樣相은 i~ɜ, ɜ~i, i~u, u~i, i~i, i~ɛ, a~i, o~i이다. 그런데 現代, 近代 및 後期中世의 中部方言과 비교하면 第1期 月城語에 있어서, (9ㄱ) ɨ́lɜ̟m과 mɜ́li와 (9ㄴ) kɜ́ncʰi-가 가지고 있는 ɜ는 각각 i, ə와 i이며 (9ㄱ) ɨ́mɛ의 ɛ는 a이고 (9ㄱ) sái의 a는 ʌ이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第1期 月城語에서 中性母音 i는 陰性母音(u, i, ə)이나 陽性母音(o, ʌ, a) 중 어느것과도 調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月城語가 形態素內部에서 가지고 있던 모음조화에 대하여 考察해 왔다. 그 결과 第1期 月城語는 形態素內部에서의 母音調和를 잘 지키고 있었음을 알았다. 그 時期의 母音調和는 陰性母音 u, i, ə를 한 系列로하고 陽性母音 o, ʌ, a를 다른 한 系列로하여 이루어져으며 中性母音 i는 어느 系列의 母音과도 調和할 수 있었다.

---

24) 규칙 (3)과 규칙 (5a)를 利用하더라도 形態素內部의 母音調和를 모두 再構해 낼 수가 없다. 규칙 (3)에 의하여 結果된 i는 先行 子音이 唇音이나 齒擦音일 때는 다음 段階에 發生한 圓唇母音化規則과 前舌高母音化規則에 의하여 각각 u와 i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形態素內部에서의 母音調和를 再構하려면 앞의 규칙들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2·5·2 形態素境界에서의 母音調和

ʌ의 제 1단계 消失에 의하여 'ᄋᆞᆫ/은, ᄂᆞᆫ/는, ᄋᆞᆯ/을, ᄅᆞᆯ/를, ᄋᆞ로/으로, ᄋᆞ면/으면 等의 語尾는 모음조화를 상실하여 버렸으며(李基文 1959 : 63—66) 여기에 다시 意圖形語尾 '오/우'의 消滅이 添加됨으로써 副詞形語尾 '아/어(過去 時制語尾 '았/었' 포함)'만이 모음조화를 지키는 유일한 語尾로 남게 되었다. 이 변화는 全國的인 것이어서 月城語도 例外가 아니다. 그러므로 形態素境界에서의 모음조화는 自然히 派生語形成에 있어서 語幹과 派生語尾와의 結合에서, 그리고 動詞 語幹과 副詞形語尾 -aX 와의 結合에서 알아 볼 수밖에 없다.

派生語尾 -aki, -aŋi, -aci 等은 語幹과 結合하여 새로운 單語를 形成할 때 語幹音節 母音의 性質에 따라 母音調和를 일으키며 語幹이 i로 끝나면 그 앞 음절 모음과 母音調和를 일으킨다. 이 때 語幹末母音 i는 削除된다. 이들 語尾가 보이는 母音調和는 매우 엄격하였으므로 이런 例들에 대한 檢討에 의해서도 月城語의 母音調和는 그 性格이 뚜렷해질 수 있다. 위의 派生語尾에 의하여 形成된 語詞들은 (10)과 같다.

(10) ㄱ. saléki(小米), k'oónéki(猫), t^{h}ɜlíki(毛), mutíki(堆積)

ㄴ. p^{h}aléŋi(蠅), t^{h}ok'éŋi(兎), kutíŋi(穴)

ㄷ. pakác^{h}i(瓢), mokánci(頸), pɜlkɜ́ci(虫), c'ulkɜ́ci(莖)

(10ㄱ)의 語詞들은 명사 sal(米), koni(猫) (ref. 猫曰高尼〈鷄林類事〉), t^{h}əl(毛), muti(堆)에 語尾 -aki가 結合되어 形成된 派生語다. 이들 派生語形으로부터 語尾의 頭母音 a의 母音調和를 識別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語尾 자체의 構造가 i모음역행동화를 일으킬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설령 a의 모음조화가 지켜졌다고 하여도 -aki는 -ɛki로, -əki는 -eki로 되기 때문에 a나 ə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e>i의 規則을 利用하면 語尾 a가 모음조화를 충실히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語尾 -aki는 陰性母音을 가진 名詞와 結合할 때 모음조화를 일으켜 -əki로 되며 자체내의 환경에 의하여 i모음역행동화를 일으켜 -eki로 된다. 여기에 e>i의 규칙이 적용되면 -iki로 되는데 이러한 過程을 거친 것이 (10ㄱ)의 t'ʒlíki와 mutíki이다. 이들 語詞의 語幹母音이 陰性이라는 데서 그 사실이 더 분명하게 된다. 한편, (10ㄱ)의 salɛ́ki와 k'oónɛ́ki에서 語尾 -ɛ́ki는 語幹母音이 陽性일 때 결합되는 -aki가 i모음역행동화에 의하여 -ɛki로 된 뒤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ɛ는 i로 되지 않는 것이 原則이기 때문이다.

(10ㄴ)의 語詞들은 名詞 'p'ali, t'ok'i, kut'에 語尾 -aŋi가 結合된 派生語다. 이 語尾도 그 자체의 構造에 의하며 i모음역행동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現在의 語形으로부터 語尾頭母音 a의 모음조화를 確認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語尾 -aki에 대하여 행해진 것과 같은 설명에 의하여 語尾 -aŋi의 頭母音 a도 모음조화를 잘 지키고 있다고 하겠다. 즉 語幹母音이 陽性일 때에 結合되는 語尾 -aŋi는 -aŋi>-ɛŋi>-ɛŋi로 나타나고 語幹母音이 陰性일 때에 結合되는 語尾 -əŋi는 -eŋi>-eŋi>-iŋi로 나타날 것인데 (10ㄴ)의 語詞들은 이런 사실을 잘 反映하고 있다.

끝으로 (10ㄷ)의 語詞들은 名詞 'pak(朴), mok(頸), pəlki(虫), c'ulki(莖)'에 語尾 -aci가 결합된 派生語이다. 이 때의 語尾 -aci는 자체의 構造가 i모음역행동화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變化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10ㄷ)의 語形에서 語尾 a의 모음조화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叙述을 통하여 派生語尾의 頭母音 a는 形態素境界에서 모음조화를 잘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東南方言을 對象으로하여 副詞形語尾 a의 모음조화에 관심을 表明한 글로는 徐在克(1969), 李炳銑(1971), 崔明玉(1976, 1979, 1980a) 等이 있다. 徐在克(1969)는 鄕歌에 使用된 '良'이 現在 慶州地域語에서 使用되는 副詞形語尾 a와 같다는 것을 밝힐 目的으로 作成된 것이다. 그러나 그 글에는 다음의 見解가 표시되어 있다. 現在의 慶州地域語는 子音으로 끝나는 動詞일 때에 語幹母音이 陽性이거나 陰性이거나 관계 없이 a를 취한다. 後期 中世國語의 活用에 모음조화에 例外를 보이는 '업사(無), 펴아(伸)' 등이 있다. 그리고 後期 中世國語의 모음조화에 의하면 당연히 陰性母音을 가진 文字로 表記되어야 할 곳에 陽性母音을 가진 文字로 表記된 副詞形語尾 a가 鄕歌에 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副詞形語尾도 本來는 母音調和法則의 適用範圍 밖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見解이다.

李炳銑(1971)은 慶南 固城地域語는 語幹末母音이 中性母音 i이고 子音으로 끝날 때나 二音節語幹으로 語幹末母音이 u일 때 副詞形語尾 a를 取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 잇아라(連), 짚아라(仗), 피아라(피우—吸煙) 주아라(拾), 부아라(注) 等. 崔明玉(1976)은 西南慶南地域語가 一音節語幹일 때는 副詞形語尾 a의 모음조화를 충실하게 지키지만 語幹이 二音節以上으로 擴大되면 副詞形語尾 a의 모음조화규칙은 喪失되고 副詞形語尾는 a로 統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려 준다. 崔明玉(1979, 1980a)는 慶北 盈德郡 寧海의 大津語도 慶州地域語와 同一하게 子音으로 끝난 語幹 뒤에는 語幹母音의 性質과는 관계 없이 副詞形語尾는 a로 고정되며 語幹이 二音節 以上이면 語幹이 i 以外의 母音으로 끝나도 그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보고하고 있다.

以上에 提示된 사실을 記憶하면서 副詞形語尾 a가 現代 月城語에서 나타내는 音韻現象을 보도록 하자. (1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語幹末音節이 子音으로 끝날 때는 語幹音節數나 語幹末母音의 性質에 관계 없이 語

尾 -ato의 頭母音 a는 a로 實現된다.

(11) ㄱ. k'ák'ado(k'ák'- 削), cúgado(cúk- 死), támado(taám- 盛), nɜ́mado(nɜɜ́m- 越), p'árádo(p'al- 吮), úrado(uúl- 泣) círado (ciíl- 長), tádado(tát- 閉), múdado(mút- 埋), wísado(wiís- 笑), pátʰado(pátʰ- 唾), pútʰado(putʰ- 附), ánado(aán- 抱), sínado(siín- 履), cʰúbádo(cʰup- 寒)

ㄴ. kɛcágado(kɛcák- 近), p'ucígado(p'ucík- 折), tɜ́dɜ́mado (tɜ́tɜm- 探), kánɜ́rado(kánɜ́l- 細), tɜ́múrado(tɜ́múl- 稀), mugɜ́bádo(mukɜ́p- 重), puk'úrɜ́bado(puk'úlɜ́p- 恥)[25]

(12)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語尾 a는 一音節語幹으로서 母音이나 h로 끝나면 陽性母音 다음에는 a로, 陰性母音이나 中性母音 다음에는 ɜ로 實現된다.

(12) ㄱ. kado(ka- 行), paádo(po- 視), kʰɜdo(kʰɜ- 大), cóódo(cú-授), cʰɜdo(cʰi-打), c'áado(c'óo-曬光), p'áado(p'óo-碎)

ㄴ. náado(nóh- 放), coádo(coóh- 好), jɜ́ɜdo(jɜ́h- 入)

한편 (13)의 例들은 語幹이 母音으로 끝나도 二音節 以上이면 語尾 a는 語幹末母音에 따라 音韻過程을 달리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13) ㄱ. cípʰado(cipʰɜ̟́- 深), ɜbúllado(ɜpúllɜ̟- 混), pɛ́ado(pɛ́u- 學), cʰíado(cʰíu- 除)

ㄴ. mánnɛdo(mánnɛ- 逢), talgɛ́ɛdo(talkɛ́ɛ- 說), ciídɛ́ɛdo(ciítɛ́ɛ- 依支)

25) 月城地域 內에서도 海岸에서 멀어진 內陸 즉 西面이나 乾川邑 等의 言語는 이 경우에 언제나 -ɜto만을 취한다.

ㄷ. tácʰɛdo(tácʰi- 傷), t'ɛ́rɛ̣do(t'ɛ́li- 拷), kidárɛdo(kitáli- 待), t'asɛ́ɛdo(t'así- 溫), hɜ́llɛdo(hɜlli- 使流)

(13ㄱ)의 例들은 動詞의 語幹末母音이 ɜ̟, o, u일 때 語尾 a는 語幹末母音이 陽性이거나 陰性이거나 상관 없이 그대로 實現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13ㄴ)의 例들의 경우, 語尾 a는 語幹末母音에 完全順行同化 되기 때문에 그것의 音韻過程이 어떠한지 분명하지 않으나 (13ㄱ)의 例들을 고려하면 語幹末母音 ɛ에 직접 完全順行同化된다고 할 수 있다(完全順行同化에 대해서는 **3·2·13** 참조). (13ㄴ)과는 달리, (13ㄷ)은 語尾 a가 語幹末母音 i 뒤에서 ɜ로 交替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語尾 a가 語幹末母音 i와 결합하여 나타내는 音聲形 ɛ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音聲形 ɛ의 導出過程은 第3章(15ㄴ) 참조)

以上과 같은 사실을 綜合하면 現代 月城語는 形態素境界에서 副詞形語尾 a의 母音調和를 가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疑問이 提起된다. 하나는 (12)의 現象이 母音調和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過去의 月城語(즉 古代國語)는 形態素境界에서 副詞形語尾 a의 母音調和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過去에도 形態素境界에서 副詞形語尾 a의 母音調和를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12)의 現象을 어떻게 說明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疑問에서는, (12)의 動詞들이 가진 語幹末音節의 構造條件 즉, 一音節語幹으로 母音이나 h로 끝난다는 條件이 充足되는 경우에 限하여 過去에도 副詞形語尾 a의 母音調和가 可能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現代 月城語가 新羅語의 充實한 後繼者라고 한다면, 新羅語(古代國語)는 副詞形語尾 a의 母音調和를 가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14)의 證據 때문에 첫번째 疑問은 成立되지 못한다.

(14) ㄱ. 花肹折叱可獻乎理音如 (獻花歌)

ㄴ. 入良沙寢矣見昆 (處容歌)

ㄷ. 他密只嫁良置古 (署童謠)

ㄹ. 一等下叱放一等肹除惡支 (禱千手觀音歌)

ㅁ. 今日此矣散花唱良 (兜率歌)

ㅂ.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祭亡妹歌)

ㅅ. 此良夫作沙毛叱等耶 (禮敬諸佛歌)

ㅇ. 伊於衣波最勝供也 (廣修供養歌)

ㅈ. 菩提向焉道乙迷波 (懺悔業障歌)

ㅊ. 無明土深以埋多 (請轉法輪歌)

ㅋ. 吾衣身伊波人有叱下呂 (普皆廻向歌)

ㅌ. 此如趣可伊羅行根 (總結無盡歌)

ㅍ. 奪叱良乙何如爲理古 (處容歌)

ㅎ. 兩手集刀花乎白良 (願往生歌)

아. 功德叱身乙對爲白惡只 (稱讚如來歌)

야. 向屋賜尸朋知良閪尸也 (請佛住世歌)

어. 一切善陵頓部叱廻良只 (普皆廻向歌) (圈點 : 筆者)

(14)의 例는 金完鎭(1980)에 解讀된 鄕歌에서 副詞形語尾 a의 存在를 분명히 認識할 수 있는 것만 選定한 것이다. 圈點이 쳐진 文字中에서 '可, 良, 惡, 沙, 波, 多, 可'는 現代國語의 副詞形語尾 a에 對當된다고 하겠거니와 各字의 母音이 모두 a인 것이 注目된다. 問題의 核心은 語尾 a가 當時에 母音調和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는 것인데 위의 表記를 통해서는 그 事情을 알 수 없다. 語尾 a의 母音調和 實現與否는 語幹末音節 母音이 어떤 것인가에 의하여 判定될 것인데 語幹部에 해당되는 文字는 訓讀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14)의 圈點部分에 대한 金完鎭(1980)의 解讀은 다음과 같다.

ㄱ. 折叱可 : 겄거(겄가) ㄴ. 入良 : 드러(들랑) ㄷ. 嫁良 : 어러(얼랑) ㄹ. 除惡 : 더럭(덜악) ㅁ. 唱良 : 블러(블랑) ㅂ. 浮良落尸 : 뜨러딜(뜨랑딜) ㅅ. 作沙 : 지사(짓사) ㅇ. 衣波 : 니버(닙바) ㅈ. 迷波 : 이바(입바) ㅊ. 埋多 : 무더(묻다) ㅋ. 伊波 : 더버(더바) ㅌ. 趣可 : 녀겨(녀기가) ㅍ. 奪叱良 : 아사(앗랑) ㅎ. 白良 : 술바(숣랑) 아. 白惡 : 술박(숣악ㄱ) 야. 知良 : 아라(알랑) 어. 廻良 : 돌악(돌랑ㄱ)

위에 提示된 動詞의 語幹은 現在로서는 달리 解讀될 수 없다는 점에서 妥當한 것으로 認定되며 이 경우에 動詞의 語幹末音節의 母音은 陽性, 陰性, 中性 모두를 포함하는데 이들 母音 뒤에서 副詞形語尾는 언제나 a로 나타나므로 新羅語(古代國語)에는 副詞形語尾 a가 母音調和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겠다.[26)]

두번째 疑問 中 (12)의 動詞들과 같은 語幹末音節 構造條件을 充足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古代 月城語가 副詞形語尾 a의 母音調和를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疑問은 中世國語에 '혀아(引), 펴아(伸)' 等 陰性母音 뒤에서도 語尾 a가 實現되는 例가 있으므로 否定된다. 이제 남은 疑問은 왜 (12)에 限하여 現代 月城語가 母音調和라고 할 수 있는 現象을 보이느냐는 것이다. 이 疑問에 대하여, 筆者는 後代의 變化라는 데서 解答을 찾고자 한다. 앞에 提示된 '혀아, 펴아' 等 語幹이 陰性母音으로 끝날 때도 語尾 a가 交替를 보이지 않은 證據에 의하여 그러한 解答이 成立할 수 있다.

26) 解讀者는 ( ) 속의 韓字와는 달리 語尾 a의 母音調和가 지켜진 語形으로 韓寫하고 있다. 그런데 現代 月城語가 극히 制限된 경우 외에는 語尾 a의 交替를 보이지 않는 점과 (14)에서 語尾 a에 해당하는 漢字들의 母音이 모두 a라는 점에서 一致하므로, 韓字대로, 副詞形語尾는 母音調和를 지키지 않는 a로 表記되어야 한다는 것이 著者의 생각이다.

지금까지의 考察에 의하여 우리는 月城語의 母音調和는 形態素內部에서 매우 엄하게 지켜졌으며 形態素境界에서 派生語尾의 頭母音 a는 母音調和를 보이는데 비하여 副詞形語尾 a는 母音調和를 보이지 않았음을 알았다. 특히 副詞形語尾 a의 경우 母音調和를 보이지 않는 많은 例들이 鄕歌에서 發見되므로 그 사실은 古代國語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할 수 있다.

2·6 圓脣母音化

圓脣母音化란 일반적으로 脣音 아래서 i가 u로 되는 現象을 말한다. i가 先行子音의 兩脣性에 同化되어 일어나는 現象으로서 일종의 順行同化이며 音韻史的으로 이 現象은 믈>물(水), 블>불(火), 플>풀(草)로써 代表된다. 이 變化가 月城語에서는 어떤 樣相으로 나타났던가를 알아보려는 것이 여기서 다룰 內容이다.

後期 中世나 近代語와 비교하면 月城語도 圓脣母音化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後期 中世나 近代語에서 脣音 아래에 i를 가졌던 語詞들, 믈(水), 블(火), 플(草), 므지게(虹), 믄득, 븥－(附), 거믄고(琴), 그믈(網), 드믈－(稀), ᄀᆞ믈(<ᄀᆞᄆᆞᆯ－ 旱) 等에 대한 月城語形은 각각 mul, pul, p^hul, múcíkɛ, muntɜ́k, pút^h-, kɜ́muŋko, kɜ́múl, tɜ́múl-, kámúl- 等이다. 이들 語詞는 脣音 아래서 i가 u로 변했음을 잘 보여 주고 있으며 아울러 그러한 變化가 音節의 位置와는 無關하게 일어났다는 것도 알려 준다.

한편, 後期 中世나 近代語에서 非脣音 아래서 i를 가졌던 '나그내(客) 그늘(陰), 아들(<아ᄃᆞᆯ 子), 그릇(器), 쓸게(膽), 기슴(雜草), 츩(葛), 더

"2중모음의 경우에는 반대의 방향을 가진다!"

듬—(探), 쓸—(掃) 等에 대한 月城語形은 각각 nákɜ́nɛ, kɜnɜ́l, átɜl, kɜ́lɜk, sílkɛ́, císim, c^{h}ílkí, tɜ́tɜmm-, sil- 等인 바 非唇音 아래의 i는 결코 u로의 變化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月城語에서도 唇音 아래의 i만이 u로 변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唇音 아래의 i가 어떤 환경에서나 상관 없이 u로 변한 것은 아니다. 單母音 i와는 달리 二重母音 ij의 i는 唇音 아래서도 u로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後期 中世나 近代語에서 唇音 아래에 ij를 가졌던 '믜구리(鰍), 기픠(深), 믭—(憎), 믯그럽—(滑), 븨—(空), 븨—(刈), 픠—(發)' 等에 대한 月城語形이 각각 mik'ulákc'i, cíp^{h}i, míp-, mik'ɜláp-, pií-, pi-, p^{h}i- 等이라는 데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 子音 뒤의 wi는 月城語에서 i로 변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後期 中世나 近代語와 現代 月城語만을 비교하여 그와 같이 斷定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위의 月城語가 보이는 唇音 아래의 i가 通時的으로 唇音 아래서 ij가 uj로 되고 다시 wi로 된 뒤에 결과된 것인지 ij에서 결과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二重母音을 構成하는 i는 唇音 아래서도 u로 변하지 않았다는 斷定은 中部方言에서 立證된다. 만약 二重母音 ij가 唇音 아래서 uj로 변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자음 뒤에서도 二重母音을 잘 維持하고 있는 中部方言에는 wi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現代 中部方言은 위의 後期 中世나 近代語의 ij에 대하여 i를 보일 뿐이다.[27]

여기서 言及되어야 할 것은 後期 中世나 近代語 '거믜(蜘蛛), 나븨(<나비)(蝶)' 等의 語詞들이 가지고 있는 唇音 아래 ij의 變化에 대한 것이

27) 後期 中世語에 唇音 아래 있던 二重母音 uj가 近代語로 넘어오면서 ij로 변하는 사실(예컨대 퓌—> 픠—(發), 뷔—>븨—(空), 뷔—<븨— (刈), 뷔틀—> 븨틀— (交撐) 等)이 唇音 아래의 ij가 uj로 변할 수 없게 만든 要因이라고 생각된다.

다. 이 때의 ɨj는 現代 中部方言에 i로 대응되므로 이 역시 ɨj는 唇音 아래서도 圓唇母音化하지 않았다는 證據가 되다. 그러나, 中部方言과는 달리 月城語(東南方言과 西南方言)는 그들 語詞에 대하여 kɜ́mu, nápu를 보인다. 이 例는 지금까지의 論議를 否定하는 證據가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後期 中世나 近代語의 ɨj에 대한 月城語 u는 唇音 아래서 ɨj가 uj로 된 뒤에 結果된 것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後期 中世語 '사마괴(痣), 가마괴(烏)' 等에 대한 現代 中部方言形 samakü~samaki, k'amakü~k'amaki와 月城語形 samáku, k'amáku를 비교할 때 妥當하게 된다. 現代 中部方言의 語幹末母音 ü나 i는 oj>uj>ü나 oj>uj>ü>wi>i의 變化에 의한 것인데 비하여 그에 대당하는 月城語의 u는 oj>uj>u의 變化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月城語 kɜ́mu, nápu의 u에 대하여 그러한 說明이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ɨj가 圓唇母音化過程을 거쳤다는 것이 證明되어야 한다. 그런데 (後期 中世나) 近代語 '(모기>)모긔 (蚊), (동히>)동희 (盆), (죠히>)죠희 (紙)' 等에 대한 月城語 mɜ́kú, tóŋo, cóŋo에서 보는 바와 같이 唇音을 先行시키지 않은 ɨj(<ʌj)도 圓唇母音으로 되어 있으므로[28] kɜ́mu, nápu의 u가 唇音 아래서 圓唇母音化한 것이라고 限定지을 수 없는 것이다.

非語頭나 語頭音節에 ʌj와 oj, ʌ와 o를 가진 雙形의 語詞가 後期 中世語에서 더러 發見되는데 그러한 語詞들로부터 月城語의 kɜ́mu, nápu에 대한 說明의 方途를 찾을 수 있다. 後期 中世語에서 發見되는 雙形의 語

---

28) soŋi>síŋi ((밤)송이), moŋtuŋi>moŋtíŋi (몽둥이), paŋmaŋi>paŋméŋi 等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月城語는 形態素內部에서 音素의 連續이 $\begin{bmatrix} V \\ +back \end{bmatrix}$ $\begin{bmatrix} C \\ +nasal \\ +back \end{bmatrix}$ i와 같은 경우에 例外없이 i母音逆行同化規則을 적용받았다. 만약 '동희'와 '죠희'의 語幹末音節의 二重母音 ɨj가 i로 변했다면 現代 月城語는 각각 tíŋi나 cíŋi가 되어야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現代 月城語形은 tóŋo, cóŋo이므로 이들 語詞가 ɨj>i의 變化를 거쳤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詞는 (15)와 같다.

(15) ㄱ. 나ᄇᆡ(석 十一 35) : 나뵈(杜초 十五 32), 도ᄎᆡ(杜초 廿五 2) : 도최(杜초 十八 18), 말ᄉᆞᆷ(杜초 八 25) : 말솜(朴초 上 38), 노ᄅᆞ(字會上 18) : 노로(解例用字), 노ᄅᆞᆺ(용 44) : 노롯(老下 44), 도ᄅᆞ혀(杜초 七 17) : 도로혀(杜초 八 28), 조ᅀᆞ로이(杜초 廿30) 조ᅀᅩ로이(杜초 九 13)

ㄴ. ᄠᆞ로(석六 7) : ᄯᅩ로(金삼 三 44), 一ᄃᆞ록(석 九 10) : 一도록(月七 9), 보야ᄒᆞ로(능 一 20) : 보야호로(번小 八 18)

雙을 이루는 前後 語詞는 그것들이 起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先行段階의 單一基底形에서 派生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o로부터 ʌ의 導出過程은 說明될 수 없으므로 後者의 語形은 前者의 語形에서 派生된 것으로 생각된다. ʌ의 前後에 圓唇母音 o나 唇音이 있는 것을 보면 ʌ가 前後 音素의 圓唇性에 同化되어 o로 되었다고 함으로써 後者의 語形이 說明된다. 中世語 '나ᄇᆡ, 모ᄀᆡ, 동ᄒᆡ, 죠ᄒᆡ'等의 語幹末母音 ʌj에 대하여 月城語가 u를 보이는 것은 ʌj가 ɨj로 변하기 前에 先行하는 唇音이나 圓唇母音 o에 同化되어 ʌj>oj로 된 뒤의 變化에 의한 것이라 할것이다. ʌj>oj 뒤의 變化는 前述한 後期 中世語 '가마괴'類에 대한 月城語 k'amáku에 加해진 說明과 同一하다.

後期 中世語 '거믜'에 대한 月城語 kə́mu에서 發見되는 ɨj에 대한 u의 變化도 同化作用에 의한 것으로 본다. ʌ와 o를 가진 雙形과 같이 後期 中世語에 ɨ와 u를 가진 雙形이 共存하고 있다는 데서 그러한 說明이 成立된다. (16)에서 그러한 雙形을 볼 수 있다.

(16) 어듭—(暗)(용 20) : 어둡—(능 二 28), 그울—(轉)(月석 十 6) :

구울—(석 廿三 21), 드위혀—(飜)(金삼 二 46) : 두위혀—(杜초 廿三 38)

後者의 語形은 前者의 語形을 基底形으로하여 後行音節의 圓脣母音 u나 바로 다음의 脣音의 (圓)脣性에 同化되어 i가 u로 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月城語 kɜ́mu의 u는 ij가 先行하는 m에 同化되어 uj로 된 다음 다시 uj>u의 規則에 의한 것으로 說明된다.[29]

後期 中世語 時期에 發見되는 이 同化現象은 近代國語에서 發生된 圓脣母音化現象과는 엄격히 區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脣音 아래 ij의 圓脣母音化를 論하는 對象에서는 kɜ́mu, nápu 類의 語詞가 除外되는 것이다.

끝으로 形態素內部에서 차지하는 i의 位置에 따른 圓脣母音化에 대하여 論하기로 하자. 앞에서 우리는 脣音 아래서 單母音 i는 거의 例外 없이 u로 變한 것을 보았다. 그러나 變化의 樣相을 면밀히 관찰하면 脣音 아래서 單母音 i가 u로 변한 것은 脣音과 子音(l 포함) 사이에서나 可能했던 것이며 動詞의 語幹末에 位置한 i는 u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現代語에 繼承된다고 하겠다. 中世나 近代語의 '프—(汲), 깃브—(歡), 슬프—(哀), 알프— 또는 앓프—(痛)' 等에 대한 月城語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動詞가 語尾 -ko, -tɜ́la, -ato, -ɜmo와 結合할 때의 活用形은 (17)과 같다.

(17) ㄱ. p^hugo, p^hudɜ́ra, p^hɜdo, p^humo

ㄴ. kip'úgo, kip'udɜ́ra, kíp'ado, kip'úmo

29) 圓脣性에 의한 同化現象에 대해서는 崔銓承(1975 : 51—63)을 참조할 것. 後期 中世語에서 發見되는 '더뷔, 치뷔'(석九 9)는 動詞 '덥—'(暑)과 '칩—'(寒)에 名詞派生語尾가 結合되어 形成된 것이다. 이런 類의 派生名詞를 만드는 語尾는 '—ᄋᆡ'와 '—의'라는 점에서 '더뷔'의 'ᅱ'는 脣音에 의하여 同化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ㄷ. silp^{h}úgo, silp^{h}udrɜ́ra, sílp^{h}ado, silp^{h}úmo

위의 活用形에서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결합할 때의 音聲形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動詞가 語幹末母音으로 u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語幹末母音 i가 圓唇母音化한 것임을 말한다. 그러나 語尾 -ato와 결합할 때의 音聲形과 月城語의 全體文法을 고려하면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결합할 때의 音聲形에 나타나는 語幹末母音 u는 共時的 現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먼저 (17)의 動詞의 語幹末母音이 u가 아니라는 것은 (18)의 例로부터 立證된다.

(18) ㄱ. nú+ko→núgo, nú+ato→noódó, nú+ɜ̟mo→númo (放尿)

ㄴ. cú+ko→cúgo, cú+ato→cóódó, cú+ɜ̟mo→cúmo (授)

ㄷ. k'ú+ko→k'úgó, k'ú+ato→k'oódó, k'ú+ɜ̟mo→k'úmó (夢)

(18)의 例는 一音節語幹으로서 u를 가진 모든 動詞는 語尾 a와 결합하면 長音을 가진 o로 변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17)의 動詞는 그 경우에 ɜ를 보인다. 이 때의 ɜ는 語尾 a의 交替形이다(**3·2·1** 참조). 月城語에서 語尾 a가 語幹末母音과 결합하여 ɜ로 實現되는 경우는 語幹末母音이 ɜ̟나 ɜ일 때에 局限된다((19ㄴ) 참조).

위의 叙述에서 (17ㄱ)의 動詞의 語幹末母音은 u가 아니라 ɜ나 ɜ̟ 중 어느 하나가 되어야 한다. 選擇되는 모음은 削除되지 않으면 唇音에 영향받아 u로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ɜ는 어떤 경우에도 子音의 資質에 영향 받지 않으므로 자연히 ɜ̟가 될 수밖에 없다. 共時的 現象으로서 ɜ̟가 唇音에 의하여 u로 되는 例는 tɜ́p^h+ɜ̟mo→tɜ́p^{h}umo (覆), nɜ́m+ɜ̟mo→nɜ́mumo (越) 等에서 發見된다. 따라서 (17ㄱ)의 動詞의 基底形은 p^{h}ɜ̟-

가 된다.[30]

이제 (17ㄴ, ㄷ)의 動詞들도 語幹末母音으로 u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立證할 차례이다. 먼저 注目을 끄는 것은 語尾 -ato와 결합할 때 語幹末音節의 高調가 앞 音節로 移動된다는 점이다. 語幹 聲調의 變動은 語尾 tɜ́와 結合할 때도 나타난다. 그러나 語尾 tɜ́와 結合할 때는 語幹末音節의 高調가 低調로 되므로 -ato와 結合할 때와는 聲調變動의 樣相이 다르다. 그것은 語尾 tɜ́가 가진 高調의 特性 즉,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先行 語幹末音節의 高調를 低調化하는 特性에 말미암는 것이다. (19)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9) ㄱ. tégo, tɛdɜ́ra, tɛ́ɛdo, témo (成)

ㄴ. sɜ́go, sɜdɜ́ra, sɜdo, sɜ́mo (立)

ㄷ. suŋgúkkʰo, suŋguttʰɜ́ra, suŋgúumo (植)

ㄹ. tákk'o, tatt'ɜ́ra, tádado, tádɜmo (閉)

cf. tɛ́gó, tɛ́dɜ́ra, tɛ́ɛ́do, tɛ́mó (升)

cabú(l)go, cabúdɜ́ra, cabúrado, cabú(l)mo (睡)

語尾 tɜ́와는 달리 語尾 -ato는 語幹 聲調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에서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결합할 때와 語尾 -ato와 결합할 때의 語幹 聲調를 비교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위 li變則動詞의 活用은 (17ㄴ, ㄷ)에 제시된 動詞의 語幹末母音에 대한 理解에 決定的인 證據를 提示한다. (20)의 活用形을 보자.

(20) ㄱ. taríg0, taridɜ́ra, tállado, tarímo (異)

30) 音素 i를 가지는 方言에 대하여 金完鎭(1971 : 113)은 '푸ㅡ'(汲)의 基底形을 pʰi-로 잡고 있다. 이에 앞서 최현배(1969 : 328)은 '푸ㅡ'를 'pʰi-'라고 볼 수도 있다는 可能性을 제시하고 있다.

ㄴ. puri̇́go, puridɜ́ra, púllado, puri̇́mo (呼)

ㄷ. hɜri̇́go, hɜridɜ́ra, hɜ́llado, hɜri̇́mo (流)

(20)에서 우리는 모든 動詞의 活用에서 나타나는 聲調의 類型이 (17ㄴ, ㄷ)의 그것과 完全히 一致하는 것을 發見한다.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20)에서 語尾 -ato와 結合될 때 나타나는 語幹 聲調의 變動이 語幹末母音의 削除와 同時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31] 이것은 (17ㄴ, ㄷ)의 語幹聲調 變動에 대한 우리의 假定과 符合된다.

(17ㄴ, ㄷ)에 提示된 動詞의 語幹末母音이 u가 아니라는 것은 月城語의 動詞構造와 그와 관련된 通時的 變化와의 關係에서 立證할 수도 있다. 그것은 二音節語幹의 動詞로서 語幹末音節이 Cu의 構造를 가지며 語幹聲調가 固定的 低·高이면 語幹末音節은 例外 없이 剩餘的인 長音을 가지며 그것들은 長音削除와 h添加에 의하여 語幹 再構造化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 pak'úu->pak'úh-(換), katúu->katúh-(囚), kalúu->kalúh-(遮) 等. (17ㄴ, ㄷ)에 提示된 動詞는 語幹 構造와 聲調形이 앞의 條件과 같으면서도 語幹末音節의 長音이나 再構造化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 動詞의 語幹末母音이 u가 아니라는 말이다.

以上의 事實을 綜合하면 (17ㄴ, ㄷ)에 提示된 動詞의 語幹末母音은 u가 아니라 語尾 a와 結合할 때 削除되고 그렇지 않으면 先行하는 唇音에 의하여 u로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條件을 充足시키는 母音은 (17ㄱ)의 動詞에 대한 論議에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ɜ̟뿐이다. 따라서 (17ㄴ, ㄷ) 動詞들의 基底形은 각각 kip'ɜ̟́-와 silpʰɜ̟́-가 된다.[32]

---

31) 鄭然粲(1974 : 81—82)에서도 이런 사실을 確認할 수 있다.

32) 前者의 動詞들이 語幹末母音으로 i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中部方言에서 더 분명하게 立證된다. 動詞 '거두—(收)', '나누—'(分)는 語尾 '—아도'와 結合하면 '거두어도~거둬도, 나누어도~나눠도'가 되나 '기쁘—~기뿌—, 슬프—~슬푸—'는 그 경우에 '기뻐도, 슬퍼도'가 된다. 만약 後者의 語幹이 '기뿌—'나 '슬푸—'라고 한다면 前者와 같이 '기뿌어도~기뿌도'나 '슬푸어도~슬풔도'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音聲形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後者의 基底形은

以上의 論議에서 (17)의 動詞가 가지고 있는 語幹末母音은 모두 $\underset{+}{3}$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underset{+}{3}$는 先行 時期의 i에 遡及된다.

지금까지의 考察에 의하여 우리는 形態素內部에서 i의 圓唇母音化는 唇音과 子音(l 포함) 사이에서만 일어났으며 唇音과 j 사이에서나 動詞의 語幹末 位置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실은 國語 全體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사실은 形態素境界에 位置한 音素는 다른 位置에 있는 同一音素에 비하여 變化에 가장 强하게 抵抗한다는 言語變化의 한 가지 機制를 말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33] 앞에서 밝혀진 i의 圓唇母音化規則은 (21)과 같다.

(21) 圓唇母音化規則

i는 唇音과 子音(l 포함) 사이에서 u로 변한다.

2·7 前舌高母音化

前舌高母音化란 齒擦音(s, c, c', c^h)과 流音(l) 뒤의 i가 先行 音素의 前舌性에 同化되어 前舌高母音 i로 되는 音韻現象으로 일종의 順行同化라 할 수 있다. 이 現象의 發生條件과 制約條件 等에 대한 考察이 여기서 취급될 主內容이 된다. e>i, 二重母音의 單母音化에 의한 i, i모음역행동화에 의한 i도 前舌高母音化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先行子音의 資質에 의한 前舌高母音化와 變化過程을 달리하므로 여기서 제외된다.

後期 中世나 近代國語에서 齒擦音 아래에 位置하던 ə, u, o, a는 現代月城語에 거의 그대로 대응되지만 i는 일반적으로 i에 대응된다. 이 사실

'기쁘一'와 '슬프一'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33) 다른 例로서 金完鎭(1974)를 들 수 있다.

은 (22)의 例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i만이 齒擦音 뒤에서 i로 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ㄱ. cɜl(절 拜), c^hɜ́ɜ́m(처섬 初), cɜ́c-(젖—潤), cɜɜ́c-(젌—攪), sɜ́li(서리 霜), sɜɜ́l(설 元旦), sɜ́-(서—立), sɜ́k'-(섞—混)
ㄴ. súl(수울 酒), suk(수ㅎ 雄), cumíni(주머니 囊); culúm(皺)
ㄷ. sóli(소릐 聲), sokúm(소곰 鹽), son(손 手), coólɛ(죠릐 笊) c'óc^h-(쫓—逐)
ㄹ. saálám(사롬 人), samáku(사마괴 痣), sáu(사회 壻), cáli(자리 席), ca(자ㅎ 尺)
ㅁ. sílkɛ́(쓸게 膽), pɛ́sil(벼슬 官), sásim(사숨>사슴 鹿), sítám-(쓰다둠—撫), siláci-(쓰러디—斃), sil-(쓸—掃), sip-(쓰—苦) cip(즙 汁), c^{h}ilki(츩 葛), pɜ́cim(버즘 癬), cílkɜ́p-(즐겁—樂), ciŋín(증인 證人), c^{h}íŋnjáŋ(측량 測量), c^{h}íŋkɛ(층계 層階)

이 변화는 形態素內部에서의 位置에 관계 없이 일어났으며 漢字語도 이 變化의 영향권 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변화에서도 動詞의 語幹末 位置에 있던 i는 除外되었는데 後期 中世語 '쓰—'(書, 用)에 대한 月城語의 動詞에서 그러한 사실이 立證된다. 먼저 몇개의 動詞에 의한 活用形을 提示하고 論하기로 하자.

(23) ㄱ. sígó, sídɜ́ra, sɜ́dó, símó (書, 用)
ㄴ. cígo, cidɜ́ra, cɜ́dó, címo (負)
ㄷ. ígo, idɜ́ra, jɜ́dó, ímo (藏)
ㄹ. kígó, kídɜ́ra, kíído, kímó (匍匐)
ㅁ. t'ígó, t'ídɜ́ra, t'íído, t'ímó (分離)

ㅂ. siígo, siídǯra, siído, siímó (<se-强)

ㅅ. siígo, siídǯra, siído, siímo (<soj-髮白)

(23ㄱ)에서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결합할 때를 基準하면 後期 中世語의 '쓰—'에 대한 月城語의 動詞는 si-가 된다. si-를 基底形으로 인정한다면 이 動詞는 前舌高母音化를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23ㄴ)과 (23ㄷ)의 活用은 그런 說明이 妥當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語幹末母音이 i인 動詞로서 (23ㄱ)과 같은 活用을 보이는 것은 先行子音이 破擦音인 경우에 限定된다는 것이다: cʰígó, cʰídǯra, cʰǯdó, cʰímó (打); c'ígó, c'ídǯra, c'ǯdó, c'ímó (蒸). 다만 (23ㄷ)도 그와 類似한 活用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動詞의 語幹이 母音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pó+ato→paádo (視), nóh+ato→náado(放)에서 보듯이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幹일 때는 滑音化와 滑音削除가 일어나며 滑音化에 의한 補償的 長音까지 實現되지만 ó+ato→wato (來)처럼 語幹이 母音으로 시작되면 滑音化만 일어날 뿐이며 그 경우에 補償的 長音이 發生되지 않는 것과 同軌를 이룬다고 하겠다. (23ㄴ, ㄷ)의 경우를 除外하면 基底에서 語幹末母音으로 i를 가진 動詞는 (23ㄱ)과는 活用에서 差異를 보인다. 그 差異는 語尾 -ato와 結合하는 경우에 드러난다. (23ㄹ—ㅅ)에서 우리는 그들 動詞가 -ato와 결합하면 語尾의 頭母音 a가 音聲形으로 實現되지 않음을 본다. (23ㄱ)의 動詞와 같이 s로 시작되는 動詞 즉 '强'이나 '髮白'의 뜻을 가진 動詞도 (23ㄹ, ㅁ)의 動詞와 同一한 活用을 하는 것을 보면, (23ㄱ)의 動詞語幹이 si-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月城語의 動詞 活用을 分析해 보면 (23ㄱ)의 動詞가 語尾 -ato와 결합하여 나타내는 音聲形은 動詞 sǯ-(立)나 k'ʒ- (消)가 나타내는 것과 一致한다: sǯgo, sǯdo ;k'ǯgó, k'ǯdó. 그러나 이들 動詞가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할 때의 音聲形은 (23ㄱ)의

動詞의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다. 以上의 諸事實을 綜合하면 (23ㄱ)의 動詞의 語幹末母音은 語尾 a와 결합하면 削除되고 削除되지 않으면 先行 子音의 영향으로 前舌高母音化하는 것이다. 이 條件을 充足시키는 母音은 可變的인 $\underset{+}{3}$ 뿐이다(3·1·1 참조). 摩擦音 아래의 $\underset{+}{3}$가 i로 되는 共時的인 例로서 cíis+$\underset{+}{3}$mo→císimo(吠), wíis+$\underset{+}{3}$mo→wísimo(笑) 等을 들 수 있다. 따라서 (23ㄱ)의 動詞의 基底形은 s$\underset{+}{3}$-가 된다. 이 때의 語幹母音 $\underset{+}{3}$는 i에 遡及된다. 여기서도 우리는 動詞의 語幹末 位置의 i는 齒擦音 아래서도 i로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音素의 變化는 形態素內에서 그 音素가 놓이는 位置와 환경에 따라 달리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月城語는 齒擦音에 의한 i>i의 變化 外에 流音에 의한 i>i의 變化도 보인다. 後期 中世語 '쟈ᄅᆞ(柄·袋), 노ᄅᆞ(獐), ᄀᆞᄅᆞ(粉), ᄒᆞᄅᆞ(一日), ᄂᆞᄅᆞ(津), 시르(甑), 서르(相), 바ᄅᆞ(直, 正), 고ᄅᆞ(고ᄅᆞ) (均)' 等에 대한 現代 中部方言形은 '자루, 노루, 가루, 하루, 나루, 시루, 서로~서루, 바로~바루, 고루(고루)' 等이고 月城語形은 calí, nolí~nolkéŋi, halí, nalí, silí, s3lí, palí, kolí(kóli) 等이다. 여기서 現代 中部方言과 月城語間에 語末音節母音이 u와 i로 대응되는 것을 보는데 先行 段階의 月城語形이 後期 中世語와 同一한 語幹 構造를 가졌다고 한다면, 前舌高母音化가 19世紀에 들어 와서 發生한 것이므로, 月城語는 流音 뒤에서 i(ʌ>i도 포함)>i의 變化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變化가 中部方言의 變化와는 관련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現在로는 斷定하기 어렵다.[34]

34) ㉠ 이 경우에 前舌高母音化하는 母音 i가 거의 절대적으로 高調를 가지고 있음이 주목되는데 이 高調가 이 音韻變化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는 분명히 말할 수 없다.
㉡ 月城語도 中部方言과 同一한 變化를 경험했다면 現代 月城語形은 i添加와 單母音化에 의하여 說明할 수도 있다. 즉, 쟈ᄅᆞ>자로>자루>(자루+ㅣ>)자뤼>자리, 노ᄅᆞ>노로>노루>(노루+>ㅣ)노뤼>노리 等과 같은 過程을 거쳐 現在와 같은 語形이 되었다고 說明할 수 있다. i添加現象은 月城語에서 흔히 發見되기 때문이다: kamέ(가마 轎), c^h3mέ(치마 裳), h3p^hέ(허파 肺) 等.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硏究가 要望된다.

"ㄹ" 변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ɨ > i 가 되지 않는가?

여기에 더 追加될 것에 kalí-(分), talí-(異), mulí-(軟), pulí-(唱)를 포함하는 모든 li 變則動詞가 있다.

'分'과 '唱'의 뜻을 가진 動詞가 子音이나 ɜ̟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할 때의 音聲形 karígo, karímo; purígo, purímo와 語尾 -ato와 結合할 때의 音聲形 kállado; púllado는 하나의 基底形에 共時的 音韻規則이 적용되어 導出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와 같은 理由로 위의 li 變則動詞는 子音이나 ɜ̟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하거나 a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되는 동안에 語幹의 再構造化가 달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35] 語幹의 再構造化가 달리 이루어진 경우에는 두 개의 語幹이 語幹末의 환경을 같이 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으므로 子音이나 ɜ̟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하는 過程에서 語幹末母音이 流音 아래서 ɨ>i로 변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具體化해 주는 例로서 近代語 'ᄠᅳ르ー'(隨)에 대한 月城語 t'áli-를 들 수 있다. 이 動詞는 (24ㄱ)의 活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活用相이 원래 語幹末母音 i를 가진 (24ㄴ, ㄷ)의 動詞들의 그것과 完全히 일치한다. 이것은 t'áli-가 流音 아래서 ɨ>i의 변화를 겪은 것이라는 말이 된다.

(24) ㄱ. t'árigo, t'áridʒra, t'áredo, t'árimo (隨)

ㄴ. t'ɛ́rigo, t'ɛ́ridʒra, t'ɛ́rɛdo, t'ɛ́rimo (打)

ㄷ. t'ɜ́ncigo, t'ɜ́ncidʒra, t'ɜ́ncɛdo, t'ɜ́ncimo (投)

그러나, kɜ́lɜk(kɨlɨk 器), nólɜ́k(nolɨk 戲), pɜ́lɜs(pəlɨs 習慣), ʒɜ́lɜ́n(əəlɨn 成人), ɜ́lɜm(əlɨm 水) 等에서는 流音 아래서도 ɨ>i의 變化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ɨ가 閉音節 內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流音에 의하여 前舌高母音化한 例는 被同化主 i가 모두 開音節에 位

35) 이 問題는 3.2.21에서 보다 具體的으로 論議될 것이다.

置할 때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前舌高母音化란 이름 아래 先行子音이 가진 前舌性에 同化되어 일어난 ɨ>i의 變化에 대하여 考察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齒擦音 다음의 ɨ는 모두 i로 변하는 것이 原則이었으나 動詞의 語幹末 位置의 ɨ는 摩擦音 다음에서 i로 변하지 않았으며 流音에 의한 前舌高母音化는 lɨ가 語幹末에서 開音節을 이룰 때만 可能했다는 것을 알았다. 月城語의 前舌高母音化를 支配하는 規則은 (25)로 整理된다.

(25) 前舌高母音化規則

(a) 動詞에서 ɨ는 s와 子音(l 포함) 사이에서 i로 변하며 (b) 그 以外의 경우에 ɨ는 齒擦音 뒤에서 i로 변한다. (c) 語幹末이 ɨ로 끝날 때 ɨ는 l뒤에서 i로 변한다

2·8 口蓋音化

i (j 포함)가 지닌 前舌高母音性에 의하여 非口蓋音이 前舌高母音性을 지닌 口蓋音으로 되는 現象을 口蓋音化라고 하거니와 i에 의한 逆行同化라는 점에서 口蓋音化는 i母音逆行同化의 一種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t系, k系 및 h口蓋音化에 대하여 簡略하게 알아 보고 共時的 資料에서 이들 口蓋音化에 대하여 例外的이라 할 수 있는 것들에 더 관심을 두고 論하기로 한다.

國語音韻史에서 t系口蓋音化는 形態素內部의 位置에 관계 없이 일어난 것으로 그 現象은 西北方言을 제외한 모든 方言에 걸친 것이었다. 이에 비하여 k系 및 h口蓋音化는 中部方言의 一部와 西北方言을 제외한 나머지 方言에서 일어났다(李崇寧 1967 : 37). 그 位置는 語頭音節에 局限되었다. 漢字語는 原則的으로 k系 및 h口蓋音化에서 제외되었으나 言衆의 意

識에 漢字語라고 認識되지 않았을 경우에 口蓋音化하였다(李崇寧 1967, 金完鎭 1971a, b).

이러한 口蓋音化의 機制는 月城語에도 다를 바가 없다. c3psíki(뎝시 楪子) c^{h}3ntúŋ(텬동 天動), coóh-(둏ㅡ 好), c^{h}i-(티ㅡ打), tɛc^{h}í-(데티ㅡ 煠) 等은 t系口蓋音化의 例이고 cil(길ㅎ 路), cát^h(곁 傍), c^{h}ɛ́ŋí(키 箕), ciíl-(길ㅡ 長), c3́nti-(견듸ㅡ 忍) 等은 k系口蓋音化의 例이며 sim(힘 力), sɛ(혀 舌), súŋ(흉 缺點), sɛm(혬 計), si-(ᅘㅣㅡ~혀ㅡ 引) 等은 h口蓋音化의 例이다. 이 밖에 c3́ŋk'i(경기 驚氣), c3́lt'án(결단 決斷), cim(s3́paŋ)(김서방 金ㅡ), síŋi(형 兄), soócá(효자 孝子), sóám(효험 效驗), suŋnj3́n(흉년 凶年) 等은 漢字語로서 k와 h口蓋音化를 입은 例이다.

이와 같이 月城語는 t系, k系 및 h口蓋音化를 경험하였던 것을 알겠는데 資料를 잘 관찰하면 (26)와 같은 例外들이 있음을 發見한다.

(26) ㄱ. t'i(帶), t^{h}i(塵), k^{h}i(身長), matí(節), kílíki(雁), ki-(匍匐) c3́nti-(忍), tílí-(獻), mutí-(鈍), kílí-(齧), hi-(白)

ㄴ. tií(後), ki(耳), saŋtíŋi(雙生兒), mót^{h}íŋi(隅), moŋtíŋi(棒), kit'úlémi(蟋蟀), t^{h}í-(跳), t'í-(走), k'ií-(屁)

ㄷ. kii(蟹), kuútiki(蛆), k'3pt'íki(皮), mutíki(堆), k'3n-tíki(滓), t'i-(分離)

그러나, 一見하여 口蓋音化의 例外的 存在라고 생각되는 이들 語詞는 通時的 觀點에서 볼 때 모두 그럴만한 理由를 가지고 있다. 同化主의 位置에 있는 i는 本來的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音韻過程에 의하여 i가 아닌 母音으로부터 生成된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同化主 位置의 i 중에서 (26ㄱ)의 語詞들이 가진 i는 二重母音 ij나 i모음역행동화에 의하여 生成된 ij가 單母音化함으로써 生成된 것이며(kílíki, tílí-, kílí-에서

는 語頭音節의 i를 말함.) (26ㄴ)의 語詞들이 가진 i는 二重母音 wi나 i모음역행동화에 의하여 生成된 wi가 單母音化함으로써 生成된 것이다 (saŋtíŋi, motʰíŋi, moŋtíŋi에서는 先語末音節의 i를 말하고 kit'úlémi에서는 語頭音節의 i를 말함). 그리고 (26ㄷ)의 語詞들이 가진 i (二音節 以上의 語詞에서는 先語末音節의 i)는 e나 i모음역행동화에 의하여 結果된 e가 e>i에 의하여 生成된 것이다.

이러한 事實이 저들 語詞를 口蓋音化에 대한 例外的인 存在로 만들었으므로 口蓋音化를 일으킬 수 있는 i는 본래적인 것이어야 할 것을 말해 준다. 그리하여 ij, wi나 e에서 生成된 i는 비록 그것이 口蓋音化를 일으킬 수 있는 位置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적인 i가 아니기 때문에 同化主로서의 資格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라 하겠다. 問題는 共時的으로 남아 있는 저들 例外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것이다.

종래에 저들 例外(正確하게는 t系口蓋音化에 대한 例外)가 가지고 있는 i를 形態音素論的인 次元에서 ii나 ij와 같은 것으로 봄으로써 例外들에 대한 合理的인 說明을 하려고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說明方法은 金榮起(1975 : 207—10)와 金手坤(1976 : 149—75)에 의하여 옳지 않다는 批判을 받았다. 金榮起(1975)는 言語習得過程에서 口蓋音化의 例外를 이루는 語詞들의 變遷史를 알지 못하는 어린이의 말에서도 t系口蓋音化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과 共時的으로 그들 語詞가 交替形은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들어 形態素 內部에서의 口蓋音化를 否定하였다. 金手坤(1976)은 無意味單語와 借用語에 의한 外的 證據와 口蓋音化規則과 單母音化規則間의 通時的 先後關係를 고려함으로써 形態素內部에서의 t系口蓋音化를 否定하였다. 이렇게하여 口蓋音化를 보이지 않는 i에 대하여 基底表示를 달리할 필요가 없게 된다. 著者는 이러한 見解를 妥當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月城語가 보여 주는 (26)의 語詞들에 대해서도 같은 說明을 할 수 있다. 만약 t系, k系 및 h口蓋音化가 形態素內部에서도 共時的으로 作用하는 살아 있는 規則이라고 한다면 (26)의 語詞들에 대한 變化過程을 알지 못하는 話者들의 말에서는 口蓋音化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年齡과 身分에 관계 없이 어떤 話者의 말에서도 그런 例는 發見되지 않는다. 이것은 話者들이, 形態素境界에서의 t系口蓋音化를 제외하고는, 口蓋音化規則을 文法의 일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通時的 觀點에서 말하면 口蓋音化規則은 二重母音의 單母音化規則이나 e>i 規則보다 먼저 發生되었으나 앞의 두 規則이 發生되었을 때는, 形態素境界에서의 t系口蓋音化만을 제외하고, 喪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形態素內部의 口蓋音化는 通時的 事實이므로 共時的 記述의 對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月城語가 가졌던 口蓋音化規則은 (27), (28)과 같으며 이들 규칙은 二重母音의 單母音化規則이나 e>i 規則보다 먼저 適用되었다고 하겠다.

(27) k系 및 t系口蓋音化規則

(a) 語頭音節에서 k, k', k^h는 i나 j 앞에서, 그리고 (b) t, t', t^h는 音節位置에 관계 없이 i나 j 앞에서 각각 c, c', c^h로 변한다.

(28) h口蓋音化規則

語頭音節에서 h는 i나 j 앞에서 s로 변한다.

2·9 i母音逆行同化

同化主인 i(j 포함)에 의하여 被同化主인 後舌母音이 前舌母音化하는 現象을 i母音逆行同化라고 하는데 그 生成要因이나 制約條件에 대해서는 李崇寧(1954c)와 金完鎭(1971a)에서 매우 精密하게 考究되었다. 여기서는 이 現象에 대한 지금까지의 硏究結果를 통하여 月城語가 경험한 이 現象의 一

般性과 特殊性을 밝히고 나아가서 이 現象을 支配하는 規則을 그와 관련되는 다른 規則들과의 關係 속에서 檢討하고자 한다. i 모음역행동화를 支配하는 通時的 音韻規則은 일반적으로 (29)로 나타낼 수 있다.

(29) 同化主(母音i나 j)와 被同化主(後舌母音) 사이에 非舌頂的(non-coronal) 子音이 介在되면 被同化主는 뒤에 있는 同化主가 가진 前舌性에 同化되어 前舌母音으로 변한다.

규칙 (29)에 의하여 i 모음역행동화를 입은 月城語의 例는 (30)과 같다. 모든 後舌母音이 이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0) ㄱ. salɛ́ki(<salaki 小米), paŋmɛ́ŋi(<paŋmaŋi 枯杵), ɛ́pi(<api 父), sɛɛ́pi(<sapi 蝦), kacɛ́mi(<kacami 比目魚), mɛntɜlɛ́mi(<mɛntɨlani 雞冠花)

ㄴ. ɛ́mɨ́(<əmi 母), t'uk'ɨ́pi(<tuk'əpi 蟾), úŋtiŋi(<uŋtəŋi 澤), tutɜlɛ́ki(<tutɨləki 疹), sɛ́ŋki-(<səmki- 服事), nɛ́ŋki-(<nəmki- 過到)

ㄷ. p^{h}ɛ́ki(<p^{h}oki 叢), kɛ́ki(<koki 魚), sɛ́ki-(<soki- 欺)

ㄹ. t'atɨ́mi(<…<tatɨmi 砧), kɨ́jaŋ(<kɨ́njaŋ 空)

ㅁ. moŋtɨ́ŋi(<moŋtuŋi<… 棒), mót^{h}ɨ́ŋi(<mot^{h}uŋi<… 隅), mómt'ɨ́ŋi(<momt'uŋi<… 身), cɨ́ki-(<cuki- 殺), hɨ́pi-(<hupi- 摍去), k'ɨ́mɨ́-(<k'umi- 飾)

규칙 (29)에서 制約하고 있는 바와 같이 (30)의 例들은 同化主와 被同化主 사이에 舌頂的 資質을 가진 音素(ㄷ, ㄸ, ㅌ, ㄴ, ㅅ, ㄹ, ㅈ, ㅉ, ㅊ)를 介在시키지 않는다. 그런 音素가 개재된 '머리, 각시, 가지(枝), 말리—' 等은 어떤 경우에도 月城語에 *mɛ́li, *kɛ́ksi, *kɛ́cɨ́, *mɛ́lli- 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31)의 例들은 同化主와 被同化主 사이에 舌頂的 資質을 가진 音素를 가지고 있는데도 i 모음역행동화를 보인다.

(31) ㄱ. kámɛni(<kamani 叺), cumɨ́ni 또는 cumɛ́ni(<cumɘni 嚢) hálmɨ́ni 또는 hálmɛ́ni(<halmɘni 祖母), cijɜ́k 또는 cɛɛ́k (<cɘnjɘk 夕), ɛ́n(<ani 否), ɛnɨ́-(<ani- 否)

ㄴ. ɛ́lɜp-(<ɘljɘp- 難), cʰɛ́li-(<cʰali- 備), cɛ́li-(<cɘli- 加鹽), tɛ́li-(<tali- 製), pɛ́li-(<pɘli- 廢), tɨ́lɨ́-(<tɨli- 獻), kɨ́lɨ́-(<kɨli- 齒)

ㄷ. pɛ́kk'i-(<pɘs+ki- 使脫), kwɛ́ŋki-(<komki- 腰), wɛ́ŋki-(<olm+ki- 使遷), mɛ́kk'i- (<matʰ+ki- 任)

이 중에서 (31ㄱ)은 同化主와 被同化主 사이에 n이 介在되어도 i 모음역행동화가 일어난 것을 알려 주는데 그것은 月城語의 特殊性이라 하겠다. 그리고 (31ㄴ)은 動詞語幹에는 同化主 앞에 l이 介在되어도 同化가 可能했다는 것을 알려 준다. 또 (31ㄷ)은 同化主 앞에 舌頂的 資質을 가진 子音이 介在되어도 音韻規則에 의하여 그 子音이 削除되거나 非舌頂的 資質을 가진 子音으로 변하면 i 모음역행동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金完鎭 1971a: 109).

이 밖에 漢字語에 i 모음역행동화가 이루어진 例로는 kikɜ́ŋ(<kukjɘŋ 求景), siɨ́kɜ́n(<sokjɘn 所見), kɛŋpɨ́n(<kaŋpjɘn 江邊), sɛ́ŋmó(<sɘŋmjo 省墓) 等이 있다.

지금까지는 i 모음역행동화가 일어나는 例들을 基準으로 叙述해 왔다. 月城語가 i 모음역행동화에 대하여 어떠한 機制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叙述되어야 할 것이다.

月城語에서 i 모음역행동화가 制約을 받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먼저 名詞形語尾 '—기'나 副詞派生語尾 '—이, —히'를 가진 語詞들은 이 現象을 보이지 않는다. póki>*péki(보기), káki>*kéki(가기), háki>*héki(하기), kapc'áki>*kapc'ɛki(갑짜기), nópʰi>*népʰi(높이), nɜŋnɜ́kʰi>*nɜŋnékʰi(넉넉히). 動詞語幹에서는 同化主 앞에 l이 介在되어도 同化가 가능했지만 l에 의하여 前舌高母音化한 li를 가진 語幹은 同化에 除外되었다: palí->*pɛlí-(正), c'alí->*c'ɛlí-(切斷), t'áli->*t'ɛ́li-(隨).

한편 (32)의 例들은 單一形態素 內部에 i모음역행동화가 可能한 條件을 갖추고 있으나 同化에 除外되었다.

(32) ㄱ. k'akk'íi-(<k'ak'+i- 被·使削), pakkʰíi-(<pak+hi- 被揷), makkʰíi-(<mak+hi- 隔), cakk'íi-(<cap+ki- 被執). k'aŋk'íi-(<kam+ki- 被·使閉)

ㄴ. ɜkk'íi-(<əp+ki- 被·使負), k'ɜŋk'íi-(<k'ək'+i- 被折), sɜkk'íi-(<sək'+i- 被混)

ㄷ. p'okk'íi-(<p'op+ki- 被選), k'okk'íi-(<k'op+ki- 被揷), hólí-(誘), tólí-(抉)

ㄹ. tɜkk'íi-(<tit+ki-被聽), hɜ́li-(毀)

ㅁ. k'ukk'íi-(<…<kup+ki- 被炙), k'úli-(<kuli- 臭), cʰúlí-(揀), p'úlí-(播)

(32)의 例外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li 앞의 被同化主가 圓唇母音일 때와 同化主(i)가 長母音일 때가 그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動詞에 限하여 同化主 앞에 l이 있어도 同化가 가능하지만 前舌高母音化에 의한 i는 動詞에서도 同化主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32ㄷ—ㅁ)에 제시된 語詞는 同化主가 前舌高母音化에 의한 것이 아닌데도 同化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例들의 大部分이 圓唇母音을 被同化主로 하고 있다. 그것은

動詞에서 l이 介在될 때의 i 母音逆行同化는 被同化主가 圓脣母音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었음을 말해 준다.[36] 남은 문제는 (32)에서 l이 介在된 例外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同化를 보이지 않는 理由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두가지 假說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i 모음역행동화 규칙은 (가) 被同化主의 聲調가 底調이거나 (나) 同化主가 長音을 가지거나 할 때는 적용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30)과 (31)의 대부분의 例들이 被同化主의 聲調로 高調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가)의 假說이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著者는 (32)의 例를 說明하는데 (나)의 假說을 택하고 싶다. 물론 東南方言이 聲調言語이므로 聲調가 音韻現象에 관여할 可能性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聲調를 이 現象과 관련시키지 않는 것은 i 모음역행동화가 일어난 時期가 대체로 18世紀요 聲調의 消滅時期가 늦잡아도 17世紀 前半이므로 聲調와 이 現象은 無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月城語에서 發見되는 다음의 例에서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kɛŋpn(강변 江邊) sɛméŋcɛ(삼형제 三兄弟), sɛkɜ́ŋ(사경 私耕), siíkɜn(소견 所見), hɛ́pálɛki(해바라기), úŋtiŋi(웅덩이), cáŋkɛŋi(장강이), kámɛni(가마니), naáncɛŋi (난장이), sɛíi-(쌓이ㅡ), ɛní-(아니ㅡ), nɛlí-(내리ㅡ降), mɛlɜ́p-(마렵ㅡ) 等. 이들 例는 被同化主가 高調를 가지지 않아도 i 모음역행동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밖에 聲調가 없는 方言이 이 現象을 强하게 經驗한 實例를 崔泰榮(1978)과 都守熙(1981)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事實에 의해서 聲調와 i

36) 이 條件은 東南方言의 대부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公式的인 報告로는 徐禎穆(1981 : 35)가 있다. 東南方言에서 l을 介在音으로한 動詞에서의 i 母音逆行同化는 被同化主가 a나 ə일 때 활발하게 일어났고, i일 때는 部分的으로 일어났으며 ((32ㄹ)의 hɜ́li-(<hili-醱)는 i 모음역행동화를 입지 않은 例에 속한다.) 被同化主가 圓脣母音일 때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西南方言(崔泰榮 1978)과 忠淸道地域語(都守熙 1981)에서는 被同化主가 u인 때에도 同化를 보이는 例들이 있다.

모음역행동화가 關聯될 수 없다는 主張은 더욱 補强된다.[37]

물론 同化主의 音長이 이 現象을 規制하는 條件이 되지 못하는 地域語가 있으므로 (32)의 例들이 i 모음역행동화를 보이지 않는 이유를 同化主가 長音이기 때문이라고 斷定할 수는 없으나 現在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은 李秉根(1969)가 지적한 바와 같이, 京畿地域語에서 音長이 i 母音逆行同化를 規制하는 要因이 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매우 강한 蓋然性을 가진다.

그런데 (33)의 例들은 이 現象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條件을 갖추고 있으나 역시 例外로 남아 있다.

(33) t'uk'ípi(蟾), kumpíki(螬), k'ampíki(黑穗), kíl3ki(雁), cumíni(甕)

(33)의 例外들에 대한 說明은 前述한 口蓋音化의 例外들에 대하여 行해진 것과 同一하다. (33)의 語詞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交替를 보이지 않으며 그들 語詞에 대하여 i 모음역행동화를 보이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共時的 記述에서는 그 자체가 基底形이 되어야 한다. (33)의 語詞들은 通時的인 觀點에서 다음과 같이 說明될 수 있다. 同化主 位置에 있는 i는 音韻變化에 의하여 나중에 生成된 것이다. 이 i는 k'ampíki의 경우에 o로 소급되고 나머지 語詞들에 대해서는 ə로 소급된다. o는 非語頭音節에서 u로 되고 i 모음역행동화에 의하여 wi로 된 후 子音 뒤에서 w가 삭제됨으로써 現在의 i로 된 것이며 ə 역시 i 모음역행동화에 의하여 e로 되

37) 徐禎穆(1981)은 慶南 鎭海地域語를 통하여 聲調와 i 母音逆行同化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想定하고 國語의 i 母音逆行同化를 聲調와 깊이 관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假說을 提起하고 있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i 母音逆行同化는 東南方言과 東北方言을 除外한 諸方言에서 聲調가 消滅된 뒤에 發生했으므로 그 둘을 관련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聲調가 없는 方言들이 i 母音逆行同化를 强하게 經驗한 사실이 좋은 證據가 된다. 그리고 西南慶南地域語는 聲調와 관계없이 i 母音逆行同化를 경험했음을 알려 준다 : cέpʰi-(잡히— 使執), cεpʰíí-(잡히—被執), έŋki-(안기— 使抱), εŋkíí-(안기—被抱) 等.

고 다시 e>i에 의하여 現在의 i로 된 것이다. 基底의 o나 ə로부터 i로 되기까지에는 o>u, i모음역행동화, w삭제, e>i라는 4개의 규칙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i역행동화규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w삭제 규칙과 e>i규칙이다. i역행동화규칙이 형태소 내부에서 작용한 時期가 w삭제나 e>i규칙의 발생 뒤에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면 (33)의 語詞들은 모두 그 규칙의 적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w삭제나 e>i규칙이 발생했을 당시에 형태소 내부에는 i모음역행동화규칙이 적용될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著者는 月城語가 경험한 i모음역행동화에 대하여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條件과 일어날 수 없었던 條件에 대하여 論議하고 例外的 存在에 대한 著者의 見解도 開陳해 보았다. 이어서 著者는 오늘날 音韻記述에서 共時的 現象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被動 및 使動語尾 i에 의한 역행동화까지 通時的 現象으로 보아야 한다는 前提下에 論議를 계속하려고 한다. 이 問題는 統辭論에 있어서 被動文과 使動文의 變形節次와도 관련되므로 문제의 심각성이 한층 더 크다.[38] 著者가 被動 및 使動語尾 i에 의한 역행동화를 通時的 現象으로 보는 근거는 能動形에서 被動形이나 使動形의 派生이 共時的 規則에 의하여 說明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러한 主張을 可能하게 하는 첫번째 증거로서 動詞 '옮—'을 들 수 있다. 이 動詞의 使動形은 月城語에 wéŋki-로 使用된다. 그러나 能動形 '옮—'은 月城語에 存在하지 않는다. '病을 wéŋginda, 病이 óllat'a'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病이 옮았다'고 할 경우에는 olí-, óllɜ̟-란 自動詞가 사용된다. 被動 및 使動形이 共時的으로 活用되는 것이라면 使動形 wéŋki-가 使用되는 이상 能動形 olm-이 存在해야 할 것이다. 現代 月城語에 能

38) 被動文과 使動文을 共時的으로 被動詞化와 使動詞化의 變形節次에 의하여 導出되는 것으로 보는 見解는 송석중(1978)과 송병학(1979) 等에서 發見된다.

動形 olm-이 없다는 것은 話者들이 使動形 wɛ́ŋki-를 olm-으로부터 活用過程을 거쳐 習得하는 것이 아니라 使動形 자체를 직접 習得했다는 말이 된다. katúh-~katúu-(使四)와 kachíi-(被四)도 같은 例에 속한다. 이들 使動形과 被動形이 能動形으로부터 共時的으로 活用되는 것이라면 그것들의 能動形 kat-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 말은 全方言에 적용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 能動形은 存在하지 않으므로 話者는 使動形과 被動形을 따로 따로 習得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煎'과 '沸'의 뜻을 가진 動詞는 또 다른 證據가 된다. 이들 動詞의 能動形은 t'álk'o, t'álgado; k'ɜ́lk'o, k'ɜ́lgado와 같이 活用한다. 活用形을 통하여 우리는 이들 動詞의 基底形이 각각 t'álk-과 k'ɜ́lk-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들 動詞의 使動形은 t'álligo, t'állɛdo; k'ɜ́lligo, k'ɜ́llɛdo와 같이 活用한다. 活用形을 통하여 그들 使動形의 基底形이 각각 t'álli-와 k'ɜ́lli-임을 알 수 있다. 이들 動詞의 能動形과 使動形은 각각 t'álk-: t'álli-, k'ɜ́lk-: k'ɜ́lli-로 대응되는데 能動形 t'álk-, t'ɜ́lk-으로부터 使動形 t'álli-, k'ɜ́lli-가 活用되었다는 것을 說明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이 두 動詞는 원래 'talh-'과 'k'ilh-'을 基本形으로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使動形 talhi- (<talh+i)와 k'ilhi-(<k'ilh+i-)가 派生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能動形과 使動形은 각각 다른 方向의 變化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우리는 被動形이나 使動形이 共時的으로 活用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들 被動形과 使動形의 派生과 그 語幹 構造의 變化에 대해서는 **2.10**과 **2.12**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履'과 '捲'의 뜻을 가진 動詞는 또 다른 次元의 證據를 提供한다. 두 動詞는 각각 siíŋk'ó, sínado; kaáŋk'ó, kámado와 같이 活用한다. 活用形을 통하여 우리는 그 두 動詞의 基底形이 각각 siín-과 kaám-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動詞의 使動形은 각각 siŋk'ɛ́ɛgo, siŋk'ɛ́ɛdo와 k'aŋk'ɛ́ɛgo

k'aŋk'έεdo로 活用한다. 活用形을 통하여 두 使動形의 基底形이 각각 siŋk'έε-와 k'aŋk'έε-인 것을 알 수 있다. 두 動詞의 能動形과 使動形 síin-, siŋk'έε-와 kaám-, k'aŋk'έε-는 共時的인 活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使動形 siŋk'έε-와 k'aŋk'έε-가 活用에 의한 것이라면 能動形 síin-과 kaám-에 使動語尾 kε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kε 라는 使動語尾는 國語에 存在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 能動形 kaám-의 頭子音 k가 使動形으로 될 때 硬音化하는 이유를 共時的 音韻規則에 의하여 올바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의 事實들을 綜合하면 被動形과 使動形은 派生에 의한 것으로서 能動形과는 독립된 單語로 辭典에 등록되어야 할 것이며 그와같은 派生語 內에서 發見되는 i모음역행동화 현상은 通時的인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月城語가 경험한 i모음역행동화에 대하여 論議해 왔다. 그 결과 月城語는 다른 方言과 共有하는 共通性 외에 몇가지 特殊性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았다. 일반적으로 i모음역행동화를 規制하는 n이 同化主 앞에 있을 때도 同化를 經驗했다는 것과 同化主가 長音을 가질 때는 i모음역행동화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 特殊性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强調하려고 한 것은 形態素內部에서의 i母音逆行同化規則은 이미 喪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形態素內部의 i모음역행동화현상은 共時的 記述의 對象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現代國語의 統辭論과 音韻論에서 活用으로 취급하고 있는 被動形과 使動形은 通時的인 派生에 의한 것임이 分明해졌으므로 被動 및 使動語尾 i에 의한 i母音逆行同化는 通時的인 現象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共時的인 것으로 나타내던 i모음역행동화규칙 $V \rightarrow [-back] / \text{——} \begin{bmatrix} C \\ -cor \end{bmatrix} i$는 $V > [-back] / \text{—} \begin{bmatrix} C \\ -cor \end{bmatrix} i$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共時的인 現象으로서의 i모음역행동화현상은 主格 i와 繫辭 i에 의한 것뿐이라고 할 수 있다.

月城語의 i 모음역행동화현상을 支配한 規則은 (34)와 같다.

(34) i 母音逆行同化規則

(a) 同化主(短母音 i나 j)와 被同化主(後舌母音) 사이에 舌頂的 子音 (n 포함)이 介在되면 被同化主는 뒤에 있는 同化主가 가진 前舌性에 同化되어 前舌母音으로 변한다.

(b) 動詞인 경우에는 同化主와 被同化主 사이에 l이 介在되어도 被同化主(後舌非圓脣母音)는 前舌母音으로 변한다.

2·10 h>k

非語頭音節에서, 後期 中世나 現代 中部方言의 h에 대하여 k로 對應되는 語詞가 月城語에서 많이 發見된다. (35)에서 그러한 例들을 볼 수 있다.

(35) ㄱ. páŋku(岩), ólkɛ(今年), sílkum(捽校), ólkí(鴨), kólki(環) úŋkul(泉), p'ulkíŋi(根)

ㄴ. tolk(石), kasílk(秋), ulk(藩), cǝ́silk(冬), cilk(路)

ㄷ. ílk-(失), t'álk-(減, 毁), k'ǝ́lk-(沸), álk-(痛), t'álk-(煎), sílk-(屑), c'ík-(擣)

(35)의 語詞들은 각기 現代 中部方言의 '바위, 올해, 씨름, 오리, 고리 우물, 뿌리'에 對當된다. 共時的으로 보면, 月城語와 中部方言의 語詞들 사이에 이렇다고 할 만한 관계가 없다. 그러나 現代 中部方言의 語形이 後期 中世語에 각각 '바회, *올히, 힐홈, 올히, 골회, *움훌, 불휘 또는 불회'였으므로 이들 語詞에 대한 後期 中世語와 月城語 사이에 h:k 라는 對應이 成立된다. (35ㄴ)의 語詞들은 現代 中部方言의 '돌, 가울, 울, 겨울

길'에 대당된다. 共時的으로는 月城語의 語幹末 k가 中部方言의 ϕ와 대응되지만 그들 語詞가 後期 中世語에 각각 '돌ㅎ, ᄀᆞᅀᆞᆯㅎ, 울ㅎ, 겨슬ㅎ, 길ㅎ'이었으므로 後期 中世 中部方言과 月城語 사이에 h : k의 대응이 成立된다. 그리고 (35ㄷ)의 語詞들은 後期 中世 및 現代 中部方言 '잃ㅡ, 닳ㅡ, 긇ㅡ∼슳ㅡ>끓ㅡ, 앓ㅡ, 닳ㅡ, 슳ㅡ>쓿ㅡ, 찧ㅡ>쩧ㅡ'과 대응된다. 이때도 中部方言과 月城語 사이에 h : k의 대응이 成立된다.

이러한 對應關係가 어떻게 說明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의 解決을 위한 가장 單純한 假說은 先行時期의 h가 月城語에서 k로 變했다고 하거나 先行時期의 γ가 中部方言에서 h로 변하고 月城語에 k로 傳承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被動 및 使動語尾 i, hi, ki가 先行段階의 單一形 *γi에서 發達된 것이라고 할 때(李基文 1972a: 94, Ramsey 1977 : 128) γi : hi에서 γ>h의 變化가 認定된다. 後期 中世語 '쇼ㅎ(俗), 쇼ㅎ(褥), 뎌ㅎ(笛), 자ㅎ(尺)'等의 漢字語들도 古代國語에 借用될 때 末音으로 γ를 가졌다고 하면 여기서도 γ>h의 變化가 認定된다(李基文 1972a: 96).[39] 그러나 그 變化는 月城語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35ㄷ)에 대당하는 後期 中世나 現代 中部方言의 語幹末音 h가 γ로부터 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同一한 語幹末子音群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얽ㅡ(維), 긁ㅡ(搔), 늙ㅡ(老)' 等의 k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中部方言의 h가 k나 γ에서 변했으리라는 假說은 妥當하지 못하다.

月城語의 k가 h에서 變했으리라는 假說은 어떤가. 이 假說을 支持해 줄 수 있는 例로서 (35ㄱ)의 ólkɛ(今年)을 들 수 있다. 이 語詞의 語幹末音節 kɛ는 '올해'의 '해(<히)'에 해당한다. 朝鮮館譯語에 이 語詞가 '我害(今年)'로 表寫되어 있어 語幹末音節의 初聲이 h임을 알려 주거니와 現

39) Ramsey (1977 : 127)는 標準語 '숯(炭), 돛(帆), 팥(赤豆)'等의 c^h나 t^h도 中世語 '숡, 돍, ᄑᆞᆰ' 等에서 k가 h로 變化함으로써 生成된 것으로 본다.

代 月城語에서도 이 語詞 外에는 'hέsú(햇수), hán hε tuuhε(한 해 두 해)' 等에서처럼 '年'에 대하여 '해'를 보이므로 kε의 k는 h>k의 變化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變化는 中部方言에서도 發見된다. 後期 中世語 '바회(輪), 움홈(掬), 혀-(點火, 引, 彈), 혀-(鉅), 니르혀-(起)' 等에 대한 現代 中部方言形 '바퀴, 움큼, 켜-, 켜-, 일으켜-' 等이 그런 例가 된다.[40] 이 變化는 h>k와는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h가 軟口蓋音으로 변했다는 점에서는 그것과 같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敍述에 의하면 月城語나 中部方言은 k>h나 h>k 중 어느 한 가지 變化만 經驗한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變化를 다 經驗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35ㄱ-ㄷ)의 語詞들이 가지고 있는 k는 원래의 것일 수도 있고 h>k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派生語에 대한 檢討에서 이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煎'과 '沸'의 뜻을 가진 動詞의 能動形과 使動形과의 관계를 檢討함으로써 可能해진다. 우리는 2·9에서 '煎'의 뜻을 가진 動詞의 能動形과 使動形이 각각 t'álk-과 t'álli-이며 '沸'의 뜻을 가진 動詞의 能動形과 使動形이 각각 k'ɜ̂lk-과 k'ɜ̂lli-라는 것을 알았다. 만약 이들 動詞의 能動形이 t'álk-과 k'ɜ̂lk-이었다고 한다면 派生된 使動形은 (t'alk+hi→) t'álkʰi-와 (k'ilk+hi→) k'ɜ̂lkʰi-가 되어야 한다. 月城語에서 語幹末音으로 lk를 가진 動詞들 k'álk-(搔)과 pálk-(明)은 被動形이나 使動形으로 語尾 hi를 택했기 때문이다 : k'alkʰíi-(k'alkʰíigo, k'alkʰέεdo), pálkʰi-(pálkʰigo, pálkʰεdo). 그런데 月城地域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使動形은 그와 다르다. 이것은 '煎'과 '沸'의 뜻을 가진 動詞의 語幹末音이 lk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이들 動詞에 대한 後期 中世나 現代 中部方言形이 각각 '닳-'과

40) '혀-'(點火, 引, 鉅)는 月城語에서 si-로 되어 있다. 이것은 中部方言이 h>kʰ의 變化를 겪을 때 月城語는 h 口蓋音化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긇-'이며 그 使動形이 '(닳+이→) 달히->달이-'와 '(긇+이→)긇이-'라는 것과 '결혼'(結婚)과 '불효'(不孝) 等의 lh가 月城語에서 ll로 되는 것(kɛllon, pulljo)을 綜合하면 使動形 t'álli-와 k'ɜ́lli-는 각각 '(talh+i→) talhi-'와 (k'ɨlh+i→)k'ɨlhi-'에서 변한 것이라 하겠다 (lh가 ll로 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2·12·4** 참조). 이런 관계에서 볼 때 能動形의 語幹末 子音群 lk의 k는 h>k의 變化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派生語尾 'ᄫ~ᄫᆞ'에 의한 派生語에 대한 檢討를 통해서 álk-(痛)에 대한 說明이 可能하다. 'ᄫ~ᄫᆞ'는 動詞語幹과 結合하여 形容詞를 派生시키는 機能을 가지고 있었다. 現代國語의 '고프-(飢), 슬프-(悲), 기쁘-(喜)'等은 각각 動詞 '곯-, 슳-, 깄-'에 'ᄫ~ᄫᆞ'가 結合되어 만들어진 것이다(南廣祐 1962 : 103). (35ㄷ)의 álk-(痛)이 원래부터 語幹末音으로 lk를 가지고 있었다면 앞의 造語方法에 따라 現代 月城語의 形容詞는 (alk+βʌ→) alp'ɜ́- 이거나 ap'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月城地域에서 사용되는 形容詞形은 ap^{h}ɜ́-이므로 派生前의 動詞가 가진 語幹末音은 後期 中世나 現代 中部方言形과 같이 lh였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動詞 álk-의 k는 h>k의 變化에 의한 것이 된다.

古代國語에 名詞末의 h가 存在하였다는 決定的인 證明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存在했을 가능성을 보이는 例들이 鄕歌에서 發見되므로(南廣祐 1962 : 189), (35ㄴ)의 語詞들이 가지고 있는 語末의 k도 h>k의 變化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論議에서 除外된 語詞들이 가지고 있는 k가 h>k의 變化에 의한 것인가를 立證할 만한 證據는 아직 發見되지 않는다. 앞에서 論議된 語詞들이 h>k의 變化를 겪은 것이 확실하며 後期 中世語의 語形이 現代國語의 諸方言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더 古形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k 또는 γ가 h로 되는 變化보다 h가 k로 되는 變化의 例가 國語에서

더 많이 發見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나머지 語詞들의 k도 h>k의 變化에 의한 것으로 본다.

以上에서 우리는 簡略하게나마 月城語에 h>k의 變化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 보았다. 그 變化는 주로 l 뒤에서 일어났으며 動詞의 경우에는 動作動詞의 語幹末 位置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옳—'(當)이나 '싫—'(惛)과 같은 狀態動詞는 h>k의 變化를 입지 않았다는 데서 그러한 생각이 緣由한다.

2·11 二重母音의 變化

母音體系의 再構에서 우리는 第1期에서 第2期까지의 月城語의 二重母音을 再構하였다. 그리고 二重母音의 共時的 分布에서 月城語의 二重母音이 매우 制限된 환경에서 表面에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子音 뒤에서의 二重母音의 再構를 통하여 現代 月城語에 先行하는 어느 時期까지에는 子音 뒤에서도 二重母音이 存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二重母音의 單母音化가 近代國語에 들어와서 이루어졌고 現代 月城語는 이미 二重母音의 變化를 經驗하였으므로 月城語에서 二重母音의 變化는 第2期에서 第3期로 넘어오는 過程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時期에 ɨ와 ə, e와 ɛ의 對立이 喪失되었다고 하겠는데 音韻體系에 있어서 그러한 變化는 二重母音의 變化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41] 以上의 叙述을 바탕으로 하여 여기서는 分布의 制約에 따른 二重母音의 變化에 대하여 考察하려고 한다.

現代 月城語에서 二重母音은 다음의 세 환경에서 音聲으로 實現되는 것

---

41) 이 말은 東南方言 全體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을 原則으로 한다.

(ㄱ) #—: jɜ́lɜm(夏), jakk'úlɛ(肠), wɜɜ́nsiŋi(猿)

(ㄴ) V—: mójaŋ(모양), mijɜ́ŋ(무명)

(ㄷ) $\left(\begin{bmatrix}\text{C}\\+\text{voiced}\end{bmatrix}\right)\begin{bmatrix}\text{C}\\+\text{voiced}\end{bmatrix}$—: cɜ́ŋwɜl(正月), tállјɜk(月曆), coóŋnjú (種類)

이 세 환경 以外에 있던 二重母音은 몇몇 制限된 語詞 외에서는 모두 변하였다. 二重母音의 變化는 滑音削除에 의한 變化와 縮約에 의한 變化로 나눌 수 있다.

滑音削除에 의한 變化는 다시 上向 二重母音에서의 j 또는 w 削除와 下向二重母音에서의 j 削除로 나뉜다. 上向二重母音에서의 j 削除는 (36)의 規則으로 整理된다(ʌj와 jʌ의 변화에 대해서는 **2·2** 참조). 그리고 그 때의 變化例는 (37)과 같다.

(36) j-削除規則(1)

二重母音 ju, jo, ja, je는 (a) 두 개의 子音(l 포함)이 연속될 경우에는 그 두 子音이 모두 有聲音이 아닐 때(2.1.2.2참조), (b) 子音이 하나인 경우에는 有聲, 無聲에 관계 없이 그 뒤에서 j가 削除된다.

(37) kjuc^{h}ik>kúc^{h}ik(規則), hjuŋ>sjuŋ>suŋ(缺點), hjuka>húka (休暇), p^{h}jo>p^{h}o(票), kjot^{h}oŋ>kót^{h}oŋ(交通), hjaŋki>háŋki (香氣), p^{h}je>p^{h}ɛ(肺), kje>kɛɛ(契), p^{h}iŋkje>p^{h}íŋkɛ(핑계)

다만 二重母音 jə는 j系上向二重母音에 속하면서도 그 部類의 다른 二重母音과는 變化의 樣相을 달리했다. kjəp>cɜp(重), hjəlmul>sɜ́lmul (引潮), əlljəp->ɛ́lɜp-(難), maljəp->mɛlɜ́p-(催) 等의 例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二重母音 jə는 齒擦音과 流音 뒤에서 ə로 변했다. 그 변화를 지배한 규칙은 (38)로 표시된다.

(38) j-削除規則(2)

二重母音 jə는 齒擦音(s, c, c', c^h)이나 流音(l) 뒤에서 j가 削除된다.

w系 二重母音의 變化는 규칙 (39)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例는 (40)과 같다.

(39) w-削除規則

二重母音 wi, we, wɛ, wa는 子音(h 포함) 뒤에서 w가 削除된다.[42]

(40) (kuj>kü>) kwi>ki(耳), (cuj>cü>) cwi>ci(鼠), hwe:paŋ>hɛɛ́páŋ(毁謗) (soj>sö>) swe>sɛ(鐵), hwa:ŋkap>haáŋkap(還甲), cwau>cau(左右)

下向二重母音으로는 j系만 있으며 ij와 uj가 그것이다. ij는 屬格에 限하여 j削除를 보인다: cə́ŋ sə́ŋ ɨ cip(정승의 집), i koə́rɨ wə́n(이 고을의 원). 이 變化는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1) -j 削除規則(1)

二重母音 ij는 屬格인 경우에 j가 削除된다.

二重母音 uj는 二音節 以上의 語末에서 j의 削除變化를 입었는데 그것은 규칙 (42)로 표시되며 (43)은 그 變化의 例가 된다.

(42) -j 削除規則(2)

二重母音 uj는 二音節 以上의 名詞의 語幹末에서 j가 削除된다.

(43) samakoj>samakuj>samáku(痣), tampoj>tampuj>támpu(貓),

42) 이 規則의 적용에서 제외된 語詞들에 대해서는 2·1·2·2를 참조할 것.

kamakoj>kamakuj>k'amáku(烏), sahoj>sahuj>sáu(婿)[43]

二重母音의 縮約變化는 əj, aj, ɨj에서 일어났다. 이들 二重母音은 각각 e, ɛ, i로 변했다. 이 변화는 규칙(44)로 나타낼 수 있으며 實例는 (45)와 같다.

(44) 母音縮約規則(1)

二重母音 əj, aj, ɨj는 각각 e, ɛ, i로 변한다.

(45) kəj>kee(>kii 蟹), saj>sɛɛ(>sɛɛ 間), ɨjnon>iínun(議論), kʰɨj>kʰi(丈), kjəntij->cənti-(>cə́nti- 忍)

二重母音 jə는 先行音素가 非齒擦音이나 非流音이면 두개의 有聲子音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 限하여 e로 縮約되었다. 이 變化를 支配하는 規則은 (46)으로 표시되며 (47)은 實例가 된다.

(46) 母音縮約規則(2)

二重母音 jə는 (a) 두개의 子音(l 포함)이 연속될 경우에는 그 두 子音이 모두 有聲音이 아닐 때, 그리고 (b) 하나의 子音인 경우에는 그것이 齒擦音이나 流音이 아닐 때, 그 뒤에서 e로 변한다.

(47) pjəl>pe:l(<pɛɛl 星), p'jə>p'e(<p'ɛ 骨), tiŋkjə>tiŋke(<tiŋkɛ 米皮)

二重母音 uj는 二音節 以上의 語末 位置를 除外하고는 일단 ü로 縮約되는 過程을 거쳐서 二重母音 wi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이 變化는 規則(48)로 표시되며 그 例는 (49)와 같다.

(48) 母音縮約規則(3)과 二重母音化規則

---

43) 이들 變化에 대한 具體的인 論議는 田光鉉(1976)과 崔明玉(1980b) 그리고 **2·6**을 참조할 것.

二重母音 uj는 二音節 以上의 名詞에서는 先語末 位置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語幹 內의 位置와는 관계 없이 ü로 縮約되었다가 wi로 변한다.

(49) kuj>kü>kwi(>ki 耳), tuj>tü>twi(>tíi 後), t'uj->t'ü->t'wi(>t'í- 走)

二重母音 oj는 일단 ö로 縮約되었다가 곧 we로 변했다. 이 變化는 (50)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例는 (51)과 같다.[44]

(50) 母音縮約規則 (4)과 二重母音化規則

二重母音 oj는 ö로 縮約되었다가 we로 변한다.

(51) toj>tö>twe(>tɛ 升), soj>sö>swe(<sɛ 鐵), oj>ö>we(>wɛ 瓜), noj>nö>nwe(>nɛ́ 腦)

二重母音 wə는 o로 변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 같다. 이 변화는 규칙 (52)로 표시될 수 있으며 그 例는 (53)과 같다.

(52) 母音縮約規則(5)

二重母音 wə는 一部의 語詞에서 o로 변한다.

(53) k'wəŋ>k'oŋ(雉), kwəntʰu>kʰóónt'ó(拳鬪), kwən>kon(卷), kwənha->koónhá-(勸하—), kwənli>kólli(權利), tɛkwəl>tɛɛ́kól(大闕), wənsu>onsú(仇), tuə>toó(二 三).

二重母音 wə는 語詞에 따라 變化를 달리한 것도 發見되지만(e.g, untúmák(원두막) ~wɛntúmák), 語頭에서는 그대로, 子音 뒤에서나 非語頭에서는 ɜ 또는 u로 변한 것이 일반적이다. wɜ́nsíŋi(猿), ˹mɜ(뭐), sɜuunhá-(시원하--) 等.

지금까지 우리는 第2期에서 第3期로 넘어오면서 月城語가 經驗한 二

44) 二重母音 oj는 다음의 語詞에서 óo로 나타난다. c'oj->c'óo-(曬光), coj>cóo-(縮), oj->óo-(暗誦) 等.

重母音의 變化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주로 子音(l, h 포함) 뒤에서, 그리고, 語幹 內의 一定한 位置에서 滑音削除와 縮約에 의하여 二重母音은 單母音化하였다. 그 變化는 第2期에서 對立을 이루던 i, ə와 e, ɛ가 中和됨으로써 結果되는 單母音體系의 變化와 더불어 發生된 것으로 생각된다. 國語史에서 보면 그것은 近代國語 時期에 해당된다.

2·12 其他 變化

여기서는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音韻變化 가운데서 몇 가지를 報告形式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러한 音韻變化는 그 자체로는 重要性이 크지 않을지는 모르나 全體的인 音韻變化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必要하다. 齒擦音 아래서의 i>ə, 語末 齒擦音의 齒槽閉鎖音化, 語頭硬音化, 母音間에서 nh>nn 또는 lh>ll 等, n 添加와 h 添加 等이 여기서 다루어질 內容이다.

2·12·1 먼저 齒擦音 아래서 i가 ə로 變하는 것이다. 그 例는 (54)와 같다.

(54) cɜ́msɜ́m(점심), jaŋsɜ́k(양식), ɜ́msɜ́k(음식), casɜ́k(자식),
kóksɜk(곡식), músɜk(無識), hosɜ́k(虎食), tʰansɜ́k(歎息),
haácɜ́k(下直), acɜ́k(아침), cʰɜmɛ́(치마), ~sɜk(~씩)

이 變化는 대부분 語末音節에서 일어났으며 大部分의 例가 漢字語이다. 그러나 漢字語가 아닌 語詞도 있으니 漢字音의 問題는 아닌 것 같다. 더우기 後期 中世語에 '조셕(朴초上 7)'과 '조식(석六 3)'이 共存하며 '곡식'은 後期 中世語에 '곡셕(小언二30)'으로 使用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둘 사이에 어떤 音韻規則이 作用하였는지, 왜 그러한 現象이 發生되었는지 쉽게 말할 수 없다.

2·12·2 語末의 齒擦音이 齒槽閉鎖音으로 되는 경향은 東南方言이 共有하는 特別한 變化에 속한다. 그런 變化는 (55)에서 보는 바와 같다.

(55) jɜ́sɜt(여슷, 여섯), mókcɜt(목짓, 목젓), cɜt(젓 醢), t'ɜt(쁟, 뜻) kot(곧, 곳), pít(빋, 빗), cɜt(젇, 젖 乳), ot~os(옷 衣), kɜt~kɜs(것 物), íput(이웃, 이웃 隣), ót^h(옺, 옻 漆), jút^h(슟, 윷 柶) tat^h(닻, 닻 碇), k'ot^h(곶~곳, 꽃 花), p'it^h(빛 光), nát^h(놏, 낯 顔)[45]

(55)의 例 중에서 t'ɜt(쁟, 뜻), kot(곧, 곳), pít(빋, 빗) 等은 後期 中世語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이 變化는 現代 中部方言이 이들 齒擦音을 摩擦音으로 代替하고 있는 것(李秉根 1975 : 33—34)과는 類似하면서도 다른 것이다. 現代 中部方言形 k'os(花), pis(光), nas(顔), pis(債) 等의 語幹末音은 口蓋音에서 齒槽音으로 변했다는 점에서 月城語와 變化를 같이하지만 中部方言은 摩擦音化한 데 비하여 月城語(또는 東南方言)는 閉鎖音化한 것이 다르다. 그러나 모든 齒擦音이 月城語에서 齒槽閉鎖音化한 것은 아니다. kas(갓 笠), mas(맛 味), mos(못 釘), pis(빗 梳) pus(붇, 붓 筆) 等은 그러한 變化를 보이지 않는다.

2·12·3 變化의 힘이 强했다는 뜻에서 語頭硬音化 역시 東南方言이 共有하는 特徵的인 變化에 속한다. 이 變化는 硬音을 對立의 짝으로 가지는 p, t, c, k에 限하여 일어났다. 이 變化를 支配하는 條件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變化를 겪은 語詞의 數는 列擧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몇개씩 例를 들면 (56)과 같다.

45) 괄호 속의 語詞中 앞의 것은 後期 中世語, 뒤의 것은 標準語이다. 그 둘이 같을 때는 하나만 나타내었다. 以下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月城語에 대당하는 語詞는 標準語이다. 이것은 月城語와 標準語와의 比較를 위한 것이 아니고 月城語의 語詞가 가지고 있는 意味가 對當되는 標準語와 同一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56) ㄱ. p>p': p'ucíléki(부스러기), p'ɛkk'áli(볏가리), p'oltʰéki(불), p'am(밤 栗), p'utt'ɜ́l-(붙들―), p'ucúh-(부수―)

ㄴ. t>t': t'ulépak(두레박), t'ok'épi(도깨비), t'íciki(두더지), t'alk-(닭―), t'ɜ́nci-(던지―)

ㄷ. c>c': c'ulɜ́msal(주름살), c'icím(지짐), c'úlkɜ́ci(줄기), c'óp-(좁―), c'ulkúh-(줄이―)

ㄹ. k>k': k'ɛkúli(개구리), k'ak'úli(갈고리), k'aálpi(갈비 松葉), k'ólɜm((옷) 고름), k'aácɛ(가재), k'up-(굽― 炙), k'ɜ́nci-(건지―)

以上과 같이 强한 硬音化의 勢力 속에서도 (57)의 語詞들은 그 變化를 입지 않았다.

(57) ㄱ. pap(밥), pɜ́cim(버짐), piné(비녀), pul-(불―吹), pak'úh-(바꾸―)

ㄴ. talék'i(다래끼), tam(담 墻), tát-(닫― 閉), tɜ́pʰ-(덮― 覆)

ㄷ. cɜkóli(저고리), cáli(자리), cáp-(잡― 執), cúk-(죽― 死)

ㄹ. kámɛ(가마 頭旋), kásim(가슴), kunté(그네), kápʰ-(갚―報)

2·12·4 後期 中世語를 基準으로 하면 現代國語에서 使用되는 '개(犬), 배우―, 싸우―' 等은 '가히, 빈호―, 싸호―' 等에서 h가 削除된 것임을 알 수 있다. h의 삭제는 有聲音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月城語는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에서 h가 삭제되었을 때, 特別한 音韻過程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58)의 例에서 보는 바와 같다.

(58) ㄱ. cɜɜ́nná(전화), soónné(손해), meénné(면회), waánnéŋ(완행), ɜ́nnɛ(은혜), pɜnnó(번호)

ㄴ. kɛ́llón(결혼), pɛ́kíllon(백일홍), óllɛ(~ólkɛ)(올해), púlljó (불효), t'álli-(달이—<닳이—), álli-(아리—<앓이—), k'ɜ́lli-(끓이—), k'álli-(가리—<골ᄒᆞ+이—)

ㄷ. námmjaŋ(남향 南向), tóŋŋjaŋ(동향 東向)

이 現象은 後期 中世語에서의 '놀이—(使飛), 살이—(使住), 얼의—(凝)' 等이 나중에 '날리—, 살리—, 얼리—' 等으로 變한 것과 같이 $\begin{bmatrix} C \\ +\text{voiced} \end{bmatrix} h\,V > \begin{bmatrix} C \\ +\text{voiced} \end{bmatrix} \cdot V > \begin{bmatrix} C_1 \\ +\text{voiced} \end{bmatrix} \begin{bmatrix} C_2 \\ +\text{voiced} \end{bmatrix} V$ ($C_1 = C_2$)의 變化過程을 거친 것이라 하겠으며 根本的인 原因은 强한 音節意識의 作用이 아닌가 생각된다.[46]

2·12·5 月城語에서 發見되는 添加變化에는 n 添加와 h 添加가 있다. n 이 添加된 例로는 k'áanc^{h}ɛ́ŋi(까치), mokánci(모가지), k'ónc^{h}i(고치) k'ɜ́nc^{h}i-(그치—止), kónc^{h}i-(고치—改), múnchi-(무치—和), pinc^{h}íi-(비치—照) 等이 있다. n 의 添加는 모음과 파찰음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하겠으므로 (59)의 規則으로 나타낼 수 있다.

(59) n 添加規則

一部의 語詞에서 母音과 破擦音(c, c', c^{h}) 사이에 n 이 添加된다.

二音節 語幹을 가진 動作動詞로서 語幹末音節이 Cu 이었던 것은 世代差에 따른 活用의 差異를 보인다. 活用의 差異는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할 때에 나타나는데 60代 以上과 대체로 그 以下의 話者들은 前述한 動詞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活用을 보인다. pak'úugo(換), kadúugo(囚) 또는 pak'úkk^{h}o(換), kadúkk^{h}o(囚) 等(60代 以上). pak'úkk^{h}o(換), kadúkk^{h}o(囚) 等(60代 代下). 이로써 우리는 60代 以上의 話者들이 두개의 語幹(#σCúu-와 #σCúh-)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60代 以下의 話者

46) ·는 音素가 削除되었음을 表示한다.

는 單一語幹(#σCúh-)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60代 以上과 그 以下의 話者들의 말에서 Cúu->Cúh- 라는 語幹末音節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語幹末音節의 短母音化와 그에 따른 語幹聲調의 變化(L H͡L->LH-) 그리고 h 添加가 변화의 내용이다. 그 변화는 규칙 (60)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규칙에 의하여 변화된 動詞들은 (61)과 같다.

(60) h 添加規則

二音節 語幹을 가진 動作 動詞로서 語幹末音節이 子音과 長母音 u로 구성되며 그 音節의 聲調가 H͡L인 것은 短母音化와 同時에 聲調는 H로 변하고 語幹末에 h가 添加된다.

(61) motúh-(모우—), katúh-(가두—), nɜlkúh-(늘이—), mallúh-(말리—使乾), nɛlúh-(내리—使降), isúh-(잇—), culkúh-(줄이—使縮), caŋkúh-(잠그—) 等

2·13 β(ㅸ), z(△)

古代國語에는 과연 β, z가 없었는가. 이 물음은 아직 명확한 答을 얻지 못하고 있다. 現傳하는 古代國語의 資料가 극히 단편적이며 그것도 漢字로 記錄되어 있어서 文獻을 통한 β, z의 確認이 매우 어려우며 古代國語의 發生地라 할 수 있는 慶州 中心의 東南方言에서도 그것들의 存在를 뒷받침할 만한 證據를 發見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後期 中世語에 보이는 β나 z는 前期 中世國語 時期에 西北方言 또는 中部方言에서 p와 s가 母音 사이에서 有聲音化함으로써 生成되었다는 말이 通說로 되기까지 하였다.[47] 그러한 見解는 李基文(1972 a·b)에 이르러 批判되었다.

47) 그러한 見解는 李崇寧(1958 : 213, 1960 : 104—5) 및 朴炳采(1968 : 251—53, 1977 : 310)에서 發見된다.

後期 中世語에서 p와 β, s와 z가 同一한 환경에서 나타난다는 점(e.g. 아비(父) : 사ᄫᅵ(蝦), 이ᅀᅳᆯ(露) : ᄆᆞᅀᆞᆷ(心)), β와 z가 母音 사이에서 p와 s의 有聲音化에 의한 것이라면 β나 z로 변한 것과 p나 s로 남아 있는 것 사이에 어떤 條件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럴 만한 條件이 發見되지 않는다는 점, 國語의 s는 모음 사이에서도 有聲音化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p나 s의 有聲音化說은 否定된다. 그리고 p와 s가 有聲音化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 일정한 조건이 발견되지 않는 한 古代國語에도 p와 β, s와 z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古代國語의 中心語인 東南方言이 後期 中世語 β와 z에 대하여 p와 s로 對應하므로 現代에 앞선 어느 시기에 p와 β, s와 z가 東南方言에서 合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古代의 中央語(慶州語)는 p와 s밖에 몰랐고 後期 中世語의 직접적 古代段階語인 西北方言은 p와 β, s와 z의 대립을 알고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最近에 Ramsey(1978 : 32—49)은 東北方言을 통하여 다시금 이 문제를 다루었다. 後期 中世語의 β, z[48]는 그 分布가 매우 制限되어 있으며 p, s

48) Ramsey(1978 : 37)은 中世國語의 有聲摩擦音으로 β, z, ·를 設定하고 있다. ·는 일종의 軟口蓋摩擦音을 나타내는 것으로 '몰애'(沙) '살이—'(使生)' 等에서 ㅇ에 對當되는 音素다. 적어도 j와 l 다음에서 k가 削除된 경우에 限하여 그 位置의 ㅇ를 有聲摩擦音으로 보는 見解를 著者는 받아들이기를 주저한다. 오히려 ·는 규칙적용에 의해 k가 삭제되었음을 指示하는 記號로 보는 것이 더 合當하다고 생각한다. 後期 中世語에서 k가 削除되는 것은 形態素境界를 끼고 그 앞에 j나 l이 올 때이다. 알+고→알오(知) (석十九 10), ᄃᆞ외+고→ᄃᆞ외오(化) (석六 10).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後期 中世語 '울이—(使鳴), 말이—(使止), 들이—(使擧), 살오—(使生), 얼우—(使氷)'等에 보이는 '이, 오, 우'도 ki, ko, ku이던 것이 形態素境界를 끼고 l 뒤에서 k가 削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李基文(1962 : 135)에서는 '살이—' 등의 '이'가 ki에 遡及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이들 動詞에 대한 月城語 ulkíi-(使鳴), málki-(使止), tɜlkíi-(使擧), salkúu-(使生), ɜlkúu-(使氷) 等에서 確認된다(東北方言에서도 이런 사실이 報告되었다(Ramsey 1978)). 後期 中世語 '몰애, 멀위' 等에 대해서도 月城語는 mólkɛ와 mɛlkú로 對應된다. 여기서도 後期 中世語 '몰애, 멀위' 等에서의 '애', '위'는 kaj, kuj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後期 中世의 中部方言에는 $k \to \phi / \{j, l\} + —$라는 規則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中部方言과는

와 相補的 分布를 이룬다는 점과, 後期 中世語 β와 z에 대하여 東北方言(정확히 말하면 함경남도 北靑地域語)이 p와 s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古代國語를 위하여 有聲摩擦音들을 再構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見解와는 달리 崔明玉(1978b)은 東南方言이 後期 中世語의 β나 z에 대하여 대부분 p와 s로 대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資料를 더 면밀히 檢討할 때 이 方言에 後期 中世語 β와 z에 대하여 p와 s로 대응되지 않는 상당한 語詞들이 있으며 그들 例外를 合理的으로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方言이 先行 時期에 β와 z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月城語에서 發見되는 資料를 통하여 여기서 다시 한번 이 問題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한다.

2·13·1 β(ㅸ)

먼저 後期 中世語에 β를 가졌던 것으로서 月城語에 p로 대응되는 語詞와 後期 中世語에는 β를 보이지 않지만 그 以前에 β를 가졌을 것이 확실한 것들로서 月城語에 p로 나타나는 語詞들을 나누어 提示하면 (62)와 같다.

(62) ㄱ. sɛɛ́pi(사ᄫᅵ), cʰípí 또는 cʰúpí(치ᄫᅱ), tɜ́pi(더ᄫᅱ), kapúntɛ(ᄀᆞᄫᆞᆫ디) nup-(눕—) k'up-(굽—), mukɜ́p-(므겁—)

달리, 東南方言과 東北方言에는 이 規則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朝鮮館譯語에 k의 존재를 알리는 例가 發見되므로(李基文 1962 : 136) 이 規則은 後期 中世國語 時期에 들어와서 發生된 것이 分明하다. 그러므로 形態素內部에서 發見되는 '몰애, 멀위' 等은 共時的 規則에 의한 것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k의 削除를 당시 表記者들이 意識하고 있었음을 알려 주는 表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때에 削除된 k는 k>g>ɣ>ɦ와 같은 段階變化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中世語에서 k가 削除된 表示인 ㅇ를 有聲摩擦音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ㄴ. níp̈i(누에), nupú(飯必, 누의), íput(以本, 이웃), k'apúli (가오리), tálpi(다리우리), tálpi(돌외 髢), (mil) c'íul((밀)기울), t'apɛ́ŋi(또아리), ipsɜ́pul 또는 ipsupúli(입시울), hankápi (가외 中秋), pɜpɜ́li(버워리), hopúl (ɛ́pi, ɜ́mái)(호올(父,母)), c'ipúlli-(吉卜格—, 기울—), ɜpúli-(어울리—), capúl-(조올—), kupúl-(구을—), jɛ́pi(耶必, 여위—) (漢字語는 朝鮮館譯語의 資料임).

(62ㄴ)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月城語에는 後期 中世語에 β를 보이지 않던 많은 語詞들이 p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은 古代 月城語에는 β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主張이 成立되기 어려운 것은 訓民正音 創製 時期나 그 以前에 β를 가지고 있던 語詞로서 β>w나 β>ϕ의 變化를 보이는 것들이 存在하기 때문이다. (63)에서 그런 例들을 볼 수 있다.

(63) sɜúl(셔볼), síkól(스ᄀᆞᄫᆞᆯ), tɛ́-(ᄃᆞᄫᆡ—~ᄃᆞ외—), tuúl(途孛(雞), 둘), súl(酥孛(雞), 수울—), cɜ́ul(雎孛(雞), 져울), cóŋo(着必(朝), 죠히)

2·13·2 z(△)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後期 中世語의 z에 대하여 상당수의 月城語가 s로 대응된다. 그것은 (64)와 같다.

(64) jɛ́su(여ᅀᆞ), kasíl(ᄀᆞᅀᆞᆯ), cɜ́sil(겨ᅀᅳᆯ), nasɛ́ŋi(나ᅀᅵ), kásɛ(ᄀᆞᅀᆡ 剪), ási(아ᅀᆞ), musí(무ᅀᅮ), masíl(ᄆᆞᅀᆞᇰ), císim(기ᅀᅳᆷ)

그러나 (65)의 語詞들은 後期 中世語의 z에 대하여 s와는 다른 대응을 보

인다.

(65) ㄱ. pucíkʰ(브섭), k'ɜcílɜm(그스름), p'ucíléki(붑—, 부스러기), iíc-(닏—連), cɜɜ́c-(젇—攪), c'óc-(졷—啄), caác-(좃—紡), (p'ε)ác-(앗—奪), k'ɜcílli-(그스리—炲), p'ucík-(붑—折), k'ɜcík-(긋—引), k'ɜcík-(그스—~끄스—牽), p'ucík-(브스—碎)

ㄴ. coóʔ-(줍—拾), púʔ-(붓—腫), púʔ-(붓—注), ciíʔ-(짓—造) naáʔ-(낫—愈)

ㄷ. maám(므숨), sái 또는 sέε(스싀), cʰɜ́ɜm(처섬), máan(마순), toó(두석), (nólin) cε(즈슥 核), mói 또는 móki(모시 餌)

ㄹ. mucín(므슷, 므슷), kucík 또는 kucɜ́k(구석 隅), mɜcím(머섬, 머슴), pɜ́c-(벗—), p'íc-(빗—梳)

(65)에서 (65ㄱ)은 後期 中世語의 z에 대하여 c로 대응되는 것들이고 (65ㄴ)은 ʔ로 대응되는 것들이다. 한편 (65ㄷ)은 後期 中世語의 z에 대하여 ϕ로 대응되는 것들이며, (65ㄹ)은 後期 中世나 近代의 中部方言의 s에 대하여 c로 대응되는 것들이다. (65ㄹ)은 例外的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히려 (65ㄱ)의 例들까지 疑心하게 하는 存在로 생각될 수 있겠으나 方言間의 比較에 의하여 例外가 아님이 立證될 수 있다. 즉, mucín은 後期 中世語에 '므슷(杜초十10)'이 있으므로 더 이상 論議할 필요가 없겠으나 現代國語에 '무슨'과 '무엇'이 共存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무슨'의 s가 z로 遡及될 수 있다. '隅'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方言에 '구석'이 使用되지만 경북의 寧海와 靑松地域에서는 kuək이, 奉化地域에서는 k'ujək이 使用되고 있다. 이들 지역어가 s에 대하여 ϕ의 대응을 보이므로 '구석'의 s도 z로 遡及될 수 있다. 中部方言의 '머슴'도 靑松(경북), 蔚州(경남), 淸州, 淸原(충북), 錦山(충남) 等에서 məim 또는 məəm으

로 使用되는 점으로 보아 以前 段階에 z를 가졌을 可能性이 크다. '벗—'(脫)의 語幹末音 s가 z였다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唯一한 證據라고 한다면 '무엇에 스쳐서 거죽이 깎이다'는 뜻을 지닌 動詞 '버:지—'를 들 수 있다. 이 動詞가 同文類解(下 8)에 '술버서지—'로 되어 있고 그것이 또 月城語의 pɜ̆caci-에 대응하므로 'pə:-:pəsə-:pɜ̆ca-'의 관계에 의하여 動詞 pəs-의 s가 z에 遡及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現代 中部方言 pis-(梳)은 後期 中世語에서도 같은 構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後期 中世語에는 '扮裝하다'는 뜻을 가진 '빗—~비스—'가 사용되었다. '머리를 빗는 것'도 '扮裝하는 것'이므로 '빗—'과 '빗—'은 원래 같은 起源을 가진 것일 可能性이 크다. 그렇게 볼 때 月城語의 pic-(梳)은 *piz-으로 再構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後期 中世語 z 또는 s에 대하여 s로 대응하지 않는 例가 상당수에 달하게 된다.

從來에 그러한 事實이 注目되지 못했다. 有聲音 사이에서 s는 有聲音化하지 않는다는 점을 想起할 때, 後期 中世語의 z나 s에 대하여 저들 語詞가 s, c, ?, φ로 대응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月城語의 前段階 즉 古代國語에 z가 없었다면 說明될 수 없는 證據가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後期 中世語의 z에 대응되는 c는 (66)의 비교에서, 그러한 假定에 대한 確信을 가지게 한다.

(66)

	(始)	(厨)	(連)	(攪)
後期 中世語	ki | z | i lim	pi | z | əp/k	ni | z | +ə	cə | z | +ə
現代 中部方言	ki | φ | i lim	pu | φ | əkʰ	i | φ | +ə	cə | φ | +ə
月 城 語	k'ɜ | c | i lɜm	pu | c | ikʰ	i | c | +a	cɜ | c | +a
一般 東南方言	k'ɜ | s | i lɜm	pu | s | i/ɜkʰ	i | s | +ɜ/a	cɜ | s | +ɜ/a

(66)에서 우리는 後期 中世語와 現代 中部方言과 月城語, 그리고 一般

東南方言 사이에 z : ϕ : c : s의 대응이 있는 것을 發見한다. 그 대응은 같은 意味를 가진 語詞 內에서 유지되는 것이므로 {z, ϕ, c, s}는 先行段階의 單一音素로부터 變化된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대응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音素는 s나 c가 될 수 없다. s는 有聲音 사이에서 有聲音化하지 못할 뿐 아니라 c로 變化될 수도 없기 때문이며 c는 어떤 환경에서도 ϕ로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s로 變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李基文(1972 a, b)에서 提起된 假說과 같이 古代 月城語(新羅語 즉 古代國語)에 p : β와 s : z의 對立이 있었으며 그것이 나중에 각각 p와 s에 合流되었다고 할 때 (66)의 대응관계를 說明할 수 있다. 즉 後期 中世語의 z는 古代語 z의 계승자이며 現代 中部方言의 ϕ는 有聲音 사이에서 z>ϕ에 의한 것이 된다. 그리고 一般 東南方言의 s는 s와 z의 合流에 의한 것이며 c는 合流되지 않은 z가 音聲的으로 가장 類似한 c에 合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問題의 核心은 月城語를 포함한 東南方言(東北方言과 西南方言의 一部도 포함)이 p와 β, s와 z의 合流를 經驗한 사실을 어떻게 證明할 수 있으며 그러한 合流가 왜 東南方言(東北方言과 西南方言의 一部)에 거의 局限되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現在로서는 그것을 證明할 수 있는 證據가 없다. 앞에서 言及한 李基文(1972 a, b)의 假說만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全部인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東南方言이 그들 音素에 대하여 合流를 경험했을 可能性은 지금까지 論議된, 月城語가 經驗한 諸變化 全體의 性格 속에서 理解될 수 있을 뿐이다. i, ə와 e, ɛ의 中和로 인한 母音體系의 單純化, 二重母音의 分布制約과 그로 인한 形態素 構造의 單純化, t系, k系 및 h 口蓋音化, h의 軟口蓋音化, 語頭硬音化, 語末 齒擦音의 閉鎖音化 等, 그와 같은 一連의 變化는 複雜한 것으로부터 單純한 것으로, 弱化(weakening) 보다는 强化(strenthening)로 向한 것이었다. 물론 變化의

大部分이 近代國語 以後에 發生된 것이라고 하겠으나 그러한 變化는 東南方言의 話者들이 單純化와 强化를 向하여 훨씬 以前부터 努力해 온 結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p, β와 s, z의 合流는 그러한 努力을 立證하는 前段階의 證據라고 생각할 수 있다. 東南方言과는 달리 中世 中部方言에 β와 z가 남아 있었던 것도 現代 中部方言이 東南方言의 諸變化에 비하여 停滯的이라는 事實에 의하여 理解될 수 있다.

後期 中世語에서 β와 z의 分布가 有聲音 사이에 局限될 수밖에 없었던 理由에 대해서도 說明이 可能하다. Ramsey(1978 : 45)은 β와 z의 分布가 有聲音 사이에 局限된 사실을 들어 後期 中世語 β와 z를 p와 s가 有聲音 사이에서 弱化된 것으로 說明하는 것이 더 간단하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사실은 p, β와 s, z가 合流하였으나 東南方言과는 달리 中部方言의 경우는 有聲音 사이에서 無聲音化가 不自然스러우므로, 그것들의 合流가 除外되었다는 말로서도 說明된다. 前者의 說明은 有聲音 사이에서 p와 β, s와 z가 對立을 이루는 사실을 解明할 수 없지만 後者의 說明은 그러한 사실도 解明할 수 있다. 그 점에서 後者는 오히려 合當한 假說이라 할 것이다. 訓民正音創製 當時 이미 β는 消滅될 直前에 있었고 z 또한 그로부터 一世紀 남짓한 사이에 消滅되고 말았으니,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p와 β, s와 z가 有聲音 以外의 環境에서 對立을 유지하던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後期 中世語 時期에서는 그 환경에서의 對立이 消滅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後期 中世語에 나타난 β와 z의 分布에 의하여 古代國語에 그들 音素가 存在하지 않았으리라는 主張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問題는 앞으로 더 硏究되어야 할 것이다.

第3章 共時韻音論

第2章에서 우리는 通時音韻論으로서 形態素內部에서 일어난 音韻變化에 대하여 論하였다. 이제 이 章에서는 共時音韻論으로서 形態素境界에서 일어나는 音韻變動에 대하여 論하고자 한다. 形態素의 結合體가 音聲形으로 導出되기까지의 音韻過程(phonological processes)을 說明하는 것이 이 章에서의 主關心事라 하겠거니와 音韻過程에 適用되는 音韻規則들 相互間의 關係도 關心의 對象이 된다. 共時的으로 일어나는 形態音素의 交替는 그 言語가 겪은 音韻變化에 基因하는 것이므로 共時的 音韻規則은 通時的 音韻規則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Schane 1973 : 81, 89). 이러한 사실때문에 月城語의 共時的音韻變動을 論함에 있어 著者는 不斷히 月城語의 音韻變化에 注目할 것이다.

月城語는 韻素로서 聲調를 가지고 있다. 聲調는 共時的音韻硏究의 重要한 對象이 된다. 그러나 現在 著者는 聲調를 記述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게다가 聲調는 그 自體로서 커다란 硏究主題가 되므로 이 책의 硏究 對象에서 除外하였다. 다만 音素의 變動에 聲調가 관여될 때는 論議에 포함시킬 것이다.

3·1 基底音韻體系

3·1·1 音素體系

基底音素는 純粹子音, 純粹母音, 流音, 滑音으로 區分된다.

純粹子音에는 p, p', p^h; t, t', t^h; c, c', c^h; k, k', k^h; s; m, n, ŋ 이 있다. 中部方言을 비롯한 大部分의 方言에서 音素의 機能을 가지는 s'는 音素的 機能을 가지지 못하므로 體系에서 除外된다. 이것은 東南方言의 東海岸地域語에서 發見되는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sal(肉)과 s'al(米)은 月城語에서 모두 sal이 基底形이 된다. 위의 音素들이 音素로서의 機能을 가지고 있음은 다음의 對立雙에서 確認된다.

pul(火) : p'ul(角) : p^hul(草), tal(月) ; t'al(女) : t^hal(假面), ci-(負) : c'i-(蒸) : c^hi-(打), ka-(行) : k'a-(孵化), ko(輪結) : k^ho(鼻), k'ɜ-(消火) : k^hɜ-(成長), sal(肉, 米) : tal(月) : mal(斗) : nal(日), ko:m(熊) : ko:ŋ(球)

純粹母音에는 短母音 i, ε, ɜ, u, o, a와 長母音 i:, ε:, ɜ:, u:, o:, a:가 있다. 이들 音素가 音素的 機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음의 對立雙에서 확인된다.

c'i-(蒸) : c'ε-(裂), k'i-(屁) : k'ɜ-(消火), cí-(負) : cú-(興), í-(戴) : ó-(來), ki-(匍匐) : ka-(行), k'ε-(破) : k'ɜ-(消火), k'ε-(破) k'u-(夢), sε(鳥) : so(牛), k'ε-(破) : k'a-(孵化) : k'ɜ-(消火) : k'u-(夢), sɜli(霜) : sóli(聲), sɜ́-(立) : sá-(買), nun(眼) : non(畓),

k'u-(夢) : k'a-(孵化), pom(春) : pam(夜), ki(耳) : ki:(蟹), pɛ(腹) : pɛ:(倍), s3m(石) : s3:m(島), cul(絃) : cu:l(鑢), son(手) : so:n(孫), mal(斗) : ma:l(言)

流音은 l뿐이다. tam(墻) : tal(月)에서 l의 音素的 機能이 認定된다. 滑音에는 w, j, h, ʔ이 있다. 이들 音素의 音素的 機能은 다음의 對立雙에서 確認된다.

waŋ(王) : jaŋ(洋), coóh-(好) : coóʔ-(拾)

純粹母音 중에서 ɛ와 3는 각각 先行段階의 e, ɛ와 i, ə가 中和된 것이다. 그런데 共時的 音韻記述을 함에 있어서 3는 두 종류로 區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7에서 論議된 바와 같이 '書, 用'과 '立'의 뜻을 가지는 現代 月城語의 動詞는 똑같이 s3-로 表示되어야 한다. 그러나 '書, 用'의 뜻을 가지는 動詞 s3-의 語幹母音 3는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결합하면 i로 交替된다(s3+ko→sigo). 이와는 달리 '立'의 뜻을 가지는 動詞 s3-의 語幹母音 3는 어떤 경우에도 달리 交替되지 않는다(s3+ko→s3go).

한편 語尾 -3mo(—으면), -3mi(ns3) (—으면서) 等의 頭母音 3는 모음으로 끝나는 語幹 뒤에서 삭제된다(í+3mo→ímo(戴)). 그러나 語尾 -ato (—아도), -akáa(—아서) 等의 頭母音 a에서 交替된 3는 같은 환경에서도 삭제되지 않는다(í+ato→i+3to→j3do(戴) cf. *ido). 이 밖에 p3p(法)과 íl3m(名)의 語末音節母音은 同一하게 3로 表示되지만 主格語尾 i와 結合하면 前者는 (p3p+i→) pɛbi로, 後者는 (íl3m+i→) írimi로 實現된다.

崔明玉(1980a: 180—83)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音韻過程에서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 3와 그 자체가 변하는 3를 구별하고 前者와 後者를 緊張母音(tense vowel) 對 弛緩母音(lax vowel)의 관계로 이해하여 그 들을 각각 ∃와 3로 달리 표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그 둘이 마치 基底

音素인 것처럼 되고 말았다. 弛緩母音 ɜ는 sɜ-(書, 用), p^hɜ-(汲) ap^hɜ́-(痛), ílɜm(名) 等이나 -ɜmo(—으면) 等과 같이 극히 한정된 形態素의 끝이나 처음에만 存在한다는 사실, 緊張母音 ɘ는 基底母音體系를 이루는 다른 母音과 동일하게 音長에 의한 對立을 가지는데(sɘm(石) : sɘ:m(島)) 弛緩母音 ɜ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ɘ와 ɜ는 音聲形에서 區別되지 않는다는 사실 等에 의하여 이 책에서는 從來의 설명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2·6과 2·7에서 言及한 바와같이 弛緩母音이라고 命名했던 ɜ는 先行段階의 ɨ에 遡及되는 것인 바 音韻變化에서 除外된 例外的인 存在이다. 그것은 t변칙동사나 p변칙동사에서의 語幹末音 t나 p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著者는 從前에 緊張母音과 弛緩母音으로 區別하였던 ɘ와 ɜ을 ɜ로 표시하고 後者에 대해서는 ɜ̟와 같이 달리 표시함으로써 그러한 音素에만 적용되는 音韻規則을 設定하여 音韻過程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滑音에 속하는 ʔ도 音聲的으로는 確認되지 않는다. 그러나 通時的 音韻變化와 共時的 音韻現象을 통하여 그 存在를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拾'과 '好' 그리고 '視'의 뜻을 가지는 動詞들의 活用을 통하여 ʔ가 基底音素로 設定되어야 할 理由를 알아보자.

	—고	—더라	—아도	—으면
拾	coókk'o	coótt'ɜ́ra	cáado	cóomo
好	coókk^{h}o	coótt^{h}ɜ́ra	coádo	coómo
視	pógo	pódɜ́ra	paádo	pómo

세 動詞가 보이는 活用에서의 差異는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할 때에 나타난다. '視'의 뜻을 가지는 動詞의 活用은 語尾의 頭子音을 有聲音으로 實現시키고 있으므로 그 基底形이 po-임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

리 '好'의 뜻을 가지는 動詞는 語尾의 頭子音을 有氣音으로 實現시키고 있으므로 그 基底形이 coóh-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拾'의 뜻을 가지는 動詞의 基底形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拾'의 뜻을 가지는 動詞는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의 頭音을 硬音으로 實現시키고 있다. 그것은 그 動詞의 語幹末音이 母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그것은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하면 音聲形으로 實現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 動詞의 語幹末音이 母音 사이에서 削除된 것으로 理解된다.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할 때는 純粹子音과 같은 機能을 하고 母音 사이에서는 削除되는 이 音素는 喉頭閉鎖音 ʔ(ㆆ)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音素의 設定에 대한 必要性과 妥當性은 3·2·21(變則活用)에서 具體的으로 論議되겠거니와 '拾'의 뜻을 가지는 動詞의 基底形은 coóʔ-가 됨으로써 '好'의 뜻을 가지는 動詞의 基底形 coóh-와는 對立을 이룬다. 따라서 h와 ʔ는 모두 音素的 機能을 가진다고 하겠다.

3·1·2 韻素體系

月城語는 韻素로서 聲調와 音長을 가지고 있다. 聲調에는 高調(H, V́)와 低調(L, V)가 있고 音長에는 長音과 短音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統合되어 있다. 聲調와 音長의 統合은 低調에서만 可能한데 이들이 韻素로서의 機能을 가지는 사실은 다음의 例에서 確認된다.

mál+i→mári (馬) [HL]　　són+i→sə̃́ĩ (客) [HL]

mal+i→mari (斗) [LL]　　son+i→sə̃ĩ (手) [LL]

maal+i→maari (言) [L:L]　　soon+i→soə̃ĩ (孫) [L:L]

그런데 長母音의 聲調는 形態素內部에서의 位置에 따라 약간의 差異를 나타낸다. 즉 非語頭音節에서는 $\widehat{HL}$로 단일하게 나타나고(talkɛ́ɛ-(說), palpʰíi-(被踏) 等) 語頭音節에서는 $\widehat{LH}$가 일반적이며(sií-(强),

k'uúp-(炙), taám-(盛) 等) 한정된 語詞에서 $\widehat{HL}$로 나타낸다(c'ó o(曬光), p'óo-(碎) 等). 이러한 사실들이 聲調 記述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책의 範圍 밖의 것이므로 더 論하지 않기로 하며 長母音의 聲調는 同一母音을 反復 記錄하여 표시하기로 한다.

3·1·3 音素의 資質圖

	p	p'	p^h	t	t'	t^h	c	c'	c^h	k	k'	k^h	s	m	n	ŋ	l	h	ʔ	w	j	i	ɛ	ɜ	u	o	a
vocalic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nsonant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erior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ron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nas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ntinua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rid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aspirat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glottaliz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high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ck	−	−	−	−	−	−	−	−	−	+	+	+	−	−	−	+	−	−	−	+	−	−	−	+	+	+	+
low	−	−	−	−	−	−	−	−	−	−	−	−	−	−	−	−	−	+	+	−	−	−	−	−	−	−	+
round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音韻變動과 音韻規則

3·2·1 副詞形語尾 a의 交替

2·5 (母音調和)에서 우리는 月城語에서 副詞形語尾 a는 先行하는 語幹末의 音韻環境과 語幹 音節數에 따라 특별한 交替를 나타내는 것을 보았다.[1] 그 現象을 다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副詞形語尾 a는,

(가) 語幹이 子音으로 끝나면 語幹 音節數나 語幹末音節 母音의 性質에

1) 語尾 a에는 -ato(—아도), -akáa(—아서), -ala(命令), -as-(過去時制) 等이 포함된다.

관계 없이 언제나 a로만 實現된다.

(나) 一音節語幹으로서 母音이나 h로 끝나면, 語幹母音이 a나 o일 때는 그대로, 그 以外의 母音일 때는 ɜ로 實現된다.

(다) 二音節 以上의 語幹으로서 i로 끝나는 語幹 뒤에서는 ɜ로 實現된다.[2)]

以上과 같은 事實은 (1)에서 確認된다.

(1) ㄱ. k'ák'+ato→k'ák'ado(削), taám+ato→támado(盛),
k'op+ato→k'óbado(插), púʔ+ato→páado(注),
kɛcák+ato→kɛcágado(近)
ㄴ. ciíl+ato→círado(長), cúk+ato→cúgado(死),
nɜ́lk+ato→nɜ́lgado(老), mukɜ́p+ato→mugɜ́bado(重),
puk'úlɜ́p+ato→puk'úrɜ́bado(恥)
ㄷ. ká+ato→kádó(行), pó+ato→paádo(視),
nóh+ato→náado(放)
ㄹ. k^{h}ɜ+ato→k^{h}ɜdo(大), c^{h}i+ato→c^{h}ɜdo(打),
jɜ́h+ato→jɜ́ɜdo(入)
ㅁ. cip^{h}ɜ̟́+ato→cíp^{h}ado(深), pɛ́u+ato→pɛ́ado(學),
pak'úu+ato→pak'áado(換)
ㅂ. t'ɛ́li+ato→t'ɛ́rɛdo(打), kitáli+ato→kidárɛdo(待),
tác^{h}i+ato→tác^{h}ɛdo(傷), t'así+ato→t'asɛ́ɛdo(溫)

語幹末이 ɛ인 때에는 k'ɛ́+ato→kɛ́ɛdo에서 보듯이 語尾의 頭音 a가

2) 月城語에는 이 條件에 대하여 例外를 보이는 一群의 語詞가 있다. ha-(爲), kat^h-(如), p^{h}aaláh-(碧), olh-(當)과 所謂 li變則動詞라고 불리는 talí-(異), pulí-(呼) 等이 그것이다. 이들 動詞는 語尾 -ato와 結合하면 각각 hɛ́ɛdo, kát^{h}ɛ́ɛdo, p^{h}aarɛ́ɛdo, órɛ́ɛdo와 tállado, púllado와 같은 音聲形을 나타낸다. 이들 動詞에 대해서는 3·2·21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論할 것이다.

音聲形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語尾 a가 語幹末母音에 完全順行 同化된 때문이라 하겠는데, 이런 同化를 任意的으로 수행하는 여러 方言에서 e나 ε가 陰性母音의 機能을 가진다는 事實을 참작하여, 完全順行同化에 앞서 a가 ɜ로 交替되는 過程이 있다고 본다.

著者는 從來 (1)의 現象에 대하여 一音節語幹으로서 母音이나 h로 끝나는 경우에 限하여 母音調和規則을 設定한 바 있다(崔明玉 1980a: 162—63). 그러나 形態素境界에서의 母音調和가 지나치게 制約을 받았고 現代國語에 이르러 겨우 副詞形語尾 a에 局限되어 그 命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國語 母音調和의 特徵인데, 月城語에서 발견되는 위와 같은 副詞形語尾 a의 音韻現象은 母音調和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2·5**(母音調和)에서 論議된 사실과 위의 (1)이 알려 주는 사실에 의하면 月城語는 과거에도 副詞形語尾 a의 母音調和를 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도 가지지 않는다고 하겠다. 우리가 副詞形語尾 a의 交替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理由때문이다.

副詞形語尾 a의 交替는 規則 (2)로 나타낼 수 있다.

$$(2)\quad a \longrightarrow \text{ɜ} / \left\{ \begin{array}{l} \#C_0 \left[\begin{array}{c} V \\ \left\{ \begin{array}{l} \left[\begin{array}{l} -\text{low} \\ -\text{round}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text{high} \\ +\text{round}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h)]_{Vst} ___ \\ \sigma i]_{Vst} ___ \end{array} \right\} \begin{array}{l} (a) \\ \\ (b) \end{array}$$

((a) 一音節語幹의 動詞에서, 語尾 a는 語幹末音 i, ε, ɜ, u 또는 이들 모음 다음에 h가 있을 때 그 뒤에서 ɜ로 된다. (b) 二音節 以上의 語幹을 가진 動詞에서, 語尾 a는 語幹末音 i 뒤에서 ɜ로 된다.)

여기서 우리가 副詞形語尾 a를 基底形으로 잡은 것은, (1)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一部의 制限된 경우 外에는 語尾 a가 語幹末의 環境이나 語幹의 音節數에 관계 없이 모두 a로 實現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現象이

活用에 限定된다고 한 것은 曲用에서 呼格語尾 a는 어떤 경우에도 交替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su(人名)+a(呼格)→suja!(*suɜ!), jɜŋki(人名)+a(呼格)→jɜŋgija! (*jɜŋgiɜ!)

3·2·2 滑音化와 長母音化

語幹末母音 i, u나 o가 語尾頭音 a나 규칙 (2)에서 結果된 ɜ와 結合할 때, i가 j로, u나 o가 w로 되는 것을 滑音化라고 한다. 月城語에서 이 現象은 母音으로 시작되는 一音節語幹의 경우에 限하여 分明히 드러나며 ((3ㄱ)) 二音節 以下에서는 音節이 母音으로 시작되어도 滑音은 音聲形에 드러나지 않는다((3ㄴ)).

(3) ㄱ. ó+ato→wado(來), í+ato→jɜdo(戴)

ㄴ. pέu+ato→pέado(學), k^{h}íu+ato→k^{h}íado(育)

ㄷ. pó+ato→paádo(覗), c'óo+ato→c'áado(曬光)

ㄹ. cú+ato→cóódo(授), k'ú+ato→k'oódó(夢)

ㅁ. ki+ato→kíído(匍匐), p^{h}i+ato→p^{h}íido(伸)

ㅂ. cí+ato→cɜ́dó(負), c^{h}i+ato→c^{h}ɜdo(打)

ㅅ. íki+ato→ígɛdo(勝), tác^{h}i+ato→tác^{h}ɛdo(傷)

t'así+ato→t'asέɛdo(溫), k'osí+ato→k'osέɛdo(芳)

ㅇ. nóŋku+ato→nóŋgado(分)

그러나 (3ㄴ—ㅇ)의 例들이 滑音化 過程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들 例가 滑音化 過程을 거쳤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분명해진다. 먼저 (3ㄷ)에서 語幹末母音 o와 óo가 語尾 a 앞에서 削除된다면 音聲形 paádo와 c'áado에서 長音이 나타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ká+

ato→kádó(行), k'з+ato→k'зdo(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語幹母音이 削除되면 短音만 나타날 뿐이다. 이와는 반대로 子音으로 시작되는 一音節語幹으로서 語尾 a와 結合하여 滑音化할 경우에 補償的 長音을 가지게 되는 것은 國語의 一般性이라고 할 수 있다.[3] 그러므로 (3ㄷ)의 例들은 滑音化過程을 거쳤다고 해야 할 것이다. 表面音聲制約(surface phonetic constraints) 때문에 단지 音聲形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3ㄹ)의 例들이 語幹末母音 u와 語尾 a와 결합하여 長母音 o를 보이는 것은 滑音化過程을 거친 결과이다. 語幹末母音이 u이므로 滑音化하려면 먼저 규칙 (2a)에 의하여 語尾 a가 з로 되는 節次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滑音化가 일어났다면 wз: 가 될 것이며 여기에 子音 뒤에서 w가 삭제되는 규칙이 적용되면 실현되는 音聲形은 cз́з́do나 k'з́з́do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音聲形은 그렇지 못하므로 그들 例가 滑音化過程을 거쳤다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語幹末母音 u와 語尾 a가 결합하여 長母音 o로 되는 過程이 달리 說明되어야 하겠는데 滑音化過程을 생각하지 않고는 다른 說明의 방안을 찾을 수 없다. 月城語가 겪는 通時的 變化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實體的 證據를 제공한다. 二重母音 wə가 뒤에 o로 변한 사실을 알려 주는 第2章의 (53)의 例들이 그것이다. 그러한 證據에 의하여 (3ㄹ)의 例들은 語幹末母音 u가 語尾 a와 결합하여 滑音化 過程을 거치고 (u+a→wз:) 子音 뒤에서 w가 삭제되기 전에 wз가 o로 된 것이라고 說明된다.

(3ㅁ)에서는 音聲形 kíído와 pʰíído가 長音을 가지고 있으므로 語尾 a가 削除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ㅅ)의 例에서 滑音化가 確認되고 (3ㄱ)에서도 i의 滑音化가 確認되므로 (3ㅁ)의 例들도 滑音化過程을 거친

3) 補償的 長音 問題를 다룬 論文에 金完鎭(1972b), 余鎭宇(1976), 李秉根(1978)이 있다.

것으로 본다. (이들 音聲形이 基底形으로부터 導出되는 過程에 대해서는 (15ㄴ)을 참조할 것)[4]

(3ㅅ)의 例는 語幹末母音 i와 語尾 a가 結合하여 ɛ로 되었음을 알려 준다. (3ㅅ)의 例들이 滑音化 過程을 거쳤다면 그 節次는 二音節 以上의 語幹이 가진 語幹末母音 i 뒤에서 語尾 a가 ɜ로 되고 ((2b)) 그 다음에 滑音化하여 jɜ로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jɜ가 ɛ로 되는 과정이 說明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二重母音의 變化에서 齒擦音과 流音 以外의 子音 뒤에서 jə가 e로 變한 事實(第2章 (46))에 의하여 立證된다.[5] 그러므로 (3ㅅ)의 例들도 滑音化 過程을 거쳤다고 하겠다.

(3ㅅ)의 tác^{h}i-의 경우로 보아서 (3ㅂ)의 例들도 滑音化 過程을 거친 것이 분명하다. 語幹이 一音節인데도 滑音化하여 長音이 發生되지 않는데 그것은 滑音化와 同時에 破擦音 c, c', c^{h} 뒤에서 調音 位置를 같이하는 j가 削除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3ㄴ)과 (3ㅇ)의 例들도 (3ㄹ)의 경우로 보아서 滑音化 過程을 거친 것으로 본다. (3ㅇ)의 例에서는 子音 뒤에서 w가 삭제되기 때문에 音聲形에 滑音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說明이 可能하다. (3ㄴ)의 경우는 語幹末音節이 母音으로 시작되므로 滑音이 削除되는 事實을 子音과 관련지어서 說明할 수 없다. 그 사실은 月城語에서 w는 語頭位置에만 나타날

---

4) kíído와 p^{h}íido가 滑音化 過程을 거쳤다고 할 수 있는 外的 證據(external evidence)로 ㉠ 寧海地域語와 ㉡ 求禮地域語의 例를 들 수 있다. ㉠ ki+ato→kɛ́ɛ́do (倆闾). t'ɜsí+ato→t'ɜsɛ́ɛdo(溫) (崔明玉 1979 : 6—8, 1980a: 164—68) ㉡ (ki+ə→) ke: (倆闾), (pilli+əla→) pillera(借) (李丞宰 1980 : 97—101). 그러나 síi-(强), k'íi-(貫) 等 二重母音이나 e에서 形成된 i를 가진 動詞에서도 滑音化 過程이 일어나는지는 現在 斷定할 수 없다. 이 問題는 앞으로 더 硏究되어야 할 것이다.

5) 通時的으로는 齒擦音 뒤의 jə가 e로 縮約될 수 없었음에 비하여 共時的으로는 非語頭音節에서 齒擦音 뒤에서도 jɜ의 縮約이 가능하다는 것을 (tác^{h}i+a→tac^{h}i+ɜ→tac^{h}jɜ→)tác^{h}ɛ에서 보게 된다. 이것은 共時的 音韻 過程과 通時的 音韻變化 過程이 반드시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준다.

수 있고 非語頭 位置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分布制約에 의하여 說明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滑音化는 語幹末音 h나 ?가 削除된 뒤에도 일어난다. (4)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 준다.

(4) ㄱ. nóh+ato→náado(放)

ㄴ. pú?+ato→páado(注), coó?+ato→cáado(拾)

(4)의 例들이 h나 ?가 삭제된 뒤에 滑音化 過程을 거쳤다는 것은 (3)의 例들에 대한 說明에서 理解된다. 다만 (4ㄴ)에서 pú?-는 ?가 삭제된 뒤에 滑音化 過程을 거쳐도 oo로 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3ㄹ)의 語幹母音 u가 a의 交替에 의한 з와 滑音化한 데 비하여 pú?-는 ?가 삭제된 뒤에 語尾 a와 結合하여 滑音化했기 때문이다. 語幹末音으로 h를 가진 動詞 중에서 coóh-(好)는 例外的으로 h가 삭제된 뒤에도 滑音化하지 않는다: coóh+ato→coádo (*caádo).

一般的으로 滑音化는 活用에서만 일어나고 曲用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金完鎭 1972b, 李秉根 1975, 이병건 1976). 그러나 月城語에서는 o, u, i로 끝나는 二音節語幹의 名詞에 處格語尾 ɛ가 결합되는 경우에 滑音이 形成된다. 이 特別한 現象은 (5)와 같다.

(5) ㄱ. maákú+ɛ→magéɛ(馬廐+에), maáŋkú 또는 maáŋkó+ɛ→maáŋgéɛ(萬古+에), taŋcʰó+ɛ→taŋcʰéɛ(當初+에), kwaákcuŋ+ɛ→kwaákcéɛ(過刻中+에)

ㄴ. calí+ɛ→caréɛ(袋, 柄+에), milkáli+ɛ→milgáréɛ(밀가루+에), tósi+ɛ→tósɛɛ(都市+에), cзŋcíi+ɛ(s3)→cзŋcéɛ(s3) (부엌+에(서)), kóki+ɛ→kógɛɛ(魚+에)

여기서도 滑音은 音聲形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語尾 ε와 結合된 結果가 모두 長母音으로 나타나는 것은 名詞의 末母音이 削除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 長母音은 完全逆行同化에 의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同化의 경우에 語尾 ε가 名詞 末母音에 完全順行同化하는 것이 月城語의 實情이기 때문이다 : paŋ+ε→pə́ã(房), cílká+εs3→cílk'á-as3(路邊). 이런 事實들로 미루어 (5)의 例들은 滑音化를 거친 것이 된다.[6)]

이 밖에 呼格語尾 a도 滑音化할 수 있는 環境을 이루지만 jɜ́ŋsu(人名) +a→jɜ́ŋsuja (*jɜŋsaa), mínkí(人名)+a→míŋgíja (*míŋgáa)가 알려 주는 바와 같이 그 경우에 滑音化는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論議된 滑音化 現象을 支配하는 規則은 (6)과 (7)로 나타낼 수 있다.[)]

(6) 滑音化와 長母音化規則(1)

$$<\#\begin{bmatrix} C \\ \left\{\begin{matrix}[+ant] \\ [-cor]\end{matrix}\right\}\end{bmatrix}> \{i,\ u,\ o\}\,]_{Vst}\ a$$
$$\quad 1 \qquad\qquad 2 \qquad\qquad 3 \Longrightarrow <1>\begin{bmatrix} 2 \\ -voc \\ +high \end{bmatrix}\begin{bmatrix} 3 \\ \langle +long \rangle \\ \end{bmatrix}$$

(破擦音 以外의 子音으로 시작되는 一音節語幹의 動詞에서 語幹末母音 i, u, o는 語尾 a와 결합하여 j나 w로 되고 동시에 語尾 a는 長母音으로 된다. 그 以外의 경우는 滑音化 過程을 거쳐도 語尾 a는 長母音으로 되지 않는다.)

(7) 滑音化와 長母音化規則(2)

$$\sigma\{i,\ u,\ o\}\,]_N\ \varepsilon$$
$$1 \quad 2 \qquad 3 \Longrightarrow 1\begin{bmatrix} 2 \\ -voc \\ +high \end{bmatrix}\begin{bmatrix} 3 \\ +long \\ \end{bmatrix}$$

6) 補償的 長音이 發生되는 것은 語頭音節에서만 可能하므로 (5)의 例들이 나타내는 長音은 새로운 問題를 提起한다. 活用과는 달리 그와 같은 現象은 曲用에서만 可能한 音韻機制에 말미암는 것인지도 모른다.

7) 繫辭 i-나 否定動詞 ɛní-는 각각 Xigo, Xirado, Ximo와 ɛ̃ígo, ɛ̃írado, ɛ̃ímo와 같이 活用하므로 滑音化 對象에서는 除外된다.

(二音節 以上의 名詞에서 語幹末母音 i, u, o 는 處格語尾 ε 와 결합하면 j 나 w 로 되며 동시에 語尾 ε 는 長音을 가진다.)

3·2·3 母音縮約

形態素境界에서의 母音縮約은 語幹末母音 i 와 語尾 a 가 滑音化하여 形成된 二重母音 jɜ 가 ε 로 되는 것을 말한다. 母音縮約에는 일정한 制約이 따른다. (8ㄱ)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一音節語幹의 경우에는 滑音化가 이루어진 뒤에 母音縮約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8ㄴ)과 같이 一音節語幹을 가진 動詞로서 破擦音 c, c', cʰ 으로 시작되면 滑音化가 이루어져도 母音縮約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8ㄷ)과 같이 語幹이 二音節以上일 때는 破擦音 뒤에서도 母音縮約이 일어난다. (8ㄹ)과 같이 助動詞 또는 派生語尾 ci- 를 가지는 경우에는 語幹이 二音節 以上이라도 母音縮約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ci- 자체가 音節論的으로 독립된 單位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에 提示된 制約이 免除되는 경우에는 滑音化 뒤에 母音縮約이 일어난다((8ㅁ)).

(8) ㄱ. í+ato→jɜdo(戴)

ㄴ. cí+ato→cɜ́dó(負), c'i+ato→c'ɜdo(介), cʰi+ato→cʰɜdo(打)

ㄷ. t'ɜ́nci+ato→t'ɜ́ncεdo(投), k'ɜ́ncʰi+ato→k'ɜ́ncʰεdo(止)

ㄹ. cáp'aci+ato→cáp'acɜdo(後倒), kɜmpaŋcí+ato→kɜmbaŋcɜ́do (건방지—)

ㅁ. ki+ato→kíído(匍匐), moí+ato→mojέdo(集)[8],

8) 이 때에 나타나는 j 는 jɜ→ε 가 倒置(metathesis)에 의한 것이 아니라 縮約(contraction)에 의한 것임을 잘 알려준다. 이러한 사실은 cɜllíi+ato→cɜlljέεdo(疼), tallíi+ato→talljέεdo(說) 等에서도 發見된다.

t'έli+ato→t'έrεdo(打), cέpʰi+ato→cέpʰεdo(使執)

з로 시작되는 曲用語尾는 없으므로 曲用에는 母音縮約現象이 없다. 따라서 形態素境界에서 일어나는 母音縮約現象은 規則 (9)에 의한다.

(9) 母音縮約規則

$$\left\{\begin{matrix} \# \begin{bmatrix} C \\ \left\{\begin{matrix}[+\text{ant}] \\ [-\text{cor}]\end{matrix}\right\} \end{bmatrix} \\ \sigma \left\{\begin{matrix}[+\text{cons}] \\ [+\text{syll}]\end{matrix}\right\} \end{matrix}\right\} \quad \text{jз}$$

$$\quad 1 \qquad\qquad 2 \Longrightarrow 1 \begin{bmatrix} 2 \\ -\text{high} \\ -\text{back} \end{bmatrix}$$

(語幹이 一音節이면 破擦音(c, c', cʰ) 以外의 子音 뒤에서, 語幹이 二音節 以上이면 子音의 性質을 가진 모든 音素와 母音 뒤에서, jз는 ε로 된다.)

3·2·4 ε→i

ε→i는 規則(9)의 짧은형에 의하여 導出된 ε가 i로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規則으로 나타내면 (10)과 같다.

(10) ε→i 規則

$$\begin{bmatrix} +\underset{\text{Rule(9)DRVD}}{\varepsilon} \end{bmatrix} \longrightarrow i / \# C \text{——}$$

(語幹이 一音節이면 규칙 (9)에 의하여 jз에서 도출된 ε는 子音 뒤에서 i로 된다.)

단순히 ε→i라고만 하면 tέ-(成), k'έ-(破) 等의 ε가 i로 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잘못된 音聲形이 導出될 수 있다. 實際의 音聲形에 *tí-(成)나 *k'í-(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i로 되는 ε는 jз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것을 話者들이 理解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ε를 규칙 (9)에 의하며 도출된 것으로 한정시킨 것은 話者들이 理解하고 있는 規則의 一

部를 표시한 것이 된다. (이 規則의 적용 例는 (15ㄴ) 참조)

3·2·5 滑音削除

滑音削除란 규칙 (6)과 규칙 (7)에 의하여 形成된 滑音이 一定한 制約에 의하여 削除되는 것을 말한다. 月城語에서 滑音이 削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j는 一音節語幹에서는 破擦音 뒤에서, 二音節 以上의 名詞에서는 子音 (l포함) 뒤에서 삭제되며 ((11ㄱ, ㅁ)) w는 子音 뒤에서, 그리고 語幹이 二音節 以上이면 母音 뒤에서 削除된다((11ㄴ—ㄹ, ㅂ)).

(11) ㄱ. cí+ato→cjɜto→cɜ́dó(負), cʰi+ato→cʰjɜto→cʰɜdo(打)

ㄴ. pó+ato→pwa:to→paádo(覗), c'óo+ato→c'wa:to →c'áado(曬光)

ㄷ. pέu+ato→pεwato→pέado(學), cʰíu+ato→cʰiwato →cʰíado(除)

ㄹ. nóh+ato→noato→nwa:to→náado(放), púʔ+ato→puato →pwa:to→páado(注)

ㅁ. calí+ε→caljε:→carέε(袋, 柄), tósi+ε→tosjε:→tósεε(都市)

ㅂ. maákú+ε→maakwε:→magέε(馬廐), taŋcʰó+ε→taŋcʰwε: →taŋcʰέε(當初)

(11)의 現象은 規則 (12), (13)에 의한 것이다.

(12) j 削除規則

$$j \rightarrow \phi \ / \left\{ \begin{array}{ll} \# \begin{bmatrix} C \\ -\text{ant} \\ +\text{cor} \end{bmatrix} \underline{\quad} & \text{(a)} \\ \sigma [+\text{cons}]^{N} \underline{\quad} & \text{(b)} \end{array} \right\}$$

((a) 語幹이 一音節이면 破擦音(c, c', cʰ) 뒤에서 j가 삭제된다. (b) 二音節 以上의 名詞에서는 자음 또는 流音 뒤에서 j가 삭제된다.)

(13) w 削除規則

$$w \rightarrow \phi / \begin{Bmatrix} C \\ \sigma V \end{Bmatrix} \text{———} \quad \begin{matrix} (a) \\ (b) \end{matrix}$$

((a)子音 뒤에서 그리고 (b) 語幹이 二音節 以上이면 母音 뒤에서 w가 삭제된다.)

3·2·6 w3→o

이 現象은 語幹母音 u와 語尾 a가 結合되어 形成된 w3가 o로 되는 것을 말한다. 子音으로 시작되고 u로 끝나는 一音節語幹에 局限되어 發生하는 現象이므로 이 現象을 支配하는 規則은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滑音化 뒤에 滑音削除 過程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규칙 (14)는 규칙 (13) 보다 먼저 適用된다고 하겠다((15ㄱ)).

(14) w3→o 規則

$$\underbrace{\#C}_{1} \ \underset{2}{w3} \Longrightarrow 1 \begin{bmatrix} 2 \\ -\text{high} \\ +\text{round} \end{bmatrix}$$

(子音으로 시작되는 一音節語幹에서 w3는 o로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月城語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音韻變動과 그것들의 音韻過程에 대하여 論議하여 왔다. 實際로 드러난 音聲形은 몇개의 規則이 連鎖的으로 適用된 結果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그들 規則의 適用 過程을 具體的으로 觀察할 機會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 그들 규칙이 基底形에 適用되어 音聲形을 導出시키는 過程을 보임으로써 設定된 規則의 妥當性을 立證하고 그들 規則이 月城語의 音韻史의 脈絡 속에서 차지하는 意義에 대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앞에서 論議된 規則들이 基底形에 適用되어 音聲形을 導出시키는 過程을 나타내면 (15)와 같다.

(15) ㄱ. /o+ato/ /í+ato/ /pó+ato/ /cú+ato/

——	i ɜto	——	cu ɜto	규칙 (2a)
wato	jɜto	pwa:to	cwɜ:to	규칙 (6)
——	——	——	co:to	규칙 (14)[9]
——	——	pa:to	——	규칙 (13)
[wado]	[jɜdo]	[paádo]	[cóódo]	
(來)	(戴)	(視)	(授)	

ㄴ. /ki+ato/ /cí+ato/ /íki+ato/ /t'ɜ́nci+ato/ /moí+ato/

ki ɜto	ci ɜto	iki ɜto	t'ɜ́nci ɜto	moiɜto	규칙 (2)
kjɜ: to	cjɜto	ikjɜto	t'ɜncjɜto	mojɜto	규칙 (6)
kɛ: to	——	ikɛto	t'ɜncɛto	moɛto	규칙 (9)
ki: to	——	——	——	——	규칙 (10)
——	cɜto	——	——	——	규칙 (12a)
[kíído]	[cɜ́dó]	[ígɛdo]	[t'ɜ́ncɛdo]	[mojɛ́do]	
(匍匐)	(負)	(勝)	(投)	(集)	

ㄷ. /pɛ́u+ato/ /cʰíu+ato/ /nóŋku+ato/

pɛwato	cʰiwato	noŋkwato	규칙 (6)
pɛato	cʰiato	noŋkato	규칙 (13)
[pɛ́ado]	[cʰíado]	[nóŋgado]	
(學)	(除)	(分)	

ㄹ. /maákú+ɛ/ /taŋcʰó+ɛ/ /calí+ɛ/ /tósi+ɛ/

maakwɛ:	taŋcʰwɛ:	caljɛ:	tosjɛ:	규칙 (7)

9) 만약 규칙 (14)보다 규칙 (13)이 먼저 적용된다면 그것은 cɜ́ɜ́do를 導出시키게 되어 실제 音聲形과는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규칙 (14)가 규칙 (13)보다 먼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그 때문이다. 月城語의 音韻史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규칙적용의 순서는 역사적 변화의 순서와 일치한다.

——	——	calɛ:	tosɛ:	규칙 (12b)
maakɛ:	taŋc^{h}ɛ	——	——	규칙 (13)
[magɛ́ɛ]	[taŋc^{h}ɛ́ɛ]	[carɛ́ɛ]	[tósɛɛ]	
(馬廐)	(當初)	(袋, 柄)	(都市)	

위의 導出過程을 통하여 우리는 앞에서 設定된 規則들이 月城語의 音韻變動의 機制를 바르게 捕捉하고 있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다. 音聲形에서 t, k 等이 有聲音 d, g 等으로 된 것은 p, t, c, k 等의 平音이 有聲音 사이에서 有聲音化하는 規則에 의한 것이며 l이 r로 實現되는 것도 母音 사이에서 l이 r로 되는 規則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15)의 導出過程으로부터 다음 몇 가지 사실을 말할 수 있다.

첫째, 現代 月城語가 活用이나 曲用에서 子音 뒤에 二重母音을 보이지 않는 것은 音聲的인 事實일 뿐이며 基底段階에서는 二重母音이 子音 뒤에 存在할 수 있다. 그러한 二重母音이 音聲形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은 表面音聲制約 때문이라 하겠는데 이 制約은 形態素內部에서 子音 뒤의 二重母音이 單母音化된 音韻史的 事實에 基因한다.

둘째, 母音으로 시작되는 一音節語幹에서는 滑音化 뒤에 다시 滑音削除가 適用되지 않는다. 이것은 月城語의 二重母音史에서 子音을 先行시키지 않은 二重母音은 그대로 계속된 事實과 一致한다. 破擦音 뒤에서 j가 삭제되는 것은 破擦音 뒤에서 j가 삭제된 月城語의 音韻史的 事實과 軌를 같이한다고 하겠는데 通時的으로는 摩擦音과 流音 뒤의 j도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形態素內部에서와 形態素境界에서 j삭제규칙에 差異를 가진다.

세째, e>i는 形態素內部에서는 音節의 構造나 音節數에 관계 없이 適用되었으나 形態素境界에서는 子音으로 시작되는 一音節語幹에만 適用된다.

네째, 形態素內部에서 二重母音 wə는 주로 子音 뒤에서 o로 변했는데 이러한 通時的 事實은 形態素境界에서 子音으로 시작되는 一音節 語幹母音 u와 語尾 a가 結合된 wɜ에 反映된다.

以上과 같은 諸事實은 共時的 音韻過程이 주로 그 言語의 歷史的 變化를 반복하지만 歷史的 變化過程과 共時的 變動過程이 반드시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再確認하게 한다(Saporta 1965 : 296, Schane 1973 : 83).

3·2·7 ɜ̟ 削除

第2章에서 우리는 先行時期에 音素的 對立을 이루던 ɨ와 ə가 ɜ로 中和된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ɨ는 ə와 中和되기 전에 齒擦音 뒤에서 i로 변하고 脣音 뒤에서 u로 변했다는 것도 알았다. 이러한 변화와는 달리 語幹末 位置에 있던 ɨ는 齒擦音이나 脣音 뒤에서도 i나 u로 변하지 않았는데 그 ɨ가 現代 月城語에 ɜ̟로 남아 中和된 ɜ와 音韻行爲를 달리하는 事實도 2·6과 2·7에서 確認한 바 있다. 動詞 sɜ̟-(書, 冠, 用)와 cipʰɜ̟́-(深), nopʰɜ̟́-(高), pap'ɜ̟́-(忙) 等의 語幹末母音 ɜ̟가 그것이다.

ɜ̟는 語尾에도 있다. 對格 -ɜ̟lɜ(l)~ɜ̟l, 主題格 -ɜ̟no~-ɜ̟nɜ(n), 向格 -ɜ̟lo; 先語末語尾 -ɜ̟si-(尊稱語尾), -ɜ̟lʔ-(=겠), 連結語尾 -ɜ̟mo(—으면), -ɜ̟nik'anɛ(—으니까), -ɜ̟namana(—으나마나), -ɜ̟mi(nsɜ)(—으면서), -ɜ̟lsulo(—을수록), 冠形形語尾 -ɜ̟n(—은), -ɜ̟lʔ(—을) 等이 그것이다. 이들 語尾의 ɜ̟도 ɨ에 遡及되는 것임은 對應되는 後期 中世나 現代 中部方言形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들 語尾의 頭音 ɜ̟는 語幹末의 環境에 따라 變動을 일으킨다. 이런 사실이 어떤 環境에서도 變動을 일으키지 않는 副詞形語尾 a의 交替形인 ɜ와 구별된다.

ɜ̟削除란 이들 語幹末의 ɜ̟나 語尾의 頭音 ɜ̟가 일정한 音韻論的 制約 아

래서 削除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우리는 (16ㄱ, ㄴ)에서 語尾 ɜ̟가 動詞의 語幹末母音이나 流音 뒤에서 削除되는 것을 본다. 그리고 (16ㄷ)에서 語幹末母音 ɜ̟가 語尾 a 앞에서 削除되는 것을 본다. 動詞 pap'ɜ̟́- 와는 달리, 動詞 sɜ̟-의 경우는 語幹末母音이 삭제되기 전에 규칙(2a)에 의하여 語尾 a가 ɜ로 되는 過程을 거치는데 그 경우에 語幹母音 ɜ̟와 語尾의 頭音 ɜ는 音聲上 區別되지 않으므로 삭제된 것이 ɜ̟인지 ɜ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pó+ato→paádo(視), ó+ato→wado(來), c^{h}i+ato→c^{h}ɜdo(打), méu+ato→méado(塡) 等에서 알 수 있듯이 語尾 a는 語幹母音에 비하여 音韻論的 强度(phonological strength)가 크다는 점으로 미루어 語幹母音 ɜ̟가 삭제되었다고 하겠다.

(16) ㄱ. ká+ɜ̟mo→kámo(行), pó+ɜ̟mo→pómo(視),
píu+ɜ̟mo→píumo(使空), mási+ɜ̟mo→másimo(飮)
ㄴ. nál+ɜ̟mo→ná(l)mo(飛), uúl+ɜ̟mo→uú(l)mo(泣),
kánɜ́l+ɜ̟mo→kánɜ́(l)mo(細), capúl+ɜ̟mo→cabú(l)mo(睡)
ㄷ. sɜ̟+ato→sɜ̟ɜto→sɜdo(書, 用, 冠), pap'ɜ̟́+ato→páp'ado(忙)

活用에 비하여 曲用은 事情이 좀 다르다. (17)이 알려 주는 바와 같이 向格語尾의 ɜ̟는 活用에 있어서와 같이 母音이나 流音 뒤에서 삭제되지만 主題格語尾의 ɜ̟는 母音 뒤에서는 削除되나 流音 뒤에서는 削除되지 않는다.[10] 主題格語尾의 ɜ̟가 가지고 있는 그런 特性이 무엇에 基因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11]

---

10) [+voc] 뒤에서 對格은 -lo가 선택되므로 여기서의 論議對象에 對格은 除外된다. e.g. mul-lo múk'o(물을 먹고), só-ró molk'o (소를 몰고)

11) 이 現象은 金完鎭(1972b: 279)에서 論議된 바 있다. 거기서는 [+voc] 뒤에서 削除되는 '으'는 lax vowel로, 流音 뒤에서 削除되지 않는 '으'를 tense vowel로 區別하여 그 差異를 說明하고 있다.

(17) ㄱ. san+ɜ̟lo→sánɜro(山), tɜɜ́l+ɜ̟lo→tɜɜ́llo(野),

kampʰó+ɜ̟lo→kampʰóro(甘浦)

ㄴ. cʰɜk+ɜ̟no→cʰɜ́gɜ́no(冊+은), súl+ɜ̟no→súrino~súrɜno(酒),

ulí+ɜ̟no→uríno(우리)

以上에 提示된 ɜ̟削除現象을 支配하는 規則은 (18)로 나타낼 수 있다.

(18) ɜ̟削除規則

$$\underset{+}{3} \longrightarrow \phi / \left\{ \begin{array}{l} V\ [\overline{+\text{thematic}}] \\ [+\text{voc}]\,]_{Vst} \text{——} \\ \text{——}\,]_{Vst} V \end{array} \right\} \quad \begin{array}{l} (a) \\ (b) \\ (c) \end{array}$$

((a) 主題格語尾의 ɜ̟는 母音 뒤에서, (b) 活用語尾의 ɜ̟는 母音과 流音 뒤에서, 그리고 (c) 語幹의 ɜ̟는 母音 앞에서 각각 삭제된다.)

規則이 指示하는 바와 같이 母音과 流音 以外의 音素 다음에서는 ɜ̟가 삭제되지 않으며 ((19ㄱ)) 有聲音 사이에서 h나 ʔ가 삭제된 뒤의 語幹母音이나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 앞에서 t로부터 交替된 l 뒤에는 규칙 (18)이 適用되지 않는다((19ㄴ), (19ㄷ)).

(19) ㄱ. k'ák'+ɜ̟mo→k'ák'ɜmo(削), sum+ɜ̟mo→súmúmo(隱)

ㄴ. nóh+ɜ̟mo→noɜ̟mo→nóomo(放), púʔ+ɜ̟mo→puɜ̟mo

→púumo(注)

ㄷ. tɜ́t+ɜ̟mo→tɜlɜ̟mo→tɜ́rɜmo(聽)

3·2·8 前舌高母音化

形態素內部에서 그리고 形態素境界를 사이하고 齒擦音 뒤에서 ɜ̟가 i로 되는 現象을 前舌高母音化라고 한다.

形態素內部에서는 動詞 sɜ̟-(書, 冠, 用)의 語幹母音 ɜ̟가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될 때, 그리고 形態素境界에서는 齒擦音으로 끝나는 動詞 語幹과 語尾의 ɜ̟가 結合할 때 이 現象이 일어난다. 曲用에서는 語幹末音이 齒擦音이나 流音일 때 語尾 ɜ̟와 結合하면 이 現象이 일어나는데 특히 流音 뒤에서는 任意的이다. 動詞 sɜ̟-가 어미 -ko나 -tɜ̆la와 結合하여 나타내는 音聲形 sigo나 sídɜ̆ra에서, 그리고 動詞 wiís-(笑)이나 c'ócʰ-(追)이 語尾 -ɜ̟mo와 結合하여 나타내는 音聲形 wísimo나 c'ócʰimo에서 그 現象의 대강을 確認할 수 있다. 曲用에서는 名詞 os(衣)과 súl(酒)이 對格語尾 -ɜ̟lɜ와 主題格語尾 -ɜ̟no 또는 -ɜ̟nɜ(n)과 結合하여 나타내는 音聲形 ósírɜ, ósíno 또는 ósínɜ(n)과 súrino 또는 súrɜnɜ에서 이 現象을 確認할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을 支配하는 規則은 (20)과 같다.

(20) 前舌高母音化 規則

$$\underset{+}{3} \longrightarrow i \,/\, \left\{ \begin{array}{l} -\text{back} \\ [+\text{strid}] \\ \begin{bmatrix} +\text{voc} \\ +\text{cons} \end{bmatrix}_N \end{array} \right\} \text{——} C \qquad \begin{array}{l} \text{(a)} \\ \text{(b) (optional)} \end{array}$$

((a) 일반적으로 齒擦音과 子音語尾 사이에서 ɜ̟는 i로 된다. (b) 특히 名詞일 때는 流音과 子音語尾 사이에서 ɜ̟는 임의적으로 i로 된다.)

규칙 (20)에 의하여 위의 例들이 基底形에서 音聲形으로 導出되는 過程을 보이면 (21)과 같다.

(21)

/sɜ̟+ko/	/sɜ̟+ɜ̟mo/	/wiís+ɜ̟mo/	/c'ócʰ+ɜ̟mo/	/os+ɜ̟no/	
——	sɜ̟ mo	——	——	——	규칙 (18)
si ko	si mo	wiis imo	c'ocʰ imo	os ino	규칙 (20)
[sigo]	[simo]	[wísimo]	[c'ócʰimo]	[ósíno]	

3·2·9 圓脣母音化

圓脣母音化란 形態素內部에서, 그리고 形態素境界에서 脣音 아래의 ɜ̟가 u로 되는 現象을 말한다. 形態素內部에서는 動詞 p^hɜ̟́-(汲), cіp^hɜ̟́-(深), nop^hɜ̟́-(高) 等이 子音이나 ɜ̟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하여 나타내는 音聲形 p^húgó, p^húmó, cip^húgo, cip^húmo, nop^húgo, nop^húmo 等에서 이 現象의 實現을 볼 수 있다. 그리고 脣音으로 끝나는 語幹 sum-(隱), suúp-(易), saálám(人), áp^h(前) 等과 語尾의 ɜ̟가 結合하여 나타내는 音聲形 súmúmo, suúbúmo, saárámunɜ(人+은), áp^huro(前+으로) 等에서도 이 現象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現象은 規則 (22)에 의하여 實現된다고 할 수 있다. 規則에서 圓脣母音化하는 ɜ̟가 脣音과 子音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制約한 것은 語尾 a와 結合하면 語幹의 ɜ̟는 規則 (18c)에 의하여 削除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 制約條件은 月城語의 音韻變化에서 ɨ의 圓脣母音化가 일어난 制約條件과 一致한다.

(22) $$\underset{+}{\text{ɜ}} \longrightarrow u / \begin{bmatrix}+\text{ant}\\ -\text{cor}\end{bmatrix} \underline{\hspace{2em}}\ C$$

(ɜ̟는 脣音과 子音(l 포함) 사이에서 u로 된다.)

規則 (22)에 의하여 위의 例들이 基底形에서 音聲形으로 導出되는 過程을 나타내면 (23)과 같다.

(23) /p^hɜ̟+ko//p^hɜ̟+ɜ̟mo//sum+ɜ̟mo//saálám+ɜ̟nɜ//áp^h+ɜ̟lo/

——	p^hɜ̟ mo	——	——	——	규칙(18b)
p^hu ko	p^hu mo	sumumo	saalamunɜ	ap^hulo	규칙(22)
[p^hugo]	[p^humo]	[súmúmo]	[saárámunɜ]	[áp^huro]	

以上과 같은 脣音에 의한 ɜ̟의 圓脣母音化 以外에 月城語에는 또 다른 圓脣母音化가 發見된다. (24)에 提示된 例들이 그것이다.[12]

(24) p'ók'+ɜ̟mo→p'ókk'umo(炒), nók+ɜ̟mo→nógumo(解),
sók+ɜ̟mo→sógumo(救), pólk+ɜ̟mo→pólgumo(剔),
cúk+ɜ̟mo→cúgumo(死), múk+ɜ̟mo→múgumo(食),
kuúlk+ɜ̟mo→kuúlgúmo(太), nuút[+변]+ɜ̟mo→núrumo(焦),
p'uút[+변]+ɜ̟mo→p'úrumo(搶)

(24)의 現象을 圓脣母音化라고 稱한 것은 語尾의 ɜ̟가 u로 되었기 때문인데 이 때의 ɜ̟→u는 脣音 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23)과는 다르다. 이 現象을 惹起시키는 要因이 무엇인지는 쉽게 말할 수 없다. 提示된 例를 통하여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動詞의 語幹母音이 모두 圓脣母音이라는 점에서 語幹의 圓脣母音이 語尾의 ɜ̟를 u로 變動시키는 要因이라고 假定할 수 있다. mák+ɜ̟mo→mágɜmo(防), tát+ɜ̟mo→tádɜmo(閉), aán+ɜ̟mo→ánɜmo(抱), tɜ́t[+변]+ɜ̟mo→tɜ́rɜmo(聽) 等에서는 ɜ̟→u의 變動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 假定은 어느 程度 妥當性을 가진다. 그러나 그 假定은 다음과 같은 例들에 의하여 成立되지 않는다. pút^h+ɜ̟mo→pút^{h}ɜmo(附), mút+ɜ̟mo→múdɜmo(埋), olh+ɜ̟mo→órɜ́mo(可), húlt^h+ɜ̟mo→húlt^{h}ɜmo(扱) 等. 이 例들은 語幹이 圓脣母音을 가지고 있지만 語尾의 ɜ̟를 u로 變動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語幹의 원순모음이 ɜ̟→u의 現象과 전혀 관계 없다고 斷定할 수 없다. (24)의 例에서 원순모음을 無視한다면 ɜ̟→u의 變動要因을 달리 發見할 수 없다. 이럴 때에 생각나는 것이 i모음역행동화 현상이다. 역행

12) 動詞 coóh-(好)도 -ɜ̟mo와 結合하면 任意的으로 coúmo 또는 coómo를 實現시킨다.

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條件이 具備되어도 同化主에 앞서는 子音이 舌頂的 子音일 때는 同化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그와 같은 사실과 平行하게 語幹의 원순모음이 ɜ̟의 원순모음화의 同化主로서 機能할 수 있어도 그 사이에 介在된 音素의 性質에 따라 ɜ̟의 원순모음화를 可能하게 할 수도 있고 不可能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24)의 例들을 관찰하면 ɜ̟의 원순모음화를 說明할 수 있는 條件을 發見할 수 있다. 즉 (24)의 例들은 語幹의 원순모음과 語尾의 ɜ̟ 사이에 軟口蓋音(k, k')과 流音만을 介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와는 달리 語幹이 원순모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ɜ̟의 원순모음화를 보이지 않는 例들은 軟口蓋音이나 流音을 介在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원순모음화와 介在 音素와의 關係를 통한 說明은 說得力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24)에서 發見되는 원순모음화는 語幹의 원순모음과 語幹末子音과의 共同影響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軟口蓋音은 그것이 가진 後舌性을 後舌圓唇母音 o나 u에 添加함으로써 ɜ̟의 同化를 促進시키는 機能을 가지며 流音은 그것이 가진 母音性으로 因하여 軟口蓋音 以外의 子音이 介在될 때보다 원순모음이 ɜ̟에 미치는 영향력을 强化시키는 機能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원순모음과 ɜ̟ 사이에 介在 子音이 없을 때 ɜ̟의 원순모음화가 義務的인 事實이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한다. nóh+ɜ̟mo→noɜ̟mo→nóomo, pú?+ɜ̟mo→puɜ̟mo→púumo 等.

그러나 以上의 說明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介在音素가 流音이라고 하면 uúl-(泣)이나 kámúl-(旱) 等의 動詞가 해당되는데 이들 動詞는 語尾 -ɜ̟mo와 結合하면 규칙(18b)에 의하여 語尾의 ɜ̟가 삭제되므로 ɜ̟의 원순모음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介在되는 流音은 t에서 交替된 것이라는 條件이 붙게 된다. 지금까지 論議된 모든 條件을 충족시키는 ɜ̟의 원순모음화 규칙은 (25)로 나타낼 수 있다.

$$(25)\quad \underset{+}{3} \longrightarrow u \;/\; \begin{bmatrix} V \\ +\text{round} \end{bmatrix} \left\{ \begin{matrix} \begin{bmatrix} C \\ +\text{back} \end{bmatrix}_{\text{Vst}} & \text{(a)} \\ \begin{bmatrix} l \\ +t \rightarrow l \end{bmatrix}_{\text{Rule DRVD}} & \text{(b)} \end{matrix} \right\} \text{—}$$

(語幹末音節母音이 원순모음이고 (a) 語幹末音이 軟口蓋音이거나 (b) t→l 규칙에 의해 도출된 l 이면 그 뒤에서 語尾 $\underset{+}{3}$는 u로 된다.)

규칙 (22)와 (25)는 (26)으로 統合된다.

(26) 圓脣母音化規則

$$\underset{+}{3} \longrightarrow u \;/\; \left\{ \begin{matrix} \begin{bmatrix} +\text{ant} \\ -\text{cor} \end{bmatrix} \text{—} \; C & & \text{(a)} \\ \begin{bmatrix} V \\ +\text{round} \end{bmatrix} \left\{ \begin{matrix} \begin{bmatrix} C \\ +\text{back} \end{bmatrix}_{\text{Vst}} \\ \begin{bmatrix} l \\ +t \rightarrow l \end{bmatrix}_{\text{Rule DRVD}} \end{matrix} \right\} \text{—} & & \begin{matrix} \text{(b)} \\ \text{(c)} \end{matrix} \end{matrix} \right\}$$

((a) 脣音과 子音(l 포함) 사이에서 $\underset{+}{3}$는 u로 되며 語幹末音節이 원순모음이고 (b) 語幹末音이 軟口蓋音이거나 (c) t→l 규칙에 의해 도출된 l일 때 그 뒤에서 語尾 $\underset{+}{3}$는 u로 된다.)

3·2·10 同音削除

同音削除란 語尾 a 앞에서 語幹末母音 3와 a가 삭제되는 것을 말한다. ká+ato→kado(行), s3́+ato→s3do(立) 等이 例가 된다. 이 중에서 두번째 例는 語幹母音 3와 語尾 a가 직접 작용한 결과가 아니다. 語幹母音이 削除되기 전에 규칙 (2a)가 적용되어 a→3의 交替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同音削除規則이 適用되어 語幹母音이 削除된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삭제되는 것이 어간의 3인지 語尾의 3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語尾 a는 語幹母音보다 音韻論的 强度가 크므로 語幹母音이 削除된다고 보는 것이다.

語尾 a 앞에서 削除되는 것으로는 語幹末母音 $\underset{+}{3}$도 있다. 그러나 語幹

末母音 ɔ나 a의 削除는 調音位置가 同一한데서 基因하는 削除인데 대하여 $\underset{+}{ɜ}$의 削除는 그와는 다른 機制(규칙 (18c))에 의한 것이므로 함께 취급될 수 없다.

同音削除는 曲用에서 發見되지 않는다. a로 끝나는 人名에 呼格語尾 a가 結合되는 경우에는 j삽입이 일어날 뿐 결코 語幹末의 a는 削除되지 않기 때문이다 : sunca(人名)+a(呼格)→suncaja! (*sunca!)

以上의 條件을 만족시키는 同音削除規則은 (27)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規則에 의하여 위의 例들이 基底形에서 音聲形까지 導出되는 過程은 (28)과 같다.

(27) 同音削除規則

$$\begin{bmatrix} \text{V} \\ +\text{back} \\ -\text{round} \end{bmatrix} \longrightarrow \phi / \text{——}]_{\text{Vst}} \begin{bmatrix} \text{V} \\ +\text{back} \\ -\text{round} \end{bmatrix}$$

(語幹末母音 a와 ɜ는 각각 語尾 a와 a에서 交替된 ɜ 앞에서 削除된다.)

(28)	/ká+ato/	/sɜ́+ato/	
	——	sɜ́ ɜto	규칙 (2a)
	k ato	s ɜto	규칙 (27)
	[kado]	[sɜdo]	

3·2·11 短母音化

韻素로서의 長音이 音韻論的 또는 非音韻論的 規制에 의하여 削除되는 것을 短母音化라 부른다. 國語의 短母音化 機制는 金完鎭(1972b)와 李秉根(1975)에서 매우 자세하게 論究되었다. 여기서는 앞의 論文에서 밝혀진 事實을 바탕으로하여 活用에서 일어나는 月城語의 短母音化現象에 대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一般的으로 中部方言의 音長은 語頭音節에서만 辨別的 機能을 가진다. 그러므로 長音은 單語의 첫음절에 한하여 音聲으로 實現되며 그것이 單語의 第二音節 以下로 가면 音聲으로 實現되지 못한다(金完鎭 1972b: 285, 李秉根 1975 : 21). 이러한 사실과는 달리 月城語에는 非語頭音節에서도 長音이 存在한다. mocilέε-(不足), ciítέε-(依支), talkέε-(說), palp^{h}íi-(被踏), mikíi-(使食) 等이 그것이다. 이들 語詞가 가지고 있는 非語頭音節의 長音은 剩餘的인 것으로 이 잉여적인 長音을 가진 母音은 어떤 경우에도 短母音化하지 않는다. (29)는 그런 사실을 알려 준다.

(29) ㄱ. ciítέε+ko→ciídέεgo, ciítέε+ato→ciídέεdo,
ciítέε+ɜ̟mo→ciídέεmo
ㄴ. talkέε+ko→talgέεgo, talkέε+ato→talgέεdo,
talkέε+ɜ̟mo→talgέεmo
ㄷ. palp^{h}íi+ko→palp^{h}íigo, palp^{h}íi+ato→palp^{h}έεdo,
palp^{h}íi+ɜ̟mo→palp^{h}íimo

따라서 短母音化 現象이 일어나는 位置는 語頭音節이 된다.

語頭音節에서의 短母音化 現象은 語幹末이 子音으로 끝날 때 가장 분명하게 認識된다. (30)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長母音을 가진 語幹으로서 語幹이 子音으로 끝나면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할 때 短母音化가 일어난다.

(30) ㄱ. taám- (盛) : taámt'ɜ́ra, taáŋk'ó, támado, támumo
ㄴ. wiís- (笑) : wiít'ɜ́ra, wiíkk'ó, wísado, wísimo
ㄷ. aán- (抱) : aánt'ɜ́ra, aáŋk'ó, ánado, ánɜmo
ㄹ. k'uúp- (炙) : k'uúpt'ɜ́ra, k'uúkk'ó, k'úbado, k'úbumo
ㅁ. kuúlm-(飢) : kuúmt'ɜ́ra, kuúŋk'ó, kúlmado, kúlmumo

그러나 語幹末音이 流音이면 短母音化는 -ato와 結合될 때만 일어나며 -ɜ̟mo와 結合될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31ㄱ, ㄴ)). 그 理由는 流音 뒤에서 語尾의 ɜ̟가 削除됨으로써 短母音化가 일어날 수 있는 環境이 除去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31ㄷ, ㄹ)의 例를 통하여 立證된다. 語幹末音 t에서 交替된 l 뒤에서는 ɜ̟ 삭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때는 語幹母音의 短母音化가 일어나는 것이다.

(31) ㄱ. uúl- (泣) : uúdɜ́ra, uú(l)gó, úrado, uúmó

ㄴ. saál- (住) : saádɜ́ra, saálgó, sárado, saálmo

ㄷ. muút-[+변] (問) : muútt'ɜ́ra, muúkk'ó, múrado, múrumo

ㄹ. kɜɜ́t-[+변] (步) : kɜɜ́tt'ɜ́ra, kɜɜ́kk'ó, kɜ́rado, kɜ́rɜmo

母音으로 끝나는 語幹도 -ato와 結合될 때는 短母音化를 보이지마는 -ɜ̟mo와 結合될 때는 그렇지 못하다. 그 역시 母音 뒤에서 ɜ̟가 削除됨으로써 短母音化가 일어날 환경이 除去되기 때문이다. 語尾 -ato와 結合될 때는 短母音化가 일어난다고 했지만 短母音化 與否는 쉽게 判別되지 않는다. (32ㄱ)에서 보듯이 그 경우에는 語尾 a에 의한 長音化가 隨伴되기 때문에 비록 短母母音化가 일어났다고 하여도 結果는 여전히 長母音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경우에 聲調가 問題 解決의 關鍵이 된다. 不幸하게도 長母音의 聲調가 H͡L(高͡低)일 때에는 問題의 解決을 期待할 수 없지마는 長母音의 聲調가 L͡H(低͡高)일 때에는 語尾 a와 결합할 때에 L͡H가 H로 됨으로써 短母音化 過程이 있었다는 것을 確認하게 되는 것이다. (30ㄱ)과 (31)에서 語幹 聲調 L͡H가 短母音化하면 H로 변하는 사실을 통하여 (32ㄷ-ㅁ)에서 語尾 a와 결합될 때 短母音化가 일어난 것이 立證된다.

(32) ㄱ. c'óo-(曬光) : c'óodɜra, c'óogo, c'áado, c'óomo

ㄴ. p'óo-(碎) : p'óodзra, p'óogo, p'áado, p'óomo

ㄷ. tεέ- (硬) : tεέdз́ra, tεέgó, tέεdo, tεέmo

ㄹ. pií- (空) : piídз́ra, piígó, píido, piímo

ㅁ. sií- (强) : siídз́ra, siígó, síido, siímo

曲用에서는 短母音化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長音을 가진 iíl(事), tзз́l(野), kaám(柿) 等은 主格語尾 i, 主題格語尾 -$\underset{+}{\text{з}}$nз 와 결합하여도 여전히 長音을 유지하는 것이다. iíri, iírзnз; tзз́ri, tзз́rзnз; kaámi, kaámunз

지금까지 다루어진 短母音化 現象은 規則 (33)으로 整理되며 이 규칙에 의하여 앞에 제시된 例들이 基底形으로부터 音聲形까지 導出되는 過程은 (34)와 같다. (34)는 規則 (33)이 規則 (18b)보다 뒤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

(33) 短母音化規則

$$\overset{H}{V} \rightarrow [-\text{long}] \,/\, \# C_0 \underline{\qquad} \left\{ \begin{array}{ll} C_0]_{Vst} \begin{bmatrix} \cdot V \\ +\text{low} \end{bmatrix} & (a) \\ C]_{Vst} \underset{+}{\begin{bmatrix} V \\ -\text{low} \\ +\text{back} \\ -\text{round} \end{bmatrix}} & (b) \end{array} \right\}$$

(一音節語幹의 動詞에서 語幹母音의 短母音化는 (a) 語尾 a와 결합할 때는 語幹末音이 무엇이거나 상관 없이 일어나고 (b) 語尾 $\underset{+}{\text{з}}$와 결합할 때는 語幹末音이 子音일 때만 일어난다.)

(34) ㄱ.

/aán+ato/	/aán+$\underset{+}{\text{з}}$mo/	/saál+ato/	/saál+$\underset{+}{\text{з}}$mo/	
——	——	——	saalmo	규칙 (18b)
an ato	——	sal ato	——	규칙 (33a)
——	an $\underset{+}{\text{з}}$mo	——	——	규칙 (33b)
[ánado]	[ánзmo]	[sárado]	[saálmo]	

ㄴ. /c'óo+ato/ /c'óo+ɜmo/ /píi+ato/ /píi+ɜmol/

/c'óo+ato/	/c'óo+ɜmo/	/píi+ato/	/píi+ɜmol/	
——	——	pii ɜto	——	규칙(2a)
——	c'oo mo	——	pii mo	규칙(18b)
c'o ato	——	pi ɜto	——	규칙(33a)
c'wa: to	——	pjɜ: to	——	규칙(6)
c'a: to	——	——	——	규칙(13)
——	——	pɛ: to	——	규칙(9)
——	——	pi: to	——	규칙(10)
[c'áado]	[c'óomo]	[píido]	[píimo]	

그런데 短母音化規則이 適用될 수 있는 環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規則의 適用을 받지 않는 例外들이 있다. pɜ̀ɜl-(得利), suúp-(易), koóp-(麗), ɜɜ̀ps-(無), maánh-(多), t'ɜɜ̀lp-(澁), kuúlk-(太), sɜɜ̀lp-(哀) 等이 그것이다. 大部分이 狀態動詞라는 사실이 注目되는데 이들 動詞는 固定的 長母音을 가진다고 하겠다. 이들 動詞의 活用은 (35)와 같다.

(35) ㄱ. pɜ̀ɜl-: pɜ̀ɜdɜra, pɜ̀ɜ(l)go, pɜ̀ɜrado, pɜ̀ɜ(l)mo

ㄴ. koóp-: koópt'ɜra, koókk'ó, koóbádo, koóbúmo

ㄷ. t'ɜɜ̀lp-: t'ɜɜ̀lt'ɜ̀ra, t'ɜɜ̀lk'ó, t'ɜɜ̀lbádo, t'ɜɜ̀lbúmo

ㄹ. kuúlk-: kuúlt'ɜ̀ra, kuúlk'ó, kuúlgádo, kuúlgúmo

3·2·12 喉音削除

喉音 h와 ?가 有聲音 사이에서 삭제되는 것을 喉音削除라 稱한다. (36ㄱ, ㄴ)의 動詞들은 語尾 -tɜ̀la나 -ko와 결합하면 語尾의 頭子音 t나 k를 有氣音으로 實現시키므로 語幹이 h로 끝난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러나, 語幹末音 h 는 語尾 -ato 나 -ɜ̟mo 와 결합하면 音聲形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母音 사이에서 h 가 삭제되었음을 말해 준다. (36ㄷ, ㄹ)의 動詞도 (36ㄱ, ㄴ)의 動詞들과 同一한 音韻現象을 나타낸다. 그것은 h 의 삭제가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 준다.

한편 (36ㅁ, ㅂ)의 動詞들은 語尾 -tɜ́la 나 -ko 와 결합하면 語尾의 頭音 t 나 k 를 硬音으로 實現시킨다. 그리고 語尾 -ato 나 -ɜ̟mo 와 결합하면 語幹末音은 音聲形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現象은 語幹末音이 ʔ 이며 ʔ 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결합하면 삭제되는 것을 말해 준다. (36ㅅ)의 動詞도 (36ㅁ, ㅂ)의 動詞와 同一한 音韻現象을 보인다. 그것은 그 動詞의 語幹末音이 lʔ 라는 것을 알려 주며 동시에 ʔ 는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에서도 삭제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

以上의 叙述에 의하면 喉音의 削除規則은 (37)로 표시된다.

(36) ㄱ. jɜttʰɜ́ra, jɜ́kkʰo, jɜ́ɜdo, jɜ́ɜmo(入)

ㄴ. nottʰɜ́ra, nókkʰo, náado, nóomo(放)

ㄷ. maántʰɜra, maáŋkʰó, maánɛ́ɛdo, maánɜ́mo(多)

ㄹ. t'aŋtʰɜ́ra, t'áŋkʰo, t'áŋado, t'áŋamo(辮)

ㅁ. putt'ɜ́ra, púkk'o, páado, púumo(腫)

ㅂ. pʰútt'ɜ́ra, pʰúkk'o, pʰáado, pʰúumo(吸煙)

ㅅ. siíĺt'ɜ́ra, siíĺk'ó, sírado, sírɜmo (載)

(37) 喉音削除規則

$$\begin{bmatrix}-\text{voc}\\+\text{low}\end{bmatrix} \longrightarrow \phi / [+\text{voiced}] ___ [+\text{voiced}]$$ [13]

(喉音 h 나 ʔ 는 有聲音 사이에서 삭제된다.)

13) 喉音을 末音으로 가지는 現代 月城語의 名詞는 없으므로 이 規則은 曲用과는 관계 없다.

3·2·13 完全順行同化

滑音化나 削除가 不可能한 環境에서 모음과 모음이 隣接할 때 뒤의 모음이 앞의 모음과 같아지는 것을 完全順行同化라 부른다. 活用의 경우, 語幹末母音으로는 i, ɛ, ɜ, u, o, a가 있으며 이들 모음과 인접할 수 있는 語尾의 頭母音으로는 a와 ɜ̟가 있다. 그런데 語幹이 모음으로 끝나면 語尾의 ɜ̟는 삭제되므로 順行同化를 일으킬 수 있는 語尾母音은 a뿐이다. 語尾 a와 결합되는 語幹末母音이 ɜ̟이면, 규칙 (18c)에 의하여 ɜ̟가 삭제되고 ɜ나 a이면 규칙 (27) (同音削除規則)에 의하여 語幹母音 ɜ나 a가 삭제되므로 完全順行同化는 不可能하며 語幹母音이 i, u, o이면 규칙 (6) (滑音化規則)에 의하여 語幹母音은 j나 w로 되므로 역시 完全順行同化는 不可能하다. 語幹母音이 ɛ이면 語尾 a와 결합할 때 滑音化나 削除가 일어날 수 없으므로 完全順行同化가 일어날 수 있는 唯一한 環境을 이룬다.

動詞 k'ɛ́-(破), p'ɛ́-(扙), mɛ́-(結) 等이 語尾 -ato와 결합될 때가 그러한 경우인데 그 결과 k'ɛ́ɛdo, p'ɛ́ɛdo, mɛ́ɛdo로 音聲實現이 된다. 短母音인 語幹母音이 語頭에서 長母音으로 實現되며 그 경우에 語尾 a는 實現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完全順行同化 過程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音韻過程은 非語頭 位置에서도 일어나지만, 補償的 長音은 語頭 位置에서만 實現되므로, 그 경우에 長音은 音聲形에 나타나지 않는다: k3ɜ́nnɛ́+ato→k3ɜ́nnɛ́do(渡), noóllɛ́+ato→noóllɛ́do(驚).

活用에서 完全順行同化는 이 밖에 語幹末音 h나 ʔ가 삭제된 뒤에도 일어난다. táh-(接), jɜ́h-(入) 等이 語尾 -ɜ̟mo와 결합하여 實現시키는 音聲形 táamo나 jɜ́ɜmo에서, 그리고 nóh-(放), púʔ-(腫), coóʔ-(拾) 等이

語尾-ɜ̟mo와 결합하여 實現시키는 音聲形 nóomo, púumo, cóomo에서 完全順行同化가 認定된다. 이때의 完全順行同化는 모음 사이에서 h나 ʔ가 삭제된 뒤에 일어난다고 하겠는데 그 경우에 同音削除規則이나 語尾 ɜ̟의 削除規則이 適用될 수 있는 環境이 形成되지마는 그들 規則은 適用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h으로 끝나는 二音節 以上의 語幹을 가진 動詞에는 pak'úh-(換) taŋkúh-(浸) 等과 k'aámáh-(黑), kɜ́lɜh-(當) 等이 있다. 그들 動詞에서도 完全順行同化가 期待되며 또 실제로 (38ㄱ, 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현상을 그 자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된 다른 현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h으로 끝나는 二音節 以上의 語幹을 가진 動詞는 ɜ̟로 시작되는 語尾와 결합하여도 完全順行同化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38) ㄱ. pak'úh+ɜ̟mo→pak'úumo, pak'úh+ato→pak'áado,
pak'úh+ko→pak'úkkʰo, pak'úh+tɜ́la→pak'uttʰɜ́ra

ㄴ. taŋkúh+ɜ̟mo→taŋgúumo, taŋkúh+ato→taŋgáado,
taŋkúh+ko→taŋgúkkʰo, taŋkúh+tɜ́la→taŋguttʰɜ́ra

ㄷ. k'aámáh+ɜ̟mo→k'aámámo, k'aámáh+ato→k'aáméɛdo,
k'aámáh+ko→k'aámákkʰo, k'aámáh+tɜ́la→k'aámattʰɜ́ra

ㄹ. kɜ́lɜh+ɜ̟mo→kɜ́rɜmo, kɜ́lɜh+ato→kɜréɛdo,
kɜ́lɜh+ko→kɜ́rɜkkʰo, kɜ́lɜh+tɜ́la→kɜ́rɜttʰɜra

(38)의 活用에서 (38ㄱ, ㄴ)의 動詞는 語幹母音이 u이므로 語尾 -ato와 결합하여도 完全順行可化는 不可能하다. 그 경우에는 滑音化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들 動詞에서 完全順行同化가 可能한 경우는 語尾 ɜ̟와 결합할 때이다. 그러나 그 때에도 문제가 있다. 音韻過程에 의하여 生成된 長音

은 非語頭 位置에서는 發生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인데 (38ㄱ,ㄴ)은 非語頭인데도 長音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 動詞語幹이 固定的 LH-聲調를 가지고 있지마는 母音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3ㅅ)의 k'osí-(芳)나 t'así-(溫)에 加해진 制約條件 즉, 固定的 LH-聲調를 가지고 母音으로 끝나는 動詞는 語尾 a와 結合하면 語幹末音節이 잉여적인 長音을 가질 수 있다는 制約條件을 適用할 수 없다. 그러므로 語尾 -ato와 결합하여 長音을 보이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가령 制約條件을 완화하여 語幹末音이 h인 것도 모음으로 끝나는 語幹에 準하는 것으로 認定한다고 하여도(母音 사이에서 h는 削除되므로) 語尾 -ɜ̟mo와 結合하는 語幹은 k'osí+ɜ̟mo→k'osímo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長音을 가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38ㄱ,ㄴ)의 動詞는 그 때에도 長音을 보인다. 非語頭에서 나타나는 長音은 그것이 그 動詞의 基底形이 가지고 있는 長音일 때만 可能하다. 우리는 (29)에서 그런 詞語들과 그것들의 音韻論的 特性을 본 바 있다. (38ㄱ,ㄴ)의 動詞들이 본래 語幹末音節에 잉여적인 長音을 가졌던 것으로부터 再構造化된 것임을 想起할 때 (2·12·5) 그들 動詞가 語尾 -ato와 -ɜ̟mo와의 결합에서 期待할 수 없는 長音을 實現시키는 原因이 무엇인지 理解할 만하다.

그것은 語幹의 再構造化가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결합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졌고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語幹의 再構造化가 결합되는 語尾頭의 環境에 따라 달리 이루어져서 pak'úh-와 taŋkúh-는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결합하고 pak'úu-와 taŋkúu-는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결합한다는 것이다. (38ㄱ,ㄴ)의 動詞가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결합할 때 期待할 수 없는 長音을 實現시키는 理由가 이로써 說明될 수 있다고 하겠거니와 그러한 사실은 (38ㄱ,ㄴ)의 動詞가 語尾 ɜ̟와 결합하여 나타내는

音聲形이 完全順行同化에 의한 것이 아님을 말해 주는 것이다.

(38ㄷ, ㄹ)의 動詞도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결합할 때 h 가 삭제되면 完全順行同化가 可能하다. 非語頭에서는 完全順行同化가 일어나도 長音이 實現되지 않으므로 語尾 $\underset{+}{3}$ 와 결합된 경우는 完全順行同化 過程을 거쳤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語尾 -ato 와의 결합에서 長音 ɛ를 實現시키는 것을 보면 完全順行同化가 아닌 다른 音韻過程이 그 사이에 있었다고 하겠다. 이들 動詞에 대해서는 3·2·21(變則活用)에서 다시 論하게 될 것이며 語尾 $\underset{+}{3}$ 와 결합할 때에 完全順行同化가 일어나지 않는 理由도 究明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完全順行同化 現象에 대하여 論議해 왔다. 論議된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完全順行同化는 두 모음이 隣接하거나 h 나 ʔ가 削除된 뒤에 일어난다. 前者는 語幹末音이 ɛ인 動詞가 語尾 a 와 결합할 때인데 語幹이 一音節이면 長音이 實現되고 二音節 以上이면 長音이 實現되지 않는다. 後者는 一音節語幹에서만 可能한데 語幹母音이 무엇이든 상관 없이 語尾 $\underset{+}{3}$ 만이 語幹母音에 完全順行同化한다. 語幹이 一音節이므로 그 때는 모두 長音이 實現된다. 그러한 現象을 支配하는 完全順行同化規則은 (39), (40)과 같으며 이 規則에 의하여 앞의 例들이 基底形에서 音聲形까지 導出되는 過程은 (41)과 같다.

(39) 完全順行同化規則 (1)

$$\begin{bmatrix} 3 \\ +_{\text{Rule(2)DRVD}} \end{bmatrix} \longrightarrow \begin{bmatrix} \text{V} \\ -\text{high} \\ -\text{back} \end{bmatrix}_i \Big/ \begin{bmatrix} \text{V} \\ -\text{high} \\ -\text{back} \end{bmatrix}_i]_{\text{Vst}} \text{ ——}$$

(규칙 (2)에 의하여 a 로부터 도출된 3 는 動詞의 語幹末母音ɛ에 完全順行同化한다.)

(40) 完全順行同化規則 (2)

$$\underset{+}{3} \rightarrow \begin{bmatrix} \text{V} \\ +\{\text{h}, ʔ\} \rightarrow \phi_{\text{RuleDRVD}} \end{bmatrix}_i \Big/ \begin{bmatrix} \text{V} \\ +\{\text{h}, ʔ\} \rightarrow \phi_{\text{RuleDRVD}} \end{bmatrix}_i]_{\text{Vst}} \text{ ——}$$

(語尾의 頭音 ɜ̟는 h와 ʔ삭제규칙에 의하여 도출된 動詞의 語幹末母音에 完全順行同化한다.)

(41) ㄱ.	/k'ɛ́+ato/	/kɜɜ́nnɛ́+ato/	/k'ɛ́+ɜ̟mo/	/kɜɜ́nnɛ́+ɜ̟mo/	
	k'ɛ ɜto	——	——	——	규칙(2a)
	——	——	k'ɛ mo	kɜɜnnɛ mo	규칙(18b)
	k'ɛ ɛto	kɜɜnnɛ ɛto	——	——	규칙(39)
	[k'ɛ́ɛdo]	[kɜɜ́nnɛdo]	[k'ɛ́mo]	[kɜɜ́nnɛ́mo]	
	(破)	(渡)	(破)	(渡)	
ㄴ.	/táh+ato/	/jɜ́h+ato/	/táh+ɜ̟mo/	/jɜ́h+ɜ̟mo/	
	——	jɜh ɜto	——	——	규칙(2a)
	ta ato	jɜ ɜto	ta ɜ̟mo	jɜ ɜ̟mo	규칙(37)
	——	——	taamo	jɜɜmo	규칙(40)
	[táado]	[jɜ́ɜdo]	[táamo]	[jɜ́ɜmo]	
	(接)	(入)	(接)	(入)	
ㄷ.	/nóh+ato/	/púʔ+ato/	/nóh+ɜ̟mo/	/púʔ+ɜ̟mo/	
	no ato	pu ato	no ɜ̟mo	pu ɜ̟mo	규칙(37)
	——	——	no omo	pu umo	규칙(40)
	nwa:to	pwa:to	——	——	규칙(6)
	na:to	pa:to	——	——	규칙(13a)
	[náado]	[páado]	[nóomo]	[púumo]	
	(放)	(腫)	(放)	(腫)	
ㄹ.	/táh+ɜ̟mo/	/jɜ́h+ɜ̟mo/	/nóh+ɜ̟mo/	/púʔ+ɜ̟mo/	
	ta ɜ̟mo	jɜ ɜ̟mo	no ɜ̟mo	pu ɜ̟mo	규칙(37)
	ta mo	jɜ mo	no mo	pu mo	규칙(18b)
	*[támo]	*[jɜmo]	*[nómo]	*[púmo]	

自然發話에서 (41ㄹ)과 같은 音聲形이 發見되지 않는 것을 보면 規則 (37)이 適用된 다음에는 規則 (18b)가 適用되지 못하고 바로 規則 (40)이 適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曲用에 있어서의 完全順行同化는 ŋ으로 끝나는 名詞와 處格語尾 -ɛ가 結合될 때에 일어난다. páŋ+ɛ→pã́ã(房), matáŋ+ɛ→matã́ã(場), citóŋ+ɛ→citṍõ(柱), kujɜ́ŋ+ɛ→kujɜ̃́ɜ̃(穴) 等이 例가 되는데 이들 名詞는 主格語尾나 對格 및 向格語尾 等과 結合할 때는 결코 語尾의 完全順行同化를 보이지 않는다. páŋ+i→pã́ĩ (*pã́ã), páŋ+ɜ̟lɜ→pã́ɜ̃rɜ, (*pã́ãrɜ), páŋ+ɜ̟lo→pã́ɜ̃ro(*pã́ãro). 處格語尾 -ɛ의 完全順行同化 規則은 後述될 鼻母音化와 ŋ 削除 뒤에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42)로 나타낼 수 있다.

(42) 完全順行同化規則 (3)

$$\begin{bmatrix} \varepsilon \\ +\text{locative} \end{bmatrix} \longrightarrow \begin{bmatrix} \text{V} \\ +\text{nas} \end{bmatrix}_i \Big/ \begin{bmatrix} \text{V} \\ +\text{nas} \end{bmatrix}_i \Big]_N \text{———}$$

(處格語尾 ɛ는 先行하는 名詞의 語幹末 鼻母音에 完全順行同化한다.)

3·2·14 鼻母音化와 n, ŋ 削除

/Vni/와 /VŋV/의 環境에서 鼻子音에 先行하는 母音이 鼻子音의 영향을 받아 鼻音으로 되는 것을 鼻母音化라 부르고 鼻母音化가 이루어진 다음에 n이나 ŋ이 削除되는 것을 n 削除 또는 ŋ 削除라 부른다. 이러한 音韻過程에 대하여 論하려는 것이 여기서 다루어질 내용이다.

動詞 ká-(行), mák-(防), ɜɜ́l-(凍) 等은 語尾 -ato와 결합하면 각각 音聲形 kádó, mágado, ɜ́rado를 나타낸다. 이들 動詞는 理由表示語尾와 결합하면 각각 音聲形 kã́ĩk'anɛ, mágɜ̃ĩk'anɛ, ɜɜ̃́ĩk'anɛ를 實現시킨다. 이 音聲形으로부터 우리는 月城語에서 理由를 表示하는 語尾의 異形態 -ĩk'anɛ ~-ɜ̟̃ĩk'anɛ를 얻게 된다. 異形態 -ĩk'anɛ는 母音이나 流音으로

끝나는 語幹 뒤에서 發生하고 -ʒ̟ĩk'anɛ는 語幹末音이 그 이외의 것일 때 그 뒤에서 發生하므로 그것들의 基底形을 -ʒ̟ĩk'anɛ로 잡을 수 있다. 이 語尾가 결합되어 위의 例들이 基底形으로부터 音聲形까지 導出되는 過程은 (43)과 같다.

(43) /ká+ʒ̟ĩk'anɛ/ /mák+ʒ̟ĩk'anɛ/ /ʒɜ́l+ʒ̟ĩk'anɛ/
ka ĩk'anɛ —— ʒɜl ik'anɛ 규칙(18b)
[kấĩk'anɛ] [mágʒ̟ĩk'anɜ] *[ʒɜ́rik'anɛ]

(43)은 語幹末音이 l일 때에 옳지 못한 音聲形을 導出시키고 있다. 母音이나 l 뒤에서 ʒ̟가 削除되지만 i 앞에서 l은 削除되지 않기 때문이다. (43)의 基底形이 모두 올바른 音聲形으로 導出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形態素 -ʒ̟ĩk'anɛ와 結合할 때, 語幹末의 l이 먼저 削除되도록 形態論的 制約을 加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ʒɜ́l+ʒ̟ĩk'anɛ→ʒɜϕ+ʒ̟ĩk'anɛ가 되고 여기에 규칙 (18b)가 適用됨으로써 ʒɜ̃́ĩk'anɛ가 導出된다.

그 결과 모두 올바른 音聲形이 導出되기 때문에 그러한 說明은 一見하여 妥當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說明은 話者의 言語能力을 올바로 說明하는 것이 아니라 音聲形 ʒɜ̃́ĩk'anɛ만을 導出시키기 위한 人爲的인 造作에 지나지 않는다. 그 理由는 形態論的 制約을 加함으로써 母音이나 l 뒤에서 語尾의 ʒ̟가 삭제된다는 國語의 一般性을 違背하였기 때문이고 基底音素로는 存在할 수 없는 鼻母音을 基底에 表示하였기 때문이다.

語尾 -ʒ̟ĩk'anɛ에서 鼻母音은 어떤 方法에 의해서도 그 자체로부터 導出해 낼 수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說明이 전적으로 修正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言語資料만을 說明할 수 있는 解決案이 아니라 話者의 言語能力을 올바로 說明할 수 있는 解決案이 摸索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解決案은 月城語 자체의 文法 속에서 또는 月城語를 포함하는 國語의 全體文法 속에서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는 形態素構造 條件 중의 하나로 語尾의 頭音 ɜ̟ 는 그 뒤에 子音을 前提로 하는 경우에 限하여 存立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金完鎭 1972b: 283): -ɜ̟mo(-으면), -ɜ̟namana(-으나마나), -ɜ̟lk'ɛ(-을께), -ɜ̟so(-으소), -ɜ̟si-(-으시-), -ɜ̟lɜ(-을(對格)), -ɜ̟lo(-으로), -ɜ̟nɜ~-ɜ̟no(-은) 等. 여기에 基底鼻母音이 存在할 수 없다는 條件을 追加하면 理由表示語尾의 基底形은 -ɜ̟Cik'anɛ의 形態素構造를 가지게 된다.

問題는 C와 代替될 音素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音素 C는 ɜ̟와 i 사이에서 삭제되는 것이어야 하며 ɜ̟가 삭제되면 語幹末音 l을 삭제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音素 C는 자신이 삭제되기 전에 先行母音을 鼻母音化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條件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音素는 n밖에 없다. 語幹末音 l을 삭제시킬 수 있는 音素로는 n 以外에 모든 子音이 있다(l 삭제에 대하여는 **3·2·20** 참조). 그리고 先行母音을 鼻母音化할 수 있는 것에는 n 외에 ŋ이 있다. 그러나 이들 音素는 위의 세 가지 條件을 同時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對象에서 除外된다.

n이 ɜ̟와 i 사이에서 삭제되는 증거는 충분하다. 月城語는 母音과 i 사이에서 n을 義務的으로 삭제시키기 때문이다. acumúni→acumṹĩ(叔母), ɜ́múni→ɜ́mṹĩ(母), kaméni→kamẽ́ĩ(叺) 等은 形態素內部에서 n이 削除되는 例이며 p'ún(只)+i(主格, 繫辭)→p'ṹĩ, sán(山)+i(主格, 繫辭)→sã́ĩ, sámcʰon(三寸)+i(主格, 繫辭)→sámcʰõĩ 等은 形態素境界에서 n이 削除되는 例이다. 이와는 달리 kɜnɜ́l(陰), nákɜnɛ(旅客), ónɜl(今日), mánɜl(蒜), nupú(妹), ni(汝), nípi(蠶) 等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n이 削除되는 일이 없는데 그것은 n 뒤의 母音이 i가 아니거나 n 뒤에 i가 있어

도 n 앞에 母音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n이 母音과 i 사이에 있다고 하여도 i 앞에 單語境界(word boundary)가 있으면 n은 削除되지 않는다 : sán(山)♯íl̟ɜm(名)→saníɾɜm (*sã̃íɾɜm), coóh(好)+ɜ̟n(冠形形語尾)♯ijú(理由)→coónijú (*coṍĩjú)

따라서 理由表示語尾는 -ɜ̟nik'anɛ가 되어야 한다. n이 삭제된 뒤의 音聲形에 鼻母音이 나타나는 것은 n이 삭제되기 전에 鼻母音化 過程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以上에서 論議된 n에 의한 鼻母音化와 n削除現象은 규칙 (44)와 (45)에 의한다.

(44) $$V \rightarrow [+nas] / \underline{\quad} \begin{bmatrix} +ant \\ +cor \\ +nas \end{bmatrix} i$$

(母音과 i 사이에 n이 있으면 n 앞의 母音은 鼻母音으로 된다.)

(45) $$\begin{bmatrix} +ant \\ +cor \\ +nas \end{bmatrix} \rightarrow \phi / \begin{bmatrix} V \\ +nas \end{bmatrix} \underline{\quad}$$

(n은 鼻母音 뒤에서 削除된다.)

그런데 理由表示語尾 -ɜ̟nik'anɛ의 경우에 n은 形態素 자체의 환경에 의하여 削除가 가능하다. 만약 n의 削除가 먼저 일어나면 語幹末音 l의 削除가 不可能하다. 실제 音聲形은 l의 削除를 보이므로 규칙 (44)와 (45)는 l削除規則보다 뒤에 適用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n에 의한 鼻母音化와 n削除 過程을 보이면 (46)과 같다.

(46) ㄱ. /ká+ɜ̟nik'anɛ/ /mák+ɜ̟nik'anɛ/ /ɜɜ́l+ɜ̟nik'anɛ/

ka nik'anɛ	———	ɜɜl nik'anɛ	규칙(18b)
———	———	ɜɜ nik'anɛ	l 삭제
kã nik'anɛ	makɜ̟̃nik'anɛ	ɜɜ̃nik'anɛ	규칙(44)

kã ik'anɛ makʒ̃ik'anɛ ʒʒ̃ik'anɛ 규칙(45)

[kã́ ĩk'anɛ] [mágʒ̃ik'anɛ] [ʒʒ̃́ĩk'anɛ]

ㄴ. /ʒ́múni/ /sán+i/

ʒmũni sãn i 규칙(44)

ʒmũ i sã i 규칙(45)

[ʒ́mṹĩ] [sã́ĩ]

音聲形에서 n 뒤의 母音 i가 鼻音으로 된 것은 鼻母音化에 의한 n 앞의 鼻母音에 同化되는 規則에 의한 것이다. 月城語에는, n에 의한 鼻母音化 現象 以外에, ŋ에 의한 鼻母音化現象도 있다. 이 現象도 形態素內部와 形態素境界에서 다 일어난다. cipʰéŋi→cipʰẽ́ĩ(지팡이), pamsíŋi→pamsĩ́ĩ(밤송이), úŋtiŋi→úŋdĩĩ(웅덩이), pʰéŋteŋi→pʰéŋdẽĩ(팽이), moŋáli→mõã́ri (봉오리), cuŋú→cũṹ(棍) 等은 前者의 例이고 páŋ(房)+i(主格, 繫辭)→pã́ĩ, sáŋ(床)+i(主格, 繫辭)→sã́ĩ, páŋ(房)+ɛ(處格)→pã́ã, matáŋ(場)+ɛ(處格)→matã́ã, sáŋ(床)+ʒnʒn(主題格)→sã́ʒ̃nʒn 等은 後者의 例이다. poóŋsa(봉사), páŋku(바위), tʒ́ŋkɛ(등겨), matáŋ(마당), cipóŋ(지붕) 等의 例를 고려하면 ŋ의 削除는 母音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하겠는데 kaŋ(江) # ílʒm(名)→káŋírʒm(*kã́ĩ́rʒm), páŋ(房) # án(內)→paŋán(*pã́ã́n) 等은 ŋ이 母音 사이에 있다고 하여도 ŋ 뒤에 單語境界가 있으면 鼻母音化나 ŋ의 削除가 不可能함을 말해 준다. ŋ이 削除된 뒤에 鼻母音이 實現되는 것을 보면 ŋ이 削除되기 전에 鼻母音化 過程이 있고 ŋ은 鼻母音과 母音 사이에서 削除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ŋ에 의한 鼻母音化와 ŋ의 削除는 규칙 (47)과 (48)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들 규칙에 의하여 위의 例들이 基底形에서 音聲形까지 導出되는 過程은 (49)와 같다.

(47) $V \rightarrow [+nas] / \underline{\quad} \begin{bmatrix} -ant \\ -cor \\ +nas \end{bmatrix} V$

(ŋ이 母音 사이에 있으면 ŋ 앞의 母音은 鼻母音化한다.)

(48) $\begin{bmatrix} -ant \\ -cor \\ +nas \end{bmatrix} \rightarrow \phi / \begin{bmatrix} V \\ +nas \end{bmatrix} \underline{\quad}$

(ŋ은 鼻母音 뒤에서 削除된다.)

(49) /cipʰέŋi/ /moŋáli/ /páŋ+i/ /matáŋ+ε/

cipʰε̃ŋi	mõŋali	pãŋ i	matãŋ ε	규칙(47)
cipʰε̃i	mõali	pã i	matã ε	규칙(48)
——	——	——	matã a	규칙(42)
[cipʰε̃́ĩ]	[mṍari]	[pã́ĩ]	[madã́ã]	

규칙(44)와 규칙(47), 규칙(45)와 규칙(48)은 音韻過程이 類似하므로 각각 규칙(50)과 규칙(51)로 統合된다.

(50) 鼻母音化規則

$V \rightarrow [+nas] / \underline{\quad} \begin{bmatrix} \alpha\ ant \\ \alpha\ cor \\ +nas \end{bmatrix} \begin{bmatrix} V \\ \left\langle \begin{matrix} +high \\ -back \end{matrix} \right\rangle \end{bmatrix}$ ⟨(a)⟩, (b)

조건 : ⟨ ⟩는 $\alpha = +$일 때

(⟨(a)⟩ n이 母音과 i 사이에 있거나 (b) ŋ이 母音 사이에 있으면 n과 ŋ 앞의 母音은 鼻母音化한다.)

(51) n, ŋ 削除規則

$\begin{bmatrix} \alpha\ ant \\ \alpha\ cor \\ +nas \end{bmatrix} \rightarrow \phi / \begin{bmatrix} V \\ +nas \end{bmatrix} \underline{\quad}$

(n과 ŋ은 鼻母音 뒤에서 削除된다.)

3·2·15 i母音逆行同化

被動語尾나 使動語尾 i에 의한 逆行同化가 通時的 事實임이 分明해졌으

므로(**2·9** 참조) 共時的인 i母音逆行同化는 主格語尾 i나 繫辭 i-가 結合될 때만 可能하다. 現代 月城語에서 이들 同化主에 의한 逆行同化는 활발하지 못하다. 그것은 形態素內部에서의 i母音逆行同化가 매우 强한 勢力을 가졌던 점과 비교하면 퍽 對照的이다. 個別 項目을 통한 調査에서는 이 現象을 거의 發見할 수 없었다. 그러나 自然發話 속에서 다음과 같은 例들이 發見되었다 : jɜŋ(令)+ilako(繫辭)→jɛ̃́i̇́rak'o, pɜp(法)+ila(繫辭)→pébí-ra; pʰalt'úk(팔뚝)+i(主格)→pʰalt'ígi, k'ɛsokúm(깨소금)+i(主格)→k'ɛsogími; jóŋ(龍)+i(主格)→jɛ̃́ĩ́, k'óŋ(雉)+i→k'wɛ̃́ĩ, ípok(衣服)+i→íbɛgi, pok(福)+i→pɛ́gí; mójaŋ(樣)+i→mójɛ̃ĩ, kaŋ(江)+ita→kɛ̃́ĩ́da 等. 이들 단편적인 例를 가지고 共時的으로 i母音逆行同化 現象을 規則化하기는 어렵다.

3·2·16 t口蓋音化

우리는 **2·8** (口蓋音化)에서 形態素內部의 t系, k系 및 h口蓋音化는 通時的 事實이므로 共時的 音韻硏究의 對象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t系口蓋音化만이 아직도 形態素境界에 남아 있다. 그것은 月城語에서도 同一하다. 일반적으로 被動이나 使動語尾 i에 의한 t系口蓋音化(例컨대, pútʰ(附)+i(使動語尾)→púcʰi-, tát(閉)+hi(被動語尾)→tatcʰíi-等)를 共時音韻論의 記述對象으로 다루고 있는데,[14] **2·9**(i母音逆行同化)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被動詞와 使動詞의 派生은 通時的 事實이므로, 被動이나 使動語尾 i에 의한 t系口蓋音化는 共時的 音韻記述의 對象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月城語를 포함하는 現代國語에서 形態素境界를 끼고 일어나는 t系口蓋音化는 오직 名詞末의 t, tʰ가 主格語尾 i 또는 繫辭

14) 金榮起(1975 : 197) 및 金手坤(1976 : ch. V)를 참조할 것.

i와 結合할 때에 限하여 일어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現象을 支配하는 口蓋音化規則은 (52)로 표시되며 그 例는 (53)과 같다.

(52) t 口蓋音化規則

$$\begin{bmatrix}+\text{obst}\\+\text{cor}\end{bmatrix}\longrightarrow\begin{bmatrix}-\text{ant}\\+\text{strid}\\+\text{high}\end{bmatrix}\ /\!\!\text{——}]_N\ \begin{bmatrix}\text{V}\\+\text{high}\\-\text{back}\end{bmatrix}$$ [15)]

(名詞末音 t, (t',)tʰ는 主格語尾 i나 繫辭 i 앞에서 c, (c',)cʰ으로 된다.)

(53) pátʰ(田)+i(主格, 繫辭)→pácʰi, k'ótʰ(花)+i→k'ócʰi,

íput(隣)+i→íbuci, pít(債)+i→píci

cf. pátʰ+ɛ(處格)→pátʰɛ, k'ótʰ+ɛ→k'ótʰɛ,

íput+ɛ→íbudɛ, pít+ɛ→pídɛ

3·2·17 子音中和

單語境界나 子音 앞에서 일어나는 障碍音들의 未破現象과 有氣音化 現象 그리고 硬音化現象을 포함하여 子音中和라고 부른다(李秉根 1975, 鄭國 1980).

障碍音들의 未破現象은 語幹末의 {p', pʰ}와 {t', tʰ, s, c', cʰ}, 그리고 {k', kʰ}가 單語境界나 子音 앞에서 각각 p, t, k로 되는 것을 말한다: ápʰ→áp, ápʰ+to→ápt'o. cf. ápʰ(前)+ɛ→ápʰɛ; k'ɜtʰ→k'ɜt, k'ɜtʰ+to→k'ɜtt'o. cf. k'ɜtʰ(端)+ɛ→k'ɜtʰɛ; os→ot, os+to→ótt'ó. cf. os(衣)+ɛ→ósɛ; c'ócʰ-→c'ót-, c'ócʰ+ca→c'ótc'a. cf. c'ócʰ(追)+ato→c'ócʰado 等. 이들 未破現象을 支配하는 規則은 (54)와 같다.

15) 語幹末에 t'를 가진 名詞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이병건(1977 : 12)에서 指摘된 바와 같이 '우연한 빈틈(accidental gap)'이므로 被同化主에서 굳이 t'를 除去하지 않는다.

(54) 末破規則

$$\begin{bmatrix} +\text{obst} \\ \langle +\text{cor} \rangle \end{bmatrix} \longrightarrow \begin{bmatrix} -\text{cont} \\ -\text{strid} \\ -\text{asp} \\ -\text{glot} \\ \langle +\text{ant} \rangle \end{bmatrix} / \text{——} \begin{Bmatrix} \# \\ \text{C} \end{Bmatrix}$$

(單語境界나 子音 앞에서 p', p^h는 p로. t', t^h, s, c', c^h는 t로, k', k^h는 k로 된다.)

形態素境界에서의 有氣音化 現象은 語幹末音 h가 語尾頭音 t, c, k와 結合하여 각각 t^h, c^h, k^h로 되는 現象을 말한다. nóh+ko→nók^{h}o(放), nóh+tɜ́la→not^{h}ɜ́ra, nóh+ci→nóc^{h}i 等이 그 例라고 하겠거니와 cap+hi→cέp^{h}i-(使執), mút+hi→muc^{h}íi-(被埋) 等과 같이 共時的인 有氣音化로 취급되는 被動 또는 使動語尾 hi에 의한 有氣音化 現象은, 被動詞나 使動詞의 派生이 通時的인 것이므로, 共時的 記述의 對象이 될 수 없다.

中部方言의 경우, 曲用에서도 이 現象이 共時的으로 일어난다. 밥(食)+하고→밥파고, 떡(餅)+하고→떡카고, 밥(食)#한다→밥판다. 그러나 이미 指摘된 바와 같이(崔明玉 1974 : 89—90, 1980a:209) 月城語를 포함하는 東南方言(西南方言도 포함)에서는 曲用에서 有氣音化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 pap(食)+háko→pábágo, t'ɜk(餅)+háko→t'ɜ́gágo, pap(食)#hánta→pábánda, sot^h(鼎)+háko→sodágo (cf. sot^h+ε→sót^{h}ε). os(衣)+háko→ódágo, pus(筆)+háko→púdágo (cf. os+i→ósí, pus+i→púsí) 等 이들 例가 指示하는 바에 의하면 名詞가 接續語尾 háko나 動詞 ha-와 結合하면 먼저 규칙 (54)에 의하여 名詞末音이 p, t, k 중 어느 하나로 되고 다음에 h가 削除되는 某種의 音韻過程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某種의 音韻過程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分明하지 않다.[16)]

---

16) 動詞 派生의 경우에도 같은 現象이 發見된다. 派生語尾 ha-와 結合되는 形態가 二音節이면 有氣音化가 일어나지 않았다. 예컨대, nɜknɜk+ha->nɜŋnɜ́kha- 또는 nɜŋnɜ́ká-, k'εk'ɜt+ha->k'εk'ɜ́thá- 또는 k'εk'ɜ́tá-, t'okt'ok+ha->t'okt'ókhá- 또는 t'okt'óká- 等. 그러나 結合되는 形態가 一音節이면 有氣音化

月城語가 가지고 있는 共時的 有氣音化 現象을 支配하는 規則은 (55)와 같다.

(55) 有氣音化規則

$$h]_{Vst}\begin{bmatrix}+\text{obst}\\-\text{cont}\end{bmatrix}$$

$$1 \quad 2 \quad \Longrightarrow \begin{bmatrix}1\\ \phi\end{bmatrix}\begin{bmatrix}2\\+\text{asp}\end{bmatrix}$$

(動詞의 語幹末音 h와 語尾의 頭音 t, c, k는 統合되어 t^h, c^h, k^h으로 된다.)

形態素境界에서의 硬音化 現象은 活用과 曲用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活用에서 이 現象은 語幹末音이 純粹子音이고 結合되는 語尾의 頭音이 閉鎖音일 때에 일어난다. 語幹末音이 純粹子音이어야 하는 理由는 pó+ko→pógo(視), mil+ko→mi(l)go(推) 等에서 보는 바와 같이 語幹이 母音이나 l로 끝나면 硬音化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며 nóh+ko→nók^{h}o(放) 等 h로 끝나면 有氣音化가 일어나고 pú?+ko→púkk'o(腫) 等 喉頭閉鎖音 ?로 끝나면 일단 非喉頭閉鎖音化 過程을 거친 뒤에 硬音化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現象을 支配하는 규칙은 (56)으로 나타낼 수 있다.

(56) $\begin{bmatrix}+\text{obst}\\-\text{asp}\end{bmatrix} \longrightarrow [+\text{glot}] \,/ \begin{bmatrix}-\text{voc}\\+\text{cons}\end{bmatrix}]_{Vst}$ ——

(動詞에서 語幹末音이 純粹子音이면 語尾의 頭音 (p), t, c, k는 각각 (p'), t', c', k'로 된다.)

wiı́s+tə̀la→wiı́tt'ə̀ra(笑), pút^h+tə̀la→putt'ə̀ra(附), c'óc^h+tə̀la→c'ott'ə̀ra(追), pú?+tə̀la→put'ə̀ra(腫) 等의 例로 미루어 볼 때, 규칙 (56)은 규칙 (54)와 後述될 ?→t 規則 다음에 適用된다고 하겠다. 이 現象이 基底形으로부터 導出되는 過程은 (57)과 같다.

는 語詞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했다. c^{h}ak+ha>c^{h}ák^{h}á-는 前者의 例이고 k'op+ha->k'ophá-는 後者의 例이다.

(57) ㄱ.	/aán+tɜ́la/	/wiís+tɜ́la/	/tɜ́p^h+tɜ́la/	
	——	wiit tɜla	tɜp tɜla	규칙 (54)
	aan t'ɜla	wiit t'ɜla	tɜp t'ɜla	규칙 (56)
	[aánt'ɜ́ra]	[wiítt'ɜ́ra]	[tɜpt'ɜ́ra]	
	(抱)	(笑)	(覆)	
ㄴ.	/c'óc^h+tɜ́la/	/k'ák'+tɜ́la/	/púʔ+tɜ́la/	
	c'ot tɜla	k'ak tɜla	——	규칙 (54)
	——	——	put tɜla	ʔ→t
	c'ott'ɜla	k'akt'ɜla	put t'ɜla	규칙 (56)
	[c'ott'ɜ́ra]	[k'akt'ɜ́ra]	[putt'ɜ́ra]	
	(追)	(削)	(腫)	

活用에서와는 달리, 曲用에서 이 現象은 名詞의 末音이 鼻音이면 語尾의 頭子音이 閉鎖音이라도 硬音化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대신 名詞의 末音이 l 이면 語尾의 頭子音 t 만이 硬音化한다.[17] (58)은 曲用에서의 硬音化 現象이 實現되는 例이며 그 現象을 支配하는 규칙은 (59), (60)과 같다.

(58) ㄱ. pap+to→papt'o(食), kúk+pɜ́t^{h}ɜŋ→kukp'ɜ́t^{h}ɜŋ(湯+부터)

ㄴ. sán+to→sándo(山) (*sánt'o), sán+pɜ́t^{h}ɜŋ→sambɜ́t^{h}ɜŋ (山+부터) (*samp'ɜ́t^{h}ɜŋ)

ㄷ. kaŋ+to→kaŋdo(江) (*kaŋt'o), kaŋ+pɜ́t^{h}ɜŋ→káŋbɜ́t^{h}ɜŋ (*káŋp'ɜ́t^{h}ɜŋ)

ㄹ. sónnim+to→sónnimdo(客) (*sónnimt'o), sónnim+pɜ́t^{h}ɜŋ→sónnimbɜt^{h}ɜŋ (*sónninp'ɜt^{h}ɜŋ)

---

17) 이 現象은 東南方言의 東北部地域語에서 흔히 發見된다. 慶北의 寧海地域語의 경우는 崔明玉(1980a : 208—209)를 참조할 것.

ㅁ. pal＋to→palt'o(足), paál＋to→paált'o(簾), sasíl＋tɛlo→sasílt'ɛro(事實＋대로) cf. pal＋pɜ́tʰɜŋ→pálbɜ́tʰɜŋ(足) (*pálp'ɜ́tʰɜŋ)

(59) $\begin{bmatrix} +\text{obst} \\ -\text{asp} \end{bmatrix} \longrightarrow [+\text{glot}] \, / \begin{bmatrix} -\text{voc} \\ +\text{cons} \\ -\text{nas} \end{bmatrix}_N$ ——

(名詞에서 語幹末音이 鼻音을 除外한 純粹子音이면 語尾의 頭音 p, t, (c,) k 는 각각 p', t', (c',) k'로 된다.)

(60) $\begin{bmatrix} +\text{obst} \\ -\text{asp} \\ +\text{ant} \\ +\text{cor} \end{bmatrix} \longrightarrow [+\text{glot}] \, / \begin{bmatrix} +\text{voc} \\ +\text{cons} \end{bmatrix}_N +$ ——

(語尾의 頭音 t 는 名詞의 末音 l 뒤에서 t' 로 된다.)

以上에 提示된 규칙 (56)과 (59), (60)은 硬音化라는 同一한 音韻現象을 支配하는 규칙이므로 그들 규칙은 (61)로 統合될 수 있다.

(61) 硬音化規則

$$\begin{bmatrix} +\text{obst} \\ -\text{asp} \end{bmatrix} \longrightarrow [+\text{glot}] \, / \left\{ \begin{array}{ll} \left\{ \begin{array}{l} \begin{bmatrix} -\text{voc} \\ +\text{cons} \end{bmatrix}_{Vst} \\ \begin{bmatrix} -\text{voc} \\ +\text{cons} \\ -\text{nas} \end{bmatrix}_N \end{array} \right\} \text{——} & \begin{array}{l} \text{(a)} \\ \text{(b)} \end{array} \\ \begin{bmatrix} +\text{voc} \\ +\text{cons} \end{bmatrix}_N \begin{bmatrix} +\text{ant} \\ +\text{cor} \end{bmatrix} & \text{(c)} \end{array} \right\}$$

((a) 動詞에서 語幹末音이 純粹子音일 때 語尾의 頭音 (p,) t, c, k 는 그 뒤에서 각각 (p',) t', c', k' 로 된다. (b) 名詞에서 語幹末音이 鼻音 以外의 純粹子音일 때 語尾의 頭音 p, t, (c,) k 는 그 뒤에서 각각 p', t', (c',) k' 로 된다. (c) 名詞의 語幹末音이 l 일 때 語尾의 頭音 t 는 그 뒤에서 t' 로 된다.)

3·2·18 子音同化

子音同化는 母音의 資質影響에 의한 것(e.g. 口蓋音化)과 子音 相互間

의 資質影響에 의한 것으로 區分되겠는데 여기서 다루어질 것은 後者에 限定된다. 形態素境界를 中心으로 先行 形態素의 末子音과 後行 形態素의 頭子音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現象에 대한 音韻論的 機制(phonological mechanism)는 最近 金榮起(1975), 李秉根(1977), 鄭國(1980)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 여기서는 그들 硏究結果를 再論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하여 月城語가 가지고 있는 子音同化의 機制를 밝혀 보려는 것이다.

月城語의 子音同化는 直接同化와 間接同化로 나누어 敍述하는 것이 좋겠다. 前者는 同化主와 被同化主 사이에 다른 音素가 介在되지 않고 일어나는 同化를 말하고 後者는 그 사이에 다른 音素가 介在되고서 일어나는 同化를 말한다. 直接同化는 다시 同化의 結果를 基準하여 摩擦音化, 脣音化, 軟口蓋音化, 鼻音化로 나누어 敍述될 수 있다.

3·2·18·1 摩擦音化

摩擦音化는 舌頂的 障碍音이 摩擦音 s 앞에서 s로 同化되는 것을 말한다 (鄭國 1980 : 78). (62)는 動詞語幹과 '하소체'의 敍述終結語尾 -so가 結合할 때 나타나는 音韻現象인데 (62ㄱ, ㄴ)은 摩擦音化의 例이며 (62ㄷ)은 非舌頂的 障碍音은 摩擦音 앞에서도 摩擦音化하지 않는 사실을 알려주는 例이다. 따라서 이 現象을 支配하는 규칙은 (63)과 같다.

(62) ㄱ. tát+so→tásso(閉), mát^h+so→matso→másso(嗅)

ㄴ. c^{h}ac+so→c^{h}atso→c^{h}asso(訪), c'óc^h+so→c'otso→c'ósso(追)

ㄷ. íp+so→ípso(被) (‡ísso), siín+so→siínsó(履) (‡siíssó), k'ák'+so→k'ákso(削) (‡k'ásso)

(63) 摩擦音化規則

$$\begin{bmatrix} +\text{obst} \\ +\text{cor} \end{bmatrix} \longrightarrow [+\text{cont}] \,/\, \text{———} \begin{bmatrix} +\text{obst} \\ +\text{cor} \\ +\text{cont} \end{bmatrix}$$

(舌頂的障碍音 t, (t',) t^{h}, c, (c',) c^{h}는 s 앞에서 s로 된다.)

3·2·18·2 唇音化

唇音化는 舌頂的 子音이 唇音 앞에서 唇音으로 同化되는 것을 말한다. 이 現象을 支配하는 규칙은 (64)와 같으며 (65ㄱ, ㄴ)은 唇音化의 例이고 (65ㄷ)은 舌頂的 資質은 共有하지만 純粹子音이 아닌 流音 l과 非舌頂的 子音은 唇音 앞에서도 唇音化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例이다.

(64) 唇音化規則

$$\begin{bmatrix} \text{C} \\ +\text{cor} \end{bmatrix} \longrightarrow [-\text{cor}] \,/\, \text{———} \begin{bmatrix} \text{C} \\ +\text{ant} \\ -\text{cor} \end{bmatrix}$$

(舌頂的 子音(l 除外)은 唇音 앞에서 唇音으로 된다.)

(65) ㄱ. p^{h}at^{h}+pɜ́t^{h}ɜŋ→p^{h}at pɜt^{h}ɜŋ→p^{h}ápp'ɜ́t^{h}ɜŋ(赤豆+부터), kás +pɜ́t^{h}ɜŋ→kat pɜt^{h}ɜŋ→kápp'ɜ́t^{h}ɜŋ(笠), nac+pɜ́t^{h}ɜŋ→natpɜt^{h}ɜŋ →nápp'ɜ́t^{h}ɜŋ(晝)

ㄴ. toón+pɜ́t^{h}ɜŋ→toómbɜ́t^{h}ɜŋ(錢), sán+man→sámman(山+만)

ㄷ. mál+pɜ́t^{h}ɜŋ→malbɜ́t^{h}ɜŋ(馬) (⁺mambɜ́t^{h}ɜŋ), cúk+pɜ́t^{h}ɜŋ→ cúkp'ɜ́t^{h}ɜŋ(粥) (⁺cúpp'ɜ́t^{h}ɜŋ), kaŋ+pɜ́t^{h}ɜŋ→káŋbɜ́t^{h}ɜŋ(江) (⁺kámbɜ́t^{h}ɜŋ)

3·2·18·3 軟口蓋音化

軟口蓋音化는 軟口蓋音 以外의 모든 純粹子音이 軟口蓋音 앞에서 軟口蓋音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 現象을 支配하는 규칙은 (66)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67ㄱ—ㄹ)은 軟口蓋音化의 例이고 (67ㅁ)은 流音 l은 軟口蓋

音 앞에서도 軟口蓋音化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주는 例이다.

(66) 軟口蓋音化規則

$$\begin{bmatrix}-\text{voc}\\+\text{cons}\end{bmatrix} \longrightarrow \begin{bmatrix}-\text{ant}\\-\text{cor}\\+\text{back}\end{bmatrix} \Big/ ___ \begin{bmatrix}-\text{voc}\\+\text{cons}\\+\text{back}\end{bmatrix}$$

(純粹子音은 軟口蓋音 앞에서 軟口蓋音으로 된다.)

(67) ㄱ. íp+ko→íkk'o(被), tát+ko→tákk'o(閉), ís+ko→itko→íkk'o(在), c^{h}ac+ko→c^{h}atko→c^{h}akk'o(訪)

ㄴ. ip+k'ɜ́cɜŋ(—까지)→íkk'ɜ́cɜŋ(口), pát^{h}+k'ɜ́cɜŋ→patk'ɜcɜŋ→pakk'ɜ́cɜŋ(田), nac+k'ɜ́cɜŋ→natk'ɜcɜŋ→nákk'ɜ́cɜŋ(晝)

ㄷ. sum+ko→suŋk'o(隱), aán+ko→aáŋk'ó(抱)

ㄹ. cam+k'ɜ́cɜŋ→cáŋk'ɜ́cɜŋ(睡眠), an+k'ɜ́cɜŋ→áŋk'ɜ́cɜŋ(內)

ㅁ. tɜ́l+ko→tɜ́(l)go(擧) ($^{+}$tɜ́ŋgo), mál+k'ɜ́cɜŋ→malk'ɜ́cɜŋ(馬) ($^{+}$maŋk'ɜcɜŋ)

3·2·18·4 鼻音化

鼻音化는 障碍音이 鼻音 앞에서 鼻音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 現象을 支配하는 규칙과 그 규칙이 적용된 例는 각각 (68), (69)와 같다.

(68) 鼻音化規則

$$[+\text{obst}] \longrightarrow [+\text{nas}] \,/\, ___ \, [+\text{nas}]$$

(障碍音은 鼻音 앞에서 鼻音으로 된다.)

(69) ㄱ. íp+nɜ́nta→imnɜ́nda(被), tɜ́t+nɜ́nta→tɜnnɜ́nda(聽), [+변]
wiís+nɜ́nta→wiínnɜ́nda(笑), c^{h}ac+nɜ́nta→c^{h}ánnɜ́nda(訪), mák+nɜ́nta→maŋnɜ́nda(防)

ㄴ. pap+man→pámmán(食), p^{h}at^{h}+man→p^{h}ámmán(赤豆), kas+man→kámmán(笠), nac+mam→namman(晝), t'ɜk+man→t'ɜ́ŋmán(餠)

(69ㄴ)에서, 舌頂的 子音 t^h, s, c는 m 앞에서 m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규칙 (54)에 의하여 t^h, s, c가 t로 되고 t가 m 앞에서 규칙 (68)을 적용받아 n으로 된 후에 다시 규칙 (64)의 적용을 받아 m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tɜ́l(擧)+na(疑問語尾)→tɜ́na(ǂtɜ́mna), tɜ́l+ɜ̟mo→tɜ́(l)mo(ǂtɜ́mmo), mál(馬)+man→málman(ǂmɜ́mman) 等은 語幹末音이 l이면 鼻音 앞에서도 l은 鼻音化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며 nóh(放)+nɜ́nta→notnɜnta→nonnɜ́nda나 púʔ(腫)+nɜ́nta→putnɜnta→punnɜ́nda 等은 語幹末音이 h나 ʔ이면 {h, ʔ}→t의 過程을 거친 뒤에 鼻音化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3·2·18·5 流音化

流音化는 l을 先行시키는 語幹末 子音群과 語尾의 頭音 n이 結合될 때 n이 先行子音에 앞서는 l에 同化되어 l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間接同化라 할 수 있다. 前述한 直接同化가 모두 逆行同化임에 비하여 流音化는 順行同化가 된다. 語幹末 子音群이 lm일 때는 母音間 세 자음 중에서 l이 削除되므로 流音化는 不可能하다 : saálm(烹)+nɜ́nta→saámnɜ́nda. 따라서 流音化를 支配하는 규칙은 (70)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例는 (71)과 같다.

(70) 流音化規則

$$\begin{bmatrix} C \\ +\text{cor} \\ +\text{nas}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voc} \\ +\text{cons} \end{bmatrix} / \begin{bmatrix} +\text{voc} \\ +\text{cons} \end{bmatrix} \begin{bmatrix} C \\ -\text{nas} \end{bmatrix} \underline{\quad}$$

(語幹末 子音群이 l과 非鼻子音이면 語尾의 頭音 n은 l로 된다.)

(71) húlt^h+nɜ́nta→hullɜ́nda(扱), t'uúlp+nɜ́nta→t'uúllɜ́nda(穿),

k'álk+nɜ́nta→k'allɜ́nda(搔), silh+na(疑問語尾)→silla(憎)

지금까지 우리는 月城語에서 實現되는 子音同化에 대하여 간략하게 記

述하여 왔다. 直接同化인 摩擦音化, 脣音化, 軟口蓋音化, 鼻音化와 間接同化인 流音化가 子音同化의 機制를 이루고 있음을 알았다. 그 現象은 中部方言의 그것과 다름이 없었으며 差異가 있다면 中部方言에서 任意的으로 遂行되는 脣音化, 軟口蓋音化가 月城語에서는 義務的이라는 것이다. 規則相互間의 關係를 고려하면 子音同化規則은 子音群單純化規則, 子音中和規則, 그리고 {h, ʔ}→t 規則 뒤에 적용된다고 하겠는데 流音化規則만은 子音群單純化規則에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paálp(踏)+nɜ́nta 에서 子音群單純化規則이 먼저 적용된다면 paál+nɜ́nta 가 될 것인데 形態素境界에서 l 과 n 이 직접 만나면 오직 l 의 削除만이 可能하므로 그 결과는 *paánɜ́nda 가 되어 옳지 못한 音聲形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流音化規則이 子音群單純化規則에 앞선다고 할 때 비로소 paálp+nɜ́nta→paalplɜnta→paállɜ́nda 와 같이 실제 音聲形과 一致하는 것이다. 이제 이들 규칙과 관련지으면서 몇가지 例가 基底形으로부터 音聲形까지 導出되는 過程을 보이면 (72)와 같다.

(72) ㄱ.	/mat^h+so/	/kás+pɜ́t^{h}ɜŋ/	/sán+pɜ́t^{h}ɜŋ/	/pát^h+k'ɜ́cɜŋ/	
	mat so	kat pɜt^{h}ɜŋ	——	pat k'ɜcɜŋ	규칙 (54)
	mas so	——	——	——	규칙 (63)
	——	kap pɜt^{h}ɜŋ	sam pɜt^{h}ɜŋ	——	규칙 (64)
	——	——	——	pak k'ɜcɜŋ	규칙 (66)
	——	kapp'ɜt^{h}ɜŋ	——	——	규칙 (61b)
	[máso]	[kápp'ɜ́t^{h}ɜŋ]	[sambɜ́t^{h}ɜŋ]	[pakk'ɜ́cɜŋ]	
	(嗅)	(笠)	(山)	(田)	
ㄴ.	/ánc+ko/	/c^{h}ac+nɜ́nta/	/húlt^h+nɜ́nta/	/púʔ+ko/	
	——	——	——	put ko	ʔ→t
	——	——	hult^h lɜnta	——	규칙 (70)

anc k'o	——	——	putk'o	규칙 (61a)[18]
an k'o	——	hullɜnta	——	子音群單純化
——	c^hat nɜnta	——	——	규칙 (54)
aŋ k'o	——	——	pukk'o	규칙 (66)
——	c^han nɜnta	——	——	규칙 (68)
[áŋk'o]	[c^hánnɜ́nda]	[hullɜ́nda]	[púkk'o]	
(座)	(訪)	(扱)	(腫)	

3·2·19 子音群 單純化

音節末에서 두 子音이 同時에 發音될 수 없으며 母音 사이에서 세 子音이 發音될 수 없는 것이 國語가 가지고 있는 表面音聲制約의 一面이다. 그러므로 그 경우에는 하나의 子音이 削除되어야 하는데 子音群 單純化란 그런 現象을 일컫는 말이다. 이 現象은 地域語(또는 方言)에 따라 약간의 差異가 있다.

月城語에는 ks, nc, nh, lk, lm, lp, lt^h, lʔ, lh, ps, ŋh, mm 等의 語幹末 子音群이 있다. 이 중에서 ks는 名詞에만 있는 唯一한 子音群으로 nɜ́ks(魂)이 例가 된다 : nɜ́ks+i→nɜ́ksi.[19] 子音群 lʔ는 動詞 siílʔ-(載)에서 發見된다 : siílʔ+nɜ́nta→siíllɜ́nda, siílʔ+ko→siílk'o, siílʔ+ato→sírado.[20] 子音群 ŋh는 動詞 t'áŋh-(辨)에서 發見된다 : t'áŋh+nɜ́nta→

18) 規則 (61a)가 子音群 單純化規則보다 먼저 適用되는 것으로 본 理由에 대해서는 3·2·19를 참조할 것.

19) 語幹末 子音群 ks를 가지는 國語 名詞에는 '몫, 삯'이 있으나 月城語에서는 mok, sák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lk를 가지는 '흙, 닭, 칡, 두듥, 까닭'은 月城語에 hɜ́l, tál, c^hilki, k'átal로 사용된다. e.g. sák+i→sági, hɜ́l+i→hɜ́ri, hɜ́l+ɛ→hɜ́rɛ 이 밖에 '여덟, 돐, 값'은 月城語에서 jɜ́tɜl, tol, kap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ks만이 月城語에 存在하는 유일한 名詞末 子音群이다.

20) 子音群 lʔ에 대해서는 李翊燮(1972a) 및 崔明玉(1978a)를 참조할 것.

t'aŋnɜ́nda, t'áŋh+tɜ́la→t'aŋtʰɜ́ra, t'áŋh+ko→t'áŋkʰo, t'áŋh+ato→ t'áŋado 또는 t'ã̃ado. 子音群 mm은 saámm-(烹), taámm- (似) 等에서 發見된다 : saámm+nɜ́nta→saámnɜ́nda, saámm+tɜ́la→saámt'ɜ́ra, saámm+ko→saáŋk'o, saámm+ato→sámmado.[21]

위에 提示된 子音群이 나타내는 音韻現象은 다음과 같다. 먼저 (73)의 例들은 語幹末 子音群에서 두번째 音素가 非鼻音이거나 非喉音이면 그 音素가 削除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73) ㄱ. nɜ́ks→nɜk, nɜ́ks+to→nɜ́kt'o, nɜ́ks+man→nɜ́ŋman(魂)

ㄴ. ánc+tɜ́la→ant'ɜ́ra, ánc+nɜ́nta→annɜ́nda(坐) cf. áncado

ㄷ. k'ɜ́lk+tɜ́la→k'ɜlt'ɜ́ra, k'ɜ́lk+nɜ́nta→k'ɜllɜ́nda(沸)

cf. k'ɜ́lgado

ㄹ. paálp+tɜ́la→paált'ɜ́ra, paálp+nɜ́nta→paállɜ́nda(踏)

cf. pálbado

ㅁ. húltʰ+tɜ́la→hult'ɜ́ra, húltʰ+nɜ́nta→hullɜ́nda(扱)

cf. húltʰado

ㅂ. ɜɜ́ps+tɜ́la→ɜɜpt'ɜ́ra, ɜɜ́ps+na(疑問語尾)→ɜɜ́mna(無)

cf. ɜɜ́psado

그러나 音韻過程(phonological processes)을 考慮하면 위의 說明이 얼마나 皮相的인가를 알게 된다. (73ㄷ—ㅁ)의 例와 같이 l을 앞세우는 子音群일 경우에 두번째 자음 k, p나 tʰ가 먼저 削除된다면 語尾의 t는 결코

21) 이 子音群은 慶北 東海岸地域語가 가진 特徵 중의 하나로 m 앞에서 l>m의 變化를 입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月城語에서는 이들 子音群이 점차 lm으로 代替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內陸語의 干涉에 의한 것 같다. saámm-과 saálm-의 共存이 그러한 例가 된다. 寧海의 漁村語에서 發見되는 이 子音群에 대해서는 崔明玉(1980a : 203)를 참조할 것.

硬音化할 수 없는 것이다. al+tɜ́la→a(l)dɜ́ra(知), uúl+tɜ́la→uú(l)dɜ́ra(泣)가 보여 주는 것처럼 l 뒤의 閉鎖音 t, c, k 等은 有聲音으로 되기 때문이다. 특히 語尾의 頭音이 n이라면 두번째 音素가 削除된 뒤에 다시 語幹末의 l이 削除될 수밖에 없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形態素境界에서 語幹의 l은 語尾 n과 직접 만나면 義務的으로 削除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73)의 音聲形은 직접 子音群 單純化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硬音化와 流音化 過程을 거친 뒤에 子音群 單純化 過程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73)의 現象을 지배하는 규칙은 (74)로 表示되며 (73)의 例들이 基底形으로부터 音聲形까지 導出되는 過程은 (75)와 같다.

(74) 子音群 單純化規則 (1)

$$\begin{bmatrix} C \\ -nas \end{bmatrix} \longrightarrow \phi / C \text{——} \begin{Bmatrix} \# \\ C \end{Bmatrix}$$

(語幹末 子音群에서 두번째 音素가 鼻音이 아니면 그것은 單語境界나 子音語尾 앞에서 削除된다.)

(75)[22] ㄱ. /nɜ́ks/	/ánc+tɜ́la/	/k'ɜ́lk+tɜ́la/	/húltʰ+tɜ́la/	
nɜk	——	——	——	규칙(74)
——	anc t'ɜla	k'ɜlk t'ɜla	hultʰ t'ɜla	규칙(61a)

22) 語幹末 子音群에서 첫번째 音素가 流音이 아니면 硬音化 過程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규칙 (74)에 의하여 두번째 音素가 削除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語幹末音이 n이나 m일 때 語尾의 頭子音(t, c, k)을 硬音化하지 않는 地域語를 통하여 立證된다. 예컨대, 寧海地域의 60代 以上의 話者들은 aán+ko→aáŋgo(抱), taám+ko→taáŋgo(盛), aán+tɜ́la→aándɜ́ra, taám+tɜ́la→taámdɜ́ra와 같은 活用을 보인다. 만약 ánc+tɜ́la(坐)에서 c가 먼저 削除된다면 寧海의 60代 以上의 話者들은 andɜ́ra와 같은 音聲形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나타내는 音聲形은 ant'ɜ́ra이다. 이것은 語幹末 子音群에서 첫번째 音素가 流音이 아니라도 硬音化規則 다음에 子音群 單純化規則이 適用된다는 것을 알려 주는 外的 證據(external evidence)가 된다.

— antʼɜla kʼɜl tʼɜla hul tʼɜla 규칙(74)

[nɜk] [antʼɜ́ra] [kʼɜltʼɜ́ra] [hultʼɜ́ra]

ㄴ. /nɜ́ks+man//ánc+nɜ́nta//kʼɜ́lk+nɜ́nta//húlt^h+nɜ́nta/

— — kʼɜlk lɜnta hult^{h}lɜnta 규칙(70)

nɜk man an nɜnta kʼɜl lɜnta hul lɜnta 규칙(74)

nɜŋ man — — — 규칙(68)

[nɜ́ŋman] [annɜ́nda] [kʼɜllɜ́nda] [hullɜ́nda]

語幹末 子音群에서 두번째 音素가 鼻音이면 그 앞의 音素 즉 l이 削除된다 : kuúlm+tɜ́la→kuúmtʼɜ́ra(飢), kuúlm+nɜ́nta→kuúmnɜ́nda cf. kúl-mado. 이 現象을 支配하는 규칙은 (7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규칙 (76)은 규칙 (61a) 다음에 適用된다. 위의 例가 基底形으로부터 音聲形까지 導出되는 過程은 (77)과 같다.

(76) 子音群 單純化規則 (2)

$$\begin{bmatrix}+\text{voc}\\+\text{cons}\end{bmatrix}\longrightarrow\phi/\!\!-\!\!-\begin{bmatrix}\text{C}\\+\text{nas}\end{bmatrix}]_{\text{Vst}}\ \text{C}$$

(語幹末 子音群이 流音과 鼻音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할 때 流音이 削除된다.)

(77) /kuúlm+tɜ́la/ /kuúlm+nɜ́nta/

kuulm tʼɜla — 규칙(61a)

kuum tʼɜla kuum nɜnta 규칙(76)

[kuúmtʼɜ́ra] [kuúmnɜ́nda]

語幹末 子音群에서 두번째 音素가 喉音일 때는 그 喉音이 喉頭閉鎖音?

이나 喉頭摩擦音 h이냐에 따라 子音群 單純化에 差異를 보인다. 먼저 喉頭閉鎖音 ʔ이면 語尾의 頭子音 앞에서 ʔ는 t로 변하며 그 다음의 변화는 (75ㄱ)의 動詞 húltʰ-과 同一하다. púʔ+tɜ́la $\xrightarrow{ʔ\to t}$ puttɜla $\xrightarrow{(61a)}$ putt'ɜla → putt'ɜ́ra(腫), púʔ+nɜ́nta $\xrightarrow{ʔ\to t}$ putnɜnta $\xrightarrow{(68)}$ punnɜnta → punnɜ́nda.

喉頭摩擦音 h는 語尾의 頭音이 t, c, k이면 규칙 (55)에 의하여 有氣音化하므로 子音群 單純化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有氣音을 相關束으로 가지지 않는 子音 앞에서 h는 t로 변한다: nóh+so $\xrightarrow{h\to t}$ notso $\xrightarrow{(63)}$ nosso → nóso(放), nóh+nɜ́nta $\xrightarrow{h\to t}$ notnɜnta $\xrightarrow{(68)}$ nonnɜnta → nonnɜ́nda.

喉音 ʔ, h가 t로 되는 규칙은 (78)과 같으며 lʔ와 lh가 單純化하는 過程을 나타내면 (79)와 같다.

(78) {ʔ, h}→t 規則

$$\begin{bmatrix} -\text{voc} \\ -\text{cons} \\ \alpha\ \text{cont} \\ +\text{low} \end{bmatrix} \longrightarrow t \Big/ \underline{\quad} \left[\left\langle \begin{matrix} \text{C} \\ +\text{cor} \\ \left\{ \begin{matrix} [+\text{cont}] \\ [+\text{nas}] \end{matrix} \right\} \end{matrix} \right\rangle \right] \quad \langle(\text{a})\rangle, (\text{b})$$

조건: < >는 α=+일 때.
<(a)> h는 s와 n 앞에서, (b) ʔ는 子音 앞에서 t로 된다.)

(79) /siíl ʔ+tɜ́la/ /siílʔ+nɜ́nta/ /hɜlh+so/ /hɜlh+na/

——	——	hɜlt so	hɜlt na	규칙 (78a)
siilt tɜla	siilt nɜnta	——	——	규칙 (78b)
siilt t'ɜla	——	——	——	규칙 (61a)
——	siilt lɜnta	——	hɜltla	규칙 (70)
siil t'ɜla	siil lɜnta	hɜl so	hɜl la	규칙 (74)
[siílt'ɜ́ra]	[siíllɜ́nda]	[hɜlso]	[hɜlla]	
(載)	(載)	(庲)	(庲)	

지금까지 論議된 子音群 單純化는 다음과 같이 整理된다. 語幹末 子音群

에서, 두번째 音素가 非鼻音이거나 非喉音이면 두번째 音素가 削除된다. 이 削除는 硬音化와 流音化 다음에 이루어진다. 두번째 音素가 鼻音이면 그에 先行하는 l이 削除된다. 이 削除는 硬音化 뒤에 이루어진다. 두번째 音素가 喉音 ʔ이면 子音 앞에서 ʔ가 t로 변한 다음 두번째 音素가 非鼻音이거나 非喉音인 경우와 同一한 音韻過程을 거친다. 두번째 音素가 喉音 h이면 語尾의 頭音 t, c, k와 結合하여 有氣音化하며 語尾의 頭音이 s나 n이면 그 앞에서 h는 t로 변하며 그 다음의 音韻過程은 喉音 ʔ의 경우와 同一하다.

3·2·20 流音削除

形態素境界에서 語幹末音 l의 削除는 語尾의 頭音이 n이나 s일 때 義務的이며 t나 c일 때는 任意的이다 : pʰal+na(疑問終結語尾)→pʰana(賣), pʰal+ɜ̟so('하소체' 命令語尾)→pʰaso, pʰal+tɜ́la→pʰádɜ́ra 또는 pʰáldɜ́ra, pʰal+ca(請誘形語尾)→pʰaca 또는 pʰalca 等. 그런데 月城語는 위와 같은 制限된 音素 앞에서만 語幹末音 l을 削除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子音 앞에서 l을 削除시킨다. 이 現象은 老年層으로 올라갈수록 義務的이며 젊은층으로 내려올수록 任意的이다. (80)에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23]

(80) ㄱ. p'al-(吮, 洗) : p'al+nta→p'anda, p'al+ɜ̟so→p'aso, p'al+tɜ́la→p'ádɜ́ra 또는 p'áldɜ́ra, p'al+ko→p'ago 또는 p'algo, p'al+ɜ̟mo→p'amo 또는 p'almo, p'al+ato→p'árádo

ㄴ. kánɜ́l-(細) : kánɜ́l+na→kánɜ́na, kánɜ́l+tɜ́la→kánɜ́dɜra 또는 kánɜ́ldɜra, kánɜ́l+ko→kánɜ́go 또는 kánɜ́lgo, kánɜ́l+ɜ̟mo

23) 이 現象은 慶北의 東海岸地域語가 가지고 있는 共通特徵이라 할 수 있다. 寧海地域語에서 發見되는 이 現象에 대해서는 崔明玉(1980a : 193)을 참조할 것.

→kánɜmo 또는 kánɜlmo, kánɜl+ato→kánɜrado

그러나 曲用의 경우에는 語幹末의 l은 어떤 環境에서도 子音 앞에서 削除되는 일이 없다 : mál(馬)+ɜnɜ(主題格)→márɜnɜ, mál+to(選擇表示語尾)→mált'o, mál+man(比較表示語尾)→málman, mál+i(主格)→mári 等. 따라서 流音削除 現象을 지배하는 規則은 (81)로 나타낼 수 있는데 C가 n과 s일 때 流音削除는 義務的이고 그 以外의 子音이면 流音削除는 任意的이다.

(81) $$\begin{bmatrix}+\text{voc}\\+\text{cons}\end{bmatrix} \longrightarrow \phi \,/\, \text{---}\,]_{\text{Vst}}\left[\left\langle \begin{matrix} \text{C} \\ +\text{cor} \\ \left\{\begin{matrix}[+\text{cont}]\\ [+\text{nas}]\end{matrix}\right\}\end{matrix}\right\rangle\right] \langle(\text{a})\rangle, (\text{b})$$

조건 : 規則 (b)는 임의적임.

(<(a)> 動詞에서 語幹末音 l은 語尾의 頭音이 s나 n이면 그 앞에서 삭제되며 (b) 그 이외의 子音 앞에서는 임의적으로 삭제된다.)

규칙 (81)은 규칙 (76)과 類似한 音韻過程을 遂行하므로 규칙 (82)로 統合할 수 있다.

(82) 流音削除規則

$$\begin{bmatrix}+\text{voc}\\+\text{cons}\end{bmatrix} \rightarrow \phi \,/\, \text{---}\left(\begin{bmatrix}\text{C}\\+\text{nas}\end{bmatrix}\right)]_{\text{Vst}}\left[\left\langle \begin{matrix} \text{C} \\ +\text{cor} \\ \left\{\begin{matrix}[+\text{cont}]\\ [+\text{nas}]\end{matrix}\right\}\end{matrix}\right\rangle\right] (\text{a}), \langle(\text{b})\rangle, (\text{c})$$

조건 : 規則 (c)는 임의적임.

((a) 語幹末子音群이 l과 鼻音으로 이루어지면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할 때 l이 삭제되고 <(b)> 動詞에서 語幹末音 l은 語尾의 頭音이 s나 n이면 그 앞에서 삭제되며 (c) 그 이외의 子音 앞에서는 임의적으로 삭제된다.)

3·2·21 變則活用

國語의 變則活用은, 生成音韻論이 登場된 以來, 여러 音韻論者가 다루

어 온 共通된 主題 중의 하나이다. 變則活用을 生成音韻論의 테두리 안에서 취급한 論文에 金鎭宇(1968, 1970), 金次均(1971), 이병건(1976, 1978), 金榮起(1973, 1975), 金手坤(1977), 孫漢(1977) 等이 있다. 그 結果 傳統的으로 變則이라고 생각되던 活用은 規則에 의해 說明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各個 論文이 提示하는 설명에 대하여 우리가 注目해야 할 것은 도달된 결과는 동일하지만 그 出發基準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어떤 설명은 抽象的인 音素를 設定하여 基底表示를 달리함으로써 시작되고 어떤 설명은 語幹이 지닌 構造的 特徵을 捕捉함으로써 시작된다. 金鎭宇(1968, 1970), 金次均(1971), 이병건(1976)은 前者에 속하고 金榮起(1973, 1975), 金手坤(1977), 孫漢(1977)은 後者에 속한다.

그와 같이 說明의 出發基準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적어도 둘 중에서 어느 하나는 言語事實을 正確하게 포착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거니와 그 두 설명이 주는 共通的인 印象은, 理論에 傾倒된 나머지 복잡한 규칙이나 실제와는 乖離된(?) 규칙을 設定함으로써, 話者들의 言語能力을 捕捉하는데 失敗하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設定된 규칙이 妥當하다는 것을 認定받으려면 話者들이 실제로 그러한 규칙을 理解하고 있다는 것을 立證할 수 있는 證據를 提示하여야 할 것인데 대부분의 설명에는 그러한 證據가 提示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24]

該當되는 資料만을 對象으로 하여서는 變則活用에 대한 문제의 解決은 어렵다. 여러 方言을 통하여 變則活用의 樣相을 면밀하게 檢討하고 그들 方言이 역사적으로 겪은 變化의 性質을 究明함으로써 그에 대한 解決이

24) R. Skousen(1975)는 話者들이 실제로 어떤 音韻規則을 捕捉하고 있다는 사실을 立證할 수 있는 實體的 證據(substantive evidence)를 提示할 수 없다면 設定된 規則은 妥當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主張한다(p. 129). 이 主張은 傾聽할 만한 價値가 있다. 다만 實體的 證據가 提示될 수 없는 音韻現象에 대하여 設定된 規則이 그 妥當性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하는 물음이 提起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言及을 하지 않고 있다.

可能할 것이다. 崔明玉(1980a)는, 그러한 생각 위에서 所謂 s變則, jə變則, li變則 等의 活用에 대한 새로운 說明을 試圖한 바 있다. 여기서 다시 月城語를 대상으로하여 그 問題에 接近하고자 한다. t變則, s變則, jə變則, li變則 等의 活用에 대한 說明이 여기서 다루어질 內容이다.

3·2·21·1 t變則活用

다른 方言(또는 地域語)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月城語에도 두 종류의 語幹末 t가 있다. 어떤 환경에서도 交替를 보이지 않는 것과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하면 l로 交替되는 것이 그것이다. tát-(閉), mút-(埋), mít-(信), ɜt-(得) 等은 前者에 속하며 tɜ́t-(聽), nuút-(燋), kɜɜ́t-(步), p'uút-(增), muút-(問) 等은 後者에 속한다. 이들 動詞의 活用은 (83)과 같다.

(83) ㄱ. tát+nɜ́nta→tannɜ́nda, tát+tɜ́la→tatt'ɜ́ra,
tát+ato→tádado, tát+ɜ̟mo→tádɜmo(閉)
ㄴ. mút+nɜ́nta→munnɜ́nda, mút+tɜ́la→mutt'ɜ́ra,
mút+ato→múdado, mút+ɜ̟mo→múdɜmo(埋)
ㄷ. tɜ́t+nɜ́nta→tɜnnɜ́nda, tɜ́t+tɜ́la→tɜtt'ɜ́ra,
tɜ́t+ato→tɜ́rado, tɜ́t+ɜ̟mo→tɜ́rɜmo(聽)
ㄹ. nuút+nɜ́nta→nuúnnɜ́nda, nuút+tɜ́la→nuútt'ɜ́ra,
nuút+ato→núrado, nuút+ɜ̟mo→núrumo(燋)

(83ㄱ, ㄴ)의 動詞와는 달리 (83ㄷ, ㄹ)의 動詞가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 앞에서 t→l의 交替를 보이는 것을 어떻게 說明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金鎭宇(1970)은 (83ㄷ, ㄹ) 類의 動詞가 가진 語幹末音을 /r/로 잡고 子音 앞에서 /r/이 [t]로 交替된다고 함으로써 t變則活用을 說明한다. /r/

이 [t]로 되는 것은 閉口調音原則에 의하여 r이 子音 앞에서 同位破裂音化한 結果라는 것이다. 그러한 說明은 理論上으로는 妥當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言語現象에서 그것이 可能하느냐가 問題다. 예컨대, tál-(甘), tɜ́l-(擧)과 같은 動詞가 -ko, -tɜ́la와 같이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할 때는 왜 tál+ko→*tatko→*tákk'o, tál+tɜ́la→*tattɜla→*tatt'ɜ́ra나 tɜ́l+ko→*tɜtko→*tɜ́kk'o, tɜ́l+tɜ́la→*tɜttɜla→*tɜtt'ɜ́ra가 되지 않는지. 그 差異가 /r/과 /l/의 差異에 있다면 r과 l이 각각 어떤 音聲的 特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보다 자세한 說明이 있어야 할 것이다.[25] 뿐만 아니라 실제로 話者들이 /l/과 /r/을 別個의 音素로 理解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證據가 提示되어야 할 것이다.

t變則活用에 대한 以上과 같은 說明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證據는 tál-(甘), tɜ́l-(擧)의 動詞를 통하여 確認한 바와 같이 r과 同一한 調音位置를 가지고 있는 l이 子音 앞에서 同位破裂音化하지 않는다는 事實 外에 通時的 變化에서도 發見된다. 國語 音韻史에서나 現代國語에서 發見되는 資料를 보면 t가 l로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l이 t로 변하는 것은 不自然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tan>molan(牧丹), *totjaŋ>toljaŋ(道場), *cʰʌtjəj>cʰʌljəj(次第), -tʌojta>-lʌojta, -tʌpta>-lʌpta(劉昌惇 1964 : 55—56) 等은 音韻史의 例이고 *kə: t->kə: lʔ-(步), *nu:t->nu:lʔ-(焦), *mu:t->mu:lʔ-(問) 等은 動詞의 語幹末音 t가 lʔ로 再構造化한 것으로서 江陵地域語나 寧海地域語에서 發見되는 例이다.[26] 이러

25) 金鎭宇(1970 : 3)은 '問'의 뜻을 가진 動詞의 語幹末子音을 母音 앞에서 實現되는 r로 잡고 그 基底形을 /mur-/이라 하며 '咬'의 뜻을 가진 動詞의 基底形 /mul-/과 구별하여 說明하고 있다. 語幹末子音을 母音 앞에서 實現되는 것을 基準으로 한다면 '咬'의 뜻을 가진 動詞의 경우도 /mur-/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基底形의 設定基準을 그 두 動詞에서 달리하는 理由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26) 江陵地域語의 例는 李翊燮(1972a)를, 寧海地域語의 例는 崔明玉(1980a)를 참조할 것.

한 例들은 話者들이 l→t의 규칙보다 t→l의 규칙을 理解하고 있다는 外的 證據(external evidence)가 된다.

金次均(1971)과 이병건(1976)은 t變則動詞의 語幹末音을 d로 잡고 d가 母音 앞에서 l로 된다는 규칙에 의하여 그들 변칙동사가 語幹末音 t를 가진 正則動詞와 다른 音韻現象을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한 說明은 서로 다른 基底形을 통하여 音聲形의 差異를 合理的으로 說明하기는 하지만 話者들이 t와 抽象音素 d를 區別하고 있다는 事實이 立證되지 않으므로 妥當性을 缺한다고 하겠다.[27]

한편 金榮起(1973, 1975)는 t變則動詞의 語幹이 대부분 長音을 가지고 있다는 構造上의 特徵을 捕捉하여 先行母音이 長音일 때 母音 사이에서 語幹末音 t는 l로 弱化된다는 規則을 設定함으로써 그들 t變則動詞의 活用을 說明한다.[28] 이 說明은 앞의 두 說明에 비하여 매우 具體的이다. 그러나 이 說明도 妥當性을 認定받을 수 없다고 하겠는데 그것은 長音을 가지고 있지 않은 動詞 tɜ́t-(聽)도 母音 앞에서 t→l의 交替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 tɜ́t+ko→tɜ́kk'o, tɜ́t+ato→tɜ́rado, tɜ́t+ɜ̟mo→tɜ́rɜmo. 다른 方言(또는 地域語)으로 범위를 넓히면 ə:t-(得)은 長音을 가지고 있는데도 母音 앞에서 t→l의 交替를 보이지 않으며(ə:t+ato→ə:dədo(中部方言))語幹母音이 長音을 가지고 있지 않는 西南 慶南地域語에서 t變則動詞는 母音 앞에서 t→l의 交替를 보이기 때문에(kɜt+ko→kɜk'ó, kɜt+ato→kɜ́rɜdo(步)) 語幹母音의 長音이 t→l의 交替를 說明하는데 필요한 音韻論的 基準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論議에 의하면, t變則活用을 說明할 수 있는 妥當한 方法이 없으므로 t變則을 變則으로 認定하고 그러한 t 아래에 [+변]과 같은

---

27) 이병건(1978 : 214)에서는 抽象的 基底表示를 否定하는 見解를 表示하고 있다.
28) 孫湞(1977 : 55—56)에서도 이와 類似한 解決案을 提示하고 있다.

區別資質(diachritic feature) 表示를 하여 辭典에 登錄하고 그러한 t에만 적용되는 (84)와 같은 규칙을 設定함으로써 t變則活用을 說明하는 方法밖에 없다고 하겠다.[29]

(84) t의 流音化規則
[+변]

t⟶l/——]$_{Vst}$V
[+변]

([+변]의 區別資質 表示를 가지고 있는 t는 모음 앞에서 l로 된다.)

규칙 (84)에 의하여 (83)의 例들이 基底形에서 音聲形으로 導出되는 過程은 (85)와 같다.

(85)	/tát+ato/	/mút+ato/	/tɜ́t+ato/ [+변]	/nuút+ato/ [+변]	
	——	——	——	nut ato	규칙 (33a)
	——	——	tɜl ato	nulato	규칙 (84)
	[tádado]	[múdado]	[tɜ́rado]	[núrado]	

3·2·21·2 s變則活用

s變則活用이란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결합할 때 動詞의 語幹末音 s가 삭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그 경우에 삭제되는 s는 後期 中世語의 z(△)에 遡及되는 것이다. 後期 中世語에 語幹末音으로 z를 가진 動詞 중에서 'ᅀᅵᆺ—(連), 조—(啄), 저—(漕)' 等은 月城語에서 각각 iíc-, c'oóc-, cɜɜ́c- 等으로 再構造化하였고 '짓—(造), 줏—(拾), 붓—(注, 腫)' 等은 각각 ciíʔ-, coóʔ-, púʔ- 等으로 再構造化하였다. 後者의 動詞들은 所謂 s變則動詞와 同一한 活用을 보이는데 그 사실은 (86)에서 確認된다.

29) 西北方言처럼 t變則動詞가 없는 方言(또는 地域語)에 대해서는 그러한 區別資質의 사용이 不必要할 것이다.

(86) ㄱ. púʔ+ko→púkk'o, púʔ+tɜ́la→put'ɜ́ra,

púʔ+ato→páado, púʔ+ɜ̟mo→púumo(注, 腫)

ㄴ. coóʔ+ko→coókk'o, coóʔ+tɜ́la→coótt'ɜ́ra,

coóʔ+ato→cáado, coóʔ+ɜ̟mo→cóomo(拾)

(86)의 動詞들은 所謂 s變則動詞와 同一한 音韻現象을 보이므로 그들 動詞의 語幹末音을 s라고 보고 問題의 解決案을 摸索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ʔ를 그들 動詞의 語幹末音으로 보는 理由는 金鎭宇(1970 : 5)에 指摘된 바와 같이, 소위 s變則動詞는 어떤 환경에서도 s를 실현시키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生成音韻論의 見地에서 s變則活用을 論한 글들은 그들 動詞의 語幹末音을 z나 s로 잡고 있다. 金次均(1971)과 이병건(1976) 等은 前者를 취하고 金榮起(1975)와 이병건(1978) 等은 後者를 취한다.[30] s變則動詞의 語幹末音을 z나 s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理由는 그들 動詞가 後期中世國語에서 語幹末音으로 z를 가지고 있었으며 共時的으로는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 앞에서 語幹末音이 t로 中和된다는 事實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說得시키지 못하는 것은 z나 s가 아니고도 子音 앞

30) 그러나 s變則에 대한 說明方法에 있어서는 差異를 보인다. 金(1975 : 31)은 s變則動詞가 가지고 있는 構造上의 特徵 즉 語幹이 長母音을 가진다는 특징을 포착하여 語幹末音이 s이고 語幹이 長母音을 가질 때 母音 앞에서 s가 삭제된다는 규칙으로써 s 變則을 說明한다. s→ϕ/v:—&v. 이와는 달리 이(1978 : 223)은 s變則動詞의 語幹末音 s에만 적용되는 形態素規則에 의하여 s가 削除된다고 說明한다. 後者의 說明은 s變則을 變則으로 인정하되 變則을 보이는 s에만 통용되는 規則에 의하여 音韻現象을 說明하려는 것으로 理解된다. 그러나 前者의 경우는 語幹의 長母音이 s削除의 절대적인 要因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再考의 餘地를 남긴다. 즉 長音을 가지지 않는 地域語에서도 이 現象이 있기 때문이다. 例컨대 西南 慶南地域語의 경우, 中部方言 '긋—(引), 짓—(造)' 等의 動詞는 語尾 a와 결합되면 k'ɜɜ(do), cíi(do)의 音聲形을 보이고,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하면 k'ɜkk'o, k'ɜ́t'ɜ́ra, cikk'ó, citt'ɜ́ra의 音聲形을 보인다. 그러나 그들 動詞의 語幹母音은 短音이다. 따라서 金(1975)의 규칙은 長母音體系를 가지는 地域語에만 적용된다거나, 長母音體系를 가지지 않는 地域語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制約이 加해져야 할 것이다.

에서 t로 中和되고 母音 앞에서 削除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87)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現代國語에서 그 存在가 認定되어야 하는 喉頭閉鎖音 ʔ이 語幹末音이라 하여도 語幹末音이 z나 s일 때와 同一한 音聲形이 導出될 수 있는 것이다.[31]

(87) ㄱ.

/púz+ko/	/pús+ko/ [+변]	/púʔ+ko/	
put ko	put ko	——	규칙(54)
——	——	put ko	규칙(78b)
put k'o	put k'o	put k'o	규칙(61a)
puk k'o	puk k'o	puk k'o	규칙(66)
[púkk'o]	[púkk'o]	[púkk'o]	
(注, 腫)	(注, 腫)	(注, 腫)	

ㄴ.

/púz+ato/	/pús+ato/ [+변]	/púʔ+ato/	
——	pu ato	——	s→ø/—]$_{Vst}$V [+변]
——	——	pu ato	규칙(37)
pu ato	——	——	z→ø/v-v
pwa: to	pwa: to	pwa: to	규칙(6)
pa: to	pa: to	pa: to	규칙(13a)
[páado]	[páado]	[páado]	

31) 喉頭閉鎖音 ʔ의 設定과 그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金完鎭(1972b), 李翊燮(1972a) 및 崔明玉(1978a)를 참조할 것. 앞에 제시된 動詞의 語幹末音 외에 月城語에서 ʔ이 설정되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 語幹末 子音群 lʔ: 動詞 siílʔ-(載) : siílʔ+ko→siílk'o, siílʔ+tɜ́la→siílt'ɜ́ra. siílʔ+ato→sírado.

㉡ 冠形形語尾 ɜ̟lʔ: ká(行)+ɜ̟lʔ# ci(不完全名詞)→kálc'i

㉢ 推測表示의 先語末語尾 ɜ̟lʔ:

① #san+ɛ# #ka+na#→sánɛ kana? (산에 가느냐?)

② #san+ɛ# #ka+as+ɜ̟lʔ+na#→sánɛ kasilla? (山에 갔겠느냐?)

(87)은 소위 s變則動詞의 語幹末音을 ʔ라고 할 때에 抽象音素 z나 s→ϕ/—]$_{\text{Vst}}$V [+변]와 같은 形態音素規則을 設定하지 않고서도 그들 動詞의 音韻現象을 說明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러한 理由와 함께 ʔ이 現代國語에서 認定되어야 한다는 理由에서 所謂 s變則動詞의 語幹末音이 z나 s보다 ʔ이 되어야 한다고 著者는 생각하는데 그러한 생각의 裏面에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理由가 있다. 첫째 이유는 後期 中世語에 z를 語幹末音으로 가지지 않았던 動詞로서 現在 s變則動詞와 同一한 音韻現象을 보이는 것들이 存在하기 때문이다. 月城語의 動詞 p^húʔ-(吸煙)과 西南 慶南地域語를 포함한 東南方言의 여러 下位方言에서 發見되는 k'uʔ-(炙), núʔ-(臥) 等의 動詞들이 그에 해당된다. 이들 動詞는 語尾 -ko, -ato, -ɜ̟mo와 결합하면 각각 p^húkk'o, p^háado, p^húumo; k'ukk'o, k'úudo, k'uúmo; núk-k'o, núudo, nuúmo와 같이 活用하는데 이러한 音韻現象은 (86)의 動詞들과 一致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基底形을 p^húʔ-, k'uʔ-, núʔ-나 p^húz-, k'uz-, núz-나 p^hús-[+변], k'us-[+변], nús-[+변] 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動詞는 後期 中世語뿐 아니라 그 어느 때도 z를 語幹末音으로 가진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 動詞의 語幹末音이 z나 s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s變則動詞의 語幹末音이 ʔ라고 해야 할 또 다른 理由가 慶北 寧海의 大津語에서 發見된다. 大津語는 後期 中世國語 'ᄏᆞᇫ—(引), 븟—(注, 腫), 짓—(造)' 等에 대하여 k'ɜh-, púh-, ciíh-를 보여 준다. 이들 動詞가 語幹末音으로 h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k'ɜh+ko→k'ɜkk^{h}o, púh+ko→púkk^{h}o, ciíh+ko→ciíkk^{h}ó에서 확인된다. 이 때의 h는 z의 變化에 의한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은 月城語를 포함하는 現代國語의 s變則動詞의 語幹末音이 z에서 변한 ʔ가 되어야 한다는 見解를 뒷받침해 준다.

3·2·21·3 jə 變則活用과 li 變則活用

所謂 jə 變則活用은 動詞 ha-나 ha-에 의하여 派生된 모든 動詞에 局限되어 나타나는 活用이다. 語幹末母音 a 와 語尾 a 가 結合할 때, 同音削除 대신 jə 가 實現된다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音聲形은 jə 가 아니라 ɛ:이다. 그러므로 jə 變則活用을 취급한 글에서는 ɛ:의 導出過程의 說明에 더 苦心하고 있음을 發見한다. 月城語에서 發見되는 (X)ha-의 活用은 (88)과 같다.

(88) ㄱ. há+ko→hágo, há+tɜ̀la→hádɜ̀ra,
hά+ato→hɛɛ́dó, há+ɜmo→hámo(하-)
ㄴ. koónhá+ko→koónhágo, koónhá+tɜ̀la→koónhádɜra,
koónhá+ato→koónhɛ́ɛdo, koónhá+ɜmo→koónhámo(勸하-)

(88)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月城語는 語幹 (X)ha-가 語尾 a 와 結合할 때 jɜɜ 를 實現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ɛ́ɛ 를 實現한다. 이 現象을 說明하기 위하여 이 問題에 대한 從來의 見解를 檢討할 필요가 있다. 生成音韻論의 見地에서 이 問題를 취급한 글에 金鎭宇(1968), 金榮起(1973), 이병건(1976) 等이 있다. 이들 글에서는 動詞 ha-가 語尾 a 와 結合하여 音聲形으로 導出되는 過程을 (89)와 같이 說明하고 있다.

(89) ㄱ. 金鎭宇(1968 : 521) : 다음과 같은 두 가지 說明을 하고 있다.

① /ha-yə/		② /ha-ya/	
hay-ə	-와 y 의 도치	ha ay	어미의 y 와 a 의 도치
hay	ə 삭제	[hɛ̄]	
[hɛ]		(ɛ̄ 의 -는 長音表示)	

ㄴ. 金榮起(1973 : 222) :

/ha+əla/

ha ala 모음조화

hayala y 삽입

haayla 도치

ha: yla 모음축약

hæ: la 단모음화

[hæ: ra]

ㄷ. 이병건(1976 : 108) :

/ha+yə/

hæ+ə 모음축약

hæ 모음삭제

[hæ]

(89)에서 우리는, 規則의 名稱은 다르지만, 이(1976)과 金(1968①)은 導出過程이 同一하며 金(1973)은 語尾의 基底形을 달리 잡은 것 이외에는 金(1968②)와 導出過程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9ㄱ-ㄷ)의 說明은 올바른 音聲形을 導出시키기 위하여 y(이것은 이 책에서 使用되는 j와 同一하다.)를 語尾 또는 語尾의 一部인 a와 倒置시키고 다시 語幹의 a와 縮約시키는 規則을 設定하고 있다. 그러한 規則과 規則適用의 順序를 話者들이 과연 理解하고 있는가. (89)의 說明에 대하여 이러한 疑問이 提起되는데 現在의 著者로서는 그 疑問에 대하여 否定的이다. 著者의 생각은 (89)의 導出過程이, 動詞 (X)ha-가 語尾 a와 結合하여 遂行하는 共時的 音韻過程이 아니라, (X)ha-가 (X)hɛ-로 되는 通時的 再構造化 過程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다음과 같은 事實에 바탕을 둔 것이다.

먼저 提示할 수 있는 것은 動詞 ha-와 역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動詞 maánh-(多), kát^h-(如), p^{h}aaláh-(碧) 等이 보이는 (90)의 音韻現象이다.

(90) ㄱ. maánh+ko→maáŋk^{h}ó, maánh+tɜ́la→maánt^{h}ɜ́ra,

maánh+ato→maánɛ́ɛdo, maánh+ʒmo→maánʒmo

ㄴ. kat^h+ko→kakk'o, kat^h+tɜ́la→kátt'ɜ́ra,

kat^h+ato→kát^{h}ɛ́ɛdo, kat^h+ʒmo→kát^{h}ɜ́mo

ㄷ. p^{h}aaláh+ko→p^{h}aarákk^{h}o, p^{h}aaláh+tɜ́la→p^{h}aaratt^{h}ɜ́ra,

p^{h}aaláh+ato→p^{h}a[illegible]ɛːdo, p^{h}aaláh+ʒmo→phaarámo

(90)의 動詞들이 語尾 a와 결[illegible]될 때 우리가 期待할 수 있는 音聲形은 maánado, kát^{h}ádo, p^{h}aarádo인[illegible] 실제로 實現되는 音聲形은 動詞 (X) ha-의 경우와 同一하다. 共時的인 觀點에서 이 現象은 (89)에 提示된 어느 方法으로도 說明될 수 없다. 可能한 方法은 (90)의 動詞는 語尾 a 대신 ɛː를 選擇한다는 程度의 制約을 加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說明은 지나치게 人爲的이다. 만약 通時的인 考慮가 介入된다면 우리는 그들 動詞가 過去에 '만ㅎ一, 곧ㅎ一, 파라ㅎ一'로서 語幹末音節로 모두 'ㅎ'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 事實을 根據로 (90)의 動詞들이 각각 maánhá-, katha-, p^{h}aalahá-의 基底形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89)에 提示된 어느 한 가지 方法에 의하여 共時的 音韻現象을 容易하게 說明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動詞가 語尾 a와 結合할 때의 音聲形만 說明할 수 있을 뿐이며 子音이나 ʒ(또는 i)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할 때의 音聲形은 說明할 수 없다. 따라서 두 개의 語幹 중에서 어느 하나를 基底形으로 취한다 하여도 다른 하나의 語幹形을 導出시킬 方案을 講究할 수 없다. 可能하다면 maánhá-類를 基底形으로 삼고 子音이나 ʒ(또는 i)로 시작되

는 語尾 앞에서 語幹末母音 a가 削除되는 規則을 設定함으로써 maánh-類가 導出되는 方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편하—'나 '미안하—' 等이 '펑코, 펀터라'나 '미망코, 미안터라' 等과 같이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 앞에서 語幹末母音 a를 削除시키는 사실에서 뒷받침된다. 이 때에도 우리가 注目해야 할 것은, '편하—, 미안하—'가 語幹末母音 a를 削除시키는 것은 任意的이지 義務的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 動詞는 '펑코, 미앙코'나 '편하고, 미안하고' 等으로 實現될 수 있는데 반하여 maánhá-類는 maáŋk^hó, kákk'ó, p^harákk^{h}o는 可能하나 ‡maánhágo, ‡kát^{h}ágo, ‡p^haaráhágo는 不可能한 것이다.

우리는 所謂 li變則活用을 考察함으로써 動詞 ha-가 語尾 a와 結合할 때 實現시키는 音韻現象에 대하여 새로운 說明方案을 講究할 수 있다. 먼저 (91)의 活用形을 보자.

(91) ㄱ. tarígo, taridɜ́ra, tállado, tarímo(異)

ㄴ. purígo, puridɜ́ra, púllado, purímo(呼)

(91)에서 注目되는 것은 語尾 a와 결합되는 경우의 音聲形이다. 子音이나 ɜ̟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될 때의 語幹末音節은 /…li-/라고 하겠는데 語尾 a와 결합된 후의 音聲形을 보면 語幹末音 i가 削除되고 l이 添加되어 있다. 이 現象은 方言差를 보이지 않는다. 이 現象 역시 여러 사람의 關心事가 되어 왔으나 아직도 見解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現象에 대한 旣往의 硏究를 檢討하면서 論議를 계속하기로 하자.

이 現象에 대하여 최현배(1965 : 335)는 語尾 ə 앞에서 語幹末音 i가 削除되고 l이 語尾에 添加된다고 한다. 이 說明은 同一한 語幹構造를 가지고 있는 '치르—'(拂) 等의 動詞가 語尾 ə와 結合할 때에 '‡칠러'가 아닌 '치러'로 되는 事實을 說明하지 못한다.

그 결함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金鎭宇(1970 : 7—8)에 보인다. 金(1970)은 基底流音으로 /r/(=ㄹ)과 /l/(=ㄹㄹ)을 設定하고 (91)의 動詞(이 例는 著者가 任意로 選定한 것임.)의 基底形을 tali-와 puli-로 잡고 語尾 ə 앞에서 i가 削除되는 규칙에 의하여 音聲形 [talə](=달러)와 [pulə](=불러)가 導出된다고 說明한다. 아울러 音聲形 [tarigo](=다르고)나 [purigo](=부르고)는 [l]이 母音 사이에서 [r]로 변하는 國語의 '通則'에 의하여 說明된다고 한다. 그런데 注目할 것은 어떤 [l]은 母音 사이에서 [r]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르다, 부르다'와 짝을 이루는 '달르다, 불르다'의 [l]이라는 것이다.

위의 說明에는 쉽게 理解할 수 없는 部分이 있다.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國語의 基底音素로서 두 개의 流音 r과 l이 認定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l]이 母音 사이에서 [r]로 변하는 것이 國語의 '通則'이라면 어째서 [talə]나 [pulə]의 [l]은 母音 사이에서도 [r]로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注目을 要했던 바와 같이 [l]이 母音 사이에서 任意的으로 [l]이나 [r]의 共存을 보인다면 당연히 [tarə]나 [purə]와 같은 音聲形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音聲形에서 그런 것은 전혀 發見되지 않는다. 그러한 事實을 분명히 理解할 수 있는 證據가 提示되지 못한다면 앞의 설명은 資料만을 說明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金榮起(1975 : 83—84)에는 다른 說明이 發見된다. 金(1975)는 li 變則動詞의 語幹末音節을 /…lli-/로 잡고 任意的으로 적용되는 ll의 감소(Geminate-l Reduction) 규칙 즉, ll→l/V—i&를 設定하여 talli+ko가 tarigo로, talli+ə가 tallə로 되는 사실을 說明한다. 이 說明에서 문제로 提起될 수 있는 것은 子音이나 i로 시작되는 語尾 앞에서 두 개의 l중 하나가 감소된다는 규칙의 妥當性이다. 그런 환경에서 l이 감소될 수 있는 音韻論的 動機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그러한 음운과정을 立證할 수 있

먼저 (92)에서 그 사실을 確認하고 論議를 계속하기로 하자.

(92) ㄱ. silh+ko→silkʰo, silh+tɜ́la→síltʰɜ́ra,

silp+ato→sílbádo, silp+ɜ̟mo→sílbúmo

ㄴ. ciíʔ+ko→ciíkk'ó, ciíʔ+tɜ́la→ciítt'ɜ́ra,

cíu+ato→cíado, cíu+ɜ̟mo→cíumo

ㄷ. suŋkúh+ko→sugúkkʰo, suŋkúh+tɜ́la→suŋguttʰɜ́ra,

sumúu+ato→sumáado, suŋúu+ɜ̟mo→suŋgúumo

(92)에서 確認되는, 個別 動詞가 가지고 있는 두개의 語幹形은 하나의 基底形으로부터 共時的으로 導出될 수 없다. 그러나 두개의 語幹形은 처음부터 起源을 달리했던 것이 아니다. 語幹의 構造가 보여 주는 類似點은 그들 語幹 中 어느 하나가 一定한 環境의 制約 속에서 再構造化하였거나 語幹의 分離가 일어났거나 하였음을 말해 준다. (92ㄱ)의 動詞는 원래 단일 語幹 silh-을 가졌던 것인데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하는 過程에서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만 結合되는 silp-이 派生되었고 (92ㄴ)의 動詞는 원래 單一語幹 ci:z-이었던 것이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되는 過程에서 ciíʔ-으로,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되는 過程에서 cíu-로 달리 變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2ㄷ)의 動詞도 單一語幹 simk-에서 起源된 것이라 하겠는데 語尾 a와 結合되는 過程에서 원래의 語幹末音 k가 削除된 sumúu-로 변하고 子音이나 ɜ̟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되는 過程에서 suŋkúu-로 변하였다고 하겠다.[32]

pak'úh-(換), katúh-(囚) 等 二音節語幹을 가진 動詞로서 語幹末音節이 Cu이며 固定的 LHL의 聲調形을 가진 動詞들도 (92)의 動詞와 같은

32) 後期 中世語에서 이 動詞는, 大津地域語와는 반대로,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 앞에서는 '시므—'를,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 앞에서는 '싦—'을 택하였다(李基文 1972b : 159).

는 內的 證據나 外的 證據가 發見되지 않으므로 위의 규칙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이병건(1976 : 108—112)은, 金(1970)과 金(1975)와는 달리, li 變則動詞의 語幹末音節을 /…li-/로 잡고 그것이 語尾 ə와 結合할 때는 ə 대신 形態素的으로 條件지어진 lə를 취한다고 하여 音聲形 talla나 pullə를 說明한다. 이 說明에서 提起되는 문제는 li 變則動詞만이 ə 대신 lə를 취하는 이유가 動機化될 수 없다는 것, l 앞에서 語幹末音 i가 削除되는 音韻論的 理由가 分明하지 않다는 것, 共時的 音韻過程에서 子音을 先行시키는 語尾에 母音調和規則을 適用함으로써 母音調和의 일반성을 違背하고 있다는 것 等이다. 그러므로 그 설명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2·21·4 새로운 解決方案

3·2·21·3에서는 所謂 jə 變則活用과 li 變則活用에 대한 그 동안의 研究結果를 檢討하고 그에 대한 著者의 見解를 開陳하였다. 同一한 現象에 대하여 說明하는 方法이 論者마다 달랐던 것을 우리는 記憶하게 되는데 그것은 問題의 解決方案이 달리 講究되어야 할 것을 말해 준다. 그 問題의 解決을 試圖함에 있어서 著者는, 語幹의 再構造化는 結合되는 語尾頭의 音韻環境에 따라 달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假說에서 出發한다.

이 假說의 妥當性을 뒷받침해 주는 例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慶北 寧海의 大津地域語의 動詞 sílh-~sílp-(憎)과 月城語의 動詞 ciíʔ-~cíu-(造), 그리고 大津地域語의 動詞 suŋkúh-/suŋkúu-~sumúu-(植) 等이 그것이다. 앞의 두 動詞는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하면 각각 sílh-과 ciíʔ-를 택하고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하면 각각 sílp-과 cíu-를 택한다. 그리고 세번째 動詞는 子音이나 ɜ̟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하면 suŋkúh-/suŋkúu-를 택하고 語尾 a와 結合하면 sumúu-를 택한다.

例에 속한다. 이들 動詞의 通時的 變化는 2·12·5에서 論議된 바 있으며 3·2·13에서는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語幹 /…Cúu-/가 사용되고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 앞에서는 再構造化된 /…Cúh-/가 사용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즉 그들 動詞는 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되는 過程에서 再構造化를 일으킨 例가 된다.

여기에 追加될 수 있는 것에 (90)의 動詞들이 있다. 그들 動詞의 活用에서 나타나는 音韻現象은 單一 基底形으로부터 說明될 수 없다는 것이 앞에서 論議되었으므로 再論하지 않거니와 單一 基底形으로부터 모든 音聲形이 說明될 수 없는 理由는 子音 또는 i로 시작되는 語尾나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되는 동안에 語幹의 再構造化가 달리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動詞 manhʌ-, kʌthʌ-, p^{h}alahʌ-는 子音이나 i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되는 동안에 각각 maánh-, kát^{h}-, p^{h}aaláh-(語尾 i 앞에서는 p^{h}aalá-)으로 再構造化하고 a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되는 동안에 각각 maánɛ́ɛ-, kát^{h}ɛ́ɛ-, p^{h}aalɛ́ɛ-로 再構造化하였다는 것이다.[33]

소위 jə變則活用과 li變則活用에 대한 解決方法이 論者마다 다르고 設定된 규칙이 話者의 言語能力을 反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올바른 音聲形을 導出해내기 위한 것과 같은 印象을 주는 것은 그들 動詞의 語幹이 a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하는 동안에 각각 (X)hɛ́ɛ-, (中部方言은 (X)

33) ㉠ 語尾 a와 결합되는 語幹末音이 /…ɛ́ɛ/와 같이 長音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非語頭音節에서는 語尾 a가 完全順行同化하여도 長音이 實現되지 않는다는 것과 非語頭音節이 가지고 있는 잉여적인 長音은 어떠한 음운환경에서도 短母音化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後者에 대해서는 3·2·11을 참조할 것.

㉡ 現代國語에서 所謂 h變則活用이라고 하는 것은 i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할 때 語幹末音 h가 삭제됨과 아울러 語尾 i도 삭제되는 것을 말한다. h變則動詞라는 것이 모두 /…hʌ-/에 遡及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들 動詞가 hʌ-와 관련을 가지지 않는 co:h-(好), noh-(放)等의 動詞와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 理由를 알 수 있다. 즉 /…hʌ+iX/에서는 母音으로 끝나는 語幹 뒤에서 i가 삭제될 뿐이며 i 다음에 오는 音素는 모두 有聲子音이므로 有聲音 사이에서 (hʌ>)h가 삭제될 것이다. 이와 같은 通時的 事實이 共時的으로 계속되는 것이 h變則動詞의 音韻行爲이다. 여기서도 再構造化와 音韻現象과의 關係를 알아 볼 수 있다.

hɛ:-)와 /…llɜ̟-/ (中部方言은 /…lli-/)로 再構造化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考慮하지 않고 單一 基底形에서 모든 音聲形을 導出해 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X)ha-가 (X)hɛ́ɛ-(中部方言 (X)hɛ:-)로 再構造化했음을 알려 주는 좋은 證據로 kɜlɛɛ́to(그래도), kɜlɛɛ́káa(그래서), kɜlɛɛ́ja(그래야), kɜlɛ kɜlɛ(그래그래) 等의 副詞語를 들 수 있다. 그것들이 'kɜliha+aX' (그리하+어X)에서 再構造化한 것임은 分明하다. 그것들은, 動詞와는 달리, 交替形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再構造化된 語形이 그대로 認定되어 辭典에 登錄되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jə 變則動詞나 li 變則動詞들이 語尾 a와 결합될 때에 나타내는 (X)hɛ́ɛ-((X)hɛ:-)나 /…llɜ̟-/ (/…lli-/)도 通時的인 것으로 認定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共時的으로는 子音이나 ɜ̟로 시작되는 語尾와 결합하는 語幹과 a로 시작되는 語尾와 결합하는 語幹이 따로 認定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話者의 言語能力을 사실대로 反映하는 것이 될 것이다.

月城語를 포함한 東南方言의 下位方言은 子音이나 ɜ̟로 시작되는 語尾와 결합할 때 li 變則動詞에 해당되는 動詞들이 [⋯ri-]를 實現하는데 그것은 그들 動詞의 語幹이 子音이나 ɜ̟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하는 過程에서 /…li-/>/…li-/와 같이 再構造化를 일으켰음을 뜻한다. 따라서 그들 動詞는 共時的으로 /…lí-/와 /…V́llɜ-/라는 두개의 語幹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4]

지금까지의 論述을 綜合하여 (88), (90), (91)에 提示된 動詞들이 子音이나 ɜ̟, 또는 a로 시작되는 語尾와 결합하여 音聲形으로 導出되는 過程을 보이면 (93)과 같다.

---

34) 崔明玉(1979 : 16, 1980a:176)에서는 子音이나 ɜ̟로 시작되는 語尾와 結合되는 語幹을 /…lɜ-/라고 보았는데 그렇게 보아야 할 理由가 없다. 語幹의 再構造化는 語尾頭의 環境에 따라서 달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lí-/로 再構造化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자기 言語에 대한 話者의 理解를 그대로 反映하는 것이 될 것이다.

(93) ㄱ. /há+ko/ /maánh+ko/ /talí+ko/

—— maan kʰo —— 규칙(55)

—— maaŋ kʰo —— 규칙(66)

[hágo] [maáŋkʰó] [tarígo]

ㄴ. /há+ʒmo/ /maánh+ʒmo/ /talí+ʒmo/

ha mo —— tali mo 규칙(18b)

—— maán ʒmo —— 규칙(37)

[hámo] [maánʒmo] [tarímo]

ㄷ. /hɛ́ɛ+ato/ /maánɛ́ɛ+ato/ /tállʒ+ato/

—— —— tall ato 규칙(18c)

hɛɛ ɛto maanɛɛ ɛto —— 규칙(39)

[hɛ́ɛdo] [naánɛ́ɛdo] [tállado]

지금까지의 叙述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t變則活用은 그대로 變則으로 認定되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動詞의 語幹末音인 t 밑에 그것이 變則임을 표시하는 區別資質 表示를 하고 그 표시가 되어 있는 t만이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 앞에서 l로 交替되는 규칙이 適用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所謂 s變則動詞들의 語幹末音을 z나 s로 잡는 것은 言語事實을 올바로 反映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들 動詞의 語幹末音을 z나 s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 動詞가 後期 中世語에 z(△)를 語幹末音으로 가졌기 때문인데 後期 中世語에 語幹末音으로 z를 가지지 않았던 動詞로서 s變則活用과 同一한 現象을 보이는 경우에 그들 動詞의 語幹末音을 z나 s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後期 中世語에 語幹末音으로 z를 가졌던 動詞가 現在 語幹末音으로 h를 가지게 된 地域語가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에 의하면 s變則動詞의 語幹末音은 ?라고 보아야

한다.

語幹은 結合되는 語尾頭의 音韻環境에 따라 再構造化가 달리 이루어질 수 있다. 再構造化된 語幹은 그 自體가 基底形으로 表示되어야 한다. 所謂 jə 變則動詞와 li 變則動詞가 語尾 a와 結合될 때 나타내는 [(X)hέɛ-] (中部方言[(X)hɛ:-])와 [···ll-]은 共時的인 音韻過程에 의한 것으로 說明될 수 없다. 그것들은 語尾 a와 結合하는 過程에서 語幹이 再構造化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子音이나 ɜ̟(또는 i)로 시작되는 語尾와 결합하는 語幹과는 독립된 語幹으로 認定되어야 한다. 이 사실은 둘 以上의 交替形이 반드시 單一基底形으로부터 導出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며 그것은 모든 交替形을 單一基底形으로부터 導出해 내려는 生成音韻論의 說明方式이 再考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 이러한 事實을 認定하지 않고 單一基底形으로부터 모든 音聲形을 音韻規則에 의하여 說明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共時的 記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話者들이 理解하지 못하는 規則을 設定하거나 設定된 規則에 대하여 복잡한 規則適用順序를 定함으로써 文法을 복잡하게 만들게 될 것이며 話者의 言語能力을 捕捉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文法을 만들게 될 것이다.

第4章 結 論

4·1 第2章과 第3章에 걸쳐서 우리는 月城語가 겪은 音韻變化와 現代月城語에 存在하는 音韻變動에 대하여 考察하였다. 單一地域語에 대하여 이와 같이 通時的 音韻研究와 共時的 音韻研究를 아울러 하는 데에는 그 동안 國語方言(또는 地域語) 研究史에서 그러한 研究가 全無하다는데 대한 著者 스스로의 覺醒에 基因하거니와,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이유는 地域語의 研究가 곧 現代國語의 研究라는 所信에서 個別 地域語에 存在하는 音韻規則을 可能한 限 많이 發見해 내고 規則 相互間의 關係를 통하여 音韻 過程을 說明함으로써 現代國語의 音韻研究에 寄與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共時的 音韻研究의 目的이다. 한편 月城語에 대한 通時的 音韻研究는 그 自體가 國語史에 대한 理解의 幅을 넓힌다는 目的도 있지만 現代國語에서 發見되는 形態音素의 交替는 國語史에서 發生한 音韻變化에 基因하므로 現代國語의 諸音韻現象에 대하여 올바로 理解하기 위한 目的도 있다. 이 밖에 通時的 音韻研究는 共時的으로 設定된 規則의 妥當性 與否를 決定할 수 있는 實體的 證據(substantive evidence)를 提供하므로 또한 必要한 것이다.

月城語의 歷史를 알아 볼 수 있는 文獻이 全無한 狀態에서 月城語의 音韻史를 論한다는 것은 매우 虛荒된 感이 있다. 그러나 音韻變化는 規則的이며 모든 音韻變化는 一定한 順序에 따라 發生한다는 前提下에서 共時的

資料 속에 化石化된 變化의 결과를 가려내고 그러한 變化를 後期 中世나 近代 및 現代 中部方言의 音韻史와 比較하고 變化 相互間의 關係를 통하여 變化의 性格을 究明할 수 있다. 이러한 方法에 의하여 잊혀졌던 月城語의 音韻史를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었다고 하겠다.

한편 共時的 音韻變動은 形態素境界가 本領이므로 活用과 曲用을 통하여 研究되었다. 그 結果 活用과 曲用 사이에는 어느 程度 音韻現象에 差異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形態素境界에서 適用되는 상당수의 音韻規則은 月城語가 겪은 形態素內部에서의 音韻變化規則과 거의 一致한다는 것도 알았다.

音韻變化이거나 音韻變動이거나 간에 그러한 現象은 音韻規則에 支配되는 것이므로 諸現象을 통하여 그들 現象을 支配하는 規則의 發見에 腐心하였다. 그리고 音韻規則은 독자적일 수도 있지만 規則 相互間에는 밀접한 관계가 成立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音韻現象에 대한 올바른 理解를 위하여 規則들의 相互關係에도 注目하고자 했다.

4·2 第2章은 通時音韻論으로서 音韻變化와 音韻變化의 規則이 考察되었다. 母音體系의 變化에서 우리는 月城語가 後期 中世의 中部方言과 同一한 7母音體系로부터 ʌ의 소멸과 二重母音의 單母音化에 의한 8母音體系를 거쳐 i, ə와 e, ɛ가 中和됨으로써 現在의 6母音體系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母音體系의 변화는 中部方言의 母音體系의 변화와는 다른데, 바로 그러한 母音體系의 變化差가 月城語와 中部方言이 通時的으로 또는 共時的으로 音韻論的 差異를 보이게 한 要因이라 생각된다. 한편, 관심을 月城語로 옮기면 그러한 母音體系의 單純化는 자연히 二重母音體系의 單純化를 惹起시켰고 그 결과는 전체적인 音韻規則의 單純化를 惹起시켰다고 할 수 있다. 月城語의 音韻變化는 單純化와 더불어 强化쪽으로도 進行되었다. 語頭硬音化, h>k, 語幹末 齒擦音의 齒槽閉鎖音化,

#σCúu->#σCúh-와 같은 再構造化 等이 그러한 例가 되거니와 古代國語가 β와 z를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p, β와 s, z가 合流되었는가 하는 문제도 以上과 같이 月城語가 單純化와 强化를 向하여 變化를 계속해 왔다는 事實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것이 第2章에서 論議된 內容이다.

4·3 第3章은 共時音韻論으로서 共時的音韻變動과 音韻規則이 論議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同化와 削除가 月城語의 共時的 音韻變動의 特徵임을 알 수 있었다. 前者는 前舌高母音化, 圓脣母音化를 비롯하여 完全順行同化, 鼻母音化, i母音逆行同化, t口蓋音化, 子音同化 等의 規則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i母音逆行同化規則을 除外하면 모든 規則이 義務的으로 適用된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었다. 이 말은 後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後者는 滑音削除를 비롯하여 ᶾ削除, 同音削除, 喉音削除, n과 ŋ削除, 流音削除 等의 規則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도 流音削除規則의 一部를 除外하면 모든 規則이 義務的으로 適用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共時的 音韻規則은 第2章에서 論議된 通時的 音韻規則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4·4 以上과 같은 것이 本論의 간략한 要約이 되겠는데, 單一地域語에 대한 通時的 研究가 이 책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方法으로 얼마만큼 正確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著者 自身도 分明하게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通時的 音韻研究에 대하여, 基準으로 삼을 어떠한 모델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적 現在에 研究가 可能하리라고 생각되는 問題들을 택했지만 研究 過程에 잘못 理解된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것은 共時的 音韻變動에 대한 研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問題들을 밝혀서 修正하고 研究 方法을 改善하는 作業이 앞으로 남아 있는 課題라고 할 것이다.

参 考 論 著

姜信沆

1978. "中國字音과의 對音으로 본 國語母音體系," 「國語學」7.

1980. 「鷄林類事「高麗方言」研究」(首善新書 1), 成均館大出版部.

金手坤

1976. *Palatalization in Korean,* 광문사.

1977. "'ㅂ'變則動詞의 음운론적 意義," 「언어」 2—2.

1978. "現代國語의 움라우트現象," 「國語學」 6.

金手坤, 金泳喆

1978. "形態素의 基底音韻表示 制約條件들에 對한 考察," 「어학」 (全北大) 5.

金榮起

1973. "'Irregular' verbs in Korean Revisited," 「語學研究」 9—2.

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탑출판사.

金永松

1963. "音韻面," 「慶尚南道誌」 (中).

1974. "慶南方言," 「國語方言學」. 螢雪出版社.

金完鎭

1963. "國語 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檀學報」 24.

1964. "中世國語 二重母音의 音韻論的 解釋에 對하여," 「學術院論文集(人文, 社會)」 4.

1967. "韓國語發達史 上(音韻史)," 「韓國文化史大系(言語·文學史)」 V.

1971 a. "音韻現象과 形態論的 制約," 「學術院論文集(人文, 社會)」 10.

1971 b. 「國語音韻體系의 研究」, 一潮閣.

1972 a. "다시 β>w를 찾아서," 「語學研究」 8—1.

1972 b. "形態論的 懸案의 音韻論的 克服을 爲하여 —이른바 長母音의 境遇—," 「東亞文化」(서울大) 11.

1973. 「中世國語聲調의 研究」, 韓國文化研究叢書 11.

1974. "音韻變化와 音素의 分布—脣輕音 'ㅸ'의 境遇," 「震檀學報」 38.

1975 a. "全羅北道 方言 音韻論의 研究方向 設定을 爲하여," 「어학」 (全北大) 2.

1975 b. "音韻論的 誘因에 의한 形態素重加에 대하여," 「國語學」 3.

1978. "音韻體系와 母音調和에 대한 反省," 「語學研究」 14—2.

1979. "方言研究의 意義," 「方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

1980. 「鄕歌解讀法研究」, 韓國文化研究叢書 21, 서울大出版部.

金鎭宇

1968. "The Vowel System of Korean," *Language* 44—3.

1970. "所謂 變格用言의 非變格性에 關하여," 「韓國言語文學」 8·9.

1976. "國語音韻論에 있어서의 母音音長의 機能," 「語文研究」 (忠南大) 9.

김차균

1971. "변칙용언 연구," 「한글」 147.

1977. "경상도 방언의 성조체계." 서울大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金亨奎

1974. 「韓國方言研究」, 서울大 出版部.

南廣祐

1962. 「國語學論文集」, 一宇社.

1962. "ㅸ ㅿ論攷," 「國語學論文集」, 一宇社.

都守熙

1981. "忠南方言의 움라우트 現象,"「方言」5.

文孝根

1962. "大邱方言의 高低長短,"「人文科學」(延世大) 22.

朴炳采

1968. "古代國語의 '△-z-' 音韻攷,"「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乙酉文化社.

1977.「古代國語의 研究, 音韻篇(3版)」, 高麗大出版部.

徐在克

1969. "慶州方言의 副詞形 -a 와 鄕札 -良-,"「語文學」21.

徐禎穆

1981. "慶南 鎭海地域語의 움라우트 現象에 관하여,"「方言」5.

徐州烈

1981.「全南·慶南方言의 等語地帶研究」, 서울, 正和出版文化社.

孫 漢

1977. "On the Regularization of Irregular Verbs in Korean,"「語學研究」13—1.

송병학

1979. "한국어의 수동태,"「언어」4—2.

송석중

1978. "使動文의 두 形式,"「언어」3—2.

宋喆儀

1977. "派生語形成과 音韻現象,"「國語研究」38.

安秉禧

1959. "15世紀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的 研究,"「國語研究」7.

1965. "文法論,"「國語學概論」(國文學研究會編), 首都出版社.

1967. "文法史,"「韓國文化史大系(言語・文學史)」V.

梁柱東

1942.「朝鮮古歌研究」, 博文書館.

劉昌惇

1964.「李朝國語史研究」, 宣明文化社.

1971.「李朝語辭典(再版)」, 延世大出版部.

이광호

1978. "경남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國語學」6.

李基文

1959. "一六世紀 國語의 研究,"「文理論集」(高大) 4.

1962. "中世國語의 特殊語幹交替에 대하여,"「震檀學報」23.

1968. "母音調和와 母音體系,"「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乙酉文化社.

1969. "中世國語 音韻論의 諸問題,"「震檀學報」32.

1972 a.「國語音韻史研究」, 韓國文化研究叢書 13.

1972 b.「改訂 國語史槪說」, 民衆書館.

1977. "濟州島方言의 'ᄋᆞ'에 관련된 몇 問題,"「國語國文學論叢(李崇寧先生 古稀紀念)」, 塔出版社.

1979. "中世國語 母音論의 現狀과 課題,"「東洋學」9.

李起泰

1980. "言語變化의 機制에 관한 研究." 東亞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이병건

1976.「현대 한국어의 생성음운론」, 일지사.

1977. "현대 한국어의 구개음화 규칙,"「언어」2—1.

1978. "한국어의 음운변천," 「언어학」 3.

1979. "이른바 거꾸로 먹이기 순서," 「언어」 4—1.

李秉根

1969. "京畿地域語의 形態音韻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6.

1970 a. "京畿地域語의 母音體系와 非圓唇母音化," 「東亞文化」 (서울대) 9.

1970 b. "19世紀 後期 國語의 母音體系," 「學術院論文集(人文, 社會)」 9.

1973. "東海岸方言의 二重母音에 대하여," 「震檀學報」 36.

1975. "音韻規則과 非音韻論的 制約," 「國語學」 3.

1976 a. "派生語形成과 i 逆行同化規則들," 「震檀學報」 42.

1976 b. "19세기 國語의 母音體系와 母音調和," 「국어국문학」 72·73.

1977. "子音同化의 制約과 方向," 「國語國文學論文集 (李崇寧先生古稀紀念)」, 塔出版社.

1978. "國語의 長母音化와 報償性," 「國語學」 6.

1979. "國語方言研究의 흐름과 反省," 「方言」(韓國精神文化研究院) 1.

李炳銑

1967. "鼻母音化現象考 —慶尙道方言을 中心으로," 「국어국문학」 37·38.

1971. "慶南方言에서의 母音調和現象," 「국어국문학」 54.

李崇寧

1947. "母音調和研究," 「震檀學報」 16.

1949. "'애, 에, 외'의 音價變異論," 「한글」 通卷 106號.

1954 a. /1958. "唇音攷 —特히 唇輕音 「ㅸ」을 中心으로하여—," 「音韻論研究 (再版)」, 民衆書館.

1954 b. /1958. "15世紀의 母音體系와 二重母音의 Kontraktion 的 發 發達에 對하여," 「音韻論研究(再版)」, 民衆書館.

1954 c. 「國語音韻論研究 第一集 '·' 音攷」, 乙酉文化社.

1956/1960. "△音攷," 「國語學論攷」, 東洋出版社.

1957.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東方學志」 3.

1959. "'·' 音考再論", 「學術院論文集(人文, 社會)」 1.

1961.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1967. "韓國方言史," 「韓國文化史大系(言語·文學史)」 V.

李丞宰

1980. "求禮地域語의 音韻體系," 「國語研究」 45.

李翊燮

1972 a. "江陵方言의 形態音素論的 考察," 「震檀學報」 33.

1972 b. "國語方言研究史," 「국어 국문학」 58—60.

1979. "方言資料의 蒐集方法," 「方言」 1.

李熙昇

1947. 「朝鮮語學論攷」, 乙酉文化社.

田光鉉

1976. "南原地域語의 語末—U型語彙에 대한 通時音韻論的 小考," 「國語學」 4.

1978. "東海岸方言의 語彙(1)," 「國文學論集」 (檀國大) 9.

鄭 國

1980. *Neutralization in Korean: A Functional View*, Ph.D. Dissertation, Texas University.

鄭然粲

1968. "慶南方言의 母音體系," 「國文學論集」 (檀國大) 2.

1974. "慶尙道方言 聲調硏究." 서울大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1980. "慶南方言 音韻의 몇 가지 問題 ―特히 固城, 統營地方을 中心으로," 「方言」 4.

崔明玉

1974. "慶南 三千浦方言의 音韻論的 硏究," 「國語硏究」 32.

1976. "西南慶南方言의 副詞化接辭 '―아'의 音韻現象,' 「國語學」 4.

1978 a. "東南方言의 세 音素," 「國語學」 7.

1978 b. "ㅸ, △와 東南方言," 「語學硏究」 14―2.

1979. "東海岸方言의 音韻論的 硏究 ―慶北 盈德郡 寧海面 漁村을 中心으로―," 「方言」 2.

1980 a. 「慶北 東海岸方言 硏究 ―盈德郡 寧海面을 中心으로―」 (民族文化叢書 4), 嶺南大出版部.

1980 b. "慶北 月城方言의 音韻變化에 대하여," 「新羅伽倻文化」 (嶺南大) 11.

崔銓承

1975. "中世國語에서의 異化作用에 의한 圓脣性資質의 消失에 대하여," 「國語硏究」 33.

崔泰榮

1978. "全州方言의 Umlaut 現象," 「어학」 (全北大) 5.

崔鶴根

1976. "全羅道方言硏究 音韻篇 〈母音〉," 「국어국문학」 70.

1978. 「國語方言辭典」, 玄文社.

1980. "平安道方言硏究," 「韓國方言」 (韓國方言學會) 創刊號.

최현배

1965. 「깁고고침 우리말본(네번째 고침)」, 정음사.

許 雄

1952. "'애 · 에 · 외 · 위'의 音價," 「국어국문학」 1.

1955. "傍點研究," 「東方學志」 2.

1963. 「中世國語 研究」, 正音社.

1965. 「國語音韻學(改稿新版)」, 正音社.

1968. "국어의 상승적 이중모음 체계에 있어서의 '빈간' (case vide),"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乙酉文化社.

洪淳鐸, 李敦柱

1974. "全羅南道方言," 「國語方言學」 (韓國方言學會), 螢雪出版社.

小倉進平

1940.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Tokyo.

1944. 「朝鮮語 方言の 研究」 下, 東京, 岩破書店

河野六郎

1945. 「朝鮮方言學試攷 —「鋏」 語攷—」, 京城.

Anderson, S. R.

1974. *The Organization of Phonology,* New York: Seminar Press.

Anttila, R.

1972.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Bach, E.

1968. "Two proposals concerning the simplicity metric in phonology," *Glossa* 2—2.

1974. *Syntactic Theo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Barrach, C.M.

1975. *A Diachronic Phonology from Proto-Germanic to Old English stressing West-Saxon conditions.* The Hague: Mouton.

Bloomfield, L.

1933. *Language,* New York: Holt.

Botha, R.P.

1970. *The Methodological Status of Grammatical Argumentation,* the Hague: Mouton.

Bynon, T.

1977.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fe, W.L.

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omsky, N.

1964.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in Fodor and Katz (1964)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and Row.

Fodor, J.A. and J.J. Katz (eds.)

1964. *The Structure of Language.* Englewood Cliffs.

Foley, J.

1977. *Foundations of Theoretical Phonology,* New York: Cam-

bridge University Press.

Fudge, E.C. (ed.)

1973. *Phonology.* Penguin Books.

Halle, M.

1962. "Phonology in Gerative Grammar," in Fodor and Katz (1964)

1964. "On the Bases of Phonology," in Fodor and Katz (1964)

Harms, R.T.

1968. *Introduction to Phonological Theory,* Englewood Cliffs.

Harris, Z. S.

1951. *Methods in Structural Linguistic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Hausmann, R.B.

1975. "Underlying Representation in Dialectology," *Lingua* 35.

Heffner, R.M.S.

1950/1969. *General Phonetics,* the Uniuersity of Washington Press.

Hockett, C.F.

1955. *A Manual of Phonology,* Baltimore.

1967. *A Course in Mordern Linguistics* (12th printing), New York: Macmillan.

Hyman, L.M.

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Holt, Renehart and Winston, Inc.

Hooper, J.B.

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Jakobson, R.

1931. "Principle of Historical Phonolgy," in A.R. Keiler (1972)

Joos, M. (ed.)

1966. *Readings in Linguistics* 1, Chicago University Press.

Keiler, A.R. (ed.)

1972. *A Reader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Holt, Renehart and Winston, Inc.

Kenstowicz, M. and C. Kisseberth

1979. *Generative Phonology,* Bloomington & 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King, R.D.

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Kiparsky, P.

1968 a. "Linguistic Universals and Linguistic Change," in E. Bach and R.T. Harms (Eds.) *Universal in Linguistic Theory* (1968)

1968 b. "How Abstract is Phonology," I.U.L. Club.

1971 a. "Phonological Change," I.U.L. Club.

1971 b. "Historical Linguistics," in W.O. Dingwall (Ed.) *A Survey of Linguistic Science,* University of Maryland.

Koutsoudas, A., G. Sanders, and C. Noll

1974. "On the Application of Phonological Rules," *Language* 50.

Ladefoged, P.

1975. *A Course in Phonetic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vich, Inc.

Lehmann, W.P.

1962. *Historical Linguistics: An Introduc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Makkai, V.B. (ed.)

1972. *Phonological Theory: Evolution and Current Practic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Newton, B.E.

1972. *The Generative Interpretation of Dial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Nida, D.A.

1949. *Morpholog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Orton, H.

1960. "An English Dialect Survey: Linguistic Atlas English," *Orbis* 9.

Pike, K.L.

1967. *Tone Language* (7th Printing), Ann Arbor.

Postal, P.M.

1968. *Aspects of Phonological Theory,* New York: Harper & Row.

Ramsey, S.R.

1977. "Velar lenition in Korean," 「國語國文學論叢(李崇寧先生 古稀紀念)」, 塔出版社.

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國語學叢書 9), 塔出版社.

Sapir, E.

1921.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1925. "Sound Patterns in Language," in E. C. Fudge (1973).

Saporta, S.

1965. "Ordered Rules, Dialect Differences and Historical Processes," *Language* 41.

Saussure, F.

1959.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Trans. by Wade Baskin) New York.

Schane, S. A.

1968. *French Phonology and Morphology*, Cambridge, Mass.

1971. "The Phoneme Revisited," *Language* 47.

1973. *Generative Phonolog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Shibatani, M.

1973. "The Role of Surface Phonetic Constraints in Generative Phonology," *Language* 49.

Skousen, R.

1975. *Substantive Evidence in Phonology: The Evidence from Finnish and French*, The Hague: Mouton.

Sommerstein, A. H.

1977. *Modern Phonology*, University Park Press.

Stockwell, R. P. and R. K. S. Macaulay (eds.)

1972. *Linguistic Change and Generative The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Trubetzkoy, N. S.

1969. *Principle of Phonology* (Trans. by C. Baltax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索　引

ㄱ

k系 및 t系 口蓋化規則　67
k口蓋音化　6, 18, 20, 65, 67
γ>h　77
間接同化　147, 150, 151
甘浦邑　4
江陵地域語　161
强化(strenthening)　95, 96, 179, 180
開音節　63, 64
乾川邑　47
京畿地域語　72
慶北東海岸地域語　153
慶山郡　3
硬音　129
硬音化　7, 75, 87, 142, 144, 145, 146, 154, 157
硬音化規則　146
慶州地域語　46
固城地域語　46
固定的 長母音　128
高調　57, 62, 71, 101
曲用　9, 10, 108, 109, 111, 117, 119, 127, 135, 143, 144, 145, 158
共時的 研究　5
共時的 音韻規則　9, 11, 97
共時的 音韻研究　3
共時的 音韻現象　8, 9
口蓋音化　7, 9, 10, 23, 64, 65, 66, 67, 72
口蓋音化規則　20, 21, 27, 66, 67
求禮地域語　107
區別資質(diachritic festure)　163, 176
規則의 喪失　6
規則의 添加　6
規則適用順序의 再配列　6
基底母音體系　100
基底音素　98, 99-100, 100, 171
緊張母音(tense vowel)　99, 100, 117
金手坤　66, 141, 159
金榮起　66, 141, 147, 159, 162, 164, 167, 168, 171
金完鎭　2, 15, 16, 17, 37, 39, 49, 50, 57, 59, 65, 67, 69, 106, 108, 117, 124, 125, 165
金鎭宇　2, 106, 159, 160, 161, 164, 167, 171
金次均　159, 162, 164
金亨奎　20

ㄴ

n口蓋音化　18
n, ŋ 削除規則　140
n削除　135, 138, 180
n削除規則　18
ñ 삭제　18
n添加　85, 88
n添加規則　88
nh>nn　85
南廣祐　12, 79
南部方言　33

南海岸地域語 32, 33
内的 再構(internal reconstruction) 7, 13, 17
内的 證據 172
能動形 73, 74, 75, 78, 79

ㄷ

t 口蓋音化 20, 65, 66, 67, 141, 180
t 구개음화규칙 28, 29, 67, 142
t→l 160
t 變則動詞 162, 163
t 變則活用 160, 161, 162, 176
t의 [+변] 流音化規則 163
段階變化 91
單母音 13, 14, 23, 31, 76
短母音 98, 130
單母音體系의 變化 22
單母音化 14, 23, 27, 37, 62, 65, 66, 115
短母音化 89, 124, 125, 126, 127, 174
單母音化規則 66, 67
短母音化規則 127, 128
單純化 6, 95, 96, 179, 180
短音 101
對立雙 98, 99
大津 地域語 7, 8, 172, 173
都守熙 71
倒置(metathesis) 110
東南方言 2, 6, 7, 12, 13, 20, 32, 36, 46, 53, 71, 72, 80, 86, 89, 90, 91, 94, 95, 96, 98, 143, 145, 166
同文類解 94
東北方言 72, 90, 91, 95
同位破裂音 161
同音削除 123, 124, 167, 180
同音削除規則 123, 124, 131
動作動詞 80
同化主 65, 66, 67, 68, 69, 70, 71, 75, 122, 141, 147

ㄹ

l 과 n 의 口蓋音化 24
l 削除規則 138
li 變則動詞 57, 63, 103, 171, 175, 177
li 變則活用 167, 170, 172, 174
lh>ll 85
Ramsey 12, 77, 90, 96
R. King 6
R. Skousen 159

ㅁ

摩擦音 37, 62, 64, 86, 115, 147
摩擦音化 86, 147, 150
摩擦音化規則 148
名詞末 子音群 152
母音性 26, 122
母音調和 10, 14, 15, 39, 40, 41, 43, 44, 46, 48, 50, 51, 104, 172
母音調和規則 11, 14, 20, 21
母音體系 7, 10, 12, 13, 23
母音體系의 變化 22, 179
母音縮約 8, 110
母音縮約規則 83, 84, 111
無聲音化 96
無意味單語 66
未破 142
未破規則 143

ㅂ

朴炳采 12, 89
方言 2, 3, 57, 152, 160
方言區劃 2
辨別的 機能 125

變則活用 158, 159
補償的 長音 61, 106, 109, 130
副詞形語尾 a의 交替 104
北青地域語 91
鼻母音 136, 138, 139
鼻母音化 135, 137, 138, 139, 180
鼻母音化規則 140
鼻音 146, 149, 155
鼻音化 147, 149, 150, 151
鼻音化規則 149
빈간(case vide) 16
β(ㅸ) 89, 90, 91, 92, 96
β>φ 92
β>w 92

ㅅ

s變則動詞 163, 164, 166, 176
s變則活用 163, 164, 176
使動文 73
使動詞 141, 143
使動詞化 73
使動形 73, 74, 75, 78, 79
三重母音 23
三千浦語 7, 8
相補的 分布 91
狀態動詞 80, 128
上向二重母音 81
西南慶南地域語 46, 72, 162, 164, 166
西南方言 2, 32, 53, 71, 95, 143
西面 47
西北方言 64, 89, 90, 163
서울말 1
徐在克 4, 46
徐禎穆 71, 72
舌頂的 子音 122, 148, 150
舌頂的 資質 68, 69
聲調 71, 72, 97, 101, 126
聲調言語 71
小倉進平 3, 4
孫 漢 159, 162
송병학 73
송석중 73
純粹母音 98
純粹子音 98, 99, 144, 146
脣音 33, 43, 53, 54, 56, 59
脣音化 147, 148, 151
脣音化規則 148
順行同化 59, 130, 150
實體的 證據(substantive evidence) 159, 178
雙形 21, 54
z(△) 89, 90, 91, 92, 93, 94, 96
Saporta 116
Schane 97, 116

ㅇ

a→ɜ 123
*aj 21, 22
*ɛ 14
ɛ→i 規則 111
弱化(weakening) 95, 96
陽性母音 42, 43, 46, 47
陽性母音調和 40, 41, 42
陽性母音調和樣相 42
*ə 13
ə/i>ɜ 18
*əj 21
əj>e 36
語幹末 子音群 77, 79, 150, 152, 153, 155, 156, 158, 165
語幹聲調 57, 58
語頭硬音化 30, 85, 86, 179-180
語尾 a의 母音調和 44, 45, 46, 48,

49, 50, 51
言語能力 136, 159, 174, 175, 177
*e 14
e>i 23, 36, 37, 59, 66, 73, 115
e>i 規則 45, 67, 73
jə 變則動詞 175, 177
jə 變則活用 167, 172, 174
歷史言語學 6
逆行同化 64, 150
軟口蓋摩擦音 90
軟口蓋音 122, 148
軟口蓋音化 147, 148, 151
軟口蓋音化規則 149
連續性 26
迎日郡 4
寧海地域語 107, 145, 157, 161
完全順行同化 48, 104, 109, 130, 131
133, 135, 174, 180
完全順行同化規則 8, 133
o>u 7, 33, 38, 40, 41, 73
o>u 規則 39
*oj 19, 20
oj>uj>u 53
oj>uj>ü 53
oj>uj>ü>wi>i 53
外的 證據(external evidence)
66, 107, 154, 162, 172
우연한 빈틈(accidental gap) 142
u>o 39
韻素 97, 101, 124
韻素體系 101
蔚州郡 4
*uj 18, 19
uj>u 의 規則 55
*wə 22
圓唇母音 33, 53, 54, 55, 70, 71, 121
圓唇母音化 32, 33, 35, 51, 53, 55, 56
59, 120, 121, 122, 180
圓唇母音化規則 33, 43, 59, 123
圓唇性 17, 54, 55
月城郡 3, 4
wɜ→o 規則 113
*wi 27
流音 59, 64, 82, 98, 107, 117, 119,
122, 148, 171
流音削除 157, 158, 180
流音削除規則 158
流音化 150, 151, 157
流音化規則 150, 151
有氣音 128, 156
有氣音化規則 144
有聲摩擦音 12, 90, 91
有聲音化 89, 90, 95, 115, 142, 143,
144, 156, 157
有聲子音 129
6 母音體系 14, 22, 179
ɜ̟ 削除 116, 180
ɜ̟ 削除規則 118
ɜ̟→u 121
*ɨ 13
ɨ>i 62, 63, 64
陰性母音 40, 43, 46, 47
陰性母音調和 40, 41
陰性母音調和樣相 40
音素的 機能 7, 98, 99, 101
音素的 對立 13, 116
音素體系 98
音韻規則 10
音韻論的 强度(phonological strength)
117, 123
音韻論的 動機 19
音韻目錄 2, 9
音韻變動 5, 7, 10, 97, 102

音韻變化　4, 5, 9, 12, 30, 85, 97
音韻體系　7, 12, 80, 98
音長　72, 100, 101, 125
*ij　20, 21
ij>i　53
李基文　12, 15, 16, 17, 22, 37, 39, 44, 77, 89, 90, 91, 95, 173
李敦柱　1
i 母音逆行同化　7, 9, 10, 13, 37, 44, 59, 64, 65, 66, 67, 68, 70, 71, 72, 73, 75, 121, 140, 141, 180
i 母音逆行同化規則　53, 75, 76, 180
이병건　2, 108, 142, 159, 162, 164, 167, 168, 172
李秉根　2, 16, 72, 86, 106, 108, 124, 125, 142, 147
李炳銑　46
李尚烈　4
李崇寧　12, 15, 17, 31, 39, 64, 65, 67, 89
李丞宰　2, 107
i>ə　85
弛緩母音(lax vowel)　99, 100, 117
李翊燮　2, 16, 152, 161, 165
二重母音　6, 15, 16, 17, 21, 23, 24, 25, 31, 52, 80, 81
二重母音의 共時的 分布　24
二重母音의 單母音化　10, 15, 16, 23, 37, 59, 80, 85, 179
二重母音의 變化　19, 80, 81
二重母音의 縮約變化　83
二重母音化規則　83, 84
i 添加　62
李熙昇　1
人工語　1
任　桓　4
剩餘的인 長音　58, 125, 132
w 系 二重母音　22, 26
w 삭제　37, 73, 81
w-削除規則　82, 113
j 系 上向 二重母音　26, 27, 81
j 系 二重母音　26
j 削除　81, 82
j-削除規則　81, 82, 112, 115
-j 削除規則　82
*ʌ　14, 15, 42
ʌ>a　7, 18, 31, 35
ʌ>o　32, 33, 35
ʌ>i　7, 31, 32, 35
ʌ의 變化規則　36
ʌ의 消失　23
*ʌj　21
ʌj>aj　35
ʌj>oj　34, 35, 54
ʌj>ij　34
*jʌ　17, 18

ㅇ

ŋ 削除　135, 180

ㅈ

自然語　1, 10
子音群　152, 153
子音群 單純化　152, 154, 156
子音群 單純化規則　151, 152, 154, 155
子音同化　146, 150, 151, 180
子音同化規則　151
子音性　26
子音中和　142
子音中和規則　151
子音體系　7, 12
長母音　70, 98, 101, 109, 125, 126, 130, 164

長母音化　105
長母音化規則　109
長音　75, 101, 124, 125, 130, 132, 162, 164
長音削除　58
長音化　126
再構　12, 13, 14, 15, 16, 17, 19, 20, 27, 29
再構에 의한 陽性母音調和　42
再構造化　6, 58, 63, 132, 161, 163, 172, 173, 174, 175, 177, 180
低調　57, 71, 101
低調化　57
田光鉉　19, 83
前舌高母音性　17, 64
前舌高母音化　10, 32, 59, 61, 62, 63, 64, 70, 118, 180
前舌高母音化規則　33, 43, 64, 119
前舌母音化　67
前舌性　64
鄭 國　142, 147
鄭然粲　58
第1期 月城語　22, 40, 41, 42, 43, 80
第2期 月城語　22, 80, 84, 85
第3期 月城語　22, 80, 84
濟州方言　7
朝鮮館譯語　77, 91, 92
中部方言　1, 2, 5, 6, 7, 10, 13, 14, 16, 17, 19, 27, 29, 30, 31, 32, 33, 35, 37, 38, 52, 53, 58, 62, 76, 77, 78, 86, 89, 90, 93, 94, 125, 143, 164, 177, 179
中性母音　43, 46, 47
中性母音調和　43
中性母音의 調和樣相　43
中和　23, 36, 41, 85, 95, 99, 116, 164, 165, 179
地域語　2, 3, 9, 22, 152, 160, 178
直接同化　147, 150, 151
鎭海地域語　72

ㅊ

淸道郡　4
崔明玉　2, 4, 12, 17, 46, 83, 91, 99, 104, 107, 143, 145, 152, 153, 157, 160, 161, 165, 175
崔銓承　55
崔泰榮　71
崔鶴根　1, 20
최현배　57, 170
抽象音素　162, 166
抽象的 基底表示　162
抽象的 言語　1
縮約　81, 83, 85, 110
忠淸道地域語　22, 71
齒槽閉鎖音　86
齒槽閉鎖音化　85, 180
齒擦音　18, 43, 59, 60, 62, 82, 85, 86, 107, 118, 119
7母音體系　15, 16, 22, 179

ㅌ

通時的 變化　58, 106
通時的 硏究　5, 6
通時的 音韻規則　9, 10, 19, 97
通時的 音韻硏究　3

ㅍ

破擦音　6, 37, 61, 88, 107, 110, 112, 115
8母音體系　14, 22, 179

閉口調音原則　161
閉鎖音　145, 154
閉鎖音化　86
閉音節　63
表面音聲制約(surface phonetic constraints)　106, 115, 152
標準語　1, 5, 7, 77, 86
被動文　73
被動詞　141, 143
被動詞化　73
被動形　73, 74, 75, 78
被同化主　63, 67, 68, 69, 70, 71, 147

ㅎ

h>k　76, 78, 79, 80, 180
h>k^h　78
{h, ʔ}→t 規則　151, 156
h 口蓋音化　20, 67, 78
h 口蓋音化規則　29, 67
h 變則動詞　174
h 變則活用　174
h 의 軟口蓋音化　10
h 添加　58, 85, 88, 89
h 添加規則　89
河野六郎　4
下向二重母音　81, 82
許 雄　15, 17
形態論的 制約　136
形態素構造　137
形態素構造條件　137
形態素境界에서의 母音調和　44
形態素內部에서의 母音調和　39
洪淳鐸　1
活用　9, 10, 74, 88, 108, 109, 117, 130, 144, 145, 160
滑音　98, 100, 105, 107, 108
滑音削除　61, 81, 89, 112, 115
滑音化　8, 61, 105, 106, 107, 108, 109, 110, 113, 115, 130, 131
滑音化規則　109, 130
喉頭摩擦音　156
喉頭閉鎖音　101, 144, 155, 165
後舌母音　76
後舌性　122
喉音　128, 156, 157
喉音削除　128, 180
喉音削除規則　129
ʔ→t 規則　144

◇附　　錄◇

音韻調査項目

◇ 附　　錄 ◇

音韻調査項目

※ 여기에 提示된 調査項目은 東南方言의 音韻研究를 위하여 作成된 것이다. 그러므로 研究者는 研究 對象 方言에 따라 調査項目을 添加 또는 削除할 수 있다.

※ 曲用에서 발생하는 音韻現象은 名詞에 主格語尾(一이), 處格語尾(一에) 對格語尾(一을)를 統合시켜 調査할 것.

I. 音韻體系

1.1 單母音

1. 겉(옷)
2. 털(毛)
3. 절(拜)
4. 설(元旦)
5. 법(法)(이)
6. 겁(怯)(이)
7. 서리(霜)
8. 처음
9. (옷)벗기다
10. 세우다
11. 서다(立)
12. 젖다(潤)
13. 섞다(混)
14. 글(文) cf. 겉(옷)
15. 틀(機) cf. 털(毛)
16. 이름(名)(이)
17. 금(線)(이)
18. 흙
19. 끓이다
20. 띄우다 cf. 뜨다(浮)
21. 키우다 cf. 크다(大)
22. 쓸다(掃)
23. 질다(泥)
24. 쓰리다(痛)
25. 게(蟹)
26. 베(布)
27. 떼(群)
28. 테(輪)
29. 껍데기
30. 두꺼비
31. 메기
32. 며느리
33. 몇
34. 베개
35. 세다(强)
36. 메다(擔)
37. 베다(枕)
38. 베다(斬)
39. 떼다(分離)
40. 에워싸다(圍)
41. 개(犬) cf. 게(蟹)
42. 배(梨,腹) cf. 베(布)
43. 태(胎) cf. 테(輪)
44. 때(垢) cf. 떼(群)
45. 지팡이
46. 호랑이
47. 담배
48. 깨다(破)
49. 빼다(拔)
50. 새다(漏)
51. 기대다(依支)
52. 매다(結)
53. 배우다(學)
54. 배다(孕)
55. 보태다(加)
56. 새다(曉)
57. 채우다(充)

58. 내리다(降)
59. 캐다(採)

1.2 二重母音, 二重母音의 單母音化, 其他

60. 기러기
61. 기미(幾)
62. 깃발
63. 기별
64. 의사(醫師)
65. 키(身長)
66. 띠(帶)
67. 의논(議論)
68. 의심(疑心)
69. 무늬
70. 티(瑕點)
71. 희망(希望)
72. 보늬
73. 주의(注意)
74. 고의(固意)
75. (남)의(집)
76. 기다(匍匐)
77. 희다
78. 의젓하다
79. 의지하다
80. 디디다(踏)
81. 견디다(忍)
82. 희미하다
83. 방귀(뀌다)
84. 손아귀
85. 머루
86. 귀
87. 뒤
88. 쥐
89. 쉬(파리), —쓸다
90. 귀신
91. 취미
92. 위장(胃腸)
93. 위험
94. 위문
95. 휘발유
96. 위독
97. 시위(활)
98. 위신
99. 방위(方位)
100. 뛰다
101. 쉬다(休)
102. 뉘우치다
103. 튀다
104. (손에)쥐다
105. (방귀)뀌다
106. 할퀴다
107. 휘두르다
108. 아쉽다
109. 사귀다
110. 위태롭다
111. 쾨(보)
112. 꾀꼬리
113. 뫼
114. 쇠
115. 외(삼촌)
116. 외(瓜)
117. (밭) 뙤기
118. 왼(손, —쪽)
119. 회초리
120. 외상
121. 외짝
122. 외톨이
123. 회(膾)
124. 회복(恢復)
125. 된장
126. 뇌(腦)
127. 내외간
128. 가마귀
129. 괴물(怪物)
130. 참외
131. 후회(後悔)
132. 죄(罪)
133. 횡재(橫財)
134. (물이)괴다
135. 괴롭다
136. 꾀다
137. 외롭다
138. (허리를)죄다
139. (바람)쐬다
140. 깨(소금)
141. 날개(翼)
142. 모래(砂)
143. 새(鳥)
144. 궤(짝)
145. 꿰미
146. 훼방
147. 훼손
148. 웬(일이냐?)
149. 꿰매다
150. 횃대
151. 쐐기
152. 꽹이
153. 돼지
154. 왜(국)
155. 괜찮다
156. 괘씸하다
157. 쾌활하다
158. 꿩

159. 원수(怨讎)
160. 권리
161. 권투
162. 대궐
163. 원두막
164. 원숭이
165. 권(卷)
166. 원료
167. 구월(九月)
168. 정월(正月)
169. 삼월(三月)
170. 원(員)
171. 훤하다
172. 권하다
173. 시원하다
174. 원하다
175. 활(쏘다)
176. 화로
177. 황새
178. 광주리
179. 왕(王)
180. 과부
181. 과일
182. 화투
183. 환갑
184. 좌우(左右)
185. 과거(科擧)
186. 전화
187. 정화수(井華水)
188. 모과(本果)
189. 만화
190. 사과(謝過)
191. 영화(映畫)
192. 황소
193. 관(冠, 棺)
194. 광대
195. 관솔(松明)
196. 과연
197. 예배당
198. 예방주사
199. 폐(肺)
200. 폐습
201. 계속
202. 계수나무
203. 계(契)
204. 혜택
205. 예의
206. 계획
207. 계란
208. 차례
209. 은혜
210. 예물(禮物)
211. 옛날
212. 핑계
213. (옛날)얘기
214. 계시다
215. 예쁘다
216. (몸이)여위다
217. 뱀
218. 걸레
219. 별(星)
220. 벼루
221. 뼈
222. 벼락
223. 벼룩
224. 겹(重)
225. 겨울
226. 벼슬(官)
227. 벼슬(雜官)
228. 등겨
229. 비녀
230. 무명(베)
231. 엿
232. 여덟
233. 여름
234. 열(十)
235. 면경
236. 병(瓶)
237. 병(病)
238. 면회(面會)
239. 편지
240. 처녀
241. 여자
242. 여편네
243. 벽(壁)
244. 별명
245. 변덕
246. 형제
247. 경기(驚氣)
248. 소변
249. 염통
250. 미역
251. 새경(私耕)
252. 요령(鈴)
253. 훈련
254. 염려
255. 달력
256. 음력
257. (불)켜다
258. 어렵다
259. 가렵다
260. 미련하다
261. (이불, 책)펴다
262. 윷(놀이)
263. 유자(柚子)
264. 유리
265. 귤(橘)
266. 규칙

267. 병균
268. 흉
269. 흉년
270. 석유
271. 음흉(하다)
272. 휴가
273. 흉악
274. 종류
275. 일류(一流)
276. 인류(人類)
277. 휴양
278. 훌륭하다
279. 요(褥)
280. 욕(辱)
281. 교장(校長)
282. 교실
283. 교통
284. 효자
285. 효험(効驗)
286. 학교
287. 표(票)
288. 소용(없다)
289. 교회(教會)
290. 불효
291. 표범
292. 필요
293. 비료
294. 사료
295. 용(龍)
296. 곁(傍)
297. 겨드랑
298. 엽
299. 엽구리
300. 염소
301. 여섯
302. 여물다
303. (열매)열다
304. 짧다 cf. 짜르다(短)
305. 약
306. 양(羊)
307. 양식(糧)
308. 향기
309. 향토
310. 모양
311. 갸름하다
312. 갈쭉하다
313. 얕다
314. 가냘프다

Ⅱ. ʌ의 變化

2.1 單母音

2.1.1. 語 頭

1. 남(他人)
2. 달(月)
3. 맏(아들, 며느리)
4. (옷)번
5. 삵괭이
6. 팔(肱)
7. 파리
8. 팥
9. 흙
10. 사나이
11. 소매
12. 마디
13. (노른)자위
14. (옷)자락
15. (길)가(邊)
16. 그늘
17. 까닭
18. 가루(粉)
19. 가로
20. 가랑비
21. 가래침
22. 가마니(叺)
23. 까끄라기
24. 감(材)
25. 가위(鋏)
26. 갈매기
27. (칼)날
28. 닭
29. 나물(菜)
30. 말(馬)
31. 마지막
32. 쌀
33. 살(肉)
34. 턱
35. 부스러기
36. 말다(捲)
37. 맑다
38. 밝다
39. 밟다
40. 빻다
41. (젖)빨다
42. (빨래)빨다

43. 팔다
44. 만지다
45. 버리다
46. 마르다(乾)
47. 바르다(塗)
48. 부시다
49. (햇볕에)말리다
50. 가늘다
51. 까다(孵)
52. 가다듬다
53. 가렵다
54. 가리다(選)
55. 까무러치다
56. 가지다(所有)
57. 갈다
58. 갈기다(打)
59. 갈다(磨)
60. 깔다
61. 갉다
62. 갊다
63. (눈을)감다
64. 깨끗하다
65. 가쁘다
66. 나누다
67. 되다
68. 가지런히
69. 같이
70. 벌써
71. 가득
72. 차라리
73. —들(複數語尾)
74. —도록
75. —까지

2.1.2. 非語頭

76. 꺼풀
77. 광주리
78. 바늘
79. 앉은뱅이
80. 오소리
81. 아우
82. 자루(袋)
83. 가슴
84. 나그네
85. 다섯
86. 마늘
87. 마흔
88. 말씀
89. 사람
90. 사슴
91. 사흘
92. 아들
93. 아주머니
94. 아침
95. 아흐레
96. 아흔
97. 하늘
98. 노루
99. 노릇
100. 메추리
101. 보시기
102. 오늘
103. 콩팥(腎)
104. 길마
105. 여우
106. 가루
107. 나루
108. 마루(宗)
109. 자루(柄)
110. (노른)자위
111. 하루
112. 가물음
113. 까끄라기
114. 가을
115. 나물(菜)
116. 마을
117. 마지막
118. 바람(風)
119. 자물쇠
120. 하루살이
121. 그늘
122. 가랑비
123. 다만(只)
124. 나무라다
125. 나쁘다
126. 다듬다
127. 다르다
128. 다스리다
129. 반듯하다
130. 바쁘다
131. 아득하다
132. 아프다
133. 싸늘하다
134. 고소하다
135. 고프다
136. 노르다(黄)
137. 모르다
138. 모자라다
139. 보드랍다
140. 오르다
141. 이르다(謂)
142. 비싸다
143. 애닯다
144. 깨닫다

145. 만들다
146. 가늘다
147. 가로지르다
148. 사무치다
149. 가득하다
150. 가르치다
151. 가물다
152. 가쁘다
153. 마르다(乾)
154. (벽을)바르다
155. (눈이)부시다
156. 빠르다
157. 다듬다
158. 까무러치다
159. 가지런하다
160. 거꾸로
161. 남짓(하다)
162. 반드시
163. 아직
164. 마저
165. 가득
166. 깜짝
167. 나즉이
168. 마침내
169. 하물며
170. 도리어
171. 모든

2.2 二重母音

2.2.1. 語 頭

172. 내(烟)
173. 때(垢)
174. 배(梨, 腹, 舟)
175. 샘(泉)
176. 재(灰)
177. 해(年, 太陽)
178. (잠을)깨다
179. (논)매다
180. 맵다
181. 맺다
182. 배다(孕)
183. 째다
184. 캐다
185. 희다
186. 패다(發穗)
187. 배우다
188. 채우다
189. 태우다(使燒)
190. 깨닫다
191. 만들다

2.2.2. 非語頭

192. 가시
193. 나비
194. 아래(宿)
195. 아이
196. 고비(曲)
197. 모기
198. 소리
199. 조리(笊籬)
200. 종이
201. 마디
202. 재채기
203. 선비
204. 어디
205. 가재
206. 도끼
207. 소매
208. 사시나무
209. 잔치
210. 먼지
211. 말미암다
212. (부엌)가시다

Ⅲ. e>i

1. 세(三)
2. 베개
3. 족제비
4. 어레미
5. 제비
6. 메기
7. 게(蟹)
8. 번데기
9. 두꺼비
10. 구더기
11. 게으름
12. 제기(차다)
13. 부스러기
14. 메주
15. 베(布)

16. 형제
17. 굼벵이
18. 어제
19. 건더기
20. 무더기
21. 메뚜기
22. 네(四)
23. 세상(世上)
24. 세월(歲月)
25. 세금(稅金)
26. 제일(第一)
27. 때
28. 면경(面鏡)
29. 병(甁)
30. 편지(片紙)
31. 된장
32. 면장(面長)
33. 소견(所見)
34. 강변(江邊)
35. 벼룩
36. 몇
37. 외(삼촌)(外一)
38. 왼쪽
39. 죄수(罪囚)
40. 최고(最高)
41. 퇴비(堆肥)
42. 퇴학(退學)
43. 회장(會長)
44. 며느리
45. 병(病)
46. 벼루
47. 결정(決定)
48. 계산(計算)
49. 계수나무
50. 예의(禮儀)
51. 시계(時計)
52. 궤(짝)
53. 얼레빗
54. 훼방(毁謗)
55. 평균(平均)
56. (수를)세다
57. (힘이)세다
58. 베다
59. 펴다
60. 변하다
61. 데다
62. 헤프다
63. 메다
64. 베끼다
65. 게으르다
66. 메우다
67. 제쳐놓다
68. 편하다
69. 꿰다
70. 주머니
71. 뫼
72. 고기
73. 포기(叢)
74. 보이다
75. 새(鳥)
76. 대(竹)
77. 배(梨, 舟)
78. 해(太陽)
79. 배우다

Ⅳ. 前舌高母音化

1. 가슴
2. 가을
3. 마을
4. 김(雜草)
5. 벼슬(官)
6. 벼슬(雞冠)
7. 부스러기
8. 부스럼
9. 스물
10. 말씀
11. 쓸개
12. 사슴
13. 그으름
14. 승리(勝利)
15. 습기(濕氣)
16. 습관(習慣)
17. 오소리
18. 쓰다(用)
19. 쓰다(書)
20. 쓰다(冠)
21. 쓰다(苦)
22. 쓰다듬다
23. 쓰러지다
24. 다스리다
25. (쉬)슬다
26. 쓸다(掃)
27. 싫다
28. 슬프다
29. 무슨
30. 스스로
31. 슬며시
32. ~습니다
33. 지름길

34. 즈음
35. 찌꺼기
36. 버짐
37. 즙
38. 진흙
39. 짐승
40. 짓
41. 칡
42. 아침
43. 증인(證人)
44. 증손(曾孫)
45. 증세(症勢)
46. 측량(測量)
47. 추측(推測)
48. 층계(層階)
49. 움직이다
50. 짓밟다
51. 젖다
52. 즐겁다
53. 어지럽다
54. 즐기다
55. 질다(泥)
56. 짓다
57. (채로)치다
58. (춤)추다
59. 자루(袋)
60. 노루
61. 가루
62. 하루
63. 나루
64. 마루(宗)
65. 자루(柄)
66. 시루
67. 가르다
68. 다르다
69. 모르다
70. 마르다
71. 바르다(塗)
72. 오르다
73. 자르다
74. 고르다(送)
75. 끄르다
76. 무르다
77. 부르다(唱)
78. 부르다(飽)
79. 흐르다
80. (고함)지르다
81. 너르다
82. 이르다(謂)
83. 가르치다
84. 빠르다
85. (불)지르다
86. 고르다(均)
87. 도리어
88. 사람
89. 노릇
90. 그릇
91. 그으름
92. 어른
93. 얼음
94. 버릇

V. 圓唇母音化

1. 무지개
2. 무엇
3. 물
4. 불
5. 풀
6. 푸성기
7. 거문고
8. 그믐
9. 그물
10. 나물
11. 미꾸라지
12. 깊이
13. 기미(痣)
14. 거미(蜘蛛)
15. 문득
16. 무섭다
17. 붙다
18. 붓다(注)
19. 푸르다
20. 푸다
21. 가물다
22. 슬프다
23. 기쁘다
24. 바쁘다
25. 고프다
26. 아프다
27. 밉다
28. 미끄럽다
29. 비다(空)
30. 비릅다
31. 피다(發)
32. 비다(刈)
33. 그늘
34. 그릇
35. 그림자
36. 끝

37. 글(文)
38. 금(線)
39. 들(野)
40. 나그네
41. 아들
42. 기름
43. 기러기
44. 키(身長)
45. 띠(帶)
46. 시골
47. 시어머니
48. 의심(疑心)
49. 의사(醫師)
50. 티눈
51. 티끌
52. 느티나무
53. 마디
54. 어디
55. 그리다
56. 그치다
57. 느리다
58. 늘다
59. 늦추다
60. 늦다
61. 듣다
62. 들다
63. 크다
64. 흐리다
65. 가늘다
66. 더듬다
67. 다듬다
68. 기다(匍匐)
69. 띄우다
70. 시다(酸)
71. 의젓하다
72. 견디다
73. 더디다
74. 이기다
75. 당기다
76. 지키다
77. 무디다

Ⅵ. i 母音逆行同化

1. 아지랑이
2. 강변(江邊)
3. 오라기
4. 지푸라기
5. 차례(次例)
6. 가랑이
7. 남편(男便)
8. 삼형제(三兄弟)
9. 답변(答辯)
10. 새경(私耕)
11. 해바라기
12. 호랑이
13. 가재미
14. 첨장이
15. 난장이
16. 멘드라미
17. 미장이
18. 방망이
19. 싸라기
20. 승냥이
21. 아비
22. 차비(車費)
23. 참빗
24. 손잡이
25. 가마니
26. 한낮
27. 새우
28. 다리(脚)
29. 도라지
30. 각시
31. 칼치
32. 갑자기
33. 하필
34. 하기(名詞形)
35. 깎기(名詞形)
36. 서방(이)(主格)
37. 담(이)(主格)(높다)
38. 사람(이)(主格)
39. 장(市場)(이)(主格)
40. 빰(이)(主格)
41. 생각(이)(主格)
42. 망(이)(主格)
43. 세상(이)(主格)
44. 방(房)(이)(主格)
45. 상(床)(이)(主格)
46. 밥(이)(主格)
47. 앞(이)(主格)
48. 왕(이)(主格)
49. 약(藥)(이)(主格)
50. 모양(이)(主格)
51. 깎이다
52. 닫히다
53. 막히다
54. 맡기다
55. 삼키다
56. 가렵다
57. 박히다

58. 잡히다
59. (눈이/을)감기다
60. 바뀌다
61. 당기다
62. 쌓이다
63. 삶기다
64. 안기다
65. (실을, 옷이)감기다
66. 아리다
67. (옷을)다리다
68. 가리다(選)
69. 아끼다
70. 아니다
71. 낚이다
72. 남기다
73. 잠기다
74. 맞히다
75. 밟히다
76. 삭이다
77. 담기다
78. (얼굴을)가리다
79. 마렵다
80. (새끼를)사리다
81. 기다리다
82. 차리다
83. (싸움)말리다
84. 살리다
85. 까칠하다
86. 다치다
87. 날리다
88. 구멍이
89. 무더기
90. 건더기
91. 구렁이
92. 구더기
93. 지렁이
94. 부스러기
95. 어미
96. 두꺼비
97. 웅덩이
98. 두드러기
99. 주머니
100. 할머니
101. 저녁
102. 여편네
103. 성묘(省墓)
104. 머리(頭)
105. 버러지
106. 먹기(名詞形)
107. 벗기(名詞形)
108. 서기(立)(名詞形)
109. 겁(怯)(이)(主格)
110. 법(法)(이)(主格)
111. 떡(이)(主格)
112. 성(姓)(이)(主格)
113. 섬(島)(이)(主格)
114. 절(寺)(이)(主格)
115. 멀리
116. 넉넉히
117. 업히다
118. 먹이다
119. 벗기다
120. 어렵다
121. 젖히다
122. (소금에)절이다
123. 여리다
124. 섬기다
125. (던져)버리다
126. (가치를)버리다
127. 먹히다
128. 적히다
129. 꺾이다
130. 섞이다
131. 넘기다
132. 얹히다
133. (눈물이)어리다
134. (나이)어리다
135. 꺼리다
136. (김이)서리다
137. (발이)저리다
138. 멀렁거리다
139. 덥히다
140. (병에)걸리다
141. (걸음을)걸리다
142. 걷히다
143. 접치다
144. (물을)흘리다
145. 토끼
146. 고기
147. 쇠고기
148. 소견(所見)
149. 조끼
150. 포기(放)
151. 송편
152. 소리
153. 오리(鴨)
154. 손님
155. 보기(視)(名詞形)
156. 오기(來)(名詞形)
157. 속기(欺)(名詞形)
158. 몸(이)(主格)
159. 똥(이)(主格)
160. 속(內)(이)(主格)
161. 복(福)(이)(主格)
162. 곰(熊)(이)(主格)
163. 콩(이)(主格)
164. 용(이)(主格)
165. (꿩>)꽁(이)(主格`

166. 옮기다
167. 속이다
168. 녹이다
169. 뽑히다
170. 볶이다
171. 꼽히다
172. 볶이다
173. 꼽히다
174. 쫓기다
175. 놓이다
176. 노리다(黄)
177. 호리다
178. 도리다
179. 높히다
180. 좁히다
181. 노려보다
182. 돌리다
183. 놀리다
184. 그림
185. 다듬이
186. 그냥
187. 듣기(聽)(名詞形)
188. 크기(名詞形)
189. 뜯기(名詞形)
190. 이름(이)(主格)
191. 금(線)(이)(主格)
192. 금(金)(이)(主格)
193. 흠(이)(主格)
194. 틈(이)(主格)
195. 끓이다
196. 뜯기다
197. (받아)들이다
198. 끊기다
199. 오그리다
200. (그림)그리다
201. 흐리다
202. 느리다
203. 늘이다
204. 두드리다
205. (소리가)들리다
206. (물건을)들리다
207. 거느리다
208. 늘어뜨리다
209. 드리다
210. 몽둥이
211. 모퉁이
212. 문둥이
213. 몸뚱이
214. 메뚜기
215. 주둥이
216. 쌍둥이
217. 팔꿈치
218. 죽기(死)(名詞形)
219. (꿈)꾸기(名詞形)
220. 웃기(名詞形)
221. 중풍(이)(主格)
222. 국(이)(主格)
223. 중(僧)(이)(主格)
224. 숨(이)(主格)
225. 동풍(이)(主格)
226. 웃기다
227. 죽이다
228. (허리)굽히다
229. (생선이)굽히다
230. 눕히다
231. 숙이다
232. 부리다
233. 누리다
234. (짐을)꾸리다
235. 두리번거리다
236. 추리다
237. 뿌리다
238. 후리다
239. (굶)주리다
240. 줄이다
241. 후비다
242. 묶이다
243. 꾸미다
244. 우기다
245. 축이다
246. 굶기다
247. 울리다

Ⅶ. o>u

1. 소금
2. 바둑
3. 오줌
4. 오금
5. 송곳
6. 개구리
7. 천둥
8. 갈고리
9. 단추
10. 모두
11. 봉우리
12. 홍두깨
13. 회초리
14. 가오리
15. 내외간(内外間)

16. 골무
17. 오소리
18. 말씀
19. 마침
20. 손수
21. 일본(日本)
22. 거꾸로
23. 바꾸다
24. 모두다
25. 가두다
26. 배우다
27. 싸우다
28. 갖추다
29. 감추다
30. 쏘다
31. (새끼)꼬다
32. 보다
33. (바늘로)호다
34. 오다
35. (고음)고다

Ⅷ. 語末 uj>u

1. 나비
2. 거미
3. 호미
4. 이미(旣)
5. 기미(痣)
6. 모기
7. 조기
8. 동이(盆)
9. 종이
10. 사마귀
11. 까마귀
12. 돌쩌귀
13. 당나귀
14. 바위
15. 바퀴
16. 담비(猫)
17. 한가위
18. 조리(笊)
19. (문)고리
20. 포기(叢)
21. 오디(桑實)
22. 여기
23. 잔디
24. 먼지
25. 부싯돌
26. 글피(外後日)
27. 장기(將棊)
28. 도끼
29. 가시
30. 잔치
31. 마디
32. 길이
33. 무늬
34. 보늬
35. 높이
36. 닭의새끼('닭'의单稱)
37. 닭의 알
38. 닭의 통

Ⅸ. β(ㅸ)

1. 이웃
2. 가웃(半)
3. 누에
4. 눈둥
5. 광(庫)
6. 마름
7. 추위
8. 더위
9. 새우
10. 가운데
11. 누이
12. 가오리
13. 다리미
14. 다리(髢)
15. (밀)기울
16. 또아리
17. 입술
18. 한가위
19. 벙어리
20. 홀(아비)
21. 혼자
22. 구울다
23. 어우르다
24. 여위다
25. 졸다
26. 데리고가다
27. 기울다
28. 뒤집다
29. 일으키다
30. 서울

31. 시골
32. 고을
33. 되다
34. 둘(二)
35. 술(酒)
36. 저울
37. 종이

Ⅹ. z(△)

※ 動詞는 語尾 '—고, —아도'를 붙여서 조사할 것.

1. 아우
2. 어스름
3. 여우
4. 가위(鋏)
5. 오소리
6. 웃음
7. 가(邊)(에)(處格)
8. 가을
9. 까끄라기
10. (웃)감
11. 거위(蚯蚓)
12. 겨울
13. 구유
14. 그으름
15. 김(매다)
16. 냉이(薺)
17. 마을
18. 마음
19. 무우
20. 메아리
21. 보시기
22. 부엌
23. 부스름
24. 사이
25. (노른)자위
26. 두어(二三)
27. 마흔
28. 처음
29. (닭)모이
30. 무슨
31. 몸소
32. 머슴
33. 구석
34. 부스러기
35. 손수
36. 아이(빨래)
37. 이윽고
38. 혼자
39. —야(나야 모르겠다)
40. 끌다
41. 기이다(隱)
42. 부수다
43. (눈)부시다
44. 그윽하다
45. 무섭다
46. 말미암다
47. 부서지다
48. 잇다
49. 붓다(腫)
50. 줍다
51. 짓다
52. 젓다
53. 잣다
54. 붓다(注)
55. 낫다(愈)
56. 낫다(勝)
57. 쪼다
58. 빼앗다
59. 그을다
60. 긋다
61. 새삼스럽다
62. 벗다
63. 빗다(梳)
64. 셋다

Ⅺ. 口蓋音化

11.1 k 口蓋音化

1. 기둥
2. 길마
3. 기름(油)
4. 길이
5. 기미(痣)
6. 김(雜草)
7. 기와
8. (밑)기울
9. 기지개

10. 기침
11. 길(路)
12. 김(海台)
13. 김(수증기)
14. 김치
15. (옷)깃
16. 깊이
17. 낌새
18. 겨드랑
19. 겨울
20. 겨집
21. 결(이 삭다)
22. 기슭
23. 겹
24. 곁
25. 키(舵)
26. 키(箕)
27. 결단(決斷)
28. 경기(驚氣)
29. 김(서방)
30. 귤
31. 교장(校長)
32. 교실(教室)
33. 학교(學校)
34. 고기
35. 기러기
36. 기결
37. 키(身長)
38. 겨레
39. 게(蟹)
40. 귀
41. 귀뚜라미
42. 그림
43. 기우뚱
44. 겨우
45. ~끼리
46. 길다
47. 기다리다
48. 기대다
49. 기쁘다
50. 기울다
51. 기웃거리다
52. (폐를)끼치다
53. 긷다
54. 깁다
55. 깊다
56. (안개)끼이다
57. (한몫)끼이다
58. 끼다
59. 껴안다
60. (소름) 끼치다
61. 겨누다
62. 겪다
63. 견디다
64. 계시다
65. 결리다
66. 겹다
67. 겨낭하다
68. 갸름하다
69. 갸날프다
70. 기다
71. 그리다
72. (방귀)뀌다

11.2 h]口蓋音化

73. 힘
74. 혀
75. 서캐
76. 서까래
77. 셈
78. 흉
79. 써름
80. 향(香)
81. 썰물
82. 형(兄)
83. 형제(兄弟)
84. 형수(兄嫂)
85. 효자(孝子)
86. 효도(孝道)
87. 효험(効驗)
88. 휴지(休紙)
89. 흉년(凶年)
90. 현명(賢明)
91. 현재(現在)
92. 혐의(嫌疑)
93. 향토(鄕土)
94. 선반(懸盤)
95. 향긋하다
96. (물을)켜다
97. (불을)켜다
98. (가야금을)켜다
99. (기지개를)켜다
100. (톱으로 나무를)켜다
101. 헤아리다
102. 세다(算)
103. 흉악하다
104. 흉하다
105. 희다
106. 희미하다
107. 휘두르다

11.3 t 口蓋音化

108. 저(彼)
109. 저(笛)
110. 제기(차다)
111. 절(寺)
112. 점심
113. 조금
114. (날개)죽지
115. 죽순
116. 중(僧)
117. 중의(裩)
118. 김치
119. 짚
120. 천둥
121. 철사
122. 띠(帶)
123. 티(瑕點)
124. 어디
125. 뒤
126. 된장
127. 장가
128. 장마
129. 마디
130. 쌍둥이
131. 궁둥이
132. 구더기
133. 껍데기
134. 구덩이
135. 무더기
136. 몽둥이
137. 짧다
138. 적다(不足)
139. 적다(記)
140. 젊다
141. 좋다
142. 지나다
143. 지니다
144. (등에)지다
145. (떡을)찌다
146. (불)지르다
147. 지키다
148. 던지다
149. 모질다
150. 치다(打)
151. 치밀다
152. (폐)끼치다
153. 데치다
154. (시간이)더디다
155. 견디다
156. 드리다
157. 무디다
158. 튀다
159. 뒹구다
160. 뛰다

Ⅻ. h>k

1. 바위
2. 올해
3. 뿌리
4. 돌(石)(이)(主格), (에)(處格)
5. 가을(이)(主格), (에)(處格)
6. 위(에)(主格)
7. 지붕(이)(主格), (에)(處格)
8. 움큼
9. 바퀴
10. 아홉
11. 넉회
12. 씨름
13. 우물
14. (문)고리
15. 오리(鴨)
16. (불)켜다
17. (물)켜다
18. (톱으로 나무를)켜다
19. 일으키다
20. 나누다
21. 잃다
22. 닳다(減損)
23. 끓다
24. 앓다
25. 닳다(煎)
26. 쓿다(屑)
27. 찧다

ⅩⅢ. 語幹末 子音의 變化

※ —이(主格), —에(處格), —을(對格)을 붙여서 조사할 것.

1. 겉
2. 곁
3. 꽃
4. 숯
5. 옻
6. 윷

7. 낯
8. 닻
9. 몇
10. 돛
11. 빛
12. 낮
13. 목젖
14. 빚
15. 젖
16. 낫
17. 그릇
18. 뜻
19. 갓
20. 여섯
21. 맛
22. 못(釘)
23. 벗(友)
24. 붓
25. 빗
26. 엿
27. 옷
28. 것
29. 짓
30. 이웃
31. 곳
32. 것
33. 무엇
34. 끝
35. 낱
36. 밑
37. 밭
38. 볕
39. 솥
40. (머리)숱
41. 팥
42. 섶
43. 헝겊
44. 앞
45. 옆
46. 잎
47. 짚
48. 부엌
49. 웃녘
50. 몫
51. 삯
52. 넋
53. 닭
54. 흙
55. 칡
56. 두듥
57. 까닭
58. 여덟
59. 돐
60. 값

XIV. 添　加

14.1 h 또는 ? 添加

1. 바꾸다
2. 가두다
3. 모두다
4. 잠구다

※ ref. 活用調査項目

14.2 n添加

5. 까치
6. 모가지
7. 여치
8. 고치
9. 그으름
10. 송아지
11. 강아지
12. 이제
13. 나중
14. 그치다
15. 고치다
16. 무치다
17. 비치다
18. 묻히다

14.3 i添加

19. 고등어
20. 치마
21. 방아
22. 부처
23. 부아
24. 소라
25. 얼마
26. 자라
27. 혼자

28. 곱사
29. 자(尺)
30. 허파
31. 마누라
32. 가르마
33. 지라
34. 이마
35. 장가
36. 가마(轎, 旋毛)
37. 도마
38. 아까
39. 터(場所)
40. 아마
41. 서까래
42. 저자(市場)
43. 자갈
44. 자랑
45. 미음
46. 공기(놀이)
47. 사다리
48. 만나다
49. 바라다
50. 구기다
51. 놀라다
52. 빨갛다
53. 비좁다

XV. 削 除

15.1 ŋ削除

1. 팽이
2. 모퉁이
3. 밥송이
4. 방망이
5. 몽둥이
6. 올창이
7. 호랑이
8. 굼벵이
9. 웅덩이
10. 정강이
11. 돌멩이
12. 노름장이
13. 쳉이
14. 장인(丈人)
15. 봉오리
16. 방아간
17. 봉숭화
18. 봉사
19. 마당(이)(主格), (에)(處格)
20. 중풍(이), (에)
21. 방(이), (에)
22. 지붕(이), (에)
23. (꿩>)꽁(이), (에)
24. 상(床)(이), (에) cf. 산(山)(이), (에)
25. 둥겨
26. 강이름(江名)
27. 방안

15.2 n 除

28. 아주머니
29. 어머니
30. 가마니
31. 순희(順姬)
32. 선희(善姬)
33. 사년(四年)
34. 오년(五年)
35. 삼년(三年)
36. 남녀(男女)
37. (네>)니(汝)
38. 이(齒)
39. 잎(葉)
40. 열구리
41. 뿐(이)(主格), (이—)(繫辭)
42. 친구간(이), (이—)
43. 삼촌(三寸)(이), (이—)
44. 산(山)(이), (이—) cf. 상(床)(이), (이—)
45. 돈(이), (이—)
46. 편안히
47. 가만히
48. 단단히
49. 완전히
50. 많이
51. 아니다
52. 그늘
53. 나그네
54. 오늘
55. 마늘
56. 누이
57. 누에
58. 산이름(山名)
59. 큰 이유

15.3 h削除, 母音間 lh, nh의 ll, nn化

60. 무궁화
61. 백일홍
62. 영화(映畵)
63. 전화(電話)
64. 육학년(六學年)
65. 오학년(五學年)
66. 사학년(四學年)
67. 삼학년(三學年)
68. 여행(旅行)
69. 올해
70. 진흙
71. 결혼(結婚)
72. 불화(不和)
73. 실행(實行)
74. 불행(不幸)
75. 불효(不孝)
76. 간호(看護)
77. 경험(經驗)
78. 과학(科學)
79. 만화(漫畵)
80. 남향(南向)
81. 동향(東向)

XVI. 有氣音化

1. 급행(急行)
2. 국회(國會)
3. 낙하산(落下傘)
4. 축하(祝賀)
5. 넉넉하다
6. 똑똑하다
7. 깨끗하다
8. 섭섭하다
9. 답답하다
10. 곱하다
11. 급하다
12. 착하다
13. 뜻하다
14. 밝히다
15. 굳히다
16. 넓히다
17. 덥히다
18. 막히다
19. 급히
20. 속히
21. 떡(하고)(共同格表示語尾)
22. 밥(하고)(〃)
23. 옷(하고)(〃)
24. 솥(하고)(〃)
25. 앞(하고)(〃)
26. 밑(하고)(〃)
27. 밥(을)한다
28. 떡(을)한다

XVII. 其　他

1. 고울
2. 처음
3. 마음
4. 다음
5. 제일(第一)
6. 거머리
7. (몇)번
8. 메밀
9. 새벽
10. 아버지
11. 벽
12. 어머니
13. —으면
14. 담벼락
15. (몇)벌
16. 곡식
17. 음식
18. 양식
19. 점심
20. 치마
21. —지(마라)
22. 무식(無識)
23. (몇개)씩
24. 하직(下直)
25. 호식(虎食)
26. 탄식(歎息)
27. 못(한다)

Ⅷ. 活用調査

※ 語幹에 語尾 '—ㄴ(는)다, —더라, —고, —아도, —아서, —으면, —으니까, —아라'를 統合시켜 調査할 것. 가능하다면 被動形과 使動形도 調査할 것.

1. 익다
2. 막다
3. 꺾다
4. 엮다
5. (신)신다
6. 듣다
7. 뜯다
8. 닫다
9. 같다
10. 얕다
11. 훑다
12. 날다
13. 울다
14. (쌀을)일다
15. 열다
16. (눈을)감다
17. 넘다
18. 숨다
19. 입다
20. 쉽다
21. 곱다
22. 눕다
23. 깁다
24. 밉다
25. 덥다
26. 높다
27. (~하고)싶다
28. 짓다
29. (발등이) 붓다
30. (병이)낫다
31. 웃다
32. (개가)짖다
33. 젖다
34. 늦다
35. 꽂다
36. 쫓다
37. 낳다
38. 땋다
39. 앉다
40. 많다
41. 끊다
42. 괜찮다
43. 밝다
44. 읽다
45. 삶다
46. 옮다
47. 밟다
48. 떫다
49. 읊다
50. 뚫다
51. 앓다
52. 꿇다
53. (바닥이)닳다
54. 없다
55. 가다
56. (소금이)짜다
57. 하다
58. 서다
59. 끄다
60. (글을)쓰다
61. 오르다
62. 흐르다
63. 바쁘다
64. 고프다
65. 오다
66. 보다
67. (활)쏘다
68. (꿈)꾸다
69. 추다
70. 피우다
71. 바꾸다
72. 기다
73. (식초)시다
74. (지게)지다
75. (머리에)이다
76. 견디다
77. 아니다
78. 비비다
79. (싸움)말리다
80. (안개)끼이다
81. 마시다
82. (숫자)세다
83. (베개)베다
84. 깨다
85. 포개다
86. (가슴을)펴다
87. (기지게)켜다
88. (되를)되다
89. 쐬다
90. (산나물이)쇠다

91. 쥐다
92. (목이)쉬다
93. 희다
94. 볶다
95. 안다
96. (모르는 것을)묻다
97. (땅에)묻다
98. 맡다
99. 불다
100. (젖)짤다
101. 죽다
102. (길을)걷다
103. 가물다
104. (꾸벅꾸벅)졸다
105. (마당)쓸다
106. (실을)감다
107. 더듬다
108. (생선)굽다
109. 무겁다
110. (줄)잇다
111. (머리)빗다
112. 까맣다
113. 넣다
114. 없다
115. 귀찮다
116. (때)바르다
117. 맑다
118. 곪다
119. 긁다
120. 얇다
121. (줄칼로)쓸다
122. 읽다
123. 핥다
124. 짧다
125. 놀라다
126. 자다
127. 못하다
128. 모르다
129. 아프다
130. 크다
131. (새끼)꼬다
132. (죽)쑤다
133. 맞추다
134. 데우다
135. (지붕)이다
136. 갈기다
137. 기다리다
138. (힘)세다
139. 떼다
140. (전깃불)켜다
141. (밥이)되다(硬)
142. (일을)쉬다
143. 할퀴다
144. 쉬다
145. 먹다
146. 묶다
147. 믿다
148. 눋다
149. 깨닫다
150. 뱉다
151. (위로)들다
152. 가늘다
153. 다듬다
154. 춥다
155. 마렵다
156. 가깝다
157. (돈)벌다
158. 깊다
159. 긋다
160. 벗다
161. 씻다
162. 낫다
163. 잦다
164. 젊다
165. 좋다
166. 그렇다
167. 갉다
168. 굶다
169. 부끄럽다
170. 닮다
171. 쉽다
172. 싫다
173. 곯다
174. 만나다
175. (물)붓다
176. (가득)차다
177. 타다
178. 마르다
179. (맛이)쓰다
180. 슬프다
181. 기쁘다
182. 모으다
183. (벌이)쏘다
184. 주다
185. 열리다
186. 키우다
187. 가두다
188. 피다
189. 부수다
190. 나누다
191. (얼굴)가리다
192. (햇볕에)말리다
193. 속이다
194. (반지)끼다
195. (풀을)베다
196. (물을)켜다
197. 뛰다
198. (물이)괴다

199. 여위다
200. 결리다
201. 기대다
202. 달래다
203. (방귀)뀌다
204. 꿰다
205. 고치다
206. 녹다
207. 싣다
208. 얻다
209. 뾰족하다
210. 낚다
211. (거짓말에)속다
212. 깎다
213. 붇다
214. (쉬)슬다
215. 그을리다
216. 썰다
217. 빻다
218. 놓다
219. 파랗다
220. 갊다
221. 젊다
222. 다르다
223. 잠그다
224. (물)푸다
225. 뜨다
226. 누다
227. 겨누다
228. 싸우다
229. 거두다
230. (책)이다
231. 끓다
232. 이기다
233. 부시다
234. 자빠지다
235. 일으키다
236. 달이다
237. 당기다
238. (먼저)버리다
239. (가치를)버리다
240. 훔치다
241. (장사가 잘)되다
242. 외다
243. 사귀다
244. 메다
245. 쉬다
246. 섞다
247. (땅이)질다
248. (키로써)까불다
249. 길다
250. 드물다
251. 줄다
252. 심다
253. 쓰다듬다
254. 사납다
255. 덥다
256. 가볍다
257. 갚다
258. 젓다
259. 건너다
260. 무르다
261. 부지르다
262. 권하다
263. 조르다
264. 배우다
265. 치다
266. (다리미)다리다
267. 후비다
268. 아리다
269. 그리다
270. (발이)저리다
271. 불리다
272. 뜨시다
273. 끓이다
274. 꼽기다
275. 누비다
276. 구기다
277. 비다
278. 식히다
279. 떼다
280. 매다
281. (목이)쉬다
282. 뛰다
283. 붙다
284. 된다
285. 담다
286. 엎다
287. 가렵다
288. 어둡다
289. 잡다
290. (공)차다
291. 모자라다
292. (이름)부르다
293. (술)따르다
294. (모이)쪼다
295. 두다
296. 옮기다
297. 시키다
298. (오줌)지리다
299. 던지다
300. 모이다
301. 만지다
302. 입히다
303. 찍다
304. (집에서)살다
305. 끌다
306. 비틀다

307. 돕다
308. 섬다
309. 미끄럽다
310. 땋다
311. (병아리)까다
312. 갸름하다
313. (값이)싸다
314. (등을)누르다
315. 담그다
316. (선이)바르다
317. 꾸부르다
318. 메우다
319. (좋은 것을)가리다
320. 꼬시다
321. 내리다
322. (시험)치다
323. 엉기다
324. 흘리다
325. 그치다
326. 건지다
327. 차리다
328. 남다
329. 무섭다
330. 구울다
331. 만들다
332. 좁다
333. 늙다
334. 옮다
335. 사다
336. (사람을)따르다
337. 치우다
338. 달리다
339. 다치다
340. 부러지다
341. (동작)느리다
342. (나물)무치다
343. (허리)쥐다
344. 팔다
345. 뽑다
346. 늘다
347. 넓다
348. (주머니)뒤지다
349. (입을)벌리다
350. 마치다
351. (소금)절이다
352. 쥐다
353. 줍다
354. 떼앗다
355. 기울다

□ 著者略歷 □

- 慶南 三千浦에서 出生 (1944)
-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國語國文學科 卒業 (1973)
- 서울大學校 大學院에서 文學碩士(1975) 및 文學博士(1982) 學位를 받음
- 現在 嶺南大學校 文科大學 助敎授

〈論 著〉

- 『慶北 東海岸方言 研究』(嶺南大出版部, 1980)
- 「現代國語의 疑問法研究」, 「西南慶南方言의 副詞化接辭 '-아'의 音韻現象」等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1982년 5월 15일 인쇄
1982년 5월 20일 발행

著 者 崔 明 玉
發行人 趙 敬 熙
發行處 嶺南大學校出版部
경북 경산군 경산읍 대동 214-1
T. (직) 8-5159 (교) 8-5111～9
등록 : 1975년9월5일 경산 제16-1호

印刷 慶 北 印 刷 所

〔값 [redacted]원〕

韓榮均學兄惠存

著者 드림